

농촌어메니티 개발에 관한 연구

— 유형별 모형 및 사례 중심으로 —

(사)농산어촌어메니티연구회

머리말

농산물시장의 개방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농업과 농촌의 사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농업인구의 감소, 농업 인력의 고령화, 농지의 점진적 축소, 도농간의 생활 격차 등은 우리 농업이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들입니다.

정부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농업·농촌의 당면과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만, 농업·농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참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개발 활용이 농업·농촌문제 해결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것도 바로 도시민과 농촌주민의 참여속에서 농촌활성화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농산어촌어메니티연구회에 「농촌어메니티개발」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이번에 본 보고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는 「농촌어메니티의 개념」, 「한국농촌어메니티 개발모형 및 사례」, 「농촌어메니티 향상을 위한 생태마을 조성모형」, 「바람직한 농촌어메니티 개발 향상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록으로 농촌어메니티 선진국인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일본 등의 성공사례도 첨부하였습니다.

이 보고서가 농촌어메니티 연구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농촌마을 개발에도 적극 활용되어 우리나라 농촌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번 '농촌어메니티 모델 개발'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사)농산어촌어메니티연구회의 현의송 회장님과 연구보고서 출간을 위해 수고하신 유상오 박사님, 반영운 교수님, 전성군 교수님, 김선희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대산농촌문화재단 이사장 정 태 기

목 차

I.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2
3. 연구범위 및 방법	3

II. 농촌어메니티의 개념 및 이해

1. 농촌어메니티의 정의 및 분류	4
2. 농촌어메니티의 특징	7
3. 농촌어메니티의 가치	8
4. 농촌어메니티 자원개발의 창출전략	15

III. 한국 농촌어메니티 개발모형 및 사례

1. 농촌어메니티 향상을 위한 도농교류의 유형화	27
가. 도농교류의 구성요소	27
나. 도농교류의 유형분류	29
2. 도농교류의 이론적 고찰	32
가. 경제학 관점에서의 이해	32
나. 도농교류의 거래비용	35
다. 도농교류의 사례분석	38
라. 도농교류정책을 통한 농촌어메니티 향상과제	40
3. 농촌어메니티 유형별 모형	43
가. 체험농장	44
나. 주말농장	53
다. 체험학습	58
라. 관광농원	62
마. 농촌민박	66

바. 은퇴농장	75
사. 지역축제	82
아. 자연생태마을	106
자. 전통테마마을	114
4. PBL기법에 의한 마을조직진단 프로그램 및 농촌 조직 활성화 방안.....	121
가. PBL(Problem-Based Learning)이론 모형	121
나. PBL(문제 중심 학습방법)모형의 적용	127
다. 마을진단프로그램에 의한 농촌마을 조직 활성화 방안	172
5. 산학협력형 어메니티 향상모형	181
가.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과 농촌어메니티	181
나. 산학협력형 농촌어메니티 관련 프로그램 모델기획	189
다. 산학협력형 어메니티향상 모형구축	196

IV. 농촌어메니티 향상을 위한 생태마을 조성모형

1. 생태마을 조성의 필요성	203
2. 농촌마을의 현실태 및 문제점	203
3. 생태마을의 개념	204
가. 개념 및 특징	204
나. 생태마을조성의 구성요소 및 기본목표	204
4. 생태마을 조성 정책동향.....	205
가. 친환경적 정주공간 조성·정비 정책	206
나. 친환경 생산 마을 육성 정책	207
다. 마을단위 생태계 보전 장려 정책	207
5. 생태마을 조성계획 수립 및 추진전략	208
가. 마을 유형분류 및 GIS DB화	208
나. 유형별/시스템별 생태마을 조성 계획	210
다. 단계별 사업 추진 구상	214
라. 추진과제	214
마. 생태마을 조성 기대효과	219

6. 시스템별 핵심 적용기술 개발방안	219
가. 자원순환 시스템 : 생수자원과 폐수처리기술	219
나. 생태경제 시스템 : 유기농업 시스템	222
다. 생태에너지 시스템 : 대체에너지 자원과 이용기술	224
라. 생태공간 시스템 : 생태복원(비오톱 조성)과 그린네트워크)	226
마. 생태공동체 시스템	230
바. 생태건축 시스템 : 생태마을 구성과 건축	234
사. 핵심추진과제(적용 가능 모듈 실험 및 적용 과제)	236

V. 결론

1. 바람직한 농촌어메니티개발 향상방안	238
가. PBL기법에 의한 마을조직진단 프로그램 및 농촌 조직 활성화 방안	240
나. 산학협력형 어메니티 향상모형개발	242
다. 생태적 농촌어메니티 향상을 위한 지역생태마을 조성모형개발	243
2. 기대효과	244

〈부록〉 외국의 농촌어메니티 성공사례

1. 일본의 농 · 산촌 그린투어	250
가. 아키타현 요코테	250
나. 니가타(新潟)현 야스즈카마치(安塚町)	252
다. 군마(群馬)현 가타시나(片品)	254
2. 유럽의 그린투어	257
가. 독일의 라인스왈러와 뤼센	257
나. 프랑스의 알사스	266
다. 오스트리아의 티롤 엘마우	271
라. 스위스의 애쉬	275

참고문헌	279
------------	-----

표 목 차

〈표 II-1〉 어메니티 분류	6
〈표 II-2〉 어메니티 가치 예시	13
〈표 II-3〉 농촌어메니티자원 개발의 필요성	16
〈표 II-4〉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요	17
〈표 II-5〉 농촌어메니티 요소 및 창출모델 유형예시.....	21
〈표 II-6〉 OECD국가의 어메니티 활성화 정책유형 및 사례(I)	22
〈표 II-7〉 OECD국가의 어메니티 활성화 정책유형 및 사례(II)	23
〈표 III-1〉 도농교류 공급 측면에서 농촌이 갖추어야할 여건	30
〈표 III-2〉 분류기준에 따른 도농교류의 유형화	31
〈표 III-3〉 농촌관광 모델의 유형	32
〈표 III-4〉 마을단위 개별 및 공동현황	45
〈표 III-5〉 계절별 체험프로그램.....	47
〈표 III-6〉 농촌체험프로그램 이용고객.....	48
〈표 III-7〉 이용고객이 머무는 기간	49
〈표 III-8〉 농산물직거래 실적.....	49
〈표 III-9〉 농가민박 현황.....	49
〈표 III-10〉 시장 동향 및 전망	51
〈표 III-11〉 연도별 주말농장 운영 경과	54
〈표 III-12〉 수익과 비용 분석	55
〈표 III-13〉 이용고객 분석	57
〈표 III-14〉 교촌마을 현황	58
〈표 III-15〉 교촌농촌체험학교 조직체계	59
〈표 III-16〉 주요 시설 현황.....	60
〈표 III-17〉 사업비 내역	60
〈표 III-18〉 주요 체험프로그램	60
〈표 III-19〉 이용료.....	61
〈표 III-20〉 운영 실적	61

〈표 Ⅲ-21〉 직거래 및 방앗간 매출액	62
〈표 Ⅲ-22〉 승산리 현황	63
〈표 Ⅲ-23〉 연간 이용객 추이.....	65
〈표 Ⅲ-24〉 관광농원의 시설투자 내용.....	65
〈표 Ⅲ-25〉 공동시설 유지관리 (월평균)	66
〈표 Ⅲ-26〉 교동마을 현황	67
〈표 Ⅲ-27〉 1995년 마을 조성사업 현황	68
〈표 Ⅲ-28〉 프로그램 내용	70
〈표 Ⅲ-29〉 농가민박 현황	70
〈표 Ⅲ-30〉 연간 이용고객 : 농촌체험고객 + 민박고객	72
〈표 Ⅲ-31〉 방문객이 머무는 기간.....	72
〈표 Ⅲ-32〉 매출액 (농촌체험프로그램과 민박구분)	72
〈표 Ⅲ-33〉 농가민박 매출(식사대 불포함) 및 이용률	72
〈표 Ⅲ-34〉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실적.....	73
〈표 Ⅲ-35〉 음식업(농촌체험프로그램 참여자 비용 1일 3식기준)	73
〈표 Ⅲ-36〉 초기투자 및 유지관리 비용	73
〈표 Ⅲ-37〉 은퇴농장 보증금 및 관리비 현황	78
〈표 Ⅲ-38〉 은퇴농장 연간 매출액 및 순수익 비율	79
〈표 Ⅲ-39〉 은퇴농장 개별 투자 항목 및 비용	80
〈표 Ⅲ-40〉 은퇴농장 유지관리 비용(월평균)	81
〈표 Ⅲ-41〉 축제 프로그램내용	88
〈표 Ⅲ-42〉 홍보 및 마케팅 활동	90
〈표 Ⅲ-43〉 소득 및 고용증대	91
〈표 Ⅲ-44〉 STP표	98
〈표 Ⅲ-45〉 주요 시설 현황	110
〈표 Ⅲ-46〉 사업비 지원 내역	110
〈표 Ⅲ-47〉 방문객이 머무는 기간	113
〈표 Ⅲ-48〉 일반 현황.....	114
〈표 Ⅲ-49〉 공동시설 투자 내역	115
〈표 Ⅲ-50〉 연차별 추진 내용	115

〈표 Ⅲ-51〉 계절별 주요 체험내용	117
〈표 Ⅲ-52〉 매출구성	117
〈표 Ⅲ-53〉 민박사업 시설현황.....	118
〈표 Ⅲ-54〉 주말농장 운영현황.....	118
〈표 Ⅲ-55〉 농특산물 직거래 실적	119
〈표 Ⅲ-56〉 고객수 및 매출액	120
〈표 Ⅲ-57〉 마을가꾸기의 힘을 결정하는 4가지 요인	178
〈표 Ⅲ-58〉 (A)마을의 요인별 분석.....	179
〈표 Ⅲ-59〉 참가자의 속성에 따른 전개	190
〈표 Ⅲ-60〉 세대별(연령별) 추구편의	191
〈표 Ⅳ-1〉 농가 호수 및 농가인구 변화	204
〈표 Ⅳ-2〉 친환경 정주공간 조성 및 정비	206
〈표 Ⅳ-3〉 친환경 생산 마을 육성 정책 현황	207
〈표 Ⅳ-4〉 환경부 자연생태우수마을 및 복원우수사례 개념 및 선정지침	207
〈표 Ⅳ-5〉 마을 유형분류	209
〈표 Ⅳ-6〉 추진여건에 의한 분류.....	209
〈표 Ⅳ-7〉 어메니티의 분류	211
〈표 Ⅳ-8〉 농촌어메니티 자원 분류기준별 추가 자원	212
〈표 Ⅳ-9〉 생태마을 시스템과 어메니티 요소별 상관관계	213
〈표 Ⅳ-10〉 생태마을 시스템별 세부추진과제	215
〈표 Ⅳ-11〉 핵심추진과제(유형에 따른 모형 개발)	217
〈표 Ⅳ-12〉 국외 사례.....	221
〈표 Ⅳ-13〉 친환경 농사법의 종류와 특징	223
〈표 Ⅳ-14〉 재생 가능에너지자원의 경제 사회적 특성 비교	224
〈표 Ⅳ-15〉 영국 EECo가 제시한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별 소규모 발전기의 장단점	225
〈표 Ⅳ-16〉 문당환경농업 마을현황	230
〈표 Ⅳ-17〉 산너울 마을현황.....	231
〈표 Ⅳ-18〉 안솔기 생태마을현황.....	231
〈표 Ⅳ-19〉 Crystal Waters 마을현황	232
〈표 Ⅳ-20〉 Kiel-Hassee 마을현황	233
〈표 Ⅳ-21〉 Eco-House 도입시설물	234

그림 목차

[그림 Ⅱ-1] 어메니티 도입을 통한 삶의 질 개선 효과	10
[그림 Ⅱ-2] 어메니티 가치 분류와 예시	12
[그림 Ⅱ-3]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분류 및 가치	13
[그림 Ⅱ-4] 농촌어메니티의 목표와 척도	14
[그림 Ⅱ-5] 농촌어메니티자원의 활용가치	15
[그림 Ⅱ-6] 어메니티와 결합된 상품의 파생가치 개념도	16
[그림 Ⅲ-1] 도농교류의 구성요소	27
[그림 Ⅲ-2] 도농교류의 대상	29
[그림 Ⅲ-3] 교류의 형태분류([]내는 小國町에서의 사례)	31
[그림 Ⅲ-4] 사업 추진 체계.....	69
[그림 Ⅲ-5] 초기투자 및 관리비용	71
[그림 Ⅲ-6] 2004 사업부문별 매출액	71
[그림 Ⅲ-7] 효석 문화마을	87
[그림 Ⅲ-8] 함평나비축제의 경제적 성과.....	95
[그림 Ⅲ-9] 지역 인식 평가.....	95
[그림 Ⅲ-10] perceptual map(인식지도)	99
[그림 Ⅲ-11] 함평나비대축제 행사장 배치도	101
[그림 Ⅲ-12] 너와마을 위치도 및 전경	106
[그림 Ⅲ-13] 중요민속자료 제33호 너와집	107
[그림 Ⅲ-14] 마을정보센터 및 정보화 교육	108
[그림 Ⅲ-15] 너와펜션 외부, 내부 및 공동 숙박단지 전경.....	108
[그림 Ⅲ-16] 토종동물 학습장 및 디딜방아	109
[그림 Ⅲ-17] 봄·여름 체험학습	111
[그림 Ⅲ-18] 가을·겨울 체험학습	111
[그림 Ⅲ-19] 자매결연 체결 기념비.....	112
[그림 Ⅲ-20] 사업내용	116
[그림 Ⅲ-21] 8거리 개발 평가시스템	175

[그림 Ⅲ-22] 8거리 내용 조사결과 현재 보유수준	180
[그림 Ⅳ-1] 생태마을 조성의 기본 목표	205
[그림 Ⅳ-2] 생태마을 조성 모형	205
[그림 Ⅳ-3] 생태마을 관련 정책의 세 영역	206
[그림 Ⅳ-4] 생태적 농촌어메니티 모형 기본방향 제시	210
[그림 Ⅳ-5] Big Flat Meadow/Cottonwood Creek	226

I.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 농촌의 사정은 그야말로 위기라 할 만큼 어렵다.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는 이러한 사정이 크게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장담할 수 없다. 수입개방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경쟁력이 낮은 농업문제의 해결은 중요한 정책과제이며, 양극화와 노령화 문제의 극단에 있는 농촌문제의 해결은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농업농촌종합대책>과 <농업인 삶의 질 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나, 농업 농촌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우리 농촌의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가능성을 농촌어메니티 자원에서 찾아보려고 한다. 마침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식 제고, 여가시간의 증대 및 수요의 다양화 등이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여가를 통한 농촌 활성화에는 다양한 기대가 포함되어있다. 농외소득 증대에 대한 기대,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 그리고 도농간의 교류에서 비롯되는 주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 제고에 대한 기대 등이다. 문제는 실제 농촌에서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농촌 주민의 농촌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농촌에 대한 막연한 동경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도시 주민의 여가에 대한 기대의 접점을 찾는 일이다. 이것이 우리 농촌어메니티자원 활용의 모델을 만드는 출발이며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이 모두가 농촌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농촌 주민의 기대나 도시 주민의 기대를 모두 충족시키면서, 어메니티 향상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농촌 주민이 주체가 되어 농촌다움의 자원을 가지고 양방향적·반복적·지속적인 도농교류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농촌어메니티 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은 사람의 문제, 자원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며, 농촌 지역사회를 둘러싼 여러 행위자들의 역할 분담에 토대를 두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이유는 단지 농촌의 부존자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내발적 지역개발의 차원뿐만 아니라, 이것이 예산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지속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가장 막강한 통합적 지역개발의 수단이라는 점 때문이다.

한편 '생활공동체' 인 농촌에 정부의 농촌관광 사업지원 같은 '경제공동체' 가 들어감으로써 농촌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촌체험, 농촌어메니티이라는 단어가 생겼고, 농촌체험, 농촌어메니티에서 '교육'으로 한 걸음 더 옮기기 위한 노력들도 간간이 눈에 띈다. 농장도 이제는 단순한 체험활동을 넘어서 농촌을 찾은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살아 있는 배움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비추어진다.

즉, 다양한 식물의 재배과정과 자연의 순환,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의 지혜, 옛 전통문화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갖고 있는 농업인들의 이야기와,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아이들 스스로 개념과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을 실천한다는 것이다.

농산어촌 어메니티자원의 모델 활용 및 유형연구는 향후 FTA, DDA 등 우리나라의 어려운 농업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다. 어메니티 자원 활용의 필요성은 급변하는 국제경제 속에서 국민들에게 우리농촌을 지키고, 알릴 가치 확보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도시소비자와 NGO, 지자체, 농민, 정부가 함께 나서야 농촌과 농업을 지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도시민과 더불어 농촌어메니티를 지키며 농업이 가진 다원적 가치를 도시와 농촌주민이 발굴, 유지, 발전시키면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 방안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어메니티자원의 유형화와 각각 자원의 특성을 발굴 존중해야 한다.

2. 연구목적

연구목적은 농촌어메니티자원을 활용유형을 분석해 농산어촌별로 특성을 찾는 것이다. 즉, 2002년부터 어메니티에 관한 다양한 연구 중 유형화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지역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대표 지역별로 고찰하겠다.

또한 도시민들이 즐겨 찾는 특정 지역에 대하여 농산촌별로 구분하고 이것을 산업, 역사, 문화 등 프로그램별로 사업추진 내용에 대한 유형별 모델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

로 농촌경관에 대한 한국적인 모델을 검토하고 농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마을의 특성에 따른 생태시스템별 마을구성모델 개발을 정립하도록 하겠다.

결론적으로 한국형 어메니티 모델의 도입필요성과 정책적 제언이 필요한지를 서술하겠다. 이것은 다른 시각에서의 도농교류사업 효과와 문제점을 적시하고 향후 실용화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3.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농촌어메니티개발과 관련하여 유형별 모형 및 사례연구중심으로 기술하였는바, 지역경제활성화에 성공한 지역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해 선진지의 모범사례와 성공요인을 탐구하였으며, 농촌어메니티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전략 모형을 수립해봄으로써 실용화에 역점을 두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체계적인 전략연구에 초점을 맞췄다.

첫째, 농촌어메니티의 개념정립과 이해를 고찰하고, 둘째, 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산촌종합개발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의 대표적인 자연활용도가 높은 마을중심으로 농촌어메니티 유형별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문제 중심 학습방법(PBL)모형에 의한 농촌마을조직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아울러 단순한 체험활동을 넘어 교육농장활성화 대책방안의 하나로 산학협력형 어메니티 향상모형을 정립하고자 한다. 셋째, 농촌문제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마을특성에 따른 생태시스템별 마을구성모형을 고찰하겠다.

II. 농촌어메니티의 개념 및 이해

1. 농촌어메니티의 정의 및 분류

가. 정의개념

어메니티의 개념과 사상은 넓고도 깊다. 어메니티(Amenity)의 의미는 라틴어의 amoentitas(pleasant: 쾌적함, 즐거움)으로 해석되는데, 잘 알려진 어메니티의 개념은 ‘쾌적환경’, ‘사는 느낌이 좋음’, ‘종합적인 삶의 쾌적함’, ‘생활환경의 질’, ‘~다움’, ‘매력’, ‘여유’, ‘좋은 인간관계’ 등 번역어로 무려 80 여가지가 넘는다.

영국의 도시계획자인 홀포드(William Holford)는 어메니티는 단순히 하나의 성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가치를 지닌 총체적인 쾌적한 상태, 즉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the right thing in the right place)’으로 정의하고 있다.¹⁾ 사카이젠이치(酒井憲一)는 모든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과 사회, 자연환경을 만들어 나가자는 사랑과 생명이 담긴 환경운동으로 정의하고 있다.²⁾

우리나라 농림부(2002)에서는 환경을 구성하는 자연, 문화, 시설 등이 서로 공생과 조화가 취해짐으로써 이들과 인간 사이에 진정한 조화가 유지되는 경우에 생기는 감각, 효과로 정의하고 있다. 경제개발기구(OECD)에서는 어메니티를 단순히 ‘쾌적한 환경’이라는 의미보다는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요소들로서 ‘사회구성원에게 휴양적, 심미적 가치를 제공하는 자원’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이미 지난 1970년대부터 어메니티를 지역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으로 강조하고 있다.³⁾

OECD(1999)의 ‘어메니티와 지역개발(*Cultivating rural amenities: an economic development*)’에서는 “농촌지역은 풍부하고 다양한 어메니티들의 근원지

1) J.B. Cullingworth, 1964, Town & Country in England & Wales

2) 사카이 겐이치(酒井憲一)지음, 김승환감수, 김해창 옮김, 1998, 환경을 넘어서는 실천사상 어메니티, 도서출판 따님

3) 김정섭·오현석 역, 2002, 어메니티와 지역개발, 새물결, p.21

이다. 순수한 야생지(wilderness)에서부터 주의 깊게 관리되는 경관에 이르기까지, 고대의 역사 유적에서부터 지금도 살아 숨쉬는 문화적 전통에 이르기까지 어메니티의 범위는 매우 넓다. 그리고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도시인들이 농촌에서 어메니티를 향유할 수 있는 시간과 돈이 많아지면서 이들 어메니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자연과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도시보다 경제발전이 뒤쳐진 농촌 지역들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마련되고 있다”⁴⁾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OECD에서는 농촌어메니티를 한편으로는 보호하고 발전시켜야할 자산으로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촌개발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서 인식하고 있다. OECD(1999) 보고서는 농촌어메니티란 “야생지, 경작지 경관, 역사적 기념물, 문화적 전통을 포함해 자연적인 것이든 인위적인 것이든 농촌 지역에 광범하게 존재하는 모습들(features)”이라고 정의하고, 농촌어메니티의 기본성격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① 농촌어메니티는 독특한 자연적 인위적 모습들이다. ② 농촌어메니티는 즐거움이나 쾌적함을 제공하는 것과 연관된 가치 또는 효용을 지닌다. ③ 농촌어메니티의 가치나 효용은 생산적 가치보다는 소비자 가치와 관련되어 있다.

종합해 보면 농촌어메니티는 ‘농촌지역 특유의 녹이 풍부한 자연, 역사, 풍토 등을 기반으로 하여 여유, 정감, 평온이 가득하고 사람과 사람의 접촉에 바탕을 둔 정주 쾌적성을 갖는 상황’으로 정의할 수 있다.

농촌어메니티 자원은 ‘농촌에 존재하는 특정적인 환경과 공동체적 요소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농촌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는 요소이면서도 각 구성원에게 휴양적, 심미적, 더 나아가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원⁵⁾ 또는 야생, 경작과 관련된 경관, 역사적 기념물, 문화적 전통 등을 포함하는 농촌지역의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인 모든 것으로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들 가치로부터 개인,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전체가 효용을 창출하여 농촌지역사회발전에 중요한 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⁶⁾

4) OECD(1999), 오현석, 김정섭 옮김(2002) p.15

5) 이상문, 2001, 농촌어메니티 자원화 및 산업화 계획, 농촌계획론

6) OECD, 1999, Cultivating rural amenities: an economic development perspective 김성학, 2006,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경관적 활용, 한국학수정보(주), 현대경관을 보는 열두가지 시선

나. 분류기준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분류는 다양하다.

농촌진흥청(2004)에서는 자연자원, 문화자원, 사회자원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환경자원, 생태자원, 역사자원, 경관자원, 시설자원, 경제활동자원, 공동체 활동자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 II-1〉 어메니티 분류

구 분		종 류
자연 자원	환경 자원	-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소음없는 정온한 환경 - 비옥한 토양, 미기후, 특이 지형
	생태 자원	- 동물, 식생(천연기념물, 보호종·희귀종, 보호수, 마을숲 등) - 수자원(하천, 저수지, 지하수 등), 습지
문화 자원	역사 자원	- 전통건축물(문화재, 정자, 사당 등) - 전통주택 및 마을의 전통적인 요소 - 풍수지리나 전설(마을유래, 설화 등)
	경관 자원	- 농업경관(다락논, 마을평야, 밭, 과수원 등) - 하천경관(하천흐름, 식생 등) - 산림경관(산세, 배후 구릉지 등) - 주거지경관(건축미, 주거지 스카이라인 등)
사회 자원	시설 자원	- 공동생활시설, 기반시설, 공공편익시설 등 - 농업시설(공동창고, 공동작업장, 집하장, 관정농로 등)
	경제활동자원	- 도농교류활동(관광농원, 휴양단지, 민박 등) - 특산물(유기농산물, 특산가공품 등)
	공동체활동자원	- 공동체 활동, 씨족행사, 마을문화활동, 명절놀이, 홍보활동등

자료: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4

OECD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농촌에 산재하는 정주패턴, 생물종다양성, 역사적 건축물, 농촌 공동체 등의 자원을 농촌어메니티 자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어메니티가 지닌 강한 속지성 때문에 국가, 또는 지역마다 자원의 내용은 상이할 수밖에 없다.

2. 농촌어메니티의 특징

농촌어메니티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 지역고유재

농촌어메니티는 효용과 아름다움의 가치이며, 각각의 농촌공간에 속해 있다. 또 아름다움의 가치는 그림이나 사진 및 영상에 의해서도 향수 할 수 있는데, 농촌어메니티를 직접 이용하는 가치는 그 공간에 거주하거나 방문하지 않으면 향수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지역 고유재이다. 농촌어메니티의 가치는 최종적으로 토지소유자에 귀속된다.

나. 공공재

농촌어메니티의 가치에는 비배제성과 비독점성이 있다. 따라서 누구나 그 공간을 방문할 수 있으며, 그 일부를 소유할 수 있는데, 누구나 이 공간을 완전히 점유할 수는 없다. 이런 차원에서 농촌어메니티는 공공재이며,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

다. 요소의 양 · 질 · 배치

농촌어메니티는 시장가격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을 포함하는 농촌환경의 모든 것으로서, 자연환경, 역사적 환경, 농촌가옥과 가로, 농촌풍경, 지역문화, 지역공공서비스와 친절성, 교통의 편리성, 안전, 안심 등 농촌을 구성하는 요소(그 양과 질)와 함께 공간적 배치 등을 종합화한 가치이다. 특히 농촌환경 등이 어디에 위치하고 어떻게 배치되어 있으며, 각 요소들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가에 대해 농촌어메니티 가치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 산청의 남사마을(예담촌)의 전통고가, 서원, 정자, 마을안길, 돌담길, 300년된 회화나무 등이 적절히 배치되어 시장가격으로 평가될 수 없지만 이들 지역의 역사 문화적 가치와 환경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

라. 사회자본

농촌어메니티는 자연환경, 역사적 환경, 풍경, 지역문화, 지역공동체, 안전 등의 농촌을 구성하는 요소와 이들의 공간적 배치를 종합화한 사회자본이다. 농촌에 터전을 두고 살아오고 있는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이 그 지역의 자연환경, 역사환경, 사회환경속에서 끊임없는 환경의 질과 공간의 질 개선에 대한 욕구와 노력의 소산으로 보전·관리해오고 있는 ‘天·地·人 조화’의 산물이다. 농촌어메니티는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 개개인의 인적 능력과 노력, 그리고 관계 등이 중요한 요소이다.

마. 다목적 가치

농촌어메니티 자원은 대부분 자연환경에 근원하고 있는데, 모든 자연자원이 그 자체로서 어메니티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어메니티는 자연환경의 유익성으로서, 어떤 지역에서만 가치를 가지는 심미적이고 레크레이션적인 특성과 관계가 있다. 따라서 농촌어메니티 자원은 독특한 자연적, 인공적 양상으로 즐거움이나 기쁨을 제공하는 유익성을 갖고 있으며, 이들 가치나 유익성은 생산보다는 소비자와 연계되어 있는 속성이 있다.

따라서 농촌어메니티 자원은 소비자에게 즐거움이나 기쁨을 제공하는 가치나 유익성에 의해 효용을 창출할 수 있을 때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체험적 요소로서의 경관으로 주로 표출되기도 한다. 고창의 청보리밭 축제, 함평의 나비 축제, 남해의 다락논 체험, 영광의 염전체험, 후릿그물체험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3. 농촌어메니티의 가치

가. 어메니티와 ‘삶의 질’ 개선 효과

농촌어메니티는 지역교유의 소재와 지혜, 역사를 활성화한 생활문화로서 그 가치가 있다. 어메니티가 있는 지역의 문화와 역사, 기후조건 등은 지역마다 다른 것이고 지역

고유성에 깊이 뿌리를 둔 감성 등도 어메니티이다. 지역에 있어서는 흔히 있는 소재 및 풍경, 디자인 및 기능이 다른 곳에는 없는 독특한 개성으로서 중요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남해 다락논은 고유의 자연생태계와 역사와 문화, 정서가 융합된 지역고유의 어메니티 자원인데, 다락논을 다락논답게 보전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수백억, 수천억 원의 가치를 갖는 것이다.⁷⁾

지역고유의 자원은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생성하는 귀중한 자원이고 자산의 하나이다. 이러한 감성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공동적인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세계 최고, 세계 최초(Number one)가 아니라, 세계 유일(Only one)을 목표로 하는 것에 합의를 얻어야만 한다. 스스로 지역의 Only one을 찾고자 하는 노력과 지역생활에 대해 전향적인 비전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고유의 전원풍경, 가옥, 야산, 들녘 등은 중요한 가치를 갖는 어메니티 자원이다.⁸⁾ 또한 근대화유산인 수도시설, 발전소, 철도시설, 농업창고 등 문화재와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근대의 공장시설 및 토목구조물까지 지역고유의 자산으로 보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199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기후(岐阜)현의 시라가와(白川)촌의 합장가옥은 고유한 가옥형태와 주변경관으로 가장 일본다운 농산촌의 원풍경을 보전함으로써, 어메니티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2006년 현재 이 마을의 인구는 1882명이지만, 세계 각지에서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은 144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점점 사라져 가는 이들 합장가옥을 보존하기 위해 1971년 ‘白川郷萩町集落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모임’을 구성하고 1976년 ‘국가전통건축물군보존지구’를 지정한 바 있다. 그 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3년에는 ‘白川村경관조례’ 등을 제정하여 건축물의 증개축의 사전신고, 대규모개발(택지의 경우, 0.1ha이상)에 대한 협정체결, 건축물의 형태와 디자인, 색채 등의 협정 등을 통해 주민과 행정의 긴밀히 협력하여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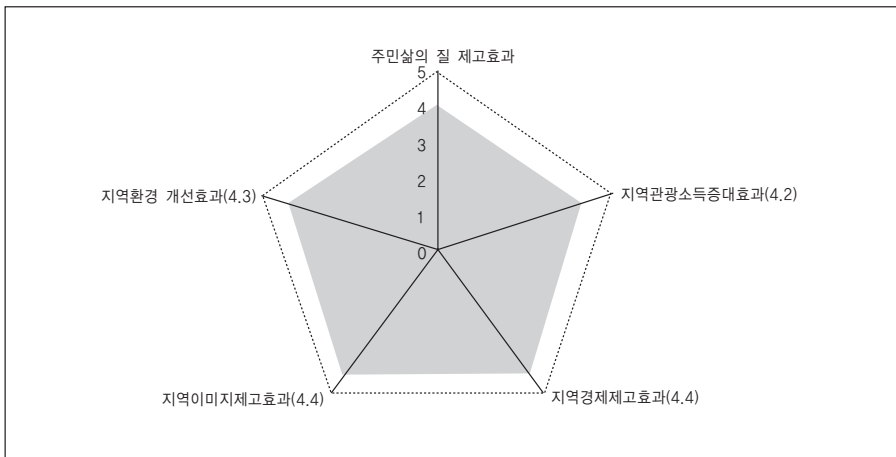
7) 매년 다락논을 찾는 탐방객수 기준으로 보면, 수백억원을 들여 거대하게 건립하는 문예회관 이용객수의 3~5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그 가치는 더욱 크고, 의미있는 것임

8) 일본에서는 1999년부터 농경지를 국가명승지로 지정관리하고 있고(長野縣更埴市, 石川縣輪島市 白米의 千放田 등), 고베시에서는 조례제정을 통해 농촌지역의 가옥, 야산, 농경지 등을 보전하는 마을만들기를 추진

역의 경관을 보전해 가고 있다. 특히 점적(点的)인 자원이 합장가옥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농지 및 수로, 돌담길 등 집락전체의 면적(面的) 자원 보존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이들 농지 및 수로, 돌담길 등의 자원 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적 가치를 명확히 하는 조사사업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주민이 자신들의 거리, 주거지, 활동 공간 등 모든 공공공간의 질을 높이고 보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는 것은 어메니티 조성의 전제조건이다. ‘삶의 질’과 함께 ‘공간의 질’은 주민의 생존과 쾌적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이고, 생활과 경제의 기반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어메니티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환경·자원보존 효과, 문화 창출효과 등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국토연구원, 2007).



자료: 국토연구원, 2007, 시장·군수·구청장 설문조사

〈그림 II-1〉 어메니티 도입을 통한 삶의 질 개선 효과

현대는 ‘위기사회(risk society)’로 불리어지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산업기술과 정보기술의 출현으로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다양한 환경파괴와 재해 등 위험성에 늘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주민들은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존조건을 확충하면서, 사람들의 자기실현에 보다 어울리는 쾌적한 지역사회, 즉 생활과 어메니티의 공공공간을

형성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⁹⁾

따라서 국가 및 지역사회는 그들의 생활과 어메니티를 확보하고 그 조건과 상태를 개선해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사람들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토지와 그것에 고착된 환경은 지역의 고유재로서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 향수할 수 없는 어메니티의 원천이다. 유럽에서는 어메니티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차지하는 비중을 경제 가치로 평가하여 이를 농가소득의 40~60%까지 직접지원(direct payment) 하고 있다.¹⁰⁾

나. 농촌어메니티의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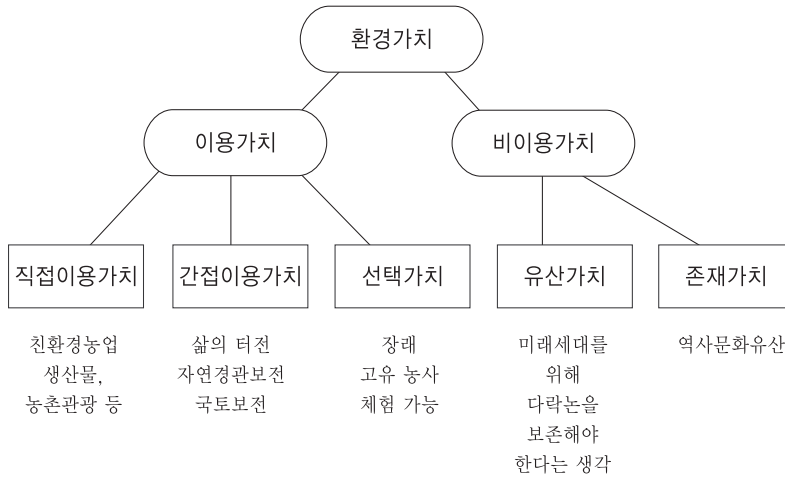
농촌어메니티는 자원 자체가 지니는 특징으로 인해, 이용가치, 선택가치, 존재가치, 유산가치 등 다원적 가치적 속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용가치(use value)는 어메니티가 위치한 장소에 거주하거나 방문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치이다. 선택가치(option value)는 장래에 어메니티를 방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치이다. 존재가치(existence value)는 단순히 어메니티가 존재함을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치이다. 아름다운 논과 밭, 산과 하천, 해안과 항만, 호수 혹은 기타 자연자원은 모두 자발적으로 이용하지 않아도 그곳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준다. 이는 과거 30년 동안 경제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가치이다. 유산가치(bequest value)는 어메니티를 미래세대에 전승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치로서,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농촌어메니티는 유형과 분류에 따라 비시장재적 속성을 가질 수도 있으며, 넓게는 시장재적 속성을 지닐 수도 있다. 어떤 어메니티는 시장재적 속성을 갖고 있어, 일정의 화폐를 지불하고 향유할 수 있는 반면, 비시장재적 속성도 있어 화폐 지불없이 향유가 가능하다. 어메니티가 갖는 외부효과와 공공재 성격이 중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프

9) 통계청 사회통계조사('05.11)에 의하면 국민이 느끼는 3대불안요인은 먹거리, 노후, 범죄로 나타나고 있으며, KDI 경제정보센터('06.1)에 의하면 국민의 26.7%가 풍요롭고 안전한 사회를 미래국가상으로 응답함

10) 김성훈, 2006.8, 녹색어메니티의 창출과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국토연구원, 국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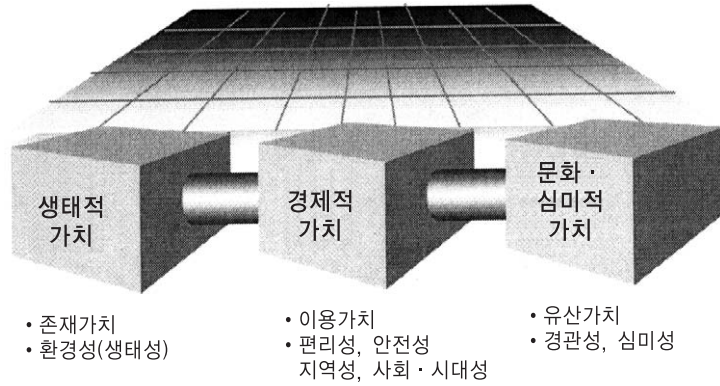
주 : 하단의 내용은 남해 가천 다랭이 마을 다락논의 어메니티 가치를 예로 제시한 것임
 자료 : Turne, et al. 1994, Environment Economics

〈그림 II-2〉 어메니티 가치 분류와 예시

랑스 남부지방의 농촌경관은 포도농업에 의해 형성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지며, 농촌의 돌담과 산울타리 등의 농촌어메니티는 어떠한 농업생산의 부산물이 아니면서, 만들어지고 유지될 수 있다.

농촌어메니티는 그 자원이 갖는 속성에 의해 환경·생태적 가치, 경제적 가치, 문화·심미적 가치를 지닌다. 농촌어메니티는 존재 자체로 생태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농지의 경우, 농지가 가는 생태적 다양성 및 경관기능, 홍수조절 기능, 심미적 기능 등으로 인해 다면적 가치를 갖는다. 또한 농촌어메니티는 이용 및 개발, 보전과 관리를 통하여 경제적 가치를 발현 증대시킨다. 어메니티가 위치하는 장소에 거주 및 방문함으로써 가치를 향유할 수 있으며, 특정 어메니티를 기초로 하여 상품화나 인위적인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가치 극대화가 가능하다. 농촌어메니티는 문화·심미적 가치도 갖는다. 자연환경 및 문화적 자원이 갖는 심미적 가치를 가지며, 이들은 미래세대에 전승되는 유산적 가치도 보유하게 된다.

농촌어메니티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메니티의 보존과 개발이라는 대립적 시각을 극복하여, 영자가 조화를 이루는 ‘농촌의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시각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어메니티 자원의 보존 및 개발에 대한 사회적 합의 구축을 위해 과학적이고 설



〈그림 II-3〉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분류 및 가치

득력있는 어메니티 보존 및 개발에 의한 편익과 비용 측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지역별, 유형별로 발굴·분류하고, 각종 과학적 기술을 이용하여 국토어메니티 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이를 토대로 보존되어야 할 어메니티 자원과 개발할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이러한 정보가 지역계획이나 개발에 반영되어 지역의 부가가치 창출 및 제공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 현재까지 조사된 어메니티 가치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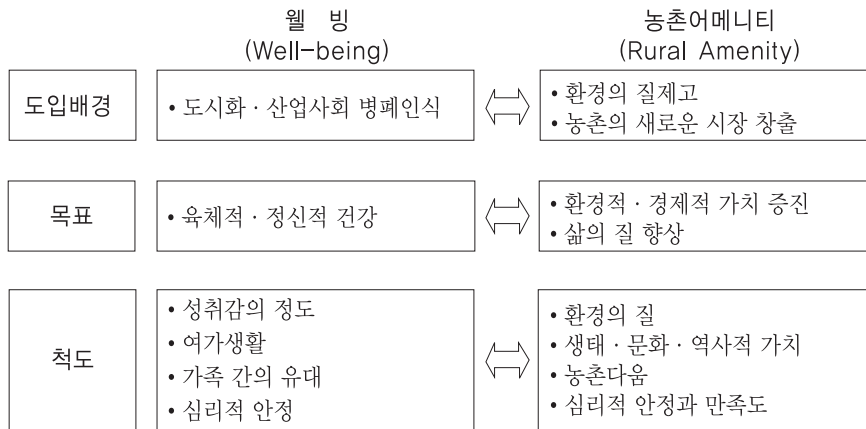
〈표 II-2〉 어메니티 가치 예시

구 분		어메니티 가치	가치 측정방법	연구자
미국	산림생태계	\$22.86 (1인당 지불의사 기준)	조건부가치측정법	Holmes & Kramer (1993)
	습지보전	\$5~\$17 (1인당 지불의사 기준)	조건부가치측정법	Whitenhead & Blomquist(1991)
일본	중산간 농경지	연간 4억엔	조건부가치측정법	伸保, 淺野, 嘉田(1993)
한국	수도권 그린벨트지역의 보전	연간 8만 9,150원/인	조건부가치측정법	이준구, 신영철(2000)
	제주 돌담	연간 4,371억원	조건부가치측정법	이상영(2007)

자료: 김선희 등, 국토개발사업의 환경가치평가기준 및 적용에 관한 연구(2004)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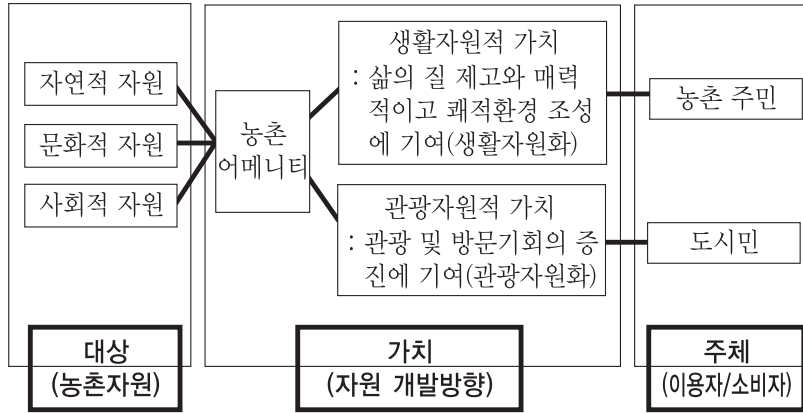
다.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활용가치

농촌에 있어서 어메니티 활용 가치 증대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면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웰빙에 대한 수요 증대와 생활의식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둘째는 생활환경의 개선과 국토보전 의식 등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지난 20세기에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원이용을 추진하느냐가 중요시되었으나 오늘날은 자원의 유한성과 환경보전의 시점이 중시되면서 환경의 질 향상 및 국토보전, 생태·문화·역사적 가치의 중시, 농촌다움, 심리적 안정과 만족도 등이 중시되면서 어메니티에 대한 수요와 활용이 증대되고 있다.



〈그림 II-4〉 농촌어메니티의 목표와 척도

지역경제의 진흥과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아름다운 농촌 가꾸기 등과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농촌어메니티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농림지의 적정 이용의 촉진과 지역 특산물 개발 등에 의한 지방경제의 진흥, 강과 하천, 호수와 저습지 등의 환경 활용의 촉진에 의한 지역 진흥 가능성의 확대, 지역 내 인재의 다면적인 활용 기회의 확대와 자연 발생적 창조력 발휘에 의한 지역발전, 농촌 지역 및 그 지속문화의 이해 침투와 국토 보전 의식의 개선, 도시·농촌의 일체적 제휴의 확립에 의한 다면적 파급효과의 발현 등이 통합적으로 검토되고 논의되고 있다.



〈그림 II-5〉 농촌어메니티자원의 활용가치

4. 농촌어메니티 자원개발의 창출전략

가. 농촌어메니티 자원개발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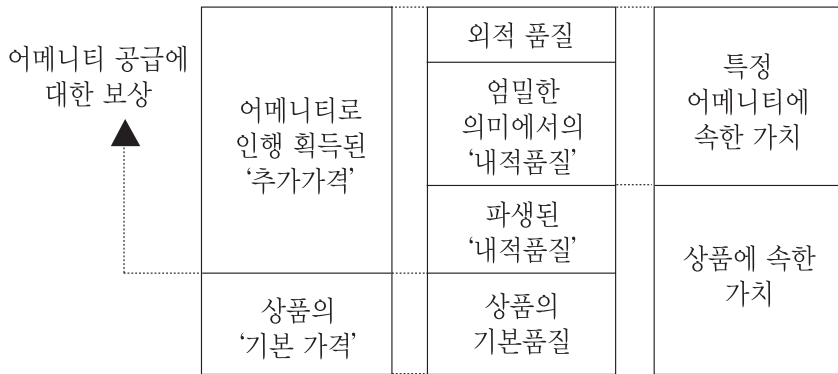
농촌의 어메니티 자원 개발의 필요성은 2000년 들어서부터 진행되고 있는 DDA 대응차원의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민의 삶의 질 개선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어메니티 자원 개발과 활성화 전략에서 찾을 수 있다.

1990년대 일반화된 국제농업시장 개방에 대응하는 다원적 기능제고 정책과는 달리 농촌어메니티 활용정책은 인간과 환경의 공존 시각을 유지하면서 농촌 내부의 신성장 동력원의 개발과 지속적인 파생가치의 유도를 통해 내생적 지역개발을 꾀 하고자 하는 논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기존 농촌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그 지역의 어메니티 자원을 보전하고 경제재원화하여 지역성을 브랜드화함으로써, 그 상품의 파생적인 가치를 높이고 농촌 내부의 신성장 동력원을 개발하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표 II-3〉 농촌어메니티자원 개발의 필요성

구분	다원적 기능	어메니티
개념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일반화 • 국제농업시장 개방에 대응, 농산품의 비교역기능(NTC)에서 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대 이후 농촌에 개념도입 • 산업혁명 이후 도시 공중위생 및 보건 환경의 질을 개선에서 출발
경제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경제로서 비시장가치재로 존재 • 기존 농촌산업의 존치 논리 • 직접지불제의 배경 논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시장가치재와 시장가치재 • 산업, 상품, 시장논리 접근 가능 • 농촌 내부의 신성장동력원 개발의 논리 • 지속적인 파생가치 유도 • 내생적 지역개발 논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중심적 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과 환경의 공존 시각 유지



〈그림 II-6〉 어메니티와 결합된 상품의 파생가치 개념도

나. 농촌어메니티의 창출전략

농촌어메니티 개발을 위한 정책수요를 조사한 결과 〈표 II-4〉와 같이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이들 중 대표적인 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메니티 수요를 담은 농촌 계획 및 지역개발제도의 개혁

국민들의 사회의식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 주5일제 시행으로 여가와 웰빙에 대한

〈표 II-4〉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요

구 분	국토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활성화에 대한 정책수요
정부주도하의 체계적인 개발 및 재정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적인 틀에서 특성화된 자원, 예산지원에 대한 연구필요 • 정부의 강력한 정책하의 자치단체별 어메니티 사업의 의무화 및 매년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차등제공 •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지방의 자원발굴을 활성화 • 어메니티 가치증진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직접지불보조금제) • 지방정부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재정적 지원이 필요
주민의견이 반영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어메니티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에서 정책적 과제로 선정하여 주민 의견이 반영된 개발이루어지도록 함 • 공동체 알기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이 실제로 느끼는 지역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 • 지역공동체문화형성하면서 농촌어메니티 자원 활용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 개발
적극적인 지역자원 발굴 모델개발 및 지역브랜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어메니티 자원발굴 • 삶의 질과 관련한 도시환경, 생활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 어메니티자원을 활용한 상업적 가치향상(관련 상품 개발지원) • 해양부문 어메니티 자원 발굴의 필요성 • 지자체별 어메니티 자원 발굴 통한 균형발전 도모 • 지역 어메니티 향상 위한 주변 환경을 가꿀 필요가 있음 • 체계적인 국토 어메니티 자원 발굴 필요 • 지역성 갖춘 지역브랜드로 활용 • 어메니티 자원 발굴 모델을 개발하여 지자체에 보급
어메니티 자원의 보존·개발 측면에서의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환경보전 위한 예산확대의 필요성 • 생태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전략 필요 •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는 개발 필요 • 환경문제 해결 위한 국토 어메니티 발굴 필요함 • 자연환경 어메니티 자원발굴에 중점을 두어 관광인프라 구축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인구 고령화를 감안한 지역사무장제도 적극적 도입 • 농촌고령화를 감안한 소득창출방안 마련 • 도시민의 쉼터가 되면서 농가의 소득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 • 정적인 관광계획에서 동적이 관광계획으로의 전환 필요 • 친환경공간 창조 • 주민의식개혁제고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촌의 아름다운 자연, 긴 역사와 전통, 우수한 문화와 예술 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날 것이다. 농촌관광객은 2001년 3천만명에서 2011년 1억5천명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경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 계획 및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전환과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립적 발전 등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형성이 요구되고 있고, 개발기조하에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존의 계획기조를 농촌의 질적향상 즉 어메니티 도모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계획기조로 전환해야 한다.

새로운 개발과 SOC시설 확충보다는 시설의 유효이용과 적절한 유지관리보전, 환경보전 및 양호한 경관조성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미 이러한 정책전환은 국토종합계획 및 정책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농촌 계획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체계화되고 있지 않다. 농업·농촌살리기를 위한 각종 농업투융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테마관광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 시설확충중심, 토목사업위주의 하드웨어적, 기능적 대책에 치중해 왔다. 농촌대책 따로, 도시대책 따로, 지역 및 국토관리대책 따로 추진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커지고,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어메니티를 상실해 왔다.

국민소득 3만~5만달러 시대에 대비하면서 ‘인구감소·고령화’ ‘국경을 초월하는 지역 간 경쟁’, ‘환경문제의 현재화’ ‘재정제약’ ‘중앙의존의 한계’라고 하는 국토전반에 걸친 새로운 시대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농촌 계획 및 지역 개발 패러다임을 전반적으로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지역계획과 농촌계획이 유기적으로 계획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전략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지역의 재발견으로부터 어메니티 계획입안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의 핵심은 ‘개성있는 지역만들기’에서 출발한다. 이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개성이 무엇인가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는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지역고유제가 발견되어도 그것이 문자 그대로 지역

고유한 귀중한 어메니티자원이 되는 것을 공통의식으로 승화시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이를 위해 지역재발전을 주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계획입안단계부터 다양한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의 어메니티 전체상을 정하고, 지역고유자원, 어메니티 자원을 발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¹¹⁾

어메니티자원은 신규개발보다는 기존의 시설과 자원을 재발굴하고 복원·창조·융합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환경·문화를 중시하는 ‘인간중심의 지역, 마을되살리기 전략’도 어메니티 자원이다.

생활 및 어메니티 상태를 크게 변화시키는 것은 토목사업중심의 대규모 산업 및 지역 개발사업이다. 근시안적으로 경제성 중심의 무분별한 개발사업 추진은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고, 생활과 어메니티를 위협한다. 생활과 어메니티를 위협하는 과정은 동시에 커뮤니티의 해체과정과 일치한다. 생활과 어메니티를 위협하는 원인을 억제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하는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은 가족과 지역의 커뮤니티를 재건해 가는 과정이다.

어메니티자원의 가치가 주민의 공동자산으로 상호인식되면 지역계획의 내용은 양적 개발보다 질적향상쪽으로 더욱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¹²⁾ 이는 성숙형사회,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조성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3) 어메니티 요소개발과 창출모델 개발

어메니티 발굴과 창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와 농촌지역의 어메니티 요소 개발이 중앙정부차원에서 시민단체 차원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정부차원의 요소개발과 창출모델사업은 행정시책상 예산과 조직, 제도 측면에서 한계가 있고, 획일화 될 우려가 있다.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추진되고, 통일규격에

11) 최근 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마을사람들이 모여 쓴 마을공동체 이야기들이 출판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구림마을사람들이 쓴 ‘비둘기숲에 깃든 공동체 호남명촌 구림(2006)’ 등이 있다.

12) 환경농업마을로 유명한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는 ‘오리농법’을 지역고유자원, 어메니티 자원으로 하여 ‘단순히 경제적으로 잘사는 문당리가 아니라, 자연과 조화되는 마음 넉넉한 두레공동체 문당리 발전을 위한 100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의한 효율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계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어메니티 개발은 ‘어메니티자원의 발굴’, ‘공간의 결합’, ‘문화와 브랜드 창조’ 등을 핵심으로 도시, 농산촌, 어촌, 주요관광지 및 SOC 시설주변 등 지역별·시설별로 다양한 주체에 의해 개성있게 창출되어야 한다. 지역의 건축물, 간판, 자전거보관대, 쓰레기통에 이르기 까지 공공디자인도 어메니티 개념에서 정비되어야 한다. 고추장으로 특화된 순창의 경우, 공공유원지 및 공간에 고추장 단지를 공공디자인화하여 지역 브랜드를 확실히 하고, 주변 환경도 일체감있게 정리하는 것은 좋은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어메니티 요소의 개발은 지역의 사회문화기반과 환경보전 등을 토대로 지역의 정체성과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유·무형의 고유재일수록 효과적이다. 이처럼 공간의 질은 자연적 환경의 질과 인공적 환경의 질이 결합된 주요 어메니티 자원이다. 도시에서는 야산과 숲, 하천과 공원, 호흡하기 좋은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정체성을 갖는 간판과 건축물, 걷기 좋은 거리, 버려진 철로변에 조성한 쌈지공원, 답장없는 개성있는 문화공동체 동네 등이 어메니티의 요소가 된다. 농촌에서는 풍수지리를 고려한 마을전경, 잘 보전된 종택과 고목, 돌담길, 마을초입의 정자목, 야산과 마을숲, 논과 밭이 어우러진 마음 넉넉한 들녘, 물 맛있는 우물과 그 주변, 저수지 주변의 친수공간 등이 어메니티 자원이다.

이는 정형화된 모델과 통일규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특성에 따라 주민과 함께 가슴과 지혜로 발굴하는 지역혁신 자원이다. 지역별로 마을별로 다양한 어메니티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증진·융합시킨 사례 등을 축적해 가는 것이 매력있고 품격있는 살기 좋은 국토만들기, 살고 싶은 지역만들기의 초석이 될 것이다.

4) 어메니티 시장촉진책 및 각종 규제와 인센티브 등 지원책 마련

앞의 어메니티 특징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어메니티 자원을 보전하고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책과 전략개발이 요구된다. 우선, 어메니티 시장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어메니티 자원을 공급·유지시키기 위한 자원의 보전과 인센티브 정책 등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어메니티의 상업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책을 통해 어메니티 공급자와

〈표 II-5〉 농촌어메니티 요소 및 창출모델 유형에서

자원 존재 형태	자원의 역할	상품 자원	정체성 자원
		어메니티 기반 상품 개발	고장에 대한 정체성 형성
자연 자원		자연 탐방 및 자연 체험 프로그램, 마을 관리 자연 휴양지(계곡, 하천, 산 등)	마을의 자연풍수, 자연 및 생태 자원에 얽힌 이야기,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 자연의 소리, 자연풍경, 생태 자원
문화 자원		농촌의 전통문화 및 역사 체험프로그램, 마을의 문화유산(유서 깊은 사찰 등), 문화재로 지정된 민속마을, 문화축제	역사적인 인물, 마을의 전통문화, 예술, 신앙, 옛이야기, 농촌다운 마을 경관(옛 가옥, 돌담길 등)
사회 자원		농특산물, 각종 농사체험 프로그램, 농특산물 관련 축제, 농가 민박, 마을 고유 음식 체험, 농촌 생활 체험 등	차별화된 농특산물의 본고장임을 나타내는 농업경관, 전통적인 농법이나 특유의 생산 기술, 공동생활활동이나 조직, 공동체 활동 관련 요소

주 :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례들은 유형별로 대표적인 자원들을 예시한 것으로서, 지역 특성에 따라 각 유형에 포함되는 자원들은 달라질 수 있음.

수혜자간 조정을 촉진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어메니티 관련 상품시장을 조성하고 소유권의 상품화, 기업지원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어메니티 유지와 가치 현실화를 위해 공급자와 수혜자간 자발적 규제와 협약체계, 네트워크 등도 요구된다. 〈표 II-6〉은 OECD 국가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어메니티 활성화를 위한 상업적 가치 향상 자원책과 자발적 규제방안 등을 사례별로 예시한 것이다.

두 번째는 어메니티자원을 보전 유지하기 위한 규제정책과 인센티브의 마련이 요구된다. 어메니티를 어떻게 확인하고, 구별해 내며, 분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메니티 자원의 소유권이나 경제활동을 규정하고 제한하는 규제정책과 긴밀히 연계된다. 규제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 군립공원 등 보호지역과 관련된 공간적 분류와 건축물, 정원, 향구, 오래된 촌락, 농업경관 등 비공간적 분류로 구분하여, 토지이용규제, 토지이용 유보 등의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일본 등지에서는 조례제정을 통한 자발적 규제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참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정적 유

〈표 II-6〉 OECD국가의 어메니티 활성화 정책유형 및 사례(I)

구 분		국가별 주요 사례	
I 유 형	상업적 가치 향상 지원 (Support for enhancing an amenity's commercial value)	<p>어메니티 이용권 시장</p> <p>캐나다: 국립공원과 역사유적지 입장료 지불 ※ 칠쿱 답사코스 접근요금: 35\$/인</p> <hr/> <p>어메니티 관련상품 시장</p> <p>프랑스: 지역자연공원(RNP) 라벨 ※ 브리에르 공원 보트업체, 레스토랑, 숙박업소, 농산물, 수공예품, 관광상품 등 EU: 지리적 기원의 표시 ※ EU Regulation 2081/92</p> <hr/> <p>소유권의 상품화</p> <p>영국: 어메니티 소유권과 권리 양도 ※ 내셔널트러스트, 자연보호위원회 미국: 비영리단체에 보조금 지급 ※ 캘리포니아주관리위원회가 바닷가 목구 및 접근기회 제공하는 NGO에게 4천만 달러 지급</p> <hr/> <p>어메니티 관련 기업지원</p> <p>그리스: 어메니티에 기반한 기업 지원 ※ 해안도자기 생산지 마가리트(Margarites) 마을 핀란드: 자연에 기반한 소규모 기업 지원 ※ 노동부, 통상부, 농림부 윈스톱 서비스</p>	
	집단행동에 의한 지원 (Support for collection action)	자발적 규제	자발적 규제행동에 대한 공동규칙 설정
		협약체계	오스트레일리아: 지역삼림 협약 ※ 깁스란트 동부지역, 빅토리아 중앙공원, 테즈메이니아 중앙공원 지역삼림협약 체결
		네트워킹	일본: 다락논 보존 소유자시스템 ※ 도시거주자 다락논 소유자간 교류(20개도시) 미국: 자원증진, 보호프로그램 ※ 아이오와주 경지, 습지보호 등 프랑스: 지속가능한 농업망

인정책도 마련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어메니티 품질 관련 투자 및 관련활동 지원 등이 있다. <표 II-7>은 OECD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주요 규제정책과 인센티브 정책 등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표 II-7〉 OECD국가의 어메니티 활성화 정책유형 및 사례(II)

구 분		국가별 주요 사례
II 유 형	규제정책 (Regulations)	토지이용 규제 일본 : 토지이용규제 ※ 아스카 무라 : 유형 1, 2지역, 세금 감면 요구 스위스 : 농업용지 엄격한 이용규제, 경관보호
		특정어메니티 규제 영국 : 우수영농 실천규범
		토지유보 덴마크 : 토지유보 프로그램
		보상수단 오스트레일리아 : 임업구조조정 패키지 프로그램
	재정적 유인정책 (Financial incentives)	직접지불: 보조금 스위스 : 생태적서비스에 대한 기여 일본 : 농촌경관 보존정책 노르웨이 : 토지 및 문화경관계획
		어메니티 품질관련 투자 웨일즈 : 농업환경 계획(티르 사이멘)
		관련 활동 지원 오스트리아 : 산간지역농민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5) 어메니티 혁신을 위한 인식제고 및 주민참여

인류역사와 자연환경과의 관계를 성찰해보면 지금 세계는 제 1차원의 안전성과 보건성을 달성하는 ‘생존차원 단계’ 과 제 2차원의 편리성과 기능성을 달성하는 ‘생활차원

단계’를 넘어 제 3차원의 쾌적·풍요로운 환경을 확보하는 ‘어메니티 충족차원 단계’로 접어들었다. 오늘날 지역개발의 과제들은 제 3의 차원인 ‘어메니티환경 확보’ 차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각 자치단체들은 어떻게 지역의 매력과 품격을 높이고 지역경쟁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하는 과제를 놓고 창의적 묘안과 지혜를 짜내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노력이야말로 지역혁신이며,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과정이다. 향후 이러한 노력이 지역간 새로운 격차를 만들 것이다.

어메니티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지역개발에 접목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역정체성과 개성을 발견하고 창조하는 노력, 어메니티 자원의 가치를 공유하는 노력, 어메니티자원을 공간화, 문화화하는 노력, 어메니티자원을 미래세대에 전수하기 위한 노력 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열정과 경험을 갖고 있는 핵심인재 확보가 중요하다.

어메니티에 관심을 갖는 주민과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배우고 익히는 교육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들 핵심인재들이 서로 연계되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하게 되면 창조적이고 품격높은 모범사례를 축적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단체, 지역주민, 전문가들이 결합한 (가칭)농촌어메니티추진협의회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와 연대를 도모하면 효율적일 것이다.

또한 지역단위로 마을 주민들이 어메니티의 가치와 효과를 함께 체험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어메니티 연구회’,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도 다양하게 마련되고,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적 요소가 문명의 유지와 발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자원과 환경을 관리하는 능력이 문명의 성쇠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¹³⁾ 따라서 숭고한 어메니티 문화를 지키고 향유하기 위해서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환경과 자원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함께 실천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13) 제레드 다이아몬드(Jared Diamond)의 ‘총·균·쇠(Guns, Germs, and Steel, 1997)’, ‘붕괴(Collapse, 2005)’ 등 참조

6) 지역 자긍심과 마을공동체 문화만들기

우리 지역 바로 알기와 즐거운 마을만들기 등 공동체이야기 사업추진, 평생학습 추진 방법들을 강구해야 한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의 핵심은 ‘개성있는 지역만들기’에서 출발한다. 이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개성이 무엇인가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는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지역고유재가 발견되어도 그것이 문자 그대로 지역 고유한 귀중한 자원이 되는 것을 공통의식으로 승화시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김선희, 2006).

이를 위해 지역재발견을 주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계획입안단계부터 다양한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의 소중한 가치를 갖는 자원과 공동체 이야기 등을 발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호남명촌 구림마을사람들은 십시일반으로 기금과 마음을 모아 마을공동체 이야기를 집필하여 세상을 놀라게 한바 있다. 이처럼 전국에 분포하는 46,000개 자연마을에 대해 자긍심과 애정을 갖는 고유한 공동체이야기를 발간하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적은 돈으로 마을단위로 공동체 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¹⁴⁾

‘아는 만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공부하고 행동하는 법이다’. 대도시 시민에게 있어 우리 동네, 우리 마을은 그저 잠자는 베드타운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다. 지역을 안다는 것은 지역의 문제점과 한계를 안다는 것이다. 마을사람들이 마을을 알고, 사랑하고, 공부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근자열(近者說), 원자래(遠者來)’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긍지를 갖고 즐겁게 살아가면, 멀리 있는 사람들도 그 모습이 부러워 저절로 찾아오게 된다. 공자의 논어 子路 16편에 나오는 말이다. 지역주민이 지역에 매력을 느끼고, 지역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자체가 지역의 매력이고, 경쟁력이다. 따라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계속하여 살고 싶다’고 스스로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강형기, 2006).

14) 최근 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마을사람들이 모여 쓴 마을공동체 이야기들이 출판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구림마을사람들이 쓴 ‘비둘기숲에 깃든 공동체 호남명촌 구림(2006)’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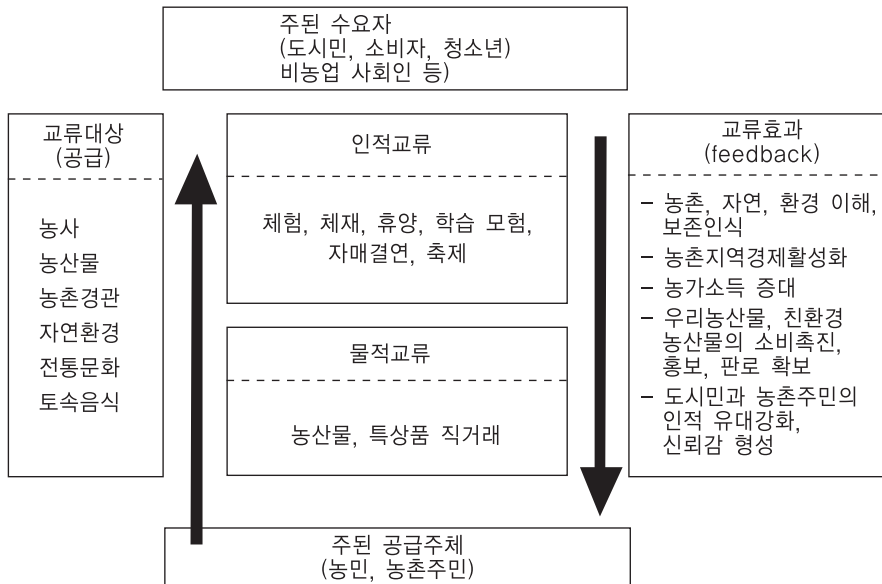
이를 위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매력있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어떤 마을로 만들고 싶은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마을만들기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비전의 실현에 적극적,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에너지를 계속 분출시키기 위한 방침을 행정과 시민의 협동으로 지혜를 짜내고 서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III. 한국 농촌어메니티 개발모형 및 사례

1. 농촌어메니티 향상을 위한 도농교류의 유형화

가. 도농교류의 구성요소

도농교류의 개념을 좀 더 상세히 이해하기 위하여 그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도식화 해 보면 <그림 III-1>과 같다. 여기에서 보면, 도농교류의 구성요소는 수요자로서의 도시민과 공급자로서의 농업인 및 농촌주민이라는 교류 주체와 농사, 농산물, 농촌경관, 전통문화와 지역 특산물 등과 같은 교류대상,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인적·물적 교류 활동 및 과정, 그리고 교류 효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III-1> 도농교류의 구성요소

도농교류가 성립되기 위한 주요 구성요소로서 교류 주체와 교류 대상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류 주체

교류 주체로서 도시와 농촌이라는 두 공동사회를 살펴보면, 우선 농촌의 경우 농업자와 비농업자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이며 농촌 내의 단체로서 각종 기업, 지방자치단체, 농업위원회, 농협, 산림조합, 상공회, 관광협회, 소방단, 노인회, 부인회, 청년회, 어린이회 등 다수의 기관, 조직, 단체, 그룹이 존재한다. 또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교육기관과 병원·보건소 등의 의료기관 나아가 사찰과 교회 등도 존재하고 있다.

도시를 형성하는 주체로서는 개개의 주민이 다수이며 이들이 다양한 직업과 직종에 속해 있다. 기업과 노동조합이 있으며 또 의회, 행정기관, 상공회의소, 관광협회와 소비자단체, 소방조직 등의 다수의 기관, 조직, 단체가 농촌에 비하여 훨씬 많이 존재하고 있다. 교육기관과 의료기관도 다종·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농촌과 도시의 공동사회를 상호 연결하는 것이 교류라고 규정한다면 교류주체의 짝짓기는 무수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농촌도 도시도 교류 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고 선택의 폭도 매우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촌측이 교류를 추진하려는 경우 특히, 교류의 성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대방으로 좁히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고 또한, 그런 선택을 위한 노력은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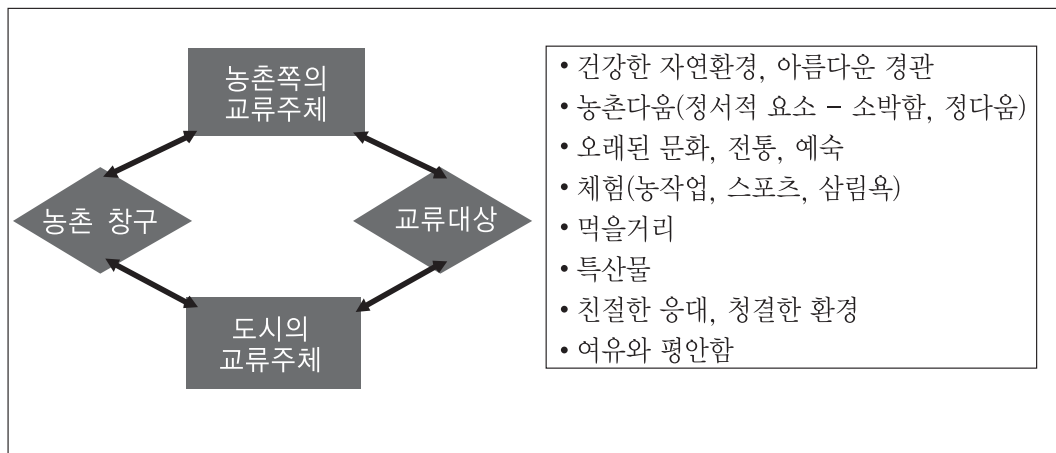
이렇게 보면 농촌 측에서 교류를 추진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방법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는 농촌내부에 있어 교류주체를 설정해야 하며, 둘째는 도시 측의 교류주체를 확실히 선택하며, 셋째는 어떠한 교류내용을 택할 것인가를 신중히 결정해서 이들 세 가지 요소를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 측의 교류주체의 설정에는 각 지역의 사정과 지역자원의 내용, 지역주민의 의향과 의욕정도 등에 의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역에 있어서 여론수렴을 거쳐야 한다. 또한, 가능하다면 오래된 관습과 제도에 젖어있지 않은 새롭고 신선한 주체가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할 것이다.

한편, 농촌 측이 도시 측의 교류주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주체 구성원의 다수, 다양함을 고려할 때 책임감 있는 창구(인재)를 찾아내는 것이 과제이다. 핵심은 교류의 상대(주체)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있으며, 제대로 된 교류 상대의 선택을 통하여 교류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교류 대상

도농교류의 주된 목표를 농촌의 활성화로 삼을 때 수요·공급의 관계는 도시가 수요자이고 농촌은 주로 공급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민의 요구를 염두에 둘 때 농촌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곧 교류의 대상이 되며 그러한 관계 및 내용은 <그림 Ⅲ-2>과 같다. 여기에서 나열되는 교류 대상의 내용은 농촌에서 기대되는 기본적 요소들이며 이들을 다 갖춘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특별히 강조할 만한 몇 가지 요소만 가지고도 도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림 Ⅲ-2> 도농교류의 대상

또한 도시민이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농촌이 갖추어야 할 여건을 기본사항과 하드웨어 측면 및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표 Ⅲ-1>과 같다.

나. 도농교류의 유형분류

도농교류의 유형은 그 분류 기준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구분이 가능하다. 분류 기준에는 교류대상, 교류 목적, 교류주체의 범위, 교류내용 또는 영역, 교류 방법 등이 있다. 교류대상에 따라서는 사람간의 접촉과 교류에 역점을 두는 인적 교류, 상품

〈표 Ⅲ-1〉 도농교류 공급 측면에서 농촌이 갖추어야할 여건

기본사항	하드웨어 측면	소프트웨어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이 풍부한 자연환경 드넓게 펼쳐진 아름다운 경관 • 농촌다움(소박, 질박, 정다움) • 오래된 문화, 전통, 예능 • 체험(농작업, 스포츠, 삼림욕) • 개성있는 식사, 특산물 • 청결한 환경, 친절함 응대 • 여유와 평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업체험이 가능한 농장 • 곤충·물고기가 있는 계곡의 냇가, 삼림욕이 가능한 삼림 • 산책로, 자전거도로, 캠프장 • 운동시설(테니스코트…) • 박물관, 향토관, 자료관, 미술관 등 • 홀(음악당, 극장…) • 향토음식점 • 새벽시장, 특산물센터 등 • 주차장 • 숙박시설(호텔, 민박, 여관, 홈스테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을 알리는 인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 팸플렛, 정보지 등 • 지역의 정보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식, 안내, 시설간 연계체계, 정보의 수발신체계 등 • 바가지요금의 근절체제 • 주민의 서비스정신의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정보에 대한 이해 친절한 응대 등

이나 물건의 거래 또는 교환을 중심으로 하는 물적 교류, 관광휴양이나 체험 등 서비스의 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교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인적 교류도 교류 단위가 개인이나, 단체나, 교류방법이 직접적인 만남을 위주로 하느냐 간접적인 접촉 위주로 하느냐 관광휴양 및 체험 서비스도 이용기간이 단기이나, 장기이나, 혹은 당일 이용이나, 숙박이용이나, 이용 서비스 내용이 체험 위주이나, 휴양위주이나 등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다. 교류 목적에 따라서도 사람들 간의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서부터 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의 추구, 체험이나 휴양 또는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분류가 가능하다. 이러한 도농교류의 유형을 몇 가지 분류기준에 따라서 제시하여 보면 〈표 Ⅲ-2〉와 같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 유형은 2개 이상의 분류 기준을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이보다 더 많은 유형 분류도 가능하다.

本庄宏行 등(2000)은 도농교류의 형태를 〈그림 Ⅲ-3〉과 같이 교류주체가 불특정 다수인가, 특정 소수인가, 그리고 정신적 관계를 중시하는가, 물리적 관계를 중시하는가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하여 각 영역에 해당하는 도농교류의 예를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분류기관이나 학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특별한 분류 기준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중심으로 일본 카와바무라에서

〈표 III-2〉 분류기준에 따른 도농교류의 유형화

분류 기준	도농교류의 유형
교류 대상	사람, 상품이나 물건, 관광휴양 등 서비스
교류 목적	유대강화, 경제적 이익, 체험, 휴양
교류 주체의 단위	개인, 단체
교류 방법	직접 접촉 또는 거래, 간접 접촉 또는 거래
교류 기간	단기, 장기
체류 형태	당일, 숙박

도농교류 형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을 보면, 사과나무 오너제, 농업체험, 고향택배, 캠프, 이동교실, 산지 직판매, 숙박체험, 자매학교 교류, 주류판매계약, 가공강습, 산촌 유학제도, 고령자 게이트볼 교환시합, 고교생 스키, 떡치기 교류, 동경농대 산림관리 작업지원, 스키교류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신적 관계 중시	불특정다수 (관계희박·단방향적) 전람회·전시회 [예술촌]	레크리에이션[삼림공원] 농촌레스토랑[스테이크·교맥] 물산전(物産展)	물리적 관계 중시
	자매·우호도시교류 창작체험·농업체험 [세컨드 스쿨 등]	특정소수 (관계깊음·쌍방향적) 택배편[그린랜드] 임대농지[그린랜드]	

〈그림 III-3〉 교류의 형태분류([] 내는 小國町에서의 사례)

한편, 농촌관광만 하더라도 그 유형을 법·제도, 입지유형, 이용형태, 개발방식 등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고, 개발모델 유형도 그 영향인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구분이 가능하다(〈표 III-3〉 참조).

〈표 III-3〉 농촌관광 모델의 유형

영향을 주는 인자	고려 할 모델 유형
산업	농촌형, 어촌형, 산촌형, 관광형
입지	근교농촌형, 관광지주변형, 평지농촌형, 중산간형, 산촌형
관광자원 유무	관광중심형, 교류중심형
사업주체	행정주도형, 농협주도형, 취락여농형, 제3섹타형, 농가그룹형, 법인경영형, 농가민박형(개인경영형)
지역의 활력도	질적충실형, 양적확대형
생태·문화 지원 충실도	생태문화중심형, 생태자원중심형, 문화자원중심형, 자원부족형
생태문화 자원특성	자연환경활용형, 생산자원활용형, 전통문화자원활용형, 체험자원활용형, 휴양자원활용형, 교류자원활용형
자연환경 요소	산림활용형, 수변활용형(호수, 저수지, 하천, 계곡), 평지형
숙박패턴	단시간이용형, 당일이용형, 단기숙박형, 장기체재형
이용패턴	놀이, 감상, 식사, 학습, 휴식

2. 도농교류의 이론적 고찰

가. 경제학 관점에서의 이해

여기서는 도농교류의 이론모형을 경제학 이론에 입각하여 설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관찰이 가능한 1사1촌 자매결연 시장을 상정하고, 개념적으로 도농교류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균형으로 이를 설명한다. 여기서 거래되는 대표적인 재화와 용역은 안전 농산물과 농촌어메니티로 설정하고, 거래비용 경제학의 이론을 적용하여 현실의 설명과 미래의 예측을 위한 분석적 패러다임을 정립하고자 한다.

먼저 기본적 분석과제는 특정 농촌마을과 도시 기업체간에 성립되는 도농교류 시장 거래의 현실적 합리성 즉 일반적 시장거래와 차별화되는 이유를 구명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 분석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농교류시장에서 수요의 결정요인 즉 도농교류 참여 기업체의 지속적 참여 가능성을 결정하는 상대적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도농교류 시장에서 공급의 결정요인 즉 도농교류 실천 마을이 소기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로 이루어내는 상대적 요인은 무엇인가? 거래비용 경제학 이론(Williamson 1989)은 경제주체의 행동을 설명함에 있어서 ‘제한적 합리성’과 ‘기회주의 행동’을 명시적으로 전제한다는 점에서 ‘완전한 합리적 행동’에 기초한 신고전학과 경제이론과 차별화된다. 이는 시장경제의 불완전성에 따른 거래비용을 이용하여 다양한 경제조직과 계약체결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 거래비용의 정확한 정의와 측정이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거래비용 경제학이 주목하는 거래의 특성은 ① 거래 빈도 ② 불확실성의 유형과 정도, ③ 자산 특정성의 조건이다. 즉 거래 빈도, 불확실성과 자산 특정성이 높을수록 거래비용이 높게 되며, 이것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을 경우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기업과 가족 등의 경제조직이 성립되고, 계약체결이 이루어진다.

이 이론에 입각하여 특정 농촌마을과 도시 기업체간에 성립되는 도농교류 거래가 일반시장 거래와 차별화되어 존재하는 이유를 거래비용의 상대적 크기라는 관점에서 비교할 수 있다. 즉 도시민과 농촌마을 간에 이루어지는 ‘안전 농산물’과 ‘농촌어메니티’의 패키지 상품의 거래가 일반시장 거래에 비해 도농교류 방식이 상대적으로 거래비용이 낮을 경우에 도농교류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도농교류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도농교류에 참여하는 도시공동체와 농촌공동체는 각각 하나의 새로운 경제조직으로 의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조직이 합리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여기서 주된 관심은 경제조직 상호간의 거래계약 체결과 이행강제를 위한 거래비용은 물론 경제조직으로서 공동체 내부의 구성원 상호간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데 따른 거래비용의 최소화 문제도 중요하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관찰되는 많은 1사1촌 자매결연 유형 가운데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례일수록 성공적으로 지속가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래비용의 항목에는 도농교류의 농산물 품목과 어메니티 관련 상품 등 구체적 사업모델, 도시 및 농촌 공동체의 자체적 결속 수준, 도농 공동체간의 지리적 거리, 정부 등 외부의 비용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하에서는 거래비용을 거래빈도, 불확실성과

자산특정성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먼저 도농교류의 거래빈도 문제는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초기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 도농교류는 거래상대방이 서로 대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시장 거래에 비해 빈도가 낮으며, 그만큼 거래비용이 높다. 여기에는 상호방문에 따른 여행비용, 농촌 공동체는 물론 도시 공동체의 내부합의와 상호협약에 소요되는 협치 비용(governance cost) 등이 포함된다. 특히 도농교류 체결의 초기단계에는 도시공동체의 농촌마을 지원을 위한 비용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거래비용 경제학 이론에서 제기하는 거래빈도 문제는 도농교류 분석에서는 ‘도농교류 계약체결의 초기비용’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도농교류의 초기비용 문제는 자매결연 체결을 주선하는 중개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1사1촌 운동을 선도한 농협과 경제5단체 등은 사회적 공신력과 전국적 조직력을 발휘하여 도농교류의 초기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도농교류 사례를 확산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탁월한 지도력과 추진력을 갖춘 마을 지도자의 역할도 농촌공동체의 도농교류에 따른 초기비용을 낮추는 데 중요하다.

도농교류 계약에 따른 불확실성 문제는 거래상품인 안전 농산물과 어메니티 사업의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거래비용 또는 ‘거래상품의 품질관리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일반시장 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대형 할인점 등에서 안전 농산물을 구입하고, 품질 프리미엄을 포함한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된다. 이 경우 안전 농산물의 품질에 관한 정보 문제는 유통업체의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에 의해 부분적으로만 해결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도농교류 거래는 생산 및 유통과정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안전성에 대한 신뢰는 도농교류의 빈도가 많아짐에 따라 높아지게 된다. 이는 농산물의 품질 특성에 대한 이해보다는 생산자에 대한 인간적 신뢰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직접방문이 아니더라도 통신주문과 택배판매 등 시장 유통기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거래비용의 절감을 통해 거래량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사전에 품목과 물량을 계약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되면, 도농교류 거래는 보다 완전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확립될 수 있다.

농촌체험활동 등 어메니티 사업의 경우에도 도시민은 서비스의 품질을 일반 관광시

장의 서비스 품질과 비교할 수 있다. 특히 초기단계의 농촌마을은 어메니티 사업의 경험이 부족하여 도시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 경우 도농교류에 대한 도시민의 인센티브가 그 만큼 감소하여 도농교류의 지속가능성은 낮아지게 된다. 정부 차원의 마을지원 사업은 어메니티 사업의 품질관리에 따른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등이 대표적 정책방안이다.

도농교류와 관련한 자산 특정성 문제는 마을 특유의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데 따른 공동체적 합의 문제가 중요하며, 이는 거래비용 경제학에서의 협치 비용(governance cost)에 해당한다. 이는 '공동행동을 위한 협치 비용'이다. 도농교류를 위한 공동농촌의 어메니티 자원은 마을 공동의 외부효과이며, 이를 소득 자원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마을주민의 모두의 합의와 참여를 전제로 한다. 예컨대 마을 주민의 일부가 도농교류에 무관심하거나 경제적 이익이 적을 경우에는 마을 공동체의 합의형성과 이를 전제로 한 어메니티의 활용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협치 문제는 농촌마을의 구성원이 이질적인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거래비용을 초래한다. 이는 도농교류 거래에서 도시민에게 어메니티와 안전 농산물은 하나의 패키지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농업생산의 품목과 규모면에서 다양하게 분화된 농가들이 공존하는 경우에는 도농교류의 이익배분에서 형평성을 보장하기 어렵게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거래비용 경제학의 관점에서 농촌어메니티 향상을 위한 도농교류의 거래비용은 크게 교류계약체결의 초기비용, 거래상품의 품질관리 비용, 공동행동을 위한 협치 비용으로 구분된다. 이는 거래비용 경제학에서의 일반적 용어인 거래빈도, 불확실성, 자산 특정성과 각각 대응되는 용어로 간주될 수 있다.

나. 도농교류의 거래비용

여기서는 앞 절에서 정립한 패러다임을 토대로 도시공동체 유형별로 도농교류 참여에 따른 거래비용의 상대적 차이를 분석하기로 한다. 이는 도농교류에 참여하는 도시공동체와 그렇지 않은 공동체의 차이를 분석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분석의 편의상 개별

도시공동체간에 도농교류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차이가 없다고 전제한다. 이 분석은 다양한 도농교류 사례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농교류 계약체결의 초기비용의 관점에서 도시공동체 유형별로 거래비용의 차이를 보면, 먼저 사회봉사 차원에서 자발적 비용부담이 가능한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초기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삼성그룹의 경우에는 1사 다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체결하는 등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아파트 부녀회 등 소비자단체와 사회종교단체(학교 포함)의 경우에는 초기비용의 부담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초기비용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1사1촌 방식의 도농교류가 아직 초기단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업체와 관공서가 자매결연의 대중을 차지하는 사실은 초기비용의 부담능력의 상대적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도농교류에서 거래상품의 품질관리 비용은 도시 공동체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직도 도농교류의 사업모델이 확립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실증 분석은 어렵다. 다만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품질 문제는 아파트 부녀회와 사회종교단체 등이 기업체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소비자와 사회단체는 자매결연의 거래상품으로서 친환경 농산물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반면에 기업체와 관공서 등의 도시공동체는 직원의 여가활동이라는 차원을 더하여 마을의 어메니티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1교1촌 자매결연 방식의 도농교류에서도 학교교육 차원의 농촌어메니티에 관한 관심이 높을 것이다.

농촌어메니티 향상을 위한 도농교류에서 공동행동을 위한 협치 비용도 공동체 유형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기업체는 회사의 방침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협치 비용이 적은 반면, 아파트 부녀회와 사회종교단체와 같이 공동체적 특성이 강한 경우에는 공동행동을 위한 자율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협치 비용이 예상된다. 또한 도시공동체는 도농교류의 공동비용과 공동수익이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과 수익배분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치 비용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도시공동체의 도농교류에 관한 거래비용은 유형별로 차이

가 있지만, 거래빈도가 낮은 초기비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도농교류의 성공은 주로 농촌공동체의 자체역량이 중요한 변수가 됨을 시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농촌어메니티 향상을 위한 도농교류의 거래비용 관점에서 농촌공동체의 유형별 비교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는 도농교류에 참여하지 않는 농촌마을에 대한 설명 과제이기도 하다. 분석의 편의상 개별 농촌마을별로 도농교류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차이가 없다고 전제한다. 이 분석은 다양한 농촌마을의 도농교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농촌마을은 도농교류의 거래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생산비용과 거래비용을 합한 총비용의 관점에서 분석하기로 한다. 거래상품으로서 안전 농산물과 농촌어메니티는 결합생산물(joint product)로 간주하고 생산주체인 마을은 공동체적 기업(community firm)으로 의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도농교류에 참여하는 농촌마을은 결합생산물을 생산하는 기업이며, 그 판매는 특정 도시공동체와 전속거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전제할 수 있다.

다양한 농촌마을 간의 도농교류 비용의 상대적 비교는 생산비용과 거래비용을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 먼저 생산요소 가격은 마을 간에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면, 생산비는 친환경 농업과 어메니티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 수준, 자연 조건, 규모의 경제 등에 의해 결정된다. 규모의 경제는 마을에서 친환경 영농의 실천농가 또는 어메니티 생산에의 참여농가가 많을수록, 또는 도농교류의 참여기간이 오를수록 높을 것이다.

농촌공동체의 입장에서 농촌어메니티 향상을 위한 도농교류의 거래비용은 교류계약 체결의 초기비용, 거래상품의 품질관리 비용, 공동행동을 위한 협치 비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교류 빈도가 적은 단계에서의 초기비용은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공동체에 대한 정보 부족,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고정투자 등에 의해 높은 거래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이 경우 정부 또는 외부의 지원은 거래비용 절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도시공동체의 선호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농촌체험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 등은 초기단계의 거래비용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 선도적 마을 지도자의 역할과 역량도 초기비용을 줄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이다. 또한 도시근교에 입지한 마을은 도시민의 거리비용 또는 여행비용이 적다는 점에서 초기비용의 상대적 유리성을

갖는다.

농촌마을에서 도농교류 거래상품의 품질관리 비용은 사업모델의 확립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먼저 친환경 농업의 수준이 높은 마을 또는 이에 따른 공동행동의 경험이 있는 마을은 그렇지 않은 마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거래비용 조건을 갖는다고 하겠다. 또한 그 마을에 고유한 특산품이 있는 마을의 경우에도 도시민의 일반시장 거래에 비해 도농교류 직거래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메니티 서비스의 품질관리는 마을의 공동행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마을 간에 차이가 큰 요소이다. 도농교류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일반관광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마을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농촌마을의 거래비용 중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공동행동을 위한 협치 비용과 관련된다. 먼저 도농교류 상품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은 마을의 공동행동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의사결정과 이익배분에 관한 협치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마을의 경관, 전통문화 등의 어메니티 자원은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외부효과 또는 지역 공공재에 해당한다. 이를 소득자원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주민 전체의 비용 부담과 수익 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한다. 이에 관한 공동체적 합의와 참여가 지속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도농교류의 안정적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도농교류에 따른 도시민의 정기적 방문은 소음과 번잡함 등 마을 주민 전체에게 비효용과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공동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에게도 그 수익의 일부가 주어져야 한다. 특히 마을 지도자 중심으로 추진되는 초기단계의 도농교류 사업에서 일부 주민의 반대 여론과 행동은 중요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주민의 동질성이 높은 산촌마을 또는 순수농촌마을은 이질적 성격의 주민이 혼주하는 도시근교 마을에 비해 도농교류의 협치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결국 농촌마을 주민의 민주적 합의 역량은 도농교류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이며, 마을 간의 상대적 차별화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다. 도농교류의 사례분석

삼척시 도계 너와마을은 화전민의 전통가옥인 너와집 등을 어메니티 자원으로 활용

하여 두메산골 체험관광을 마을수익사업으로 성공시킨 사례이다. 연간 방문자수는 2005년에 약 2만명 수준이며, 관광사업과 직거래 등으로 호당 350만원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 마을은 57가구 182명이 살고 있으며, 대부분 70ha 규모의 밭에서 머루, 둥굴레, 포도, 콩, 잡곡 등 고랭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논은 0.6ha에 불과하다. 이 마을은 태백산맥과 동해바다에 인접해 있으며, 부근에 동활계곡, 육백산, 환선굴, 해수욕장 등 좋은 관광자원이 위치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너와마을 사례를 도농교류의 거래비용 관점에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너와마을 사례는 도농교류에 따른 초기 비용의 많은 부분을 정부 지원에 의존하였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너와마을이 도시민과 연계를 맺은 계기는 2002년 행정자치부의 정보화마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시점이다. 이후 주민들은 정보화 수준 향상은 물론 의식도 크게 변화하였고,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두 채의 너와집을 활용하여 농촌관광 사업에 참여하였다. 이후 삼척시의 새농촌건설사업자와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대상으로 지정되어 너와펜션, 향토음식점, 화전민 가옥 복원, 체험학습장 시설을 갖추었다. 이러한 초기 기반을 토대로 LG엔시스, 테크윈시스템, 강원랜드, 서울시 한아름아파트 등 도시공동체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고객기반을 확대하고, 명절에는 3,400여만원 상당의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너와마을의 사업모델을 불확실성의 해소 관점에서 살펴보자. 이 마을은 도농교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직거래 농산물과 에미니티 사업의 품질관리에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농특산물 직거래에 관한 품질관리를 보면 전통적 품목인 감자, 옥수수 재배를 머루, 둥굴레 등 특산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2004년부터 둥굴레를 한살림에 납품하였고, 2005년에는 머루작목반을 영농조합법인으로 전환하여 머루 가공시설과 저온저장고를 신축한 점이 주목된다. 에미니티 사업의 품질관리는 숙박시설, 체험시설, 체험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마을 공동의 투자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숙박시설은 11개동 130명 수준이며, 부속시설로 다목적 광장, 어린이 놀이시설, 분수대 등을 갖추고 있다. 산촌체험시설로는 화전민 구가옥, 산책로, 디딜방아, 전통메주 발효실 등이 있으며, 계절별로 봄 나물캐기, 여름 물놀이, 가을 송이따기, 겨울 썰매타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수기인 여름 이외에도 방문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 마을은 마을 주민이 순번제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방문

객이 머무는 기간 동안 시간별 프로그램을 만들어 체계적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

도계 너와마을은 협치 구조(governance)의 성공여부가 주목되는 사례이다. 민속 문화재로 지정된 너와집은 자산특정성이 매우 높은 어메니티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마을 주민이 지속적 참여를 보장하는 협치 구조의 합리성이 중요하다. 이 마을은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마을 공동의 체험관광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 운영 위원회는 매월 회의를 개최하여 회계감사와 수익처분방식, 비용(인력)분담방식 등의 문제를 결정하고 있다. 실제로 체험사업 관련 수입은 일단 운영위원회에 귀속되며, 운영 위원회는 제반 경비를 제한 이후 잉여금을 환원사업 또는 재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처를 결정하고 있다. 공동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는 일당이 지급된다. 공동식당에 참여하는 부녀회원은 여름 성수기에 하루 5만원, 비성수기에는 3만5천원을 지급받고 있으며, 체험활동을 담당하는 청년회원에게는 하루 6~7만원의 인건비가 지급된다. 이는 마을사업에 따른 수익과 비용의 합리적 배분 방식으로 평가된다.

너와마을은 운영위원회가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기업방식의 마을사업체가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수익배분과 비용분담을 결정하는 시스템도 합리적인 모델로 평가된다. 도농교류 참여마을 사례에서 흔히 발견되는 마을 지도자 중심의 운영구조와는 확연하게 차별되는 선진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너와마을이 산촌에 고립되어 있어 주민의 동질성이 높다는 점이 공동행동에 필요한 협치 구조의 합리성 추구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도농교류정책을 통한 농촌어메니티 향상과제

정부의 시장개입은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경우에 합리적 근거를 갖는다. 민간 차원의 농촌어메니티 향상을 위한 도농교류 사업은 거래비용 특히 초기비용이 높기 때문에 아예 시장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1사1촌 자매결연이 체결된 경우에도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모델을 확립하기 어려우며, 공동체적 의사결정에 관련된 거래 비용이 높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시장실패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

된다. 한편 도농교류 사업은 자유무역을 확산되는 가운데 농촌회생을 위한 사회적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어 정부의 농정대책의 하나로서 의미를 갖는다. 또한 도시민에게도 농촌의 어메니티를 향유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시장에서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를 갖는다.

앞 장에서의 논의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은 도농교류에 따른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초기비용, 사업모델, 그리고 협치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도농교류의 초기 비용 절감방안은 참여하는 도시 공동체에 대한 지원정책이 중요하다. 예컨대 참여 기업체에 대한 손비 인정 등 세제상의 특혜 또는 학교교육 프로그램에 농촌어메니티 체험학습을 권장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농촌 마을에 대해서는 어메니티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장 등 전문가 채용을 지원하는 방안과 마을 협치를 위한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도 효율적 정책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농촌어메니티 향상을 위한 도농교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사업모델의 확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 특히 거래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방안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주로 농촌마을에 대해 농산물의 품질관리 또는 농촌체험 등 어메니티 사업에 필요한 시설투자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정부 부처들이 다양하게 추진하는 농촌마을육성 프로그램의 사업대상자로 지정하는 정책수단도 그 마을에 대한 도시민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선정기준의 객관성과 선정절차의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경관보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어메니티의 품질관리에 기여하는 정책수단의 하나로 평가된다.

농촌어메니티 향상을 위한 도농교류가 농촌마을의 공동체적 사업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일반 기업에 준하는 사업체적 협치 구조를 안정적으로 정립하는 과제가 중요하다. 이는 마을 지도자의 역량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특히 마을 주민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질적 구조인 농촌공동체의 경우에는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공동사업의 수익과 비용을 개별 기여도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시스템의 확립이 더욱 어려워진다. 이 단계에서는 마을 공동사업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경영 컨설팅이 요구되며, 이와 관련한 정부의 지원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을단위 사업체의

법인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수 있다.

도농교류의 최종 단계에는 농촌마을의 어메니티 사업이 개별 도시공동체와의 전속 거래를 벗어나 도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전국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경쟁의 절차를 거친 품질평가 시스템을 확립하는 과제가 중요하다. 예컨대 프랑스의 '지트 드 프랑스' 연맹을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이 조직은 프랑스 농촌의 민박 농가 약 5만여 명을 회원으로 확보하고 농가민박 유형별로 도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개별 민박농가의 고객 서비스 품질을 심사하여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장통제에 의한 품질관리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농가보다는 농촌마을을 회원으로 하는 전국적 조직을 미래의 발전모형으로 설정하고 농촌어메니티 시장사업화를 추구하는 비전과 전략이 요망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농촌에 부존하는 농촌어메니티의 자원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농작업과 농산물, 생태환경, 자연경관, 역사와 문화, 혹은 농촌생활 그 자체에 이르기까지 분명히 우리 농촌에는 지역마다 이미 관광의 잠재자원이 보는 시각에 따라 무궁무진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도시수요자의 기대와 원하는 체험을 고려한다면, 농촌어메니티 향상전략은 도시를 흥내 낸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개발할 것이 아니라, 이미 농촌에 잠재되어 있는 농촌 고유의 유·무형 자원을 어떻게 발굴, 활용하는가의 문제이어야 한다.

둘째, 이 자원을 유형의 관광 상품으로 만드는 수단의 문제이다. 이 수단에는 생활환경을 포함한 물리적 시설이나 자연환경을 정비하는 하드웨어적인 것도 포함되고, 축제나 이벤트 개발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포함된다. 어찌되었든 분명한 것은 그 목적이 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농촌 활성화에 있는 한 농촌 주민이 관리 가능한 규모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농촌에 대한 여가수요가 대규모 리조트나 관광단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의 매력, 즉 아름답고 소박한 농촌다움의 매력에 있다는 점이 반드시 기억되어야만 한다.

셋째, 그렇다면 그 방식도 도시민과 농촌주민이 교류하는 방식이 되어야만 마땅하다. 도농교류는 단순히 그 자체의 어의로는 사람, 물품, 서비스, 정보, 문화 등의 제 측면에서 도시와 농촌의 상호관계를 말한다. 하지만 도농교류의 가장 큰 특성은 도농간의 양

방향성, 반복성, 지속성이다. 즉 농촌의 특산물이나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그리고 일회적으로 파는 유형을 교류라 하지는 않는다. 가령 농산물을 거래하는 경우, 단순히 생산자와 소비자로서 일회적으로 물건을 사고파는 관계가 아니라, 인간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야 교류라 칭할 수 있다. 또한 상호방문의 경우에도 도시민이나 농촌주민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보거나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고 보람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라야 교류라 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도농교류방식에서는 얼마를 벌었고, 사람이 몇 명 다녔거나 등이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유일한 잣대로 사용될 수 없다. 도농교류가 일반적 농산물 직거래나 대중관광 방식과 차별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의 주체는 바로 농촌의 주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지 자본에 의한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에서 지역주민은 자본도 없고 전문적 지식도 없다는 이유에서 계획과정, 개발과정, 운영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다. 하지만 지역의 잠재자원을 발굴, 활용하는 소규모 농촌어메니티 활용에서 지역주민은 그 누구보다도 그 지역의 어메니티 자원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임이 분명하다. 때문에 그들이 직접 계획하고, 참여할 수밖에 없다. 지역주민의 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단지 지역의 부존자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차원뿐만 아니라, 이것이 예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막강한 수단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주민 스스로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류를 통한 만족감을 느끼면서 주체가 된다면 예산액이 감소하거나 예산코드가 사라져도, 혹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어 시장에서 보다 우위를 점하는 다른 경쟁상대가 나타나더라도 실패의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는 탓이다.

3. 농촌어메니티 유형별 모형

농촌어메니티 유형별 모형은 체험농장, 주말농장, 체험학습, 관광농원, 농촌민박, 은퇴농장, 지역축제, 자연생태마을, 전통테마마을 등으로 대표적인 선정마을의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체험농장 : 경기 이천 부래미 마을

1) 마을 개요

부래미(富來美)라는 마을명은 정신적으로 부유하고 문화적으로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는 부자마을이라는 뜻이다. 원래는 불암리(佛岩里)였으며, 오랜 세월 부래미로 불리워 오다가 2002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되면서 富來美로 고쳤다. 경기도 이천시 울면 석산 2리 위치하고 있으며, 이천 동남부와 충북 음성군의 경계지역으로 서울에서 100km 정도의 거리이다. 수도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개발이 덜 되어 농촌의 모습이 비교적 잘 보전되어 있는 평범한 시골마을로, 안성 이씨 집성촌이며, 축산이 없는 청정 지역이다. 호당 경지규모는 2.7ha로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이며, 30~59세 청장년 인구비율도 44.3%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 마을전체 경지 면적은 60.3ha로서 논이 29ha, 밭이 26ha, 배 및 복숭아 등 과수원이 5.3ha이다. 농가의 주 소득원을 보면, 쌀, 배, 복숭아로서 조수입 기준으로 각각 80%, 10%, 10%의 순이며, 이 밖에 특산품으로 포도, 고추, 강낭콩 등이 있다. 총인구는 70명이며, 60세 이상이 27명으로 38.6%, 30~59세가 44.3%(직장인 5명 포함), 20대가 7.1%인데, 총 가구 28호 중 농가는 22호이다.

2) 추진경과

가) 추진경위

2002년에 마을발전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정비, 경관조성 등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오던 바, 2003년도 녹색농촌체험마을(농림부)로 선정되었다. 2003년도 4월에 마을홈페이지(www.buraemi.com)를 구축하였으며 각 월별로 다음과 같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3월 : 마을 홈커밍데이(homecoming day) 행사 거행으로 많은 출향 인사의 고향 방문을 유도
- 7월 : (주)하이트 주최의 “고향의 꿈 대잔치”에 공모하여 전국 10개 마을중 하나로 선정

○ 11월 : 제2회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에서 장려상 수상

2004년도 정보화시범마을(행정자치부), 농촌종합개발사업마을(농림부), 슬로우푸드 마을(경기도 사업)로 선정되었으며 제3회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와 함께 부래미마을 CI 도 개발하였다.

나) 마을단위 개별 및 공동 시설현황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개별 및 공동시설 설치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II-4〉 마을단위 개별 및 공동현황

시 설 명	설 치 년 도	규 모
그린스쿨(체험관)	2003	1동
생태공원	2003	1개소
원두막	2005	1개소
농박시설	2003	4호 참여 (방 9 개)
도자기체험장	2004	30평
계란꾸러기체험장	2005	40평
야생화 체험장	2003	20평

주: 1. 이 외에 정보화실의 컴퓨터 16대 및 빔 프로젝터 등이 있다. 2. 그린스쿨, 생태공원, 원두막, 소공원의 부지는 마을로부터 무상으로 기증받은 마을 터임.

다) 향후 사업계획

2004년 부래미가 속한 이천시 울면 석산 2리 권역이 농림부로부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체험학습관을 지을 예정이다. 석산권역은 ‘부래미’ 마을에서 시작된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을 확산시키고, 자체 특산품과 농산물 판매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건평 300평 규모, 1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부래미 체험학습관’을 짓기로 하였다. 또한, 3,000평 규모의 화훼체험관, 친환경 재배단지, 야생화 체험장, 친

환경 연못 조성, 조류체험 학습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부래미마을 주변 권역의 장점을 찾아내어 이를 지속적으로 가꾸어 나갈 예정이다. SWOT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뛰어난 토질과 기후, 무자연 재해에 의한 고품질의 벼, 배, 복숭아가 장점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의 품질을 더욱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이면서 청정지역이고 미풍양속이 잘 보전되어 있는 점도 장점으로 분석됨에 따라 이를 적극 살려나갈 예정이다.

농촌, 문화, 교육이 함께 어우러진 마을로 육성하여 먼 장래에는 영어마을과 연계한 농촌마을로 운영하고, 인간, 자연, 문화가 어우러진 살아있는 민속촌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사무장을 대학원에 진학시켜 지역개발 전문가로 육성할 계획이다.

3) 사업 내용

가) 사업주체와 추진체계

사업은 마을 대표를 중심으로 마을주민 전체가 참여하였으나 법인형태는 아니다. 프로그램 진행과 홍보 관련 종사자수를 포함하여 모두 6명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으면 인적구성은 다음과 같다.

- 이장(상머슴) : 마을업무 총괄
- 총무(안머슴) : 기획·운영 및 재무회계
- 부녀회장(李상궁) : 식당관리, 단체식사
- 마당쇠 : 홍보, 마케팅, 교육컨설팅 지원
- 별(판)머슴 : 섭외·지도, 고객관리
- 사무장 : 사무행정, 프로그램진행

사이버 팜을 운영하여, 이를 통해 쌀, 배, 복숭아 등 특산물을 판매하고, 주말 농장, 배나무 등을 분양하여 사이버 팜 회원은 온라인상으로 재배상황을 점검하며 재배할 수 있다. 모든 체험활동은 농가단위별로 진행하고 있으며 단체 체험객의 식사는 공동식당에서 담당하고 농산물·체험상품의 택배판매는 단체계약을 하였다.

나) 사업 내용

농사체험, 놀이체험, 먹거리 체험, 자연생태체험, 전통문화체험 등 크게 다섯 가지 유형이며 사계절별로 나누어 실시한다.

〈표 III-5〉 계절별 체험프로그램

구 분	농사체험	놀이체험	먹거리체험	시 설 명	전통문화체험
봄	모종심기, 콩심기, 옥수수, 고구마	붕어잡기/미꾸라지/우렁이잡기/	우리콩두부, 각종떡, 봄나물캐기	식물조사, 나무심기, 아빠와 함께 낚시를	배꽃축제, 계란꾸러미
여름	감자·고구마 캐기, 옥수수따기	붕어, 미꾸라지 잡기, 곤충채집, 곤충생태조사	복분자따기, 복분자술담그기	생태조사, 아빠와 함께 낚시를	여름학교, 배수확(조생종)
가을	벼베기, 콩수확	도토리줍기, 우렁이잡기, 메뚜기잡기	우리도토리묵, 김장담그기,	생태조사, 아빠와 함께 낚시를	벼수확, 배수확(만생종)
겨울	씨앗심기, 모판 만들기	연날리기, 제기차기, 썰매만들기, 굴렁쇠굴리기	우리콩두부, 각종떡	겨울잠자는 곤충 찾기, 나무접붙이기	도자기, 사물놀이, 황토염색, 계란꾸러미

프로그램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홈커밍데이, 배꽃축제, 포도따기, 미술대회 등 이벤트행사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 홈커밍데이

행사정월대보름 경에 실시되며, 마을주민과 출향인사가 모여 고향 둘러보기, 민속놀이 체험, 고향발전을 위한 토론 등을 실시한다.

○ 배꽃 축제

4월 중순 경에 실시되며, 부래미 마을 회원, 도시민이 모여 고향의 봄 즐기기, 민속놀이 등을 체험한다.

○ 포도따기

8 9월에 실시되며, 부래미마을 회원, 도시민이 모여 포도시식, 포도따기, 포도염색, 포도주 담그기 및 농사·문화 등을 체험한다.

○ 미술대회

10월 하순경에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농촌풍경그리기, 전년도 수상작 전시, 도자기 만들기 시연, 스탠실 보디페인팅, 사진·국화 전시회 등이 실시된다.

다) 수익구조

농가의 수입은 농사체험 등 체험운영수입, 민박수입, 농산물판매 및 부식물 판매수입, 식당사업으로 창출된다.

공동식당(그린스쿨 내) 운영수입은 마을에 귀속(공동 경영)되나, 인건비는 해당 농가 소득이다. 마을의 수입은 공동식당 운영 수입 및 체험농장 운영으로 인해 생기는 농가 수입에 대한 5% 또는 10%의 수수료 수입으로 하며 비용을 제하고 남는 수익은 마을기금화 한다.

4) 사업추진 실적

가) 농촌체험 프로그램

연간 이용객은 2003년에 3,200명에서 2004년에는 11,960명, 2005년 17,000명이며, 방문객이 머무는 기간은 당일이 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하루를 묵고 가는 방문객은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 농촌체험프로그램 이용고객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3200명	11,960명	17,000명	25,000명

주: 연간 이용고객 : 농촌체험고객 + 민박고객

〈표 III-7〉 이용고객이 머무는 기간

당일체험	1박 체험	2박 이상 체험	계
80%	20%	소수	100%

농사체험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통문화체험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도자기 굽기 등 문화체험은 두 번이상 체험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농산물직거래

농산물직거래 금액은 2003년의 1억4천만원에서 2004년에는 4억원, 2005년에는 약간 줄어든 3억6천만원이다. 쌀의 경우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익을 남기지 않고 판매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표 III-8〉 농산물직거래 실적

(단위 : 천원)

품목	2003	2004	2005	2006
쌀	5,000	5,000	5,000	2,350
배	7,000	10,000	13,000	1,350
복숭아	2,000	5,000	3,000	460
포도	-	20,000	15,000	240
합계	14,000	40,000	36,000	4,400

다) 농가민박

참여농가는 총 22호중 4호로서 저조한 편이다.

〈표 III-9〉 농가민박 현황

숙박형태	방수	수용인원	참여농가 수
농가민박	9개	최대 50명	4호

5) 사업성과

가) 농외 및 농업소득 증가

첫 해인 2003년에는 호당 2백 내지 3백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에는 농업소득의 50% 수준인 호당 1천5백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미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자체 판단이 내려졌다. 포도의 경우 일부는 속 알맹이가 떨어져 나가 상품성이 낮아 내다 팔기 어려웠으나 체험프로그램 도시이용자들에게 오히려 인기가 높아 전량 판매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농업소득 증가하였다. 속 알맹이가 일부 떨어져 나가 상품성이 없게 된 포도는 햇별이 속속들이 들어가 오히려 당도가 높기 때문이다.

나) 고용증대 효과

식사제공 및 농가민박 등을 통해 이전에는 유희화 되어 있던 자기노동력 고용 효과가 있었다. 과거에 노동집약적 작목인 고추를 심었던 농가가 체험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고구마로 전환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겼고, 그 시간을 소득으로 연결하게 된 효과가 있다.

포크레인을 갖고 있는 농가의 경우 고구마로의 작목 전환으로 생긴 여유시간으로 포크레인 운전시간을 늘려 소득 증대시킨다. 사무장으로 1명의 직접적인 고용증대 효과가 있으며 부인에게도 사무장 보조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다) 정보화 마인드 제고

2004년에 정보화 마을로 선정되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서 주민의 정보화 마인드가 크게 제고되었다. 이메일 사용자가 정보화마을 지정 이전에는 세 농가였던 것이 2005년 현재는 스무 농가로 거의 전농가로 확산되었다. 농산물가격조회, 영농일지 작성 등 정보 활용도 제고 효과가 있다.

주민 공동사업이 활성화되고 주민의 공동체 의식이 높아지고, 정보화 마인드가 마을 단위에서 면단위로 확산되었다. 2004년의 경우 외부에서 80개 마을이 내방해 옴에 따라 인적 네트워크가 전국을 확산되어 마을이 갇힌 사회에서 열린사회로 발전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라) 마을주민의 자긍심 및 능력 제고 효과

주민들 스스로 사회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자긍심이 고취되었다. 농촌체험 이용자들은 사회적으로 중산층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마을주민은 이들을 교육시킨다는 긍지가 높다.

정보화 및 체험마을 운영 효율화를 위한 외부강사 교육을 많이 받게 되어 자기계발에 의한 주민의 능력 신장이 이루어 졌다. 당초에는 주민들이 농외소득 증대 등 경제적인 측면만을 생각했으나 이제는 삶에 재미를 느끼게 되었다.

6) 수익과 비용 분석

가) 시장동향 및 전망

공동 숙박시설을 갖춘 종합체험관 건축 시 농가민박, 식사 제공 및 농산물직거래의 사업규모가 크게 신장될 전망이다.

농촌체험의 경우 2003년의 경우 3천명 수준에서 2005년에는 1만7천명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마을 주민 수와 연계해 볼 때 2만명이 최대 수준인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표 Ⅲ-10〉 시장 동향 및 전망

사업종류	사업 전망
농촌체험	이용객 증가, 최대 연간 2만명 수준
농산물직거래	회원확보 여부에 따라 다르나 향후 연 30% 성장 가능
농가민박	종합체험관 건축시 숙박시설의 확충으로 대폭 증가 예상
식사제공	농가민박이 늘 경우 동반 상승
주말농장	서울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폐쇄

7) 사업 운영상의 특징

농촌체험관련 각종 비용정산은 개별 농가단위로 실시하고 있다. 한 번의 방문객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는 공동식당을 가동하여 참여자에 한해 배분한다.

사업추진과 관련한 내용은 회의를 통하여 해결하며 의사결정방식은 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제를 채택한다. 농촌체험관련 사업 추진은 철저한 업무분담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마을업무 총괄, 기획·운영 및 재무회계, 식당관리 및 단체식사, 홍보·마케팅 및 교육컨설팅 지원, 섭외·지도 및 고객관리, 사무행정 및 프로그램 진행 등의 역할을 철저히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업이 하듯이 마을(기업)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체계화하는 CI, 부래미 심볼, 브랜드 마크, 마스코트를 정하고, 스티커, 포장재, 자동차 도안, 플래카드, 배너, 입간판 등을 통일하였다. 지역주민들의 자율적 학습모임인 ‘공부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3월 최초 16명으로 발족하여 현재는 60여명이 참여한다.

8) 성공 요인

마을대표 및 주민의 적극적인 추진력이 성공요인이다. 2002년 농림부의 녹색농촌 체험마을 신청 시 주민들을 체험마을 선진지로 견학시키면서 적극 설득하였다. 마을 리더는 마을개발에 대한 청사진 제시하였으며, 마을 상품의 브랜드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임금님표 이천쌀과 장호원 복숭아, 울면 포도를 모두 부래미 쌀, 부래미 복숭아, 부래미 포도로 바꾸었다. 정작 부래미 마을에는 포도농사를 짓고 있지 않음에도 인근 포도 농가들에 체험마을 신청자들을 연계시켜 부래미 포도로 판매하였다.

전문가그룹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마을의 장단점을 파악한 후 이를 기초로 마을발전 전략 수립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 등 전문가 그룹에 의뢰하여 SWOT분석을 통해 부래미마을 및 주변 권역의 특장과 불리한 점, 마을 발전의 기회로 삼을 요인과 위협을 주는 요인들을 찾아내었다.

공부모임을 운영하여 마을 및 권역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경주하여 마을 및 인근 주민들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 이의 활성화하기위해 노력하였다. 공부모임 회원의 주제발표 및 토론 뿐 만 아니라 전문가 초청 강의 및 특강 등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새로운 지식 정보의 습득, 지역사회개발 뿐만 아니라 여가활용 및 취미활동등도 공부모임 활동내용에 포함시켜 회원들의 흥미를 유발한다.

교육 및 수익실현으로 마을주민들의 의식구조 변환되었다. 마을주민이 체험농장사업

을 자신들 개개인의 사업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마을 주민의 화합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체험농장 관련 의사결정시 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제 방식을 채택하여 마을공동 시설 부지확보시 땅주인의 의사를 최대 존중하였다.

나. 주말농장 : 경기 고양 돌풍주말농장

1) 마을(사업체) 개요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돌풍주말농장은 일산신도시와 접해 있으며, 서울과는 직선거리로 20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인구 43만명을 가진 일산 신도시에서는 자가용으로 15분 이내이며, 서울 북서부 지역에서도 30분 이내에 도착 가능하다. 자연·농업자원은 한강과 임진강을 끼고 있어 수량이 풍부하다. 농경지 면적은 약 15만평(논 면적은 10만평, 밭은 5만평)이며, 호당 면적은 3,000평이다. 조수입 비중은 취업 70%, 비농사 20%, 채소(열무, 배추) 10%이다.

마을주민 수와 사회적 특징으로 보아 도농 복합지역이다. 농가호수는 50호이고 비농가는 10호이다. 마을 내에 3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으며 거주민은 일산, 서울, 인근 공장으로 출퇴근하는 비농업인구이다. 덕이동은 가구공장, 물류센터, 로데오 거리 등 상공업이 혼재하고 있는 대도시의 배후지역 또는 도농 복합지역이다. 현재 북동쪽으로 20만평 규모의 택지개발이 진행 중이다.

돌풍주말농장의 운영시스템은 부부가 운영하며, 부인은 토요일, 일요일 등 바쁜 시기에 참여하고 있다. 전체면적은 4,000평(주말농장 2,700평, 부대시설 1,300평)이다.

(대표 : 김한원, 인터넷 홈페이지 : www.dolpung-farm.com)

주요시설은 사무실, 쉼터, 주차장, 원두막, 농장이 있으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사무실(20평) : 쉼터 내에 조립식 가건물로 컴퓨터, 냉난방시설, 냉장고 등 비치하고 뒤편으로 수세식 화장실(4개소) 설치
- 쉼터(680평) : 축사와 같은 방식의 연동식 하우스로, 철골 지주대와 농업용 파이프 구조를 만든 후 비닐과 부직포를 씌움
- 주차장(500평) : 석분을 깔아 배수가 잘되도록 조성

- 원두막(100평) : 4개동(평상 31개)으로 바비큐 시설과 함께 주말농장 내에 건축
- 농장(2,700평) : 가로 25줄×세로 13줄로 구획하고 도로와 수도시설(10m 간격, 이동식 스프링클러 10대)을 설치

2) 사업추진 과정

사업추진 배경은 도시민들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어 직접 농사를 지으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여 도시와 가까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방문 가능한 이점을 활용하였다. 인근에서 4~5개의 주말농장을 운영·정착하는 등 사업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추진 과정을 연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2002년 : 자가보유 논 2,000평 중 300평을 마을 내 신축 아파트 주민에게 주말 농장으로 분양
- 2003~2004년 : 인근 논 1,400평을 임대하여 본격적으로 주말농장을 시작
- 2005년 : 인근 논 2,600평을 추가 임대하고, 쉼터·사무실·주차장·원두막 등 각종 편의 시설을 설치

〈표 III-11〉 연도별 주말농장 운영 경과

(단위 : 평, 만원/10평)

구 분	2002년	2003~2004년	2005년
분양면적	300	1,400	2,700
분양단가	5	13	15

향후 추진계획은 농장규모를 분양면적 2,000평, 주차장 500평, 원두막 2동 확대할 것이며 농약, 효소 등을 손쉽게 분사할 수 있는 수막식(하향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시설 보관을 할 것이다. 기존 상향식(이동식) 스프링클러가 있었으나 고른 분사가 안 되고 분무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다. 재료비는 100만원 정도 예상된다(대표가 직

집 설치할 예정).

3) 수익과 비용 분석

2005년 조수익은 4,050만원(면적 2,700평 단가 15만원)이다. 최소 5평 분양이 가능하나 4인 기준 가족 농산물 소비량을 감안하여 10평 단위로 분양을 권장하고 있다.

〈표 Ⅲ-12〉 수익과 비용 분석

(단위 : 평, 만원/10평, 만원)

분양프로그램		2003년	2004년	2005년
주말농장	분양면적	300	1,400	2,700
	단 가	5	13	15
	매 출 액	150	1,820	4,050

2005년 총비용은 3,780만원이며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 인건비 (1,883만원)
3월(파종)부터 11월(수확)까지 1명 정도 근무가 필요하며 토·일요일은 부부(2명) 근무가 필요하다.
- 비 료 (704만원)
계분, 발효퇴비, 효소 등을 봄 로타리 때 투입한다.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 감가상각비 (469만원)
3농장 기반조성, 시설건축, 농기계 구입 등을 위해 7,940만원 소요된다.
- 농지임차료 (330만원)
3도시근교의 경우 임차료가 가장 저렴한 진흥지역 논을 임차한다.
- 농지임차료
논(165천원/200평), 밭(300~400천원/200평)

2005년 순수익은 270만원(조수익 4,050만원 - 총비용 3,780만원)이다. 인건비를 포함한 수익은 2,153만원으로 벼농사보다 훨씬 높다.

4) 주말농장 이용시 장점과 고객 분석

가) 이용시 장점

4인 가족이 주말에 외식할 경우 식사비용은 4~5만원 정도 소요되나 주말농장 원두막에서는 2만원 이내에 동일 수준의 식사가 가능하다는 경제적 이익이 있다. 본인이 직접 비료와 농약을 조절하므로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수확하여 먹을 수 있다. 10평 정도면 4인 가족의 채소류(오이, 무, 배추, 감자, 열무, 고추, 가지, 토마토, 고구마, 콩, 당근, 상추, 근대, 아욱, 시금치) 자급이 가능하다.

어린이들이 손수 식물을 가꾸고 키우는 것을 보면서 살아있는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어른들도 작물 재배 및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쉼터에서 배드민턴, 족구, 배구 등으로 개인의 건강 증진과 가족간 화합을 돈독히 할 수 있다. 주말농장 대표가 체육특기를 겸비한 경우에는 지도가 훨씬 유리하다. 특히 신세대 여성주부의 경우 두부만들기, 묵만들기, 떡만들기, 김장행사 등 각종 행사를 통해 전통음식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계기가 된다.

나) 이용고객 분석

주말농장 이용고객을 보면 자가용으로 15분 이내 인근 도시에 거주하는 직장인이 영농과 어린이 교육 및 주말 쉼터로 활용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자녀들에게 작물이 크는 것을 보게 하고, 부부는 쉼터에서 쉬는 목적이 많으며 순수 영농이 목적인 경우도 상당수 있다. 계약자의 대부분 직장인이므로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주거지와 최대한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최대 30분 이내 지역의 거주자이다. 대부분은 30~40대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며, 20대는 없다.

5) 발전 과제 (정책적 지원)

대부분의 분양자는 인터넷을 보고 방문, 계약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티 형성이

〈표 III-13〉 이용고객 분석

(단위 : %)

이용목적	어린이교육, 주말 쉼터 (50)	순수영농 (30)	기타 (20)
직업	직장인 (80)		자영업 (20)
주거지	일산신도시 (15분 이내) (80)		서울 인근 (10) (10)
연령	30~40대 (85%)		50대 (15)

중요하며 농장주와 분양자, 분양자 간에 의견과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중요하다. 대도시 주변 주말농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농지는 임대료 부담이 적은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이 적절하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쉼터, 사무실, 주차장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

- 쉼터에서 체육 활동을 위해 라인, 네트 등 설치 허용
- 분양계약, 간단한 교육 등을 위해 사무실과 화장실 설치 허용
- 우천시 주차 가능하도록 주차장에 돌을 깔 수 있게 허용

정부, 지자체, 농업 관련 기관의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양수리에 있는 '서울시 친환경 농장'에 서울 시민이 분양할 경우 시에서 50%를 보조한다. 상수원 지역에서 친환경 영농을 하는 보상 차원이다. 농협중앙회는 우수고객이 주말농장을 원할 경우 무료로 분양한다.

다. 체험학습 : 경북 의성 교촌농촌체험학교

1) 마을 개요

경북 의성군 안계면에 소재한 교촌체험마을은 대구 및 구미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농촌마을이다. 마을 총 가구수는 63호로 이 중 농가는 52호이며,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마을 주민은 남자 85명, 여자 72명 등 총 157명으로 이 중 60대 이상이 56%를 차지한다. 전체 농경지면적은 73ha이나, 이 중 논이 70ha를 차지하는 등 전통적으로 미작 중심의 영농을 유지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쌀(안계청결미), 보리, 고추, 참깨, 콩 등이며, 7ha의 농지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다. 비안향교, 관어대 등 일부 문화재 등이 있기는 하나, 특별히 뛰어난 자연경관은 많지 않다.

〈표 III-14〉 교촌마을 현황

가구수(호)			인구수(명)			농지면적(ha)		
계	농가	비농가	계	남	여	계	논	밭
63	52	11	157	85	72	73	70	3

2) 추진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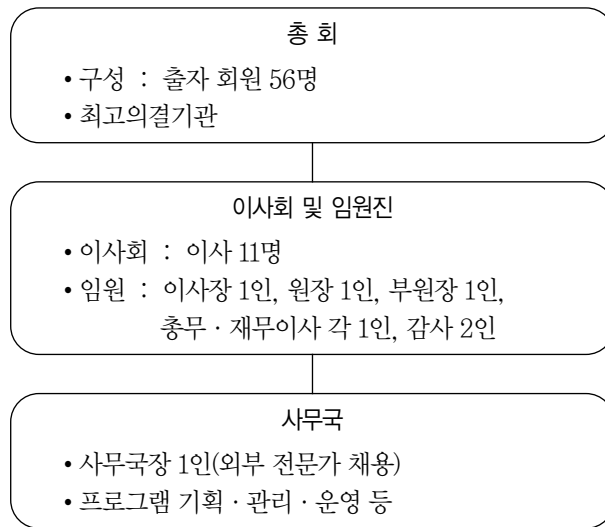
2002년 교촌마을 주민들이 주민총회를 열고 녹색농촌체험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주민 56명이 1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폐교 부지 등을 매입하였다. 농림부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된 후, 지원금 2억원 등으로 학교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경북도와 의성군에서 운동장·꽃동산 조성 및 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하였다. 2003년 폐교 리모델링 후 ‘교촌무지개수련원’을 개원하였으며, 수련원 운영 및 체험프로그램 기획·진행 등 실무를 담당할 외부전문가(사무국장)도 채용하였다. 제2회 전국마을가꾸기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및 농협중앙회 ‘팜스테이 마을’로 선정되었다. 또한 행정자치부 ‘다목적광장조성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2억원의 지원금으로 어린이놀이터, 체육공원 등을 조성하였으며, 2004년 “교촌무지개수련원”을 ‘교촌농촌체험학교’로 명

칭 변경하였으며 주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활동을 실시하였다. 도비 4천만원, 군비 1천만원을 투입하여 전통생활체험시설 초가집을 신축한다.

3) 조직체계 및 사업 내용

마을 주민 56명이 자본금 1억 8천만원을 출자하여 교촌농촌체험학교를 설립하여 의성군청에 법인등록하였다. 조직체계를 보면 출자 회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회와, 사업 추진을 위한 이사회 및 임원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험학교 실무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외부 전문가 1인을 사무국장으로 채용하였다. 조직체계는 다음 표와 같다.

〈표 III-15〉 교촌농촌체험학교 조직체계



주요 시설 내용을 보면 폐교 2층 건물을 방 4개, 샤워실, 화장실, 식당, 강당 등으로 개조하여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며, 폐교 건물 옆에 방 2개, 강당(체험실) 1개, 화장실 등을 갖춘 통나무집을 신축하였다. 가족단위의 방문객을 위해 황토 벽돌로 지은 전통 초가집을 신축하고, 통나무 담으로 둘러싼 옛날 장독대를 조성하였다. 운동장 부지에는 원두막, 수영장, 어린이 놀이터, 체육시설, 잔디 축구장 등을 조성하였다. 마을 주변에 개나리, 벚꽃, 단풍나무 등으로 꽃동산을 조성하였다.

〈표 III-16〉 주요 시설 현황

농촌체험학교	초가집	체험장	기타
숙소 7실(150명) 강당 2실, 식당	숙소 2실 (실내 취사, 화장실)	농사체험장 1,400평	원두막, 수영장 놀이터, 체육시설 친환경 주차장

〈표 III-17〉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폐교 매입	리모델링	기자재	꽃동산	운동장	계
160	200	30	45	60	495
주민 출자	농림부	도비	도비	군비	

체험프로그램으로는 농사체험, 자연체험, 전통문화체험 등이 있으며, 각 계절별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마을에 있는 비안향교와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우리의 전통 문화와 예절을 가르치는 서당체험캠프를 실시하며 전 놀이디자인연구소장 등을 역임한 사무국장이 어린이놀이 프로그램을 자체 기획·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III-18〉 주요 체험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농사체험	논농사	모심기, 피뽑기, 벼베기
	밭농사	농작물 파종, 가꾸기, 수확(고추따기, 고구마 등)
	농기구	리어카, 지게, 낫, 호미, 삽, 팽이 등 사용해 보기
자연체험	관찰	별, 숲, 강, 나무, 조류, 곤충, 들풀 등
	채집/잡기	산나물, 민물고기, 메뚜기, 낚시 등
	기타	산책, 맑은공기 배터지게 마시기, 이슬요정 만나기 등
전통문화	놀이	연날리기, 술래잡기, 비석치기, 산가지 놀이 등
	만들기	짚풀공예, 놀잇감 만들기(새총, 대나무 물총) 등
	생활	나무하기, 군불때기, 절구방아 찧기 등
	먹거리	가마솥밥, 떡 만들기, 두부만들기 등
기타	기획	리어카 면허증, 이장님 숙제, 추적놀이 등

또한 식대 및 숙박비는 어린이, 청소년 및 일반인으로 구분하여 <표 Ⅲ-19>에서와 같이 이용료를 받는다.

<표 Ⅲ-19> 이용료

구분	식대	숙박비
어린이	3,500원	3,000원
청소년	4,000원	4,000원
일반	4,500원	5,000원

4) 운영 실적

교촌농촌체험학교의 연도별 체험객 수는 2003년 1,700명에서 2005년에는 4,200명으로 늘어나는 등 계속 증가 추세이며 2005년도 매출액은 71백만원 수준이다.

<표 Ⅲ-20> 운영 실적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인원(명)	1,700	3,400	4,200
매출액(백만원)	28	61	71

주) 농산물 직거래 실적 등은 포함하지 않음

방문객들이 머무는 기간은 1박2일이 5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당일이 25%, 2박3일이 15% 수준이다.

2004년도 수입·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총수입에서 총지출은 92% 수준이며 수입액 중 이월금 등을 제외할 경우 순영업수입은 감소하여 아직까지 안정적인 수익성은 불투명하다. 지출액 중 급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사무국장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고, 명예직인 원장에게 실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식사 제공 및 침구류 정리·세탁은 마을 부녀회 회원들이 담당하고, 이에 상응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5) 추진 성과

교촌농촌체험학교가 급증하는 체험객 및 방문객을 통해 외부에 널리 알려지면서 마을이 활력을 되찾기 시작하였다. 종전에는 노령화로 활기를 잃어가고 있었으나, 이제는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넘쳐나면서 마을이 변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05년도 지역우수사례로 교촌체험마을을 선정하였다. 체험학교와 연계해 도시민에게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등 직거래사업도 활성화되고 있다. <표 Ⅲ-21>에서 보듯이 농촌여성일감갓기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떡 방앗간에서는 참기름, 엿기름, 두부, 메밀묵 등을 생산하여 도시민에게 직판하고 있다.

따라서 마을 주민의 고용창출효과는 물론 농외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표 Ⅲ-21> 직거래 및 방앗간 매출액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직거래	22	43	47
방앗간	110	165	140

라. 관광농원 : 충남 당진축협 관광농원

1) 마을(사업체) 개요

당진축협 관광농원은 충청남도 당진군 정미면 승산리에 위치하고 있다. 당진군 정미면은 서산시 음암면, 운산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중산간 지대로 총면적이 4,959ha이며, 이중 논이 941ha, 밭이 547ha이다. 정미면의 총 가구수는 1,435호로 이중 농가가 985호, 비농가가 450호이며, 총 인구는 3,869명으로 이중 남자가 1,918명, 여자가 1,951명이다. 정미면은 바다와 접하지 않는 육지로 서울에서 110km, 대전에서 14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의 관광명소로는 일출, 일몰, 월출을 볼 수 있는 왜목마을과 농업교육관, 미래농업관, 조합휴게소, 해수탕 등의 시설을 갖춘 휴양지 도비도, 그리고 석문, 대호 방조제 등이 있다.

관광농원이 위치한 승산리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 대부분 벼농사 중심의 고령화된 평범한 마을로서 옛날 노승이 정기적으로 순방하며 시주를 받고 마을의 모든 재난을 막

아주어 평안무고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노승 사후에 되박으로 모은 시주가 산에 비할 만큼 많은 혜택을 받았다하여 승산리(升山理)라 칭하였다. 마을 전체 가구 수는 73호로 이중 농가는 53호에 이르며, 대부분의 농가인구는 60대의 노령 층이다. 전체 농경지 면적은 81ha에 이르며, 그중에서 논이 40ha, 밭이 35ha, 축산 등 기타 6ha로 구성이다. 마을의 주요 소득 작목은 벼농사가 대부분이고 일부 농가는 파리고추, 채소 등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표 III-22〉 승산리 현황

가구수(호)			인구수(명)			농지면적(ha)			
계	농가	비농가	계	남	여	계	논	밭	기타
73	53	20	229	117	112	81	40	35	6

당진축협 관광농원은 1998년 5월에 설립되었으며, 총 면적은 27,592평 규모이다. 주요시설물로는 한우 비교사육 및 비육우 사업장, 생축사업장(AI센타), 축산기술 교육회관 및 연수원, 한우 전문식당, 그리고 사슴사 등의 볼거리 축사가 있으며, 기타 시설로 잔디광장, 방갈로, 팔각정, 원두막, 고사리채취장, 관리자 및 창고 등이 있다.

2) 사업추진 경과

1995년 조합원에 대한 조합이용활성화와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생축사업장(AI센타) 부지를 구입하여, 1997년에 개관하였으며, 연간 4만5천여 두 분의 액상정액을 생산·공급하여 품종개량과 경영비 절감으로 축산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효과를 거양하였으며, 다음해인 1998년 한우사, 염소사 등을 활용하여 조합원에게 각 축종별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축산기술 교육회관을 건립하였다. 축산기술 교육회관은 3층에 숙소 10실(특 3실, 일반 7실 등 수용인원 120명), 2층에 대회의실 및 웨딩홀, 1층에는 한우전문식당 및 피로연실을 설치하였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1998년부터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익사업으

로 숙소, 웨딩홀, 한우전문식당 등을 운영하는 관광농원 사업을 착수하였다. 도시민과 지역주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및 볼거리를 제공하는 농촌체험현장과 휴식생활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고, 한우와 염소사육의 현장견학과 축산분뇨를 친환경 자원으로 활용하여 우리 축산물에 대한 긍정적 공감대를 확대하였다.

총투자금액은 3,160백만원으로 정부차입 391백만원, 보조금 676백만원, 조합자체 2,093백만원을 투자하였다. 주요 시설로는 축산기술 교육회관(3층), 한우사(2동), 염소사, 사슴사(꽃사슴 4두, 타조 2두 등), 원숭이사(일본원숭이 4두), 조류사 및 잔디광장(족구, 배구 가능) 등이 있다.

향후 관광농원은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교육장소 제공 및 최우수 종돈을 확보하여 고능력 정액을 생산·공급하여 양돈산업의 생산성증대 및 농가 경영개선에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 확보와 한우사육 체험 등으로 관광농원을 편안한 가족공원으로 도시민과 지역주민에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순수 한우고기의 부드럽고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는 한우 전문식당과 부위별로 밉고 구입할 수 있는 직거래 매장의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도농교류의 소비촉진이 되고 있다.

3) 사업추진 내용 및 성과

교육회관과 한우사를 동시에 운영하는 장점으로 매년 2차례 실시하는 축산컨설팅부 주최의 축산컨설팅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임직원의 홍보 및 마케팅으로 군청, 한전 등의 유관기관과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들의 교육 및 세미나 장소로 활용함은 물론 관내에 소재한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의 학습장으로 개방함으로써 관광농원의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교육회관내 120명 수용 규모의 숙소와 족구, 배구 등을 할 수 있는 700여 평에 달하는 잔디광장과 한우 전문식당을 연계하여 농협중앙회 지점 등 기업체에 체육행사도 유치하고 있다.

년도별 이용객 추이를 보면 2004년 6만여 명, 2005년도 7만여 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III-23〉 연간 이용객 추이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5,000명	57,000명	60,000명	70,000명

○ 농원의 이용객 역시 인근의 왜목마을, 도비도, 석문·대호·삼교호 방조대 및 슬피성지 등 주변관광지를 방문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농교류 촉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4) 수익과 비용 분석

관광농원의 총 투자금액은 3,160백만원으로 주요 투자항목은 사업장부지 구입, 우사, 농업용창고, AI센타 및 축산교육회관 등이 있다. 한우 사육을 늘리기 위한 우사 2동을 신축할 예정이며, 회관 3층 숙소를 현대식으로 개조하여 이용률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표 III-24〉 관광농원의 시설투자 내용

투자항목	시작년도	총투자(만원)	보조
우 사	1996	12,440	-
창 고	1996	22,900	-
AI 센 타	1997	17,940	-
축산회관	1998	110,910	30,000
합 계		164,190	

관광농원의 월 유지관리비는 8,750만원 정도이며, 식당 재료비(38,411천원)와 인건비(38,114천원)가 87.5%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수도는 자가 수도를 이용하고 있어 수도요금은 없다.

〈표 III-25〉 공동시설 유지관리 (월평균)

비 용 항 목	경 비 (천원)
인건비	38,114
유지수선비	320
홍보비	-
통신비	336
수도요금	-
전기세	1,483
가스등 난방비	1,045
물재비	-
감가상각비	7,821
기타경비	38,411
합 계	87,485

5) 성공요인

총 투자금액의 34%인 1,067백만원에 달하는 초기 투자재원을 정부, 농협 등 관련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전 임직원의 홍보 및 마케팅으로 군청, 한전 등 관내 유관기관과 중소기업체들의 교육 및 세미나장으로 활용하여 시설물의 이용률이 제고되고 도시민과 지역주민들의 식당이용 고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150석 규모의 웨딩홀 및 피로연실을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여 주말 이용률을 제고시키고 농원의 수익다각화 및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다.

마. 농촌민박 : 경기 포천 교동마을

1) 마을 개요

교동마을의 유래는 옛날 용이 수도를 한 후 승천한 곳이라고도 하며 또한 도룡농이 많이 서식하여 도룡골이라고 하였다가 도룡골이 점차 변하여 데룡골이라고 부르다가 지금은 교동(蛟洞)으로 불리고 있다. 경기도 포천군 관인면 중 1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북부방향으로 8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한탄강 상류지역으로서, 마을에서 민통선까지의 거리가 20km정도로 휴전선이 매우 가깝다.

자연 생태계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관광 명소 등 자연 자원이 풍부하다. 평지에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지장산 계곡 등 1급수 계곡이 여러 곳 있으며 마을을 둘러싸고 지장산, 종자산 등 유명한 산들이 많다. 관광지인 산정호수와 한탄강이 인근에 있으며, 포천군 향토 유적지인 궁예 대각 성지 등 다양한 역사유적이 즐비하다. 특히, 민통선이 가까워 판문점과 도라산 전망대, 제3땅굴 등 안보관광이 가능하다.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지만, 경지면적은 협소하여 농가 대부분이 소규모 농사에 의존하고 있다. 마을 전체 가구 수는 32호로 이 중 농가가 19호에 이르며, 농가인구 대부분이 40~50대의 비교적 젊은 층이다. 전체 농경지 면적은 30ha에 이르며, 이중 논이 13ha, 밭이 20ha, 사과농원이 2ha로 구성되어 있으며, 축산도 경영한다. 마을 주요 소득 작목(조수입기준)으로는 벼농사가 35%로 가장 많으며, 밭작물과 축산(착유, 비육우)이 각각 32% 정도를 차지한다.

〈표 III-26〉 교동마을 현황

가구수(호)			인구수(명)			경지면적(ha)				
계	농가	비농가	계	남	여	계	논	밭	과수원	기타 축산
32	19	13	105	52	53	35	13	18	2	2

농업자원은 그다지 풍부하지 않지만, 자연적·지리적 조건이 좋고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농촌관광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입지조건을 지니고 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민박사업과 가족단위의 농촌체험을 겸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2) 사업추진 경과

1970년대 후반부터 가난한 마을의 굴레를 벗고 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선진 농촌현장 견학은 물론, 마을주민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자체 제작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였다.

1995년 정부의 농촌마을 정주권 개발 사업을 계기로 마을 주택을 전면 개량하면서 농외소득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3가구의 옛집을 완전히 헐어 현대식 주택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기반시설을 완료하였다. 1996년 포천군 민박 마을로 지정되면서 민박을 겸한 농촌체험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현대식 개량 주택을 활용한 민박과 농사체험관광 사업을 시작하였다. 1999년에는 농협중앙회 제1호 팜스테이 마을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농촌체험사업을 추진하였다.

2002년에는 전국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해마다 평균 1만명이 넘는 도시민이 방문하였으며 과거 가난했던 마을이 현재는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멋진 주택단지를 지닌 아름다운 농촌마을로 탈바꿈하였다.

1995년 4월~12월까지 총 19억 7천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마을 조성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9,950㎡의 준 농림지역에 주택개량 23동을 비롯하여 마을 회관 1동, 창고 2동, 간이상수도 1개소를 건설하였다. 이 밖에 기반시설, 마을(오수)하수도시설,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마을조경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III-27〉 1995년 마을 조성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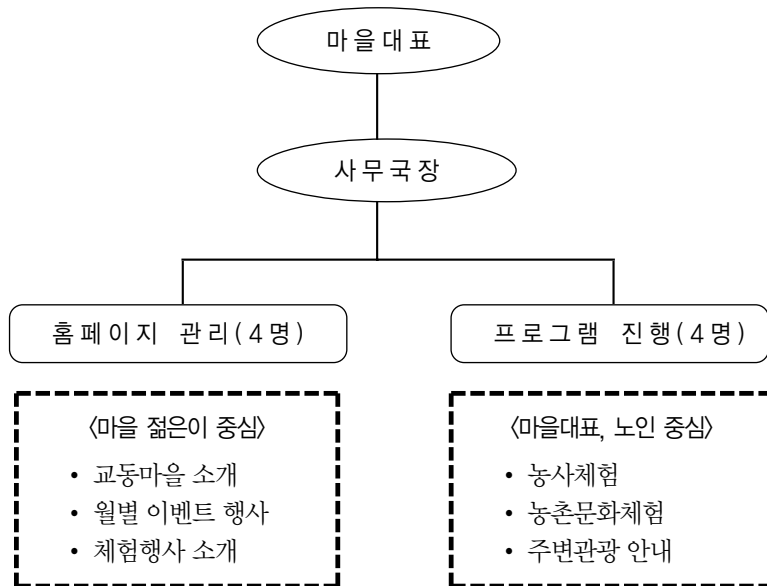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년도	구분	계	보조금				용자금				자부담
			소계	도비	군비	양여금	소계	도비	군비	기타	
1995	계	1,974	432	100	132	200	518	100	20	368	1,024
	주택개량	1,392					368			368	1,024
	기반시설	102	102	50	50						
	오수처리	200	200			200					
	공동시설 택지매입	130 150	130	50	50		150	100	50		

3) 사업 내용

가) 농촌체험관광 사업

마을 대표를 중심으로 마을주민 전체가 참여하며 법인형태는 아니다. 농촌체험관련 종사자수는 프로그램 진행과 홍보 관련 종사자수를 포함하여 모두 10명 정도이다. 농촌 체험과 연계된 숙박과 식사는 정해진 개별농가 단위로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사업 추진 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Ⅲ-4〉 사업 추진 체계

프로그램 내용은 농촌, 문화, 관광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기본코스는 농사체험, 문화체험, 주변관광으로 이루어진다. 체험비용은 1인당 35,000원이다. (숙박, 식비, 체험, 관광 포함)

〈표 III-28〉 프로그램 내용

농사체험	벼농사(못자리만들기, 벼베기, 탈곡 등), 버섯수확, 고구마 순 따기, 빈대떡 만들기, 도토리묵 만들기 등
문화체험	풀피리, 통소 연주, 소달구지 타기, 사물놀이, 짚신삼기, 새끼꼬기 등
주변관광	궁예성터, 지장산계곡, 종자산, 산정호수, 안보(제2땅굴, 백마고지), 고석정, 한탄강, 현무암 계곡 등

나) 농가민박 사업

농촌체험관광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 방문고객 중 순수하게 민박만을 하는 경우는 20%정도이다.

〈표 III-29〉 농가민박 현황

숙박형태	방수	수용인원	참여농가수	이용요금
농가민박	13개	52명	7호	30,000원(1박, 4인기준)
펜션	5개	30명	2호	50,000원(1박기준)
계	18	82명	9호	

농촌체험관광사업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 민박 매출도 증가하기 때문에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에 사업이 집중되어 있다.

다) 농산물 직거래 사업

농산물 직거래사업은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참석자 구입과 자매결연 단체와의 거래가 주종을 이룬다.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참석자는 체험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과 교동마을 특산물(쌀, 버섯, 사과 등)을 구입한다. 98년에는 부천 중흥마을과 04년에는 (주)라인테크와 자매결연을 맺어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였다. 다만, 직거래를 통한 소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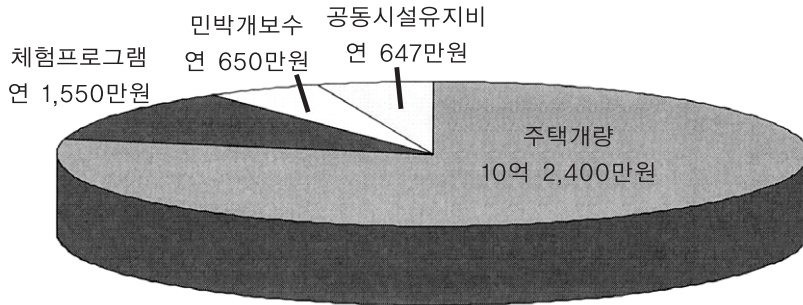
연중 판매가 목돈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게 부담한다. 05년의 경우 쌀을 관내 농협에 계통출하 후 농협을 통해 구입토록 하고 있다.

라) 음식업

농촌체험프로그램이나 민박을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농가 단위로 실시하고 있으며 아침과 점심은 5,000원 수준, 저녁은 10,000원 수준으로 제공한다. 최근에 단체 고객 방문이 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을 공동식당 마련을 준비 중에 있으며 현재 단체 고객의 경우 부녀회에서 마을 회관에 음식을 준비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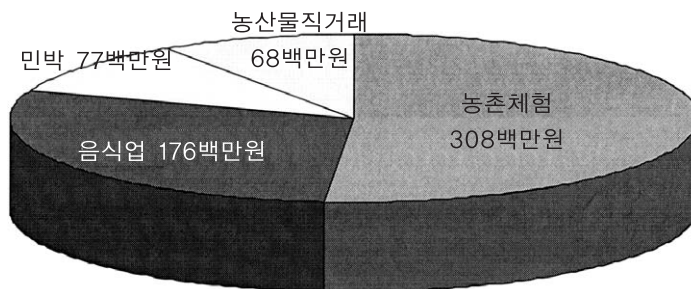
4) 사업 추진 실적

가) 초기투자 및 관리비용



〈그림 III-5〉 초기투자 및 관리비용

나) 2004 사업부문별 매출액



〈그림 III-6〉 2004 사업부문별 매출액

다) 세부 사업추진 현황

(1) 농촌체험관광

〈표 III-30〉 연간 이용고객 : 농촌체험고객 + 민박고객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3,500명	5,800명	11,000명	11,000명

〈표 III-31〉 방문객이 머무는 기간

당일	1박	2박	3박 이상	계
20%	70%	5%	5%	100%

〈표 III-32〉 매출액 (농촌체험프로그램과 민박구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농촌	체험	98	162	308	308
	민박	24	46	77	77

(2) 농가민박

〈표 III-33〉 농가민박 매출(식사대 불포함) 및 이용률

(단위 : 만원, %)

숙박형태	평균 이용률 (최대수용인원=100%)	월평균 매출
농가민박	20%	120
펜션	15%	208
계	35%	328

(3)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실적

〈표 III-34〉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실적

(단위 : 만원, %)

당일	1박	2박	3박 이상	계
품목	2003	2004	2005	순수익 비율
쌀	6,000	2,000	1,000	73
잡곡류	1,500	1,500	1,000	70
사과	400	2,500	-	75
임산물	-	800	1,200	
합계	7,900	6,800	3,200	

(4) 음식업(농촌체험프로그램 참여자 비용 1일 3식기준)

〈표 III-35〉 음식업 (농촌체험프로그램 참여자 비용 1일 3식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	2004	2005
매출액	93	176	176
이용자수	4,640	8,800	8,800

(5) 초기투자 및 유지관리 비용

〈표 III-36〉 초기투자 및 유지관리 비용

(단위 : 만원, %)

숙박형태	호당 연평균 개보수 비용	연평균 관리비용 비율
농가민박	10만원	
펜 션	40만원	
계	50만원	

5) 사업성과

주로 건축업 등 품팔이에 의존하며 생활하던 마을 주민들에게 농촌체험관광사업을 통하여 일정 소득을 유지하고 있다. 2004년 기준으로 농가별 평균 680만원의 소득증대 효과가 있다. 과거에는 일거리가 거의 없었던 70~80대 노인들의 경우 농촌체험프로그램의 문화체험을 전담토록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에게 삶의 활력소도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 체험 참가자의 경우 할아버지가 직접 설명해 주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시골 할아버지의 정(情)을 느끼게 한다.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멋진 마을이라는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마을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

6) 사업 운영상의 특징

초창기 사업 추진 시에는 공동참여·공동정산방식을 채택하였으나, 참여도에 따른 이익배분이 문제로 폐지됐다. 2000년 이후부터는 농촌체험프로그램 진행료를 제외한 숙박, 식사, 기타비용을 고객이 직접 개별농가에게 지급하며 단체고객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공동정산이 필요한 경우는 참여자에 한해서 배분한다.

사업추진시 마을대표나 특정인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마을주민 전체가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해결하고 판단을 내린다. 인터넷과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전담주민, 체험프로그램 진행 전담주민, 마을대표 역할을 철저히 구분 운영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7) 성공 요인

마을 대표(지도자)의 적극적인 추진력과 마을 주민의 협력이 성공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마을 대표가 중심이 되어 마을 활성화를 위한 마을조성사업 등을 적극 유치하였고,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교육 지속적 전개하고 있으며 농촌관광사업을 통하여 마을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주민의 인식 공유와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되고 있다.

교동마을은 농업자원이 열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적 지리적 조건을 최대한 활용한 농촌관광프로그램 개발에 성공하였다. 농업을 1차 산업으로만 생각하지 않

고 가공·서비스업과 결합시켜 6차 산업으로 창조한다. 적극적인 홍보와 고객관리를 통하여 10년 동안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오고 있다. 각종 언론은 물론이고 경기도와 한국관광공사 홍보책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교동마을 얼굴 알리기에 성공이었으며 고객 방명록에 전화번호, 메일 등을 반드시 적도록 유도하여 문자메시지나 메일을 통하여 행사안내는 물론이고 지속적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다.

바. 은퇴농장 : 충남 홍성 은퇴농장

1) 마을(사업체) 개요

가) 마을소개

홍성군 홍동면은 중산간 지대로 총면적이 3,626ha이며, 이중 논이 729ha, 밭이 937ha이다. 총 가구 수는 1,569호로 이중 농가가 1,355호, 비농가가 786호이며, 총 인구는 4,730명으로 이중 남자가 2,371명, 여자가 2,359명이다. 축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한우 사육농가가 459호(4,745두), 젓소 사육농가 26호(1,408두), 돼지 사육농가 88호(29,135두), 사슴 사육농가 17호(299두)이다.

은퇴농장이 속해있는 홍성군 홍동면 홍원리의 마을 총가구는 60호이며, 모두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마을 인구는 120명이며, 이중 남자가 65명, 여자가 55명이다.

마을의 제1위 품목은 양돈으로 조수입의 40% 수준을 차지하고, 제2위 품목은 한우로 조수입의 30% 수준, 제3위의 품목은 쌀로 조수입의 20% 차지하고 있으며 은퇴농장이 있는 홍동면 홍원마을은 다른 지역에 비해 축산업이 발달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농가가 많다. 또한 상대적으로 젊은 농업인이 많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많다.

나) 사업체 운영실태

마을의 위치는 충남 홍성군 홍동면 홍원리 1044~5번지이며 은퇴농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며, 비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설립목적은 은퇴 후 영농을 통한 소일거리와 휴식처 제공으로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의 소외를 방지하고, 노년의 편안한 삶

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종사자 수는 24명으로 사업운영자 부부이외에 식당과 영농에 종사하는 직원 각 1명, 은퇴농장을 이용하는 이용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장 및 시설 현황은 주거시설 24세대, 공동식당 1동, 비닐하우스 1,000평, 밭 6,000평이다.

입주자는 평형(7평, 10평, 14평)을 선택하여 입주보증금을 납부한 후 개별 입주하며, 생산시설은 모두 사업주가 제공하고 있으며 월별 시설 이용료는 각자가 부담하며, 난방요금만 개별 부담한다.

2) 사업추진 경과

가) 추진경위

퇴직, 사별 등으로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노년계층의 경우 정상적인 생활을 즐기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가족과의 불화로 인해 노년을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사별 등으로 여생을 외롭게 보내는 경우가 많다.

농촌생활에 대한 향수로 인해 귀농을 고려해보지만 농사일에 대한 경험 부족과 고령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퇴직 후 여생을 농촌에서 보내며, 소일거리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방안으로 은퇴농장을 선택한다. 농장에서 숙소와 시설을 제공하고, 입주자는 일정시간의 농사일을 거들어 줌으로써 소득을 얻는 효과가 발생한다. 전문 농업인이 전체적인 농업 생산을 지도하고, 입주자는 수확, 포장 수준의 간단한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농사에 대한 부담을 없앤다. 특히 뜻을 같이한 입주자들이 함께 생활함으로써 외로움을 극복하고, 서로 의지하며 살게 되어 성공적인 농촌생활 정착이 가능하다.

나) 연차별 추진내용

○ 1993년

다가구주택 건축(8세대), 염소 사육장, 개 사육장, 사슴 사육장, 돼지 사육장, 비닐하우스(300평)를 건축하였다. 사업은 입주 보증금을 받은 후 주택과 사육장 등 시설을 분양하여 이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입주자들이 가축 사육능력이 낮고, 농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적어 축사시설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했다.

○ 1996년 먹거리 배달 실시

서울, 천안, 아산, 대전의 먹거리 회원을 대상으로 야채, 장류 등을 매 10일마다 배달하는 사업을 실시하였다. 언론홍보 등으로 인하여 호응이 좋았으나 배달이 많아짐에 따라 인력이 부족해져 1998년 초에 먹거리 배달 사업을 그만두었다.

○ 1997년 건물 증축

입주자들의 반응이 좋아 16세대를 증축하여 총 24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 증축되었다.

○ 1998년 중탕판매 실시

입주자들이 사육한 염소, 개, 사슴 중탕을 판매하였으며(연간 500박스 규모), 언론홍보와 기존 먹거리 회원들로 인해 판매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1999년 말 입주자들이 사육을 어려워해 중탕사업을 그만두었다.

○ 1999년 말 유기농산물 생산, 판매사업 실시

300평 규모의 유기농산물 생산 비닐하우스를 건축하여 채소류(깻잎, 아욱, 근대 등) 재배를 시작하였다. 홍동 지역의 유기농산물 생산조합(풀무생활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서울의 소비자단체인 '생협' 과 직거래로 물건을 공급하였다.

○ 2000년 인터넷 운영

다) 향후 계획 및 특기사항

김치, 절임류, 장류 가공시설을 확대하여 아파트 직거래를 확대할 계획이다.

3) 사업내용

가) 사업 운영 방식

은퇴농장의 운영은 사업주가 주거지와 농장, 영농시설을 조성한 후, 이를 일반에 임대·분양하여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주거지에 대한 이용권이 이루어질 뿐 영농시설

이나 농장은 주인이 운영하며, 입주자가 별도의 영농시설이나 농장을 소유, 임대하는 것은 아니다.

〈표 III-37〉 은퇴농장 보증금 및 관리비 현황

평수	보증금	식생활비 (관리비 포함)	비고
7 평	25,000,000원	월 340,000원	1인 기준
10 평	35,000,000원	월 340,000원	1인 기준
14 평	50,000,000원	월 340,000원	1인 기준

민 박 : 대실 (10 평형), 1일 30,000원, 1인 1일 식대 15,000원
 하 숙 : 10 평형 - 80만원, 1일 석식제공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후 은퇴농장에 거주하며, 사업주의 일을 도와주며 일정액의 급여를 받고 생활한다. 입주자는 스스로 필요한 일과 양을 선택하여 농사에 참여하며, 농산물 판매대금(매출액)의 10~30%를 사업주로부터 급여로 받고 있다.

나) 농산물 판매

사업주는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 유기농산물 생산조합(홍성 풀무생활협동조합)과의 계약을 통해 대도시 소비자 조합인 '생협'에 납품한다. 홍성 풀무생활협동조합은 생협으로부터 주문받은 물량을 사업주에게 배정하며, 사업주는 배정물량을 생협에 공급하고 있다. 유기농산물 이외의 김치, 장류, 절임류는 주문을 통한 직거래 형태로 사업주가 직접 소비자에게 공급한다.

4) 사업성과

가) 소득 및 고용 증대

가공이 활성화되고, 취급 품목이 확대되면서 매출액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되었으

며 2003년 매출액은 28백만원이며, 2004년 47백만원, 2005년 79백만원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순수익률은 50% 정도이며, 장류가 80%로 매우 높다.

〈표 III-38〉 은퇴농장 연간 매출액 및 순수익 비율

품 목	2003년 매출	2004년 매출	2005년 매출 (천원)	순수익 비율
① 깻잎	25,000	25,000	25,000	50%
② 마늘잎	-	8,000	15,000	50%
③ 절임류	-	10,000	10,000	40%
④ 김치류	-	-	25,000	40%
⑤ 장류	3,000	4,000	4,000	80%
기 타				%
합 계	28,000	47,000	79,000	50%

나) 지역 활성화 효과

은퇴농장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주문이 있을 경우 주변의 농가가 생산한 품목을 팔아줌으로써 지역 농가의 소득 증가에 기여하고 있으며 연간 판매액 10백만원 수준이다.

다) 고객수

은퇴농장은 현재 입주자가 20명이며, 2003년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이 중 남자가 14명, 여자가 6명으로, 모두 독거노인이며 연령대는 50대~80대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1993년 이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40% 정도이며, 6명을 제외하고 중도에 입주를 포기한 사람은 없다.

5) 수익과 비용 분석

연간 입주자는 20명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며, 매출액은 연간 30% 정도 증가할 전망이며 은퇴농장의 총 투자비용은 10억원 정도이며, 주요 투자항목은 입주자가 거주하는 주거용 건물과 축사, 비닐하우스, 경운기와 같은 농기계 등이 있다. 향후 김치류, 장류 가공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표 III-39〉 은퇴농장 개별 투자 항목 및 비용

투자항목	시작 연도	총투자 (만원)	보조
①주거시설	1993	25,000	-
②주거시설	1997	50,000	-
③축사	1993	20,000	-
④경운기	1996	200	-
⑤관리기	1999	80	-
⑥하우스	2000	6,000	-
합계		101,280	-

은퇴농장의 월 유지관리 비용은 350만원 정도이며,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2백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수도요금은 자가 수도를 이용하고 있고, 가스 등 난방비는 개별 입주자가 부담하고 있다.

6) 성공요인

귀농 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홀로 귀농하기에는 연령이나 기술면에서 부족함이 많아 주저하는 계층,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간의 갈등과 도시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농촌 생활을 희망하는 노인계층, 사별 등으로 홀로됨에 따라 노년을 농촌에서 외롭지 않게 보내고자 하는 노인계층 등을 목표고객으로 사업을 한 것이 성공요인이 되었다.

입주자들이 대부분 노인계층이라 육체적으로 힘든 농사일을 모두 맡기는 것보다 비

〈표 III-40〉 은퇴농장 유지관리 비용(월평균)

비용항목	경비(천원)	비고
①인건비	2,000	
②유지수선비	500	
③홍보비	0	
④통신비	200	
⑤수도요금	0	
⑥전기세	500	
⑦가스등 난방비	0	
⑧물재비	0	
⑨감가상각비	333	입주보증금의 6%
합 계	3,533	

교적 쉬운 작업인 수확과 선별, 포장작업을 수행토록 하였으며 입주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작업량을 스스로 선정토록 하고, 매월 작업량에 따라 급여를 받도록 하여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 유지하게 하였다. 농사 이외에 매주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 온천, 여행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유기농산물 생산과 소비자 직거래를 통한 매출 확대시키고 있으며, 이는 비교적 일손이 많이 가는 유기농 재배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생협과의 직거래를 통해 수취가격은 높은 편이다. 입주자가 스스로 선택한 작업 물량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면, 사업주가 매월 매출 계산서에 따라 매출액의 30% 정도를 급여로 지급함으로써 투명한 이익 배분이 가능하게 하였다.

7) 향후 전망과 발전과제

가) 전망

은퇴농장 형태의 시설이 확대될 경우 도시민의 은퇴 후 귀농과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은퇴농장과 같은 시설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면, 감소하는 농업인력을 일부 대체할 수 있다.

나) 발전과제

입주자를 위한 주거지나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를 개인이 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높아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농장에 대한 지원은 생산시설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타 입주자를 위한 편의시설(골프장, 낚시터 등)에 대한 지원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편의시설의 확대는 입주보증금을 높이게 되고, 이는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케 하는 악영향을 초래한다. 따라서 규모가 작고, 입주보증금을 낮추어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계층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은퇴농장 운영 대상자 선정은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나 농협 등 지역 주민을 잘 알고 있는 농업관련기관·단체에서 해야 하며, 사전·사후관리가 용이하므로 농업기술센터가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농산물 재배기술 등을 보급하고, 농협에서 판매망을 확보해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은퇴농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존의 농장에서 1달 정도 합숙하면서 농장운영 시스템을 배우도록 해야 한다.

은퇴농장은 여러 가지 품목을 취급하기 보다는 지역의 특성에 맞고, 작업이 용이한 품목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하며 산간지는 염소나 사슴을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농장으로, 한우 사육농가가 많은 곳은 한우 사육농장으로 운영해야 한다.

은퇴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거래처를 확보해 주고, 아파트 단지나 소비자 단체들과의 결연을 주선하고, 인터넷이나 언론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사. 지역축제

1) 강원 평창 메밀꽃축제

가) 마을소개

평창군은 강원 내륙 남부에 위치한 영서지역의 대표적 고원산악지대이다. 표고 700m 이상의 토지 면적이 전체 균면적의 62.5%를 차지, 1000m 이상의 고지도 23개

소에 달한다. 면적은 1,463.40km²(2004년말 현재, 군 면적으로는 전국 3위)이다. 인구는 17,707가구, 45,482명. 인구밀도 : 31.1명/km²로 낮은 편이다.

깨끗한 자연환경, 풍부한 문화자원, 교통의 편의성 등 관광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고 지역 주민 자발적인 축제가 많은 지역이다. 영동고속도로가 동서방향으로 관통하며 군내 5개 IC가 있어서 광역교통망이 비교적 잘 발달되었으며 오대산이 위치한 진부면을 중심으로 상원사, 월정사 불교문화유적이 많으며, 봉평면에 이효석 관련 문학관 및 생가와 이울곡 관련 봉산서재 등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다. 대관령눈꽃축제(1월), 무이 정월대보름 달맞이(2월), 평창강 민속축제(6월), 효석문화제(일명 메밀꽃축제, 9월), 감자큰잔치(9월), 오대산축제(10월), 노성제(10월) 등이 있으며 효석문화제와 대관령 눈꽃축제는 문화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 감자큰잔치는 특산물축제이고 나머지는 주민화합축제이다. 효석문화제, 산꽃약풀축제, 눈꽃축제 등 대형축제들이 주민 스스로 축제 위원회를 만들어 기획과 운영한다.

최근 지역경제회생, 삶의 질 제고 등으로 인구 U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HAPPY700 평창’이라는 평창군의 자체 개발 브랜드는 동식물의 생체리듬을 좋게 해 사람 살기에 최적인 평창의 해발표고 700m를 표현한 것으로 평창지역의 활력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또한 평창군 봉평면은 단편소설 ‘메밀꽃 필 무렵’을 쓴 가산(可山) 이효석(李孝石)선생의 출생·성장지로서 메밀꽃축제(공식명칭 ‘효석문화제’)가 열리는 지역으로 평창읍으로부터 북쪽으로 36km 떨어져 있으며 면적은 217.45km², 인구는 1,998가구, 5,042명(9개 법정리)이다.

주민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벼, 감자, 옥수수, 고랭지 채소 등)하고 있으며 민박(500개소), 음식점, 레저시설(보광 휘닉스파크) 등 관광산업에도 다수 종사하고 있다.

지역 농특산물은 감자, 옥수수, 고랭지 채소, 산약초(곤드레, 더덕 등)있으며 최근 축제로 인지도가 높아진 메밀 및 메밀 가공식품, 이외에 송어, 한우 등이 있다.

나) 축제 담당 사업체 현황

효석문화제위원회는 효석문화제를 준비하기 위해 1999년 설립된 민간주도형 임의단체로, 지역의 각계각층의 대표인사 및 실무진으로 구성되어있다. 위원장 평창군수(당연직), 부위원장 평창문화원장, 16명의 이사, 감사, 사무국 휘하 15개 부서에 걸쳐 100여명에 달한다. 섭외, 교통, 의전, 홍보, 지원, 문학, 공연, 통신, 언론담당, 메밀운영, 장

터관리, 식음, 환경, 시설, 국제 등 15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가산문학선양회는 1972년 가산 이효석선생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故 박동락 도의원에 의해 봉평면민을 중심으로 조직된 사단법인(초기 명칭은 ‘봉석회’)이다. 회원 수는 100여 명이며, 효석문학관 및 효석문화제 운영에서 주도적인 역할 수행한다. 1980년부터 매년 평창군내 청소년의 문학적 소양을 배양할 목적으로 효석 백일장을 개최하고 있다.

다) 사업추진과정

(1) 효석문화제 행사

효석문화제의 전신은 ‘효석 백일장’으로서 가산문학선양회가 관내 청소년의 문학적 소양을 배양할 목적으로 198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효석백일장의 제2부 행사는 오늘날 효석문화제의 다양한 이벤트의 모태가 되고 있다. 1990년대 문학선양사업과 지역소득 창출통로로서 효석문화제 기획하였으며 故 박동락 전임회장이 봉평면 청년들을 인솔하고 메밀축제로 유명한 일본 토야마현 토가무라(利賀村) 산촌을 7차례나 방문·견학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99년 제20회 효석백일장에 즈음하여 이효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국민정서 함양과 문학의 재평가 기회를 마련하고자 전국적인 문화행사로 확대·발전시켜 제1회 효석문화제 개최하였다. 이후 매년 9월경 메밀꽃 필 무렵 수일간 열리는 문학, 예술, 자연, 체험이 어우러진 종합적 성격의 축제로서 올해로 7회를 맞고 있다.

(2) 추진배경

이효석선생이 나고 자란 봉평면에는 생가터와 봉평초교 등이 남아있고, ‘메밀꽃 필 무렵’의 작품 배경이 된 봉평장터도 여전히 5일장(2, 7일)이 서는 등 축제의 공간적 자원이 잘 보존되어 있다. 1990년 문화부에 의해 전국 최초의 시범문화마을로 지정되어 이효석 선생을 기념하는 가산공원과 물레방앗간이 조성하였으며 2002년 효석문화마을이 환경부지정 자연생태보호마을로 지정되었다. 같은 해 이효석 문학관의 건립으로 효석문화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중심축으로 자리매김되었다. 그밖에 가산문학선양회, 효석문화제 위원회, 관내 기관·단체 등 지역주민들이 지역축제에 자발적으로 참여

하는 축제행사로 발전했다.

(3) 추진목적과 추진방향

효석문화제의 목표는 대내적으로는 지역주민이 참가하고 즐기는 축제로서 지역민의 참여를 극대화하여 고향의식을 고취하고 대외적으로는 도시민과 지역민의 교류의 장으로서 도농교류, 지역이미지 마케팅을 추구한다. 주제는 ‘문학, 농촌, 자연과의 만남’ 슬로건은 ‘문학의 즐거움을 국민과 함께’로 설정하여 내실있는 축제 한마당 행사를 치른다.

효석문화제의 추진방향은 이효석의 문학적 요소와 봉평지역의 자연 환경적 요소를 결합하여 이효석 선생을 추모하고 그의 문학세계를 널리 알림으로써 이효석의 문학정신을 선양하고 계승·발전하고 작품배경이 되었던 1930년대의 시공간을 축제 속에서 재현함으로써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우리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을 체험하고 봉평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방문객들에게 휴식과 심신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4) 시설투자현황

(가) 효석 문화마을 정비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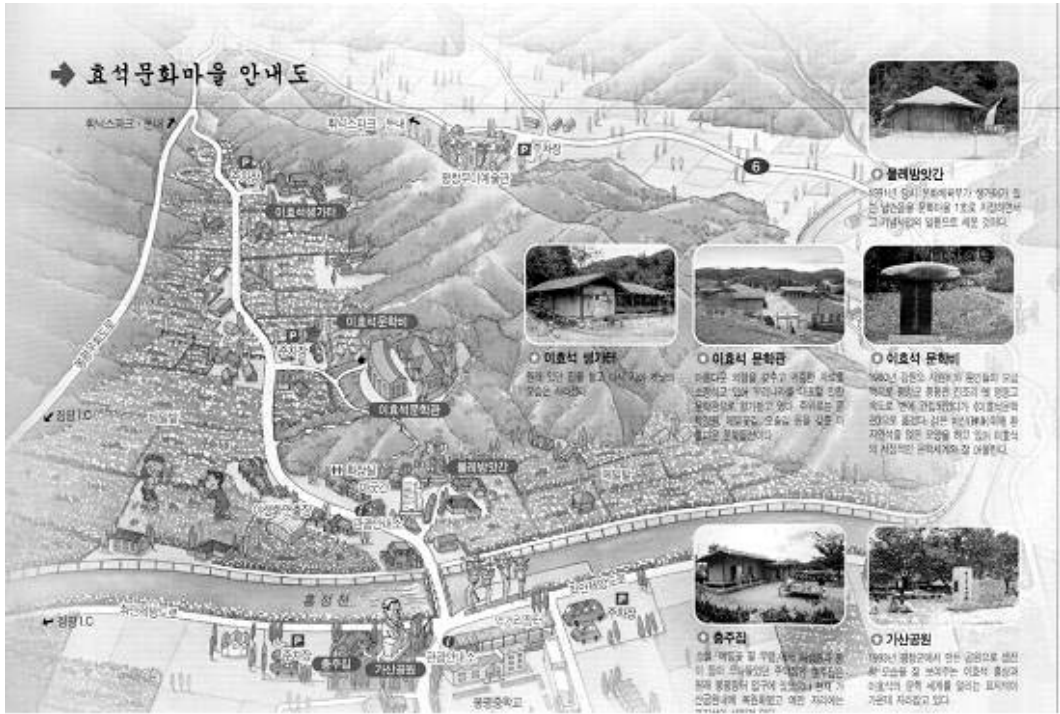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효석문화마을 정비기본계획은 다음과 같다. 2007년 가산 이효석선생의 탄생 100주년 준비하고 있으며 2005년 6월 강원도와 평창군은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등 총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봉평 중고등학교의 부지활용방안을 비롯하여 축제마당 조성, 주차장 시설, 효석문학관 주변 집필촌 조성사업, 축제장의 동선 및 남안동 문화의 거리 조성하려고 한다. 소설속 배경지가 되는 노루목고개를 비롯하여 여울목, 오솔길, 봉평·대화·진부·평창의 5일장 활성화 등 문화관광인프라도 확충하며 효석문화마을의 체계적 정비는 주민들에게는 쉼터 기능을 제공하고, 방문객들에게는 다채로운 볼거리, 편의, 문화관광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2005년 8월 주민들의 의견수렴 공청회하였으며 2005년 11월 1일 강원도와 평창군은 효석문학관에서 봉평면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의 효석문화마을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연구용역을 맡은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는 효석문화마을 일원에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유인시설을 조성하고 봉평중·고, 가산공원, 축제행사를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전 예정중인 봉평중·고의 시설을 전면 재

활용·부분활용·전면철거 및 신축 등의 대안을 통해 가칭 ‘HAPPY700센터’를 시설하고 1~3층에 각종 전시공간과 카페테리아, 메밀연구소 등을 갖추는 방안이다. 특히 2007년 가산 이효석선생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지인 허생원 길과 여울목, 오솔길 등에 대한 정비를 비롯해 모교인 평창초교에 기념사업 및 1930년대를 재연한 생가복원 사업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효석선생의 문학 얼을 기리기 위해 작가별로 독립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문학집필촌을 조성하는 등 모두 376억원이 투자되는 기본계획안이다.

국악 마을로서 봉평에 국악원 분원 설립하고 메밀산업단지로서 봉평에 국제메밀연구소, 국제메밀박물관, 메밀산업클러스터 등을 건설하며 효석문학의 숲을 만들 예정이다. 2004년 산림청 지역특화 숲 공모심사에서 효석문학의 숲 조성 사업이 선정돼 2005년부터 매년 10억씩 모두 30억원을 지원받아 121ha 규모의 테마 숲을 조성하였다. 이효석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소나무를 비롯한 산벚나무, 돌배나무, 자작나무, 복숭아, 단풍나무 등 테마숲 조성과 주민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헛개나무, 오가피, 음나무, 산수유 등을 식재하였다. 테마숲으로는 숲 사이의 공간을 이용해 소설·시·수필·희극·음악 등의 산책로를 조성하는 문학체험 숲을 비롯하여 음지성 지파 식물원, 고산식물원, 수생식물 관찰원 등을 갖춘 생태 숲이 조성되었다. 인근 문화관광자원과 연계된 4계절 축제로 탈바꿈하였다. 봄 추모문학제, 여름 봉평예술제(허브나라, 무이예술촌, 덕거연극인촌, 달빛극장, 메밀꽃오페라학교 등 기존 program 묶어서), 가을 메밀꽃 축제(기존 10일에서 30일 정도 늘림), 겨울 메일음식 축제 등이다.

(나) 효석문학관 건립

2000년 이효석 선생의 모교인 서울대학교(옛 경성제국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2002년 건립된 효석문학관은 국내에 있는 문학관 중 최신의 것이며, 예술적 조형미가 아주 뛰어난 건물로서 이효석 선생의 문학기념관이자 메밀과 관련된 향토 사료나 산업자료도 충실히 전시하고 있다. 당시 평창군에 보고된 용역보고서를 살펴보면, 향후 봉평을 포함한 평창이 이효석 선생의 문화자원을 어떻게 활용하여 지역개발할 것인가라는 청사진이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효석문화제 축제준비과정에서 이견이 생기거나 난관에 봉착하면 항상 효석문학관 건립 용역보고서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림 Ⅲ-7〉 효석 문화마을

(다) 1930년대 경관 복원사업

7봉평면 관내 효석문화마을과 무이예술관 주변 10만평에 메밀꽃밭 조성, 이중 5,400평은 효석문화제 위원회에서 매입하여 평당 군 지원금(1,500원)과 경관직불제 보조금(500원)을 통해 총 2,000원을 메밀밭 지주들과 계약 재배하고 있으며 효석문화제위원회 메밀운영팀이 축제기간 만개하게끔 날짜를 맞추어 일제히 메밀 파종(파종에서 개화까지 기간 : 3~40일)하고 있다.

가옥이나 가게 모양도 최대한 30년대 전통모양을 따라 건축하고 2002년 당나귀 3마리를 중국에서 구입, 축제마스코트로 활용하였다.

(5) 체험 프로그램 및 사업개발

문학체험프로그램은 작품배경지 답사, 효석문학관 등이 있으며 예술체험프로그램은 무이예술관 등이며 메밀체험프로그램은 메밀꽃밭, 물레방앗간 등이 있다.

라) 효석문화제 행사

(1) 제7회 효석문화제

〈표 III-41〉 축제 프로그램내용

프 로 그 램	내 용	부 서
문학 프로그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국효석백일장, 거리백일장 2. 문학상 시상 3. 문학심포지움 4. 문학강좌 5. 효석창작교실 6. 시화전 7. 문학의밤 8. 기획전시회 9. 효석문학관 개관 3주년기념 콘서트 	선양회
자연 체험 프로그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설 속 메밀꽃밭 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나귀와 함께 하는 이야기 - 소설 속 인물체험 - 한밤의 메밀꽃밭(조명연출) 2. 물가동네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다리건너기 - 나무다리건너기 - 섯다리건너기 - 물가شط터(원두막) - 물가동심(모래놀이, 민물고기잡기) 3. 기타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흙으로 빚는 소설 속 등장인물 - 봉숭아 물들이기 	시설부 지원부 민속부
전통체험 프로그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통 메밀음식 만들기 체험 2. 전통민속놀이 3. 전통장터재현 4. 전통 찹쌀떡 만들기 체험 5. 전통농사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리깨마당, 멧돌마당, 지게지기, 지경다지기 6. 우마차타기 	민속부 지원부

프 로 그 램	내 용	부 서
문화예술 전시 프로그램	1. 봉평의 어제와 오늘 사진전 2. 전국 사진공모전 입선작 전시전 3. 무이예술관 예술체험 - 메밀꽃그림전 - 서예전 - 조각전 - 도자기전 4. 기타전시(기상사진전)	지원부, 무이예술관
공연 프로그램	1. 문학의 밤(개회식, 문학상시상식과 연결) 2. 국악한마당(3회) - 소래국악, 소리가있는풍경, 도립예술관 3. 거리콘서트(2회) 4. 취타대(2회) 5. 사물놀이 3개팀(10회) 6. 전통타악공연 1회 7. 연극공연(메밀꽃필무렵) 8. 영화상영(메밀꽃필무렵)-행사장,문학관 9. 일본 토가촌민속공연(2회) 10. 평창군 전통민속공연(1회)	선양회 경축부 효석문학관
기 타	1. 메밀음식 시식회 2. 가장행렬 3. 평창군 농특산물 전시 판매 4. 전국사진 공모전 5. 토종재래닭싸움 6. 불꽃놀이 7. 공개 햄(HAM) 운영	지원부 각 단체

(2) 농산물 판매

메밀음식은 메밀막국수, 메밀묵, 메밀부침개, 메밀수제비, 메밀전병 등 순수하고 토속적인 전통식품이 있으며 이외에도 발아된 메밀을 이용한 메밀나물비빔밥, 메밀전빵, 메밀빵 등 새로 개발한 음식이 있다.

메밀가공제품은 메밀껍질 베개 등 공산품, 메밀커피(루티나), 메밀차(맥향), 메밀국수, 메밀가루 등이 있다. 방문객들은 현대적인 방식보다 물레방앗간에서 빻은 메밀가루

제품을 선호(1봉지당 1만원에 판매)한다. 그 외에 감자, 옥수수, 산약초, 송어회 등이 있다.

(3) 숙박, 식사

숙박은 농박, 펜션 등 500개소(비수기 3만원선, 성수기 6만원선)있으며 식사는 축제 행사장에서 2,000원 식권 판매(메밀음식 제공)하고 있다.

(4) 홍보 및 마케팅 활동

〈표 III-42〉 홍보 및 마케팅 활동

구 분	홍 보 내 용
1. 홍보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및 신문 라디오 잡지를 통한 직접광고 ○ 인터넷홍보활동(홈페이지, 여행사 상품을 통한 간접홍보) ○ 직접 홍보(인구 집중지-축제 홍보 캠페인)
2. 상징물 선정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휘장, 로고, 마스코트, 표어 선정 ○ 행사에 관련된 인쇄물, 기념품, 배너, 관광상품 제작
3. 홍보물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서 전단, 리후렛, 관광지도(교통지도, 행사장) ○ 포스터제작 홍보 ○ 스티커(차량용, 업무용)제작 ○ 카드사와 연계 홍보지 안내
4. 시설물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홍보 부스 운영 ○ 벤치 홍보, 먹거리 내 상호(시설통일) ○ 공식휘장, 로고, 캐릭터, 마스코트 활용 등 다양한 홍보 ○ 행사장 내 종합행사 안내판, 행사장유도 안내판, 교통 안내판 설치 ○ 봉평 이미지 쇄신(이미지조형물 제작 설치) ○ 메밀꽃 도로변 식재(2모작) ○ 캐릭터 이미지 조형물 제작설치
5. 관광상품개발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념우표, 우편엽서 발행 홍보 ○ 기념품개발(손수건, 약세사리, 기념매달, 수건, 지역특산품 등)

마) 성과

(1) 소득 및 고용증대효과

효석문화제의 생산, 소득,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

〈표 III-43〉 소득 및 고용증대

(단위 : 백만원, 명)

업종	생산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명)
소매업	3,134	845	113
식음료업	6,366	1,395	181
숙박업	2,804	998	83
여객·운송업	461	116	13
오락·유흥업	799	250	36
계	13,563	3,603	426

(2)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지역경제 회생 및 지역이미지 제고로 인구유입이 다시 늘고 있으며, 연간 봉평면 방문객은 1회 : 37,000명 ⇒ 2회 : 60,000명 ⇒ 3회 : 200,000명 ⇒ 4회 : 300,000명 ⇒ 5회 : 250,000명 ⇒ 6회 : 480,000명 ⇒ 7회 : 570,000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매출은 축제 부스당 평균 1천만원(2004년의 경우)이며 지역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는 1회 : 8억 1천만원 ⇒ 2회 : 11억 7천만원 ⇒ 3회 : 51억 6천만원 ⇒ 4회 : 113억원 ⇒ 5회 : 135억원 6회 : 81억원 7회 : 150억원이다.

바) 수익과 비용 분석

효석문화제는 대표적인 성공적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하였고, 소득이 높아지고 주5일제 근무 등 여가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고차원의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자녀를 동반한 가족단위의 체험형 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족단위 방문객의 비율의 경우 평균 60%를 넘어섰다. 또한 방문객의 재방문의사는 평균 70%를 상회할 정도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실제 재방문한 사례도 20%를 넘어서고 있다.

축제비용은 1억 5천~8천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순이익은 2004년의 경우 1억원이며 시설투자는 축제공간인 효석문화마을, 봉평장터, 메밀꽃밭 계약재배 등이 있다.

사) 성공요인

(1) 민간주도형 축제로서 높은 수준의 리더쉽과 펠로우쉽

효석문화제 위원회가 스스로 분석한 성공요인은 7만 5천평에 달하는 대규모 메밀꽃밭의 조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체계적인 홍보 및 마케팅, 영동고속도로와 인접한 지리적 장점 등이 있다.

주민들이 오랜 기간(1972년 추모사업 시작과 동시에 열린 제1회 추모백일장 이후 현재까지) 학습과 토론을 통해 효석문화제의 정체성을 공유하였다. 특히 수십 년간의 이 효석백일장을 치루면서 축제역량을 준비해 왔던 가산문학선양회의 리더쉽은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가산문학선양회 회장 故 박동락 도의원의 지역축제 준비에 열정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축제를 준비하는 지역개발전공의 김성기 사무국장, 가나안농군학교 출신의 강영하 기획국장 등 지도자들의 열정이 있었다.

효석문화제의 정체성을 잘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기에 민간주도형 축제로서 참신함과 지속가능성을 높였으며,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타악공연단(‘쑥버덩’)의 공연 연습 및 봉평관내 초·중·고교 학생들의 국악 연습은 특기할 만하다.

일본 토가촌, 중국 심양, 네팔 등 지역축제와 국제적인 교류를 하였으며 자국 지역축제에 상호 방문하여 공연 품앗이를 함으로써 축제예산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다.

(2)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지역개발 마스터플랜

효석문화관 건립당시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에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는 단순한 문화관 건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가치창출의 동력이 될 많은 시스템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3) 객관적인 평가보고서를 통한 끊임없는 자기 점검과 개선

효석문화제는 매년 축제가 끝난 후 평가보고를 외부용역을 주어 객관적으로 평가받아서

축제의 성과분석과 개선사항을 살피고 다음해 축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다른 연구기관에 의뢰를 하여 객관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받고 있다.

2) 전남 함평 나비축제

가) 나비효과를 만들어낸 함평나비축제

나비효과는 사실 과학이론이지만, 최근 들어 경제현상을 설명하는데 오히려 많이 쓰인다. 이 효과를 처음으로 사용한 학자는 미국 MIT 대학 기상학과 교수인 에드워드 로렌츠다. 그는 1972년 자신의 논문에서 ‘브라질에 있는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미국 텍사스주에 태풍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라는 주장을 펴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런 나비효과는 플러스(생산적, 긍정적)효과와 마이너스(파괴적,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필자는 ‘함평나비의 미묘한 날개짓이 전국적으로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나비의 플러스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요즘 한미 FTA 체결로 인해 농업은 산업구조상 손해는 가장 적고 피해는 가장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한미 FTA의 체결로 최대의 피해를 보게 된 농업분야에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부 당국의 확고한 의지와 일관된 노력없이 농업, 농촌의 가치와 위상은 갈수록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농촌도 한미 FTA 체결의 국가적인 논리나 대세에 지역농업의 미래와 운명을 의탁해서는 곤란하다. 비록 농업이 대세를 거스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지역농업의 가치와 이익창출에 관계되는 아이টে임을 찾아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전남함평의 나비축제의 사례는 본보기가 된다. 함평군은 관광자원이 거의 없는 열악한 지역여건에도 생태관광 함평 나비축제를 창안하여 매년 200만명 이상의 외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함평의 나비를 전국에 알리고 2008년에는 세계 곤충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무에서 유를 창출하여 엄청난 부가가치와 소득을 지역에 안겨주는 나비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친환경 농업을 관광사업과 연계한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환경에 대한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환경농업이 고소득의 아이টে임으로 옮겨가고 있는 시점에서 함평군이 그린투어리즘의 실현의 장으로서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한 전략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함평군은 나비축제 개최를 통하여 친환경농업의 이미지가 확립되었고, 이러한 친환경이미지를 다른 농산물에 연계시킴으로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농업 생산과 관광체험을 연계시킨 함평 나비의 날개 짓은 지역주민과 대한민국 관광객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태풍효과를 예고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축제는 무궁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농촌지역 축제들은 그 지역홍보에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가장 큰 수익사업이자 문화 사업이 되기도 한다. 국내의 농촌지역축제들도 잘만 수행된다면 참가자들에게는 독특한 경험과 추억을 지역사회에게는 지역 브랜드 개발과 수익창출 및 국토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가운데 함평 나비축제의 성공은 매우 돋보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함평이란 지명이 있는지조차도 몰랐던 것을 생각하면 ‘함평 나비의 날개 짓’이 전국에 ‘태풍효과’를 가져오게 된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된다.

다만 지자체별로 축제가 난립하는 상황에서는 시장의 크기와 잠재력을 보고 들어가기 보다는 시장의 변화를 관찰하고 들어가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무도 보고 숲도 볼 줄 알아야 한다. 해마다 5월이 되면 함평서는 나비를 주인공으로 하는 축제를 벌인다. 이런 축제가 미래지역농촌 성공의 관건이 된다는 점을 주목해볼 때 함평나비의 날개짓은 농촌의 희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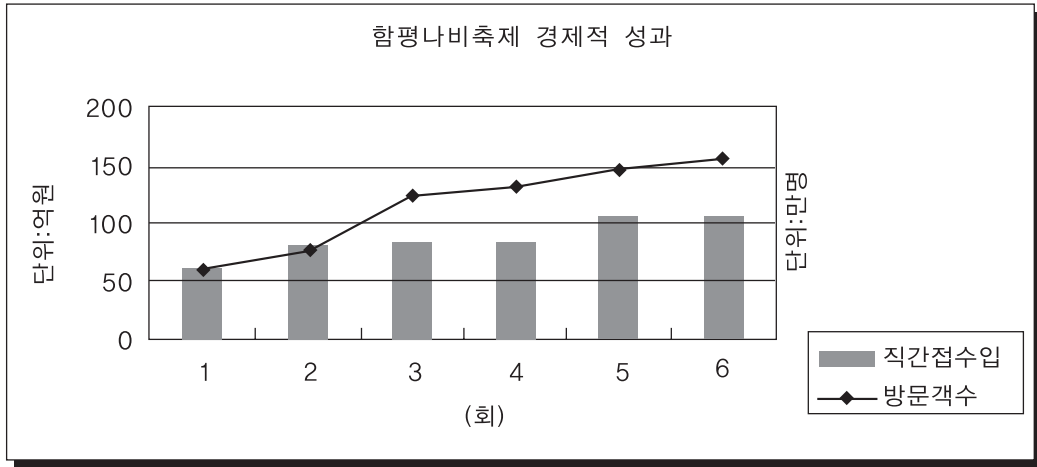
나) 함평나비축제의 성과분석

(1) 경제적 효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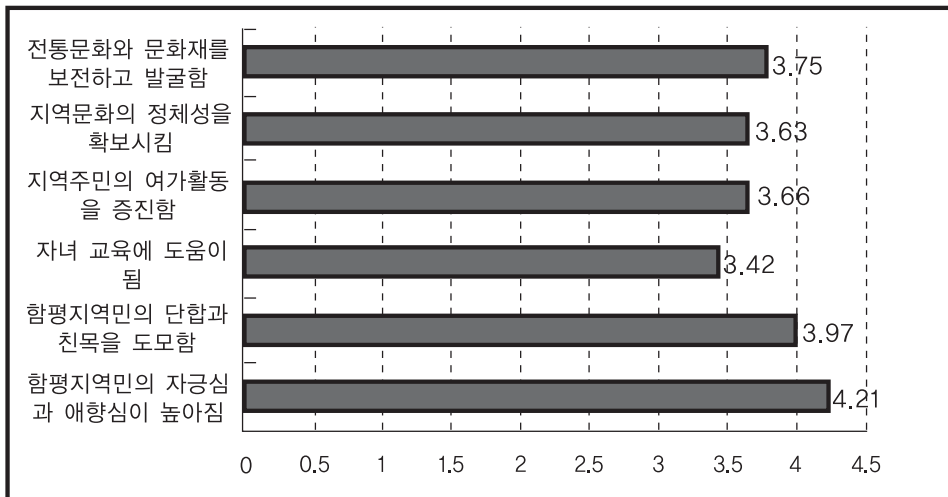
1999년 1회 축제 이후로 함평나비축제에 참가하는 인원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개최 비용 지출액에 비해 직·간접 수입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 축제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다른 지역에 비해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함평이 나비축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수치상의 값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2) 사회·문화적 효과분석

함평나비축제는 사회적 파급효과로서 함평지역의 이미지를 자연청정지역으로 인식하게



〈그림 Ⅲ-8〉 함평나비축제의 경제적 성과



〈그림 Ⅲ-9〉 지역 인식 평가

하였다. 또한 함평지역 주민의 지역애착심을 증대시켰으며 지역 주민을 통합하고 지역 주민의 자부심을 강화시켰으며, 축제의 경제적 효과를 인식함으로써 관광객에 대한 친절·질서 의식이 높아졌으며 지역주민의 긍정적인 의식 변화는 함평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지역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자연자원을 이용한 성공적인 지역축제모델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문화적 파급효과로서 나비, 환경농업, 자연학습에 대한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관

심을 증대시켰고, 폭발적인 방문객의 증가는 나비와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바람직한 문화형성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주평야 주변에 위치한 농촌지역으로 인식되던 함평에서 함평나비축제 이후 함평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환경지역으로 인식됨으로써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1998년 함평천 고수부지 10만평에 수변공원과 유채밭을 조성하고, 하천둑 양안 농경지 500만평에 자운영을 파종하는 등 나비축제를 준비하고, 축제장 정면의 민둥산에 10만 본을 식재하여 철쭉꽃으로 나비 모양을 꽃밭을 조성하였다. 또한 축제에 활용하는 유채와 자운영 밭은 행사장 주변의 논을 임대한 것으로 축제가 끝나면 바로 모내기를 하는 등 환경축제로서의 역할에 충실한다.

함평나비축제는 지역의 도로시설, 미관 개선 등 지역개발 효과가 있다. 또한 축제로 인한 접근성 개선과 경관조성 주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함평지역의 전체적인 미관을 개선하여 낙후지역의 이미지에서 환경친화지역이라는 특화 이미지를 확보함으로써 환경적·정책적인 측면에서의 효과를 거양하였다.

(3) SWOT 전략 분석

(가) Strength(강점)

① 백지와도 같은 지명 이미지

함평이라는 곳에 대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고, 또한 지역의 특색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나비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함평에 도입할 수 있는데 기여하였다.

② 천혜의 여건과 풍부한 개발 잠재력

개발되지 않은 곳이 많아 기회적 요소가 많았다. 넓은 벌판과 산과 강, 그리고 해안, 갯벌 등 생태 관광에 필요한 다양한 천연부존자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원만한 경사의 구릉지, 고온다우의 기후와 비옥한 토양으로 인해 농업 생산활동에 적합한 요건을 지니고 있다.

③ 양호한 배후 시장

함평 서쪽에는 광주시(인구 200만)가, 남쪽에는 목포시(30만)가 인접하고 있어 풍부한 시장, 도시민들의 휴양지 역할을 할 수 있다.

(나) Weakness(약점)

① 낮은 지역 인지도

어느 곳에 자리 잡고 있는지, 어떤 역사적 성격의 지역인지 별다른 인상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② 빈약한 자연적, 사회적, 문화적 관광자원

천혜의 풍광을 자랑하는 산과 바다도, 역사적으로 깊은 의미를 가진 유적지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③ 인구의 고령화

청년인구 및 산업인력의 감소현상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 저하

④ 산업 구조의 단순화

농축산업 등 1차 산업 위주의 전통적 경제구조

⑤ 정주 여건의 취약

젊은 세대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정주 여건을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직업과 일자리 부족은 물론 영화관, 공연장 등의 생활 편의 시설도 부족하다. 교육적, 문화적 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다) Opportunity(기회)

① 광역교통망의 구축으로 인한 접근성 향상

서해안고속도로의 건설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호남고속전철의 개통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개선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함평군의 동서·남북방향의 광역적 교통망 중에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영광~해보간 국도 4차로 확장(1996~2005), 함평~함평IC간 국도 4차로 확장(2000~2005), 무안공항과 광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오는 2005년에 완공 된다. 그리고 국도 77호선(서남해안일주도로)의 확장 포장과 연육·연도교 사업의 진행, 무안공항의 개항, 호남고속철도사업(2001~2011)과 호남선 전철화 사업(2001~2004)의 완공, 그리고 무안과 순천을 연결하는 전남중부고속도로가 건설될 예정이다.

② 신 국가균형발전 논리의 대두

지방분권화에 따른 각 지역의 새로운 발전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국가의 한 부

분에 치우쳐 있는 개발 상태를 각 농촌에 대한 지원과 개발로 이어지게 되었다.

③ 주 5일 근무제의 확대

여가 시간 확대, 관광 사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라) Threaten(위협)

① 무한경쟁시대 농산물 시장의 개방

농산업을 중심인 함평에서 외국의 값싸고 고질의 쌀이 들어올 경우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의 기호도 보다 다양해 질 것이다.

② 인구의 감소

절대 인구의 감소, 경제 규모의 감소로 생산 활동이 영향을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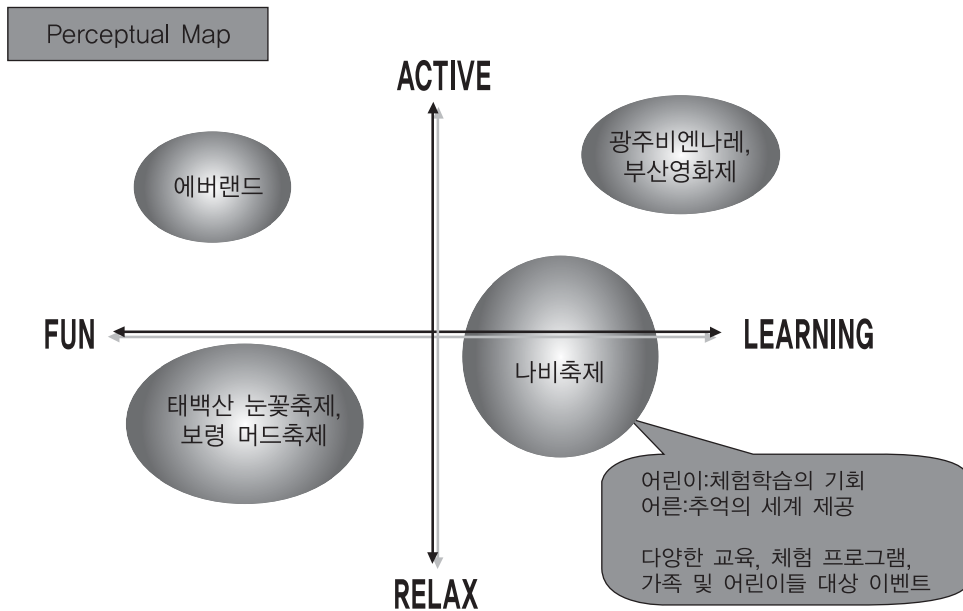
③ 접근성 향상으로 인한 대도시의 흡인력 강화

접근성이 향상되면 상대적으로 함평읍의 중심 기능이 약화되고 규모의 지역 경제를 어렵게 하고, 생활권분리와 통합성 결여현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자급자족 경제를 어렵게 하여 외부 및 여타 도시 의존적인 경제구조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4) STP(Segmentation & Targeting, Positioning) 분석

〈표 Ⅲ-44〉 STP표

구 분	추구편익 속성	예
지식 및 체험 추구형	새로운 지식습득 문화 및 민속행사 참여 흥미로운 구경거리	광주비엔날레 부산국제영화제
가족 화목 추구형	가족 간의 화목 휴가 즐기기	함평나비축제 경기도 이천 도자기축제
오락 추구형	호화스러운 경험 동료 및 친구와 친목도모	에버랜드 테마축제 홍대클럽데이
일상생활 재충전형	휴양과 휴식 신체적 활력소 제공	충남 보령 머드축제 태백산 눈꽃축제



〈그림 Ⅲ-10〉 perceptual map(인식지도)

(5) 4P 분석

(가) Product(생산)

① 나비브랜드, “나르다”

나르다(Nareda)는 함평나비대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후 “나비의 고장”으로서의 독창적인 지역 이미지를 활용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나비상품 브랜드 및 상품을 1999년 11월부터 2004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누브티스(국립 선물용 의전상품 디자인 및 제작업체)를 통해 브랜드 1종 및 상품 디자인 30품목 120종을 개발하였다.

2002년 9월 상표등록을 하였고, 현재 58품목 223종에 이르는 상품을 지역특화상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② 함평천지 브랜드, “함평천지”

함평에서 자란 친환경 농산물을 함평이 인정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신선함과 신뢰감을 전달하고자 만든 브랜드다. 함평의 맑고 깨끗한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브랜드이다. 생산물로는 대표적으로 함평나비쌀, 함평오리쌀, 함평천지한우 등이 있다.

③ 나비관련 프로그램

함평나비 축제는 나비로 특화된 축제다. 나비를 주제로 한 나비생태관, 나비표본전시관, 누에체험학습장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나) Price(가격)

① 정액제, 차등화 정책

함평은 상업적 축제를 지양하고 지역 홍보의 수단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바가지요금을 관공서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없애려고 노력해왔다. 그 결과 입장료, 시설이용료, 숙박료, 먹거리 등에서 정액제를 실시하였고, 다른 지역축제와는 차별화되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유지해 오고 있다.

(다) Place(축제장의 공간)

① 진입공간 & 나비 생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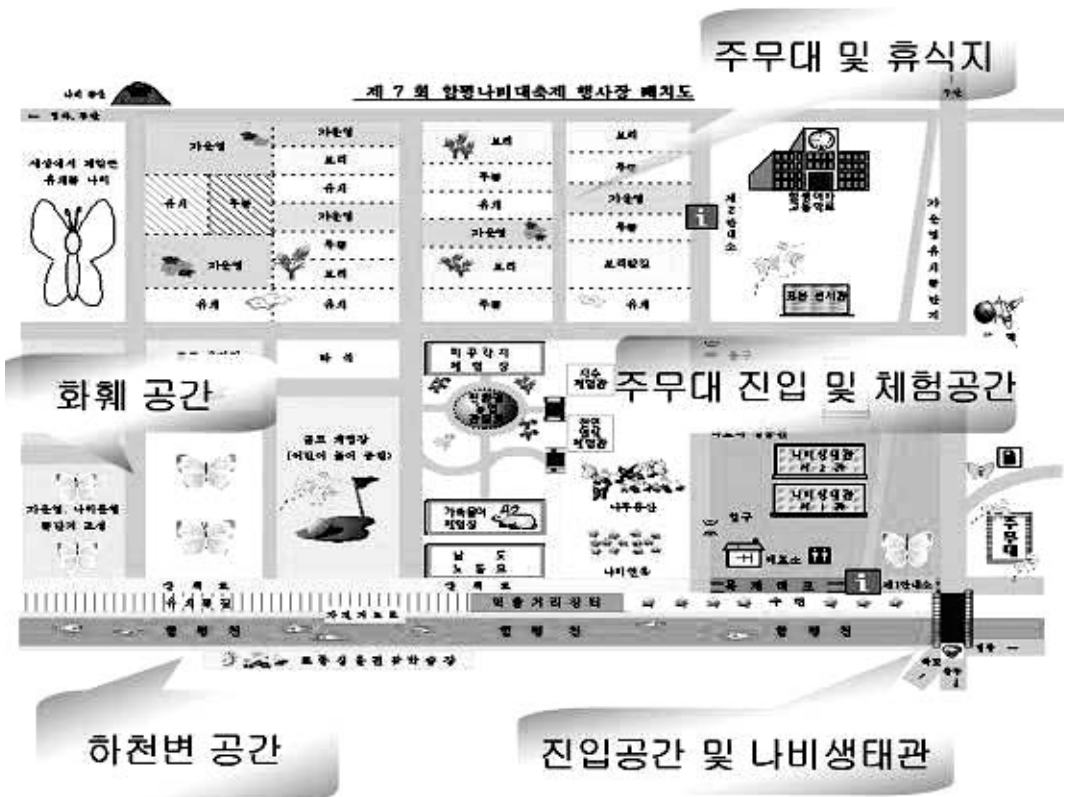
주 진입로로서 축제공간 진입의 이미지 전달을 전달하고자 분수, 조형물, 엠블렘 등으로 진입로를 형성하였고, 후면에 화훼단지로서 봄의 화려함을 장식하였다. 또한 진입로 주변에 특산물 판매점을 설치하여, 출입시 구매욕구 고취하도록 하였다. 생태관 전면 광장에서부터 축제공간 및 조형물을 설치하였고, 교목으로 식재하여 녹지에 둘러싸인 평안하고 안온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② 주무대 진입 및 체험공간

중앙만남의 광장에서 무대로 진입, 체험공간으로 분산을 유도하여 순환형 체험의 탐방을 가능하게 하였고 중앙에 화훼단지와 휴게원지를 확보하여 축제체험 도중 쉼터를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농촌체험 및 주요체험 활동은 생태관과 더불어 상설전시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③ 주무대 및 휴식원지

주무대 주변은 축제시 관람석의 역할과 잔디피크닉 장소로 활용가능하게 하였고, 주무대까지 방송차량이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동선을 확보하였다. 또한 축제 후 다목적 운동 공간으로 활용가능하게 하였고, 자연석 목재를 사용하여 운동장 스탠드를 조성하였으며, 후면 녹음수를 식재하여 경관의 변화 및 그늘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Ⅲ-11〉 함평나비대축제 행사장 배치도

④ 하천변 공간

자연형 하천에 생태 학습장을 만들었고, 축제시 요식 활동 공간으로 이용 가능하게 되어 있다. 산책로를 따라 식당을 설치하였고, 봄의 꽃을 식재하였다. 축제 후 식당을 철거하고 산책로는 조깅코스, 자전거도로로 활용하며 생태관광 코스로 전환된다. 산책로는 수변에 접근하거나 격리시켜 산책의 변화감을 부여하였고, 부분적으로 목교, 징검다리, 석교 등을 설치하여 하천을 건널 때 흥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수변에 수생식물 관찰장을 설치하였다.

⑤ 화훼단지

축제공간과 나비와 관련된 대규모 화훼단지를 조성하였고, 축제의 절정을 이루는 봄에는 화훼단지로 승화하고 산책로를 설치하였다. 유보적 공간으로 행사시 미비한 활동

의 보완적 장소로 활용하고, 화양공원과 연결되는 도로는 도로변에 조각 휴게소 등을 설치하여 보행 매력도를 향상시키고 산책도로 내부에 사진촬영, 휴식, 피크닉 공간을 확보하였다.

(라) Promotion

① 미디어 홍보활동

군청에서는 방송, 신문 잡지 등 언론사에 수시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YTN, CBS, 아리랑 TV에 방송광고를 실시하였고, 9개의 중앙지와 11개의 지방지에서 준비사항을 취재보도하였다. 또한 일본어 신문인 제민일보에서 3회 특종보도를 하였다.

② 문화예술계와 연계

예술가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홍보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영선 화백은 자발적으로 서울에서 나비관련 그림 전시 등으로 함평나비 축제를 홍보했고, 제주도 출신인 이희정 씨도 나비작가로 축제 홍보에 참여했다.

③ 대외홍보활동

한국관광공사의 협조로 관광안내전시관, 인천 신공항, 김해안내소 등에 홍보물을 비치하였고, 전국여행사(1,500개소), 신문·방송 등 언론사, 전국 초·중·고등학교, 전국지방자치단체, 주한 외국대사관 등에 홍보물을 발송하였다.

(6) 축제의 SWOT 분석

(가) Strength(강점)

① 친환경적이고 친근감 있는 지역 이미지

함평나비축제는 함평지역을 나비와 곤충이 살 수 있는 생명부양지역으로 환경친화적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또한 환경 친화적인 지역 이미지 확보는 함평의 농산물, 특산물의 부가가치의 상승효과와 더불어 생태체험학습지역으로 급부상하게 하였다.

② 다양한 체험 제공

함평나비축제에는 나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염된 하천을 복원한 곳에 유채꽃과 무꽃을 심어 나비학습장을 만들고 친수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등 생태체험학습장, 친환경농업 체험장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마당극 공연, 사물놀이패 공연, 전통 민속놀이, 국악

공연, 농업 심포지엄, 환경 농업 체험장, 전통가축 체험 등 민속풍습과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올해부터는 천연염색체험까지 실시함으로써 아무 볼거리도 없을 것 같던 나비를 테마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흡입력을 갖출 수 있었다.

③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

지역주민과 행정기관간의 우호적인 관계의식형성으로 축제에 따른 협력 강화를 보이고 있다.

④ 탁월한 경영마인드

함평나비축제는 문화적 전통이 아닌 적극적인 경영능력을 보여준 군수에 의해 의식적으로 연출된 축제이자 정교한 마케팅을 끌어들이는 축제이다. 버려진 함평천을 생태수변공원으로 조성한 뒤 여기에 꽃을 심고, 지역과 환경에 맞춘 나비라는 정확한 타깃을 찾아낸 경영 능력은 앞으로의 축제의 전개 방향에도 큰 강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나) Weakness(약점)

① 축제 프로그램의 주제성 반영 빈약

함평나비 축제는 나비를 주요 소재로 한 생태교육축제라고 볼 수 있으나, 현재의 프로그램들은 이러한 요소를 다양하게 부각시키지 못하고 나비 이외의 요소들로 축제를 꾸미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지역축제에 초점을 맞춰 축제의 주제성을 약화시키는 면도 나타나고 있다.

② 지역관광과의 연계성 부족, 편의시설 부족, 지나친 소비중심 시설

편의시설, 숙박시설이 부족하고 소비적인 축제로 전개되어가면서 함평나비축제의 방문객들의 당일방문 비율이 높고, 체재형의 관광객은 적은 편이다.

(다) Opportunity(기회)

① 광역교통망의 구축으로 인한 접근성 향상

함평나비축제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던 주요 대도시와의 지리적 원격성이 최근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과 지역의 광역적 교통망 건설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② 여가활동 성향의 변화

주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여가 시간이 확대되고, 수면, 휴식, TV시청과 같은 소극적, 피동적 여가활동에서 적극적, 능동적, 활동적, 창의적인 여가활동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 Threaten(위협)

① 대규모 축제로 인한 환경훼손 가능성

축제 분위기 형성과 환경정비사업의 명목으로 여러 곳에 대형 꽃밭을 조성하여 지역 이미지 형성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축제를 위한 인위적인 개발로 인해 환경 훼손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② 해외 관광의 활성화

해외 관광의 활성화로 인해, 국내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③ 유사한 지역축제의 등장

지역축제는 대부분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데, 함평 나비 축제의 성공으로 인해 자연환경을 소재로 한 여러 지역축제가 생겨났고, 이러한 축제들은 함평나비축제와 프로그램 상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다) 향후 과제

(1) 핵심 프로그램의 확대

라이프사이클에 맞추어 연령별로 추구하는 관광요인을 재구성하고, 여행프로그램 구성시에 10대, 20대~30대, 40대~60대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령별 추구성향에 맞춰 “재미와 학습추구”, “문화체험 및 맛 체험”, “건강추구성형과 교제활동” 등으로 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많이 찾는 가족 관람객이나 청소년 단체를 위해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레저활동 등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2) 종합적인 브랜드 관리

현재 우리나라 농산물 브랜드는 5000여개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효능이나 효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소비자들에게 인지되는 못하는 브랜드가 대부분이며, 상위 10개의 브랜드만이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선택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함평브랜드의 차별성을 갖추고 우수한 품질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함평은 ‘함평천지’와 ‘나르다’라는 2개의 브랜드로 한우, 쌀 등을 출하하고 있으나 농산물 한두 가지만으로는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따라

서 함평의 농산물 브랜드를 지역 고유의 특화 작물과 연계시키는 한편 ‘나르다’ 브랜드 등과 함께 지역의 통합 브랜드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3) 홍보채널의 다양화

함평군은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 지방도시이기 때문에 사이버마케팅과 구전에 의한 홍보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함평군의 홈페이지나 여행전문 사이트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홍보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농촌관련 프로그램에서 언론의 초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며, 함평지역의 환경교육 가능성을 각 지역의 학교에 홍보하고 수학여행을 유치하거나, 야외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연 학습 관광을 유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필요

낙후된 지역도시인 함평은 숙박시설 등의 부족으로 관광객들의 체제기간이 하루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는 행사장 주변의 화장실 부족, 식당 부족, 숙박시설의 열악함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결과로 많은 관광객들이 꾸준히 즐겨 찾고, 오랫동안 함평에 머무르며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필요가 있다.

(5) 4계절 방문 유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급

현재 함평나비축제는 4~5월에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모인다. 이러한 계절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현재 함평에는 세계적 희귀종인 황금박쥐(학명: 오렌지윗수염박쥐)가 있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함평군은 황금박쥐를 관광자원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함평의 청정이미지에 맞는 환경생태관광 프로그램이나 환경생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로 지속적으로 방문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친환경 농업을 관광사업과 연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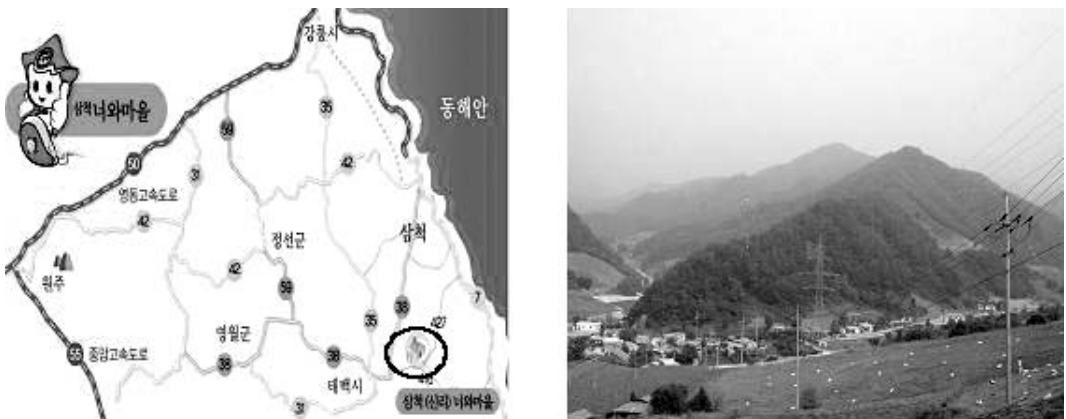
환경에 대한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환경농업이 고소득의 아이টে็ม으로 옮겨가고 있는 시점에 함평군이 그린투어리즘의 실현의 장으로서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 함평군은 나비축제 개최를 통하여 친환경농업의 이미지가 확립되었고, 이러한 친환경이미지를 다른 농산물에 연계시킴으로서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함평은 기후조건과 비옥한 농경지 등 천혜의 농업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환경친화적 농산물의 생산에 유리한 여건을 지니고 있음으로 이를 활용한 농업관광을 통하여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농업생산과 관광체험을 연계시킨 농업관광은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아. 자연생태마을 : 강원 삼척 도계너와마을

1) 마을 개요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에 소재한 너와마을은 서울에서 5~6시간, 강릉에서 1시간 30분 거리의 두메산골에 위치한 산촌마을이다. 너와마을은 험준한 태백산맥 줄기에 위치해 있어 산세가 험하고, 산자락 끝에 형성된 깊은 골짜기를 따라 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며 전체 가구수 56호에 주민은 총 182명이며, 대부분의 주민들은 산을 개간하여 만든 밭에서 고랭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전체 농경지 면적은 70.6ha이고, 이 중 대부분(70ha)은 밭이며 논은 0.6ha에 불과하며 주요 농산물은 고랭지의 산간지대에서 재배되는 머루, 둥굴레, 포도, 콩, 잡곡류 등이다. 태백산맥과 동해 바다에 인접해 있는 너와



〈그림 Ⅲ-12〉 너와마을 위치도 및 전경

마을 인근에는 동할계곡과 육백산, 환선굴, 해수욕장 등 뛰어난 관광자원이 분포하고 있다.

너와마을은 옛날 화전민이 자연부락을 형성한 마을로 너와집 2채가 <중요 민속자료 제33호>로 지정되었다.

너와집은 과거 화전민이나 산간지대 주민들이 거주한 주택양식으로, 지붕을 붉은 소나무 조각으로 덮은 집을 가리킨다.

너와는 200년 이상 자란 붉은 소나무를 일정한 크기로 잘라낸 널판을 가리키며, 너와집은 현재 자취를 감추었으나 도계읍에 남아 있는 일부 유적이 중요 민속자료로 지정되어 있다.



<그림 Ⅲ-13> 중요민속자료 제33호 너와집

너와마을은 고유 민속문화재인 너와집을 마을홍보와 농촌관광에 접목하여 우리나라에서 접근도리가 가장 취약한 마을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고유 문화재와 산촌이 지닌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

하여 지리적 약점을 극복하였다. 마을 주민들과 농촌관광사업 관계자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 했다는 말로 너와마을의 성공을 높이 평가한다. 수도권에서의 거리도 멀고 감자와 옥수수 재배 등 전형적인 산촌 농업에 종사해 온 주민들이 농촌관광사업에서 모범적인 성과를 거둔 데 대해 스스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2) 추진 경과

너와마을은 2002년 10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정보화마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집집마다 인터넷이 보급되고, <마을 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주민들의 정보화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인터넷의 보급은 단순히 정보에 대한 접근 능력만을 향상시킨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데에도 기여하였으며 주민들은 오랫동안

안 감자와 옥수수 재배 등 화전민 고유의 재래식 농법으로 가난의 대물림이 연속됐던 이 마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림 Ⅲ-14〉 마을정보센터 및 정보화 교육

정보화마을로 지정된 이후 마을대표와 주민들은 마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농촌관광사업에 주목하여 너와집 문화재와 천혜의 자연조건을 활용한다면 농촌관광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을대표의 노력과 삼척시의 지원 하에 2003년 4월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새농어촌건설사업 대상 마을로 선정되었다.





〈그림 Ⅲ-15〉 너와펜션 외부, 내부 및 공동 숙박단지 전경

2004년 6월에는 농림부가 시행하는 녹색농촌체험마을 대상자로 선정되어 총 2억원의 자금을 지원 받았으며, 이 자금을 들여 화전민 구가옥 복원, 토종동물학습장, 디딜방아, 재래식 메주 발효실 등을 설치하였다.



〈그림 Ⅲ-16〉 토종동물 학습장 및 디딜방아

3) 사업 내용

숙박시설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6개동의 펜션과 주민이 자체적으로 투자한 5개동의 펜션형이 있다. 공동숙박시설 단지 내에는 다목적 광장과 어린이 놀이시설, 특산물 판매장, 식당, 분수대 등을 설치하였으며 산촌체험활동을 위해 화전민 구가옥, 산책로, 디딜방아, 토종 동물학습장, 꽃길, 전통메주 발효실 등을 조성하였다.

〈표 III-45〉 주요 시설 현황

숙박시설	공동숙박단지 내 시설	산촌체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숙박시설 : 6개동 (80명) - 자체 숙박시설 : 5개동 (5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목적 광장, 어린이 놀이시설, 분수대, 식당, 특산물 판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전민 구가옥, 산책로, 디딜방아, 토종 동물학습장, 전통메주 발효실

〈표 III-46〉 사업비 지원 내역

지원기관	사업명	시설명	지원금액	용도	연도
강원도	새농어촌 건설사업	펜션단지	5억원	숙박시설	2003
삼척시	-	다목적광장	2억원	휴식공간	2003
농림부	녹색농촌 체험마을	체험시설	2억원	체험활동	2004
강원도	-	이동식판매장	5백만원	판매장	2005

너와마을에서는 농사체험과 산골생태체험, 전통문화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계절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성수기인 여름철 이외에도 많은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절별 체험프로그램〉

봄 : 봄소풍, 산나물캐기, 모종심기

여름 : 물놀이, 낚시, 옥수수 구워먹기, 봉숭아 물들이기

가을 : 단풍놀이, 떡만들기, 송이따기

겨울 : 썰매타기, 새끼꼬기, 옷놀이



〈그림 Ⅲ-17〉 봄·여름 체험학습



〈그림 Ⅲ-18〉 가을·겨울 체험학습

너와마을에서는 방문객이 방문했을 때부터 떠날 때까지 시간별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실시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체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체험활동은 마을 전체 주민들이 순번제로 참여하여 진행한다.

너와마을은 사업자 등록을 마친 운영위원회를 통해 마을 공동으로 농촌관광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에는 마을 전체 주민이 참여하며, 위원장 1명과 사무국장 1명이 있다. 운영위원회는 매월 회의를 개최하며, 이 회의에서 회계감사와 수익금 처리 방법, 인력동원 문제 등을 결정하며 숙박비와 식사비, 체험비 등 각종 수입금은 운영위원회의 수익으로 처리되며, 제반 경비를 제외한 이익잉여금은 운영위원회에서 환원사업 또는 재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처를 결정한다.

펜션운영과 체험활동 등은 부녀회와 노인회, 청년회 등의 조직을 중심으로 마을 전체 주민이 참여하여 분업적으로 담당한다. 부녀회에서는 음식만들기 등 주로 식당운영을 책임지며, 부녀회원이 순번제로 하며 노인회는 짚신 등 민속공예품 만들기와 한문예절 교육 등 체험활동을 담당, 청년회는 송이채취와 산나물 캐기 등 농사체험활동 및 각종 체험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이용료는 숙박과 음식, 체험행사 등을 포함하여 1인당 37,000원으로 펜션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1가구 수용시설은 6만원~7만원, 2가구 수용시설은 12만원~13만원을 받고 있다.

공동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부녀회원에게 여름 성수기에는 1일 5만원, 비성수기에는 1일 3만 5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체험활동을 담당하는 주민들에게는 1일 6~7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너와마을은 마을홍보와 방문객 유치에 위해 1사1촌 운동 등을 통해 자매결연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LG엔시스와 테크윈시스템, 강원랜드, 농협중앙회 도계지점 등 기업체 및 아파트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자매결연을 더욱 확대하여 고객기반을 넓혀 나갈 계획이며, 자매결연 업체에 특산품을 제공하는 등 고객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그림 Ⅲ-19〉 자매결연 체결 기념비

4) 운영 실적

너와마을을 찾은 방문객 수는 '04년 15,500명에서 '05년 20,482명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이며 방문객이 머무는 기간은 당일방문이 전체의 87.2%를 차지한다.

〈표 III-47〉 방문객이 머무는 기간

당일체험	1박체험	2박체험	3박 이상	계
87.2	12.78	0.013	0.007	100%

2005년 기준 총 매출액은 1억 8,500만원, 순수익 6~7천만정도이며 매출액은 음식 판매 수입, 체험행사, 숙박, 농특산물 판매 순이다.

5) 추진 성과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부녀회원들에게는 연간 5천만원, 체험활동을 진행하는 마을 주민들에게는 연간 1천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이밖에 순수익 중 일부는 연말에 환원사업 차원에서 마을 전체 주민들에게 선물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마을 전체적으로 연간 약 7천만원 정도의 농외소득이 새롭게 창출되고 있다. 자매결연을 맺은 단체들에게 설과 추석 등 명절에 농특산품을 직거래로 판매하고 있으며 '05년 말 기준 약 3천 4백만원의 농산물 판매실적을 달성되었다.

너와마을은 전통적으로 감자와 옥수수 등을 재배해 왔으나, 이들 품목으로는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가난이 되물림 되어왔다. 그러나 농촌관광사업을 실시한 이후에는 방문객들과 자매결연 단체 등에 대한 직거래 사업을 겨냥하여 머루와 둥굴레 등 고수익 특산품으로 재배품목을 변경되었다. 2004년에는 둥굴레를 '한살림'에 납품하기 시작하였고, 35평 규모의 머루공장을 신축한 데다 머루 재배면적도 2만평으로 확대하였으며 2005년에는 머루작목반을 영농조합법인으로 변경하였으며, 머루 가공시설(머루주, 머루즙)과 저온저장고를 신축하였다.

마을 주민들은 관광객의 방문이 늘어나고 타 지역으로부터의 견학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05년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주최하는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부상으로 3천만원의 상금을 획득하였다. 또한 마을에 머루공장이 들어서는 등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게 되면서 마을이 활력을 되찾게 되었다.

자. 전통테마마을 : 충남 아산 외암민속마을

1) 마을(사업체) 개요

외암민속마을은 충남 아산시 송암면 외암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면적의 73%가 임야인 산간지역이다.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2시간 내외의 거리에 있어 수도권 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총 65가구에서 농가는 40호로 약 60%를 차지한다. 전체 농경지는 30ha 수준으로 영농 규모가 매우 영세하며 벼와 콩을 주로 재배하며 비율은 쌀 70%, 콩 28%, 밤호박 2%이다.

〈표 III-48〉 일반 현황

가 구(호)			인 구(명)			농지면적(ha)		
계	농가	비농가	계	남	여	계	전	밭
65	40	25	193	93	100	30	10	20

외암민속마을은 반가, 초가집, 돌담,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마을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살아 있는 민속박물관이며 정부의 전통문화 보존정책(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제236호)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선후기의 마을 경관을 비교적 원형 그대로 잘 보존하고 있다. 또한, 농림부의 녹색농촌관광 체험마을과 농협의 팜스테이 체험마을로 선정되어 정책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2) 사업추진과정

1975년도 정부의 전통민속마을 지정으로 전통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어 연간 마을 방문객이 30만명 이상에 달한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감수하였으나 주

민들의 소득창출로 이어지지 않자 주민들의 불평이 심해지고 있다. 2003년도에 농협의 팜스테이 체험마을 육성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동시설을 마련하고 민박, 체험관광 등 수익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표 III-49〉 공동시설 투자 내역

투자항목	투자년도	총투자액 (백만원)	재원조달(백만원)	
			정부·농협보조	자체자금
입간판	2003	15	12	3
생활관	2004	200	200	-
주말농장	2004	20	20	-
연꽃밭	2004	50	50	-
공예방	2005	19	19	-
떡메체험장	2005	12	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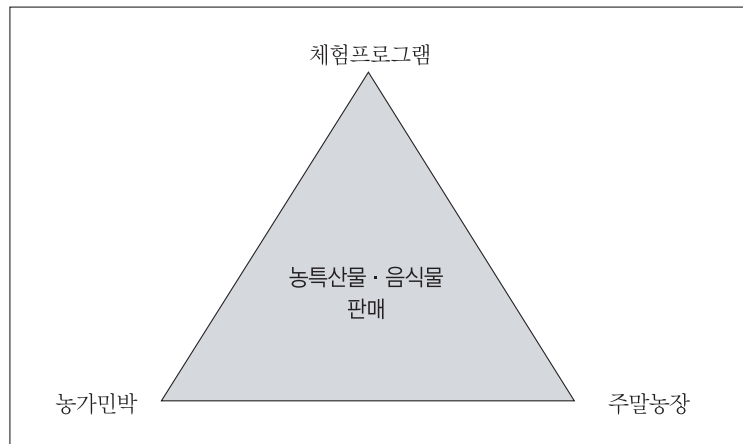
〈표 III-50〉 연차별 추진 내용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2003년	팜스테이마을사업	○ 농협의 팜스테이 마을로 선정
	농업인실익사업	○ 마을 입간판 설치
2004년	농업인실익사업	○ 단체생활관 및 숙식시설 조성 - 마을 내 빈집을 개보수 - 사업비 2억원
	녹색농촌체험마을	○ 주말농장 및 개별 민박시설 정비 - 사업비 2억원
	자체사업	○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 나무곤충만들기, 연못조성 ○ 친환경농업 실천 - 벼, 밤호박, 완두콩, 고구마, 감자, 땅콩 등 ○ 체험관광시설 증축 - 떡메(10평) 체험장 - 공방(12평) 체험장

팜스테이 마을사업, 농업인실익사업은 농협사업이며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농림부의 정책사업이다. 2006년도에는 단체 숙박시설 및 생활관 증축, 전통혼례 및 사후세계(관)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외암민속마을 체험 학습관을 건립하였다.

3) 사업내용

사업추진주체로 농촌체험마을협의회를 조직하였으며 회원 47명과 마을대표, 사무장, 총무, 운영위원 등 6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활한 의사소통과 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한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월례회의(협의회 회원), 운영위원회(1달 2회), 민박 농가 주례 회의 등을 개최한다. 농가민박, 체험프로그램, 주말농장은 공동으로 운영하며 농특산물 판매, 민박의 음식물 판매는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 체험프로그램, 농가민박, 주말농장을 운영하면서 마을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농특산물과 음식물 판매이며 주말농장, 농가민박, 체험프로그램은 서로 연계되어 전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그림 Ⅲ-20〉 사업내용

마을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문화, 민속놀이, 농촌현장, 전통가옥 등을 결합하여 계절, 고객계층, 체류기간 등에 따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III-51〉 계절별 주요 체험내용

계절별	프로그램 내용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부만들기, 떡메치기, 민속놀이(제기차기, 윷놀이, 널뛰기 등) ○ 문화체험(서예, 예절교육 등), 공예체험(숫대만들기, 짚신삼기, 새끼꼬기, 버들피리 만들기 등) ○ 농촌체험(모내기, 콩, 호박, 옥수수, 고구마, 감자, 시금치심기 등) ○ 식용나물채취하기(미나리, 냉이, 달래, 쑥 등)
여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부만들기, 떡메치기, 민속놀이(제기차기, 널뛰기 등) ○ 문화체험(서예, 예절교육 등) ○ 공예체험(숫대만들기, 짚신삼기, 새끼꼬기, 버들피리 만들기 등) ○ 김매기, 농촌체험(상추따기, 풋고추따기, 들밥먹어보기등) ○ 봉숭아 물들이기
가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부만들기, 떡메치기, 민속놀이(제기차기, 널뛰기 등) ○ 문화체험(서예, 예절교육 등) ○ 공예체험(숫대만들기, 짚신삼기, 새끼꼬기, 버들피리 만들기 등) ○ 농촌체험(고구마·감자캐기, 옥수수따기 등 농작물추수 및 들밥먹어보기, 감·대추 따기, 메뚜기잡기 등) ○ 봉숭아 물들이기
겨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부만들기, 떡메치기, 김장담그기, 메주만들기, 장담그기 ○ 민속놀이(제기차기, 윷놀이, 널뛰기, 연만들기, 썰매타기 등) ○ 문화체험(서예, 예절교육 등) ○ 공예체험(숫대만들기, 짚신삼기, 새끼꼬기, 버들피리 만들기 등) ○ 짚불에 고구마 구워먹기 등

〈표 III-52〉 매출구성

구분	매출액 (백만원)	프로그램별 매출비율(%)					계
		떡메 치기	두부 만들기	한지 염색	농사 체험	기타	
2003	50	50	15	-	10	25	100
2004	140	20	15	20	15	30	100
2005	400	20	15	20	20	25	100

농가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개별민박과 공동 운영방식이 존재하나 수익은 공동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개별민박 : 숙박비(음식물 판매액 제외)의 20% 공동수익 처리
- 공동민박 : 전체 매출액을 공동정산

농림부나 농협 등 정책 사업의 지원을 받아 주택 개보수를 위한 초기 투자 재원을 마련하였다. 개별민박시설은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며 공동민박시설은 농협의 농업의 실익사업이다. 수익원은 숙박비, 음식물 판매, 체험관광 이용료 등이다. 이용고객의 구전 홍보와 재이용으로 민박사업이 안정화되고 있다.

〈표 III-53〉 민박사업 시설현황

구분	방수	수용인원	참여농가	이용요금 (최소~최대)
개별민박	16개	100명	13호	40천원 ~ 100천원
공동민박	4개	30명	공동운영	200천원
계	20개	130명		

송악농협 조합장이 무상으로 빌려준 밭을 주말농장사업과 체험관광에 활용하고 있다. 주말농장의 직접적인 매출 기여도는 거의 없으나 체험관광이나 농가민박과 연계를 통한 수익창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III-54〉 주말농장 운영현황

구분	2004년	2005년	분양가격
분양면적	400평	500평	8,000원/평
매출액	3백만원	4백만원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은 전량 직거래로 판매하며 판매액은 공동정산에서 제외

한다. 직거래로 판매하는 농산물의 품질을 차별화하기 위해 2003년부터 쌀, 밤호박, 고구마 등 품목의 친환경농업을 실천한다.

〈표 III-55〉 농특산물 직거래 실적

품 목	2003년 (천원)	2004년 (천원)	2005년 (천원)
쌀	40,000	50,000	108,000
밤호박	20,000	20,000	30,000
고구마	10,000	10,000	10,000
전통장류	20,000	40,000	50,000
합 계	90,000	120,000	198,000

마을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인터넷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박의 경우 농촌체험마을협의회가 공동으로 예약을 접수받아 개별 민박집에 순차적으로 배정하고 있다. 주요 수요층인 수도권(서울, 경기)의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홍보 집중하며 연 2회(봄, 가을) 서울과 경기지역의 초등학교에 홍보물을 발송한다. 체험활동, 음식물, 숙박, 전통문화 등을 결합한 다양한 맞춤형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여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고 있다. 고객관리카드 작성을 통해 민박이용고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한번 찾은 고객이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계절별로 체험할 수 있는 상품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손익배분 주체는 농촌체험마을협의회내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정산은 6개월마다 실시하고 배분내역을 공개한다. 정책사업을 활용하여 초기 투자비용을 조달하고 사업이익 적립금으로 재투자하는 사업비용분담 시스템이며 공동사업수익은 사업 참여를 통한 근로수입과 체험프로그램 참가율을 기준으로 배분되는 이익금의 형태로 농가에 배분한다.

4) 사업성과

농산물 직거래 판매와 함께 체험관광, 민박 등 농외소득 창출로 농가소득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 농가소득이 2004년 330백만원에서 2005년에는 7억원으로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농한기인 겨울철에도 체험관광, 민박 등 농외소득으로 연중 안정적인 소득창출이 실현되었으며 체험관광, 민박, 주말농장 등 운영으로 연간 2,000명의 지역 주민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농촌체험마을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높아지고 협동과 단합분위기가 자발적으로 조성되었으며 마을경제의 활성화로 젊은층의 유입이 늘어 마을 인구 중 50세 미만 비중이 60%에 달하고 있다.

〈표 III-56〉 고객수 및 매출액

구 분	연간 이용객 (명)	매출액(백만원)				
		농특산물 판매	체험관광	농가민박 (음식물판매포함)	주말농장	계
2003년	4,000	90	50			140
2004년	12,000	120	140		3	263
2005년	20,000	198	400	98	4	700
연평균성장율	124%	48%	183%	-	-	124%

5) 성공요인

마을이 가지고 있는 조선 후기의 마을경관과 체험프로그램, 민박 등을 결합하여 상품 차별화에 성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 농업인실익사업, 녹색농촌관광 체험마을을 운영함에 있어 농협, 정부 등 관련기관 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초기에 시설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농촌체험마을협의회를 중심으로 공동운영과 이익의 공동배분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월례회의, 운영위원회, 등 공식적인 회의체를 운영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사업의 주요사항을 결정하였으며 사업 참여율(노동력 제공일 기준으로 산출)에 비례한 이익배분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외부지원으로 시설을 개보수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민박의 운영수익 일부를 공동수익 처리하였다.

농촌체험마을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동사업 운영원칙을 마련하여 주민간 갈등을 미리 방지하였으며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통해 최대한의 정책적 지원을 유도하였다. 주민들

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공모하고 프로그램이 성공하는 경우 개발자에게 매출액의 일정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등의 지속적인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수도권의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타켓 마케팅을 전개하였다.

4. PBL기법에 의한 마을조직진단 프로그램 및 농촌 조직 활성화 방안

가. PBL(Problem-Based Learning)이론 모형

1) 문제중심학습의 배경(새로운 학습 Paradigm의 필요성)

환경 분석	현상/문제점	방향 설정	문제 중심 학습 (PBL)
<p>경영 환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Best Global Company · 조직의 Flat화 · 무한 경쟁시대 <p>기술 환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혁명 기술사회 · 급변 Cycle의 고급기술 · 수직상승의 기술 변화 <p>학습 환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형태의 교육요구 · 세분화, 고도화 기술추세 · Multi Learning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주도의 학습 - 학습자 개인차 무시 - 학습자 요구가 세분화/다양화 - 강의 위주의 교육 지루하고 딱딱함 - 현실과 연계성 부족 추상적/이론적 - 학습자의 창의적발상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 중심 학습 - 협력학습을 통한 Reflection - Learn to Learn - 학습자의 참여확대 흥미 유발 - 실제적(Authentic) 문제의 해결 - 학습자의 창의적 사고 개발 	

2) 문제중심학습의 이론적 근거

가) 새로운 학습이론으로서의 구성주의(Constructivism)

문제중심학습은 구성주의 학습이론을 근거로 새로운 학습방법으로 등장하였다. 구성주의란 기존의 객관주의적 철학 또는 학습이론과 대비되는 또 다른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자 정보화시대에서 추구하는 새로운 학습방법이다.

○ 구성주의와 객관주의의 특성 비교

구 분	객관주의(Objectivism)	구성주의(Constructivism)
지 식	고정적이고 확인할 수 있는 대상	개인의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인지적 작용에 의해 개인적으로 구성되는 것
지식의 특징	초역사적, 초공간적, 범우주적 성격	특정 사회·문화·역사적 성격을 반영하며, 상황적인 성격
현 실	규칙으로 규명이 가능하며, 통제와 예측이 가능	불확실하며 복잡하고 독특함을 지니고 예측이 불가능
최종목표	절대적 진리와 지식의 추구	개인에게 의미있고 타당하며 적합한 것이면 모두 진리며 지식
학 습	S-R, 장기 기억 저장	인지적 혼란을 통한 평형상태 유지
용 어	발견(discovery/find) 일치(correspondence, match)	창조(creation) 구성(construction)

○ 구성주의와 객관주의의 학습 원리

객관주의(Objectivism)	구성주의(Constructivism)
추상적이고 실제의 상황과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지식 제공	구체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한 지식 제공
가능한 현실을 단순화 시키고 소화시킬수 있는 작은단위로 세분화 하여 제시	현실의 복잡함을 그대로 제시하여 학습자의 인지적 도전을 유도
모든 지식을 구조화, 순서화, 체계화하여 제시	실제적 상황이 담긴 지식과 과제를 현상 그대로 제시(big idea)
개별화, 완전학습을 통한 학습목표달성	협동학습과 자아성찰적 실천을 통한 학습목표 달성
지식의 암기와 축적	문제해결력, 창의적 사고력, how to learn의 습득
교수는 지식의 정보원이며 전달자로서, 학습자는 습득자로서 역할 분리	교수는 학습자가 학습을 잘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연자이며, 협력자이고 학습자가 학습의 설계자이며 실행자이며 평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나) 구성주의의 학습원칙

학습자가 학습의 주도자(Owner)이며 실행, 자아성찰(Self reflection), 협동(Collaboration)을 통해 학습(Learning by doing)을 한다. 교수는 학습 촉진자 또는 동료 학습자이며 구체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 실제적 성격의 문제(과제)를 통한 학습목표를 달성한다.

다) 학습전개과정 비교

《기존 패러다임》		《PBL(문제중심 학습)》		
이 해	활 용	경 험	이 해	활 용
일반화	적용 1	경험 1	일	적용 1
	적용 2	경험 2	반	적용 2
	적용 3	경험 3	화	적용 3

3) 문제중심학습의 과정과 학습시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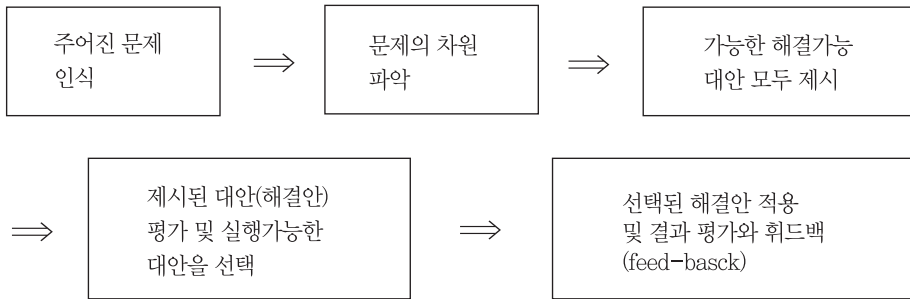
가) 기업교육에서의 문제중심 학습의 의미

기업교육에 있어서 현업 활용도 제고, 핵심적인 기술과 기능 습득 등 도전적인 과제를 해결하고, 학습의 목적설정, 새로운 학습 과정 모색을 통해 전통적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구성주의, Problem solving, 새로운 차원의 학습환경 구축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실제 문제 해결, 선택적인 학습이론의 적용, 학습환경 구성, 학습하는 방법을 습득, 협력 학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협동적 문제해결, 자기주도형 학습원리, 역동적인 Team Teaching, 실제의 문제 중심, 다양한 영역을 구조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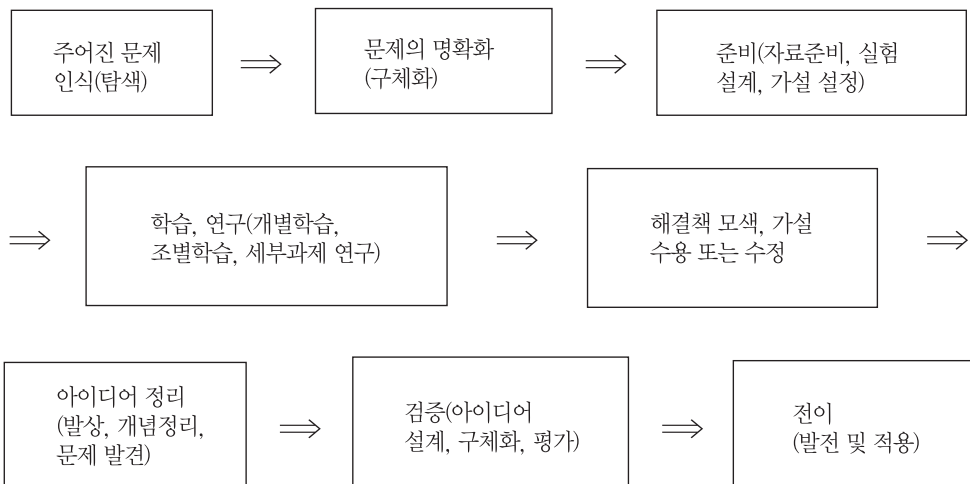
문제중심학습과정은 과정의 소개, 문제의 제시 및 해결안 모색, 과제 해결, 해결안 재검토, 종합 정리 단계로 진행된다.

나) 문제중심학습의 과정(단계)

(1) 일반적 문제해결과정



(2) 문제중심학습의 과정



각각의 단계에서마다 학습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한편 자아성찰적 활동을 지속 수행한다. 실제의 학습상황은 문제 제시, 팀 활동, 해결안 모색, 팀내 공유, 전체 공유, 상호 평가, 조언 등의 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문제중심학습의 학습방법

가) 자율적 학습(SDL : Self-Directed Learning)

자율적 학습은 학습자 개개인이 팀 또는 그룹에서 논의·부여된 학습 과제에 대하여 자기 주도하에 학습하는 것이다.

나) 협동학습(CL : Collaborative Learning)

자율적 학습을 통해 완수된 과제를 팀 또는 그룹에서 제시하고 이를 팀원 전체가 다시 검토, 수정, 보완, 정리, 공유하여 더욱 발전된 안을 도출한다.

문제중심학습은 이와 같은 자율적 학습과 협동학습과정의 반복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5) 효과적인 문제중심학습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 및 문제해결을 위한 끊임없는 사고와 열의가 필요하다. 학습자 주도인 문제중심학습의 특성상 소과제의 발굴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다.

문제는 비구조적이며 실제적인 문제로 제시해야 하며 학습자의 다양한 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접근 가능한 문제로 제시해야 한다. 학습자의 현실과 관련되는 또는 실제 연결, 적용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해야 하며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학습자의 학습과정에 대한 자아성찰(자아성찰의 포인트)

○ 그룹 토의 시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

-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나는 이해하고 있는가?
-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현재 이 시점에서 적당한 사항인가?
-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항을 입증할 그 무엇이 있는가?
-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이 문제와 혹은 문제의 해결에 관련이 있는가?
-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항과 관련된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 자율적 학습시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

- 오늘 논의된 사항을 통하여 어떤 것을 배웠는가?
- 오늘 논의된 혹은 알게된 것(기술과 지식)을 현재 그리고 나중에 발생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지금 현재 나의 취약점은 어떤 부분이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 문제해결을 해나가는 지금까지의 시점에서 나의 역할은 어느만큼의 기여를 했는가?
- 어떻게 하면 기여를 좀더 할 수 있을 것인가?
- 현재 우리 팀의 팀웍은 어떠한가?

○ 문제해결 전 과정에 생각해볼 수 있는 포인트

- 지금까지 내가 배운 것은 어떠한 것인가?
- 지금까지 한 것을 어떠한 식으로 정리할 것인가?
- 지금까지 한 것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무엇이었는가?
- 이 문제를 다른방향에서 접근할 수는 없었는가?
- 다음에 우리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

나) 학습 촉진자의 지나친 간섭배제와 적절한 조언

학습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학습이 지체되었을 때는 적절한 Key를 제공하는 학습촉진자의 역할이 필요하나 학습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지나친 간섭은 배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타 팀 또는 그룹학습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대방에 대한 배려 등이 중요하다.

6) 문제중심학습의 부수적 효과

가) 마을 주민간의 협력관계의 유지·발전을 위한 능력 향상

팀 또는 그룹별 학습활동을 통한 대인 응대 매너, 설득 및 협상기법, 자기관리, 협동 의식 등을 습득한다.

나) 의견의 정리 및 발표 능력 향상

자신의 의견발표를 위한 사고의 체계적 정리와 팀내 또는 팀간 의사교환, 평가 등의 반복적 과정을 통해 발표 능력을 향상시킨다.

다) 학습자 외에 학습에 직·간접 참여자에게 도움

학습자 주도의 지속적인 학습 과정을 통하여 문제의 설계·진행에 참여한 리더 또는 관련분야 담당자 등은 학습자로부터 새로운 시각이나 문제해결의 Key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나. PBL(문제 중심 학습방법)모형의 적용

1) 문제의 제기

2007년 세계적으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50%를 훌쩍 넘어섰다. 2030년이면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에 산다는 예측이 현재 무리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래서 21세기를 ‘도시화의 시대’라고 말한다. 이런 시대에 농촌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먼저 위의 예측에는 허점이 있다. 그 동안 법칙으로 여겼던 맬더스 인구론이 무너졌듯이 어떤 사회현상이든 시간과 정비례하는 정도에는 수확체감의 법칙처럼 어느 한계점이 존재하게 된다. 즉 사회나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현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진행되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하면 오히려 떨어지기 시작하는 종형 곡선을 그린다.

따라서 도시화도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면 오히려 분산돼 농촌으로 퍼지는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요즘 우리 농촌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U턴 현상(농촌 출신으로 도시생활을 하다가 다시 농촌으로 복귀하는 모습)이나, I턴 현상(도시 출신으로 농촌에 내려가서 사는 모습), 또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강조되는 분산화, 지방화 역시 이런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로 도시가 한사코 건조하게 변질되어 갈수록 농촌의 향수는 더욱 필요한 수분의 공급처가 될 것이다. 당장은 농촌을 애써 외면하는 비서정성이 요즘 도시의 풍속도이겠

지만, 바쁠수록 한 박자 쉬어갈 수 있는 농산어촌의 쉼터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그 필요성이 한층 크게 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최근 우리 농촌도 생존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예컨대 농촌의 새 활력을 되찾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어메니티 정책이 각광을 받고 있다. 농촌어메니티 정책은 농업의 다면적인 기능과 농촌공간이 고유하게 보유하고 있는 농촌성을 살리는 방향에서 농촌의 총체적인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재발견과 활용을 통해서 농촌의 활성화와 발전을 모색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흐름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방향전환이 아니다. 일본, 유럽 등 여러 나라의 공통적인 현상으로서 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촌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발전적 대안의 하나로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후로도 지속되고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농촌정비에 있어서 농촌의 어메니티사업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그 중요성 못지않게 어메니티 연구풍토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농촌의 특성은 마을마다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마을의 어메니티 계획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농촌공간의 계획적인 개발 및 활력증진과 관련된 제도는 정부지침, 법률, 조례의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데 종래 제도관련 연구들이 주로 법률 측면에서 농촌계획법의 제정의 필요성 등 주로 선언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져왔던바,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정부의 새로운 농촌정비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간의 갈등해결을 원활히 풀 수 있는 문제해결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농촌어메니티 사업과 관련하여 어메니티 연구풍토 조성 및 이해당사자간의 갈등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학습기법을 도출 제시하는데 있다. 예컨대 이러한 PBL을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 개발』에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PBL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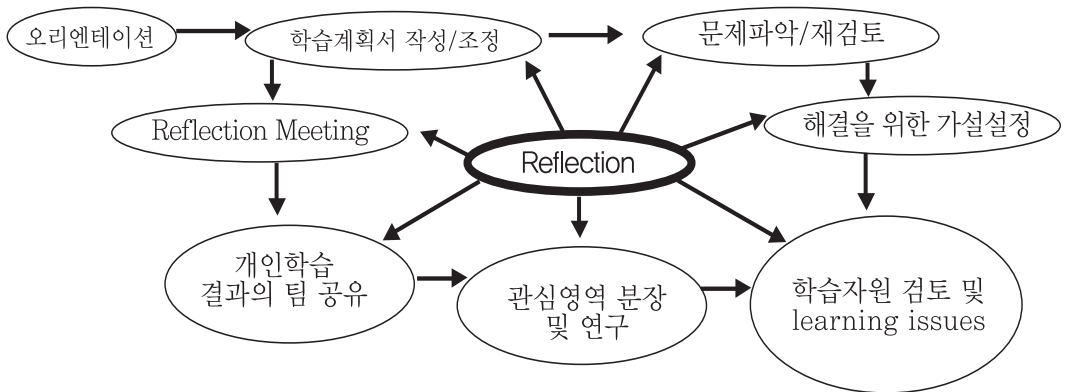
1) PBL(Problem-Based Learning)은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이라는 용어처럼 학습자 중심의 교육패러다임에 변화를 가져왔음. 이러한 변화에 맞춰 PBL은 구성주의적 학습원칙에 의거한 교수-학습모형으로서 학습자의 학습과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구체적 학습목표 설정, 학습내용과 방향 결정 및 평가에 참여)를 강조함. 또한 PBL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교과서 중심의 강의전달방식과 달리, 학습자의 실제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복잡하고 비구조적 ‘문제’와 PBL에서 제시하는 ‘문제해결도구’를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함.

에서 말하는 ‘문제’를 어려운 농업 농촌에 적용하여 농촌개혁의 단초를 찾고, PBL환경이 어떤 것인지를 3개의 가설을 통하여 개괄하고자 하였다.

본 사례연구의 자료수집과 분석은 Facts와 Learning Issues의 연구방법에 의해 진행하였다. 즉 PBL학습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자로서의 경험, 실제적 성격의 문제와 팀원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와 관심과의 관련성, 협동적 학습인으로서의 경험등을 토대로 하였다. 특히 PBL학습²⁾은 더 알아야 할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문제해결 프로세스’ 틀을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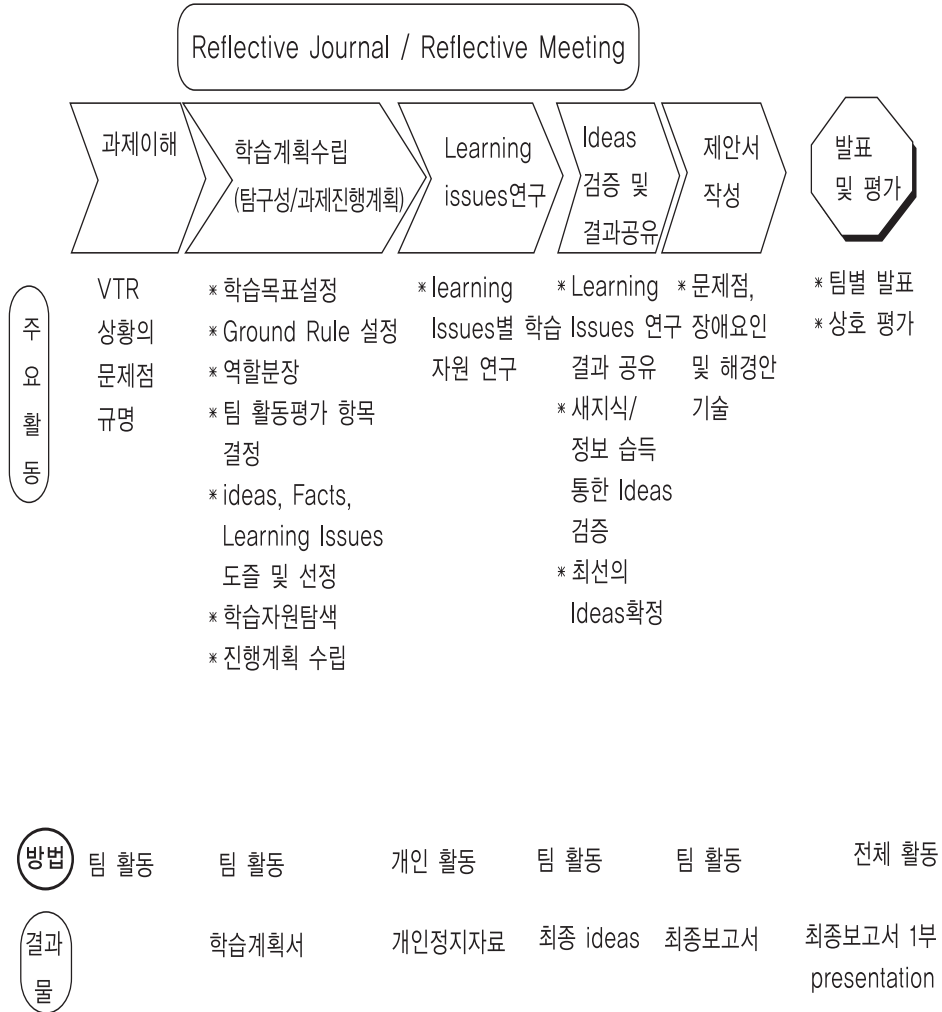
2) PBL(문제 중심 학습방법)모형 설계

가) PBL(Problem-Based Learning)모형을 통한 문제해결 활동 과정도



2) 위 사례는 문제해결기법을 통해 『전라북도 진안군 능길 마을의 농촌관광마을 개발모형 조성 시도』를 해 봄으로써 긍정적 해법을 제시하였고, 요즘 농업·농촌의 변화를 주도할 핵심세력으로서 제기되는 지역농협의 지역 환경과의 조화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접근, 기술적 전문성(Technical expertise), 비판적 사고력, 지식의 효율적인 적용과 활용, 새로운 것에 대한 매우 적극적인 (Pro-active) 수용태도와 자신감,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 및 능력 규명, 자아관리, 정보기술의 효과적 활용능력 등을 함께 살펴 볼 수 있었음.

나) 문제해결 활동 과정도



다) 문제해결 수행을 위한 학습계획서

Problem :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농촌어메니티 자원 개발

Ideas	Facts	Learning Issues
한국 농촌관광의 여건을 평가함으로써 농촌어메니티 자원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농촌관광 인프라 미흡 등 Facts(19)	우리농촌 관광의 여건
	언론에 비친 오피니언 Facts(3)	농촌관광 SWOT분석
	주요 농민단체의 목소리 Facts(2)	농촌지역의 체계화 방안
외국의 농촌관광 정책을 알면 농촌어메니티 자원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독일의 농촌호텔 경연대회 등 Facts(19)	외국의 농촌관광 정책
	언론에 비친 오피니언 Facts(3)	영국, 독일의 농촌관광 정책
	주요 농민단체의 목소리 Facts(2)	외국사례의 종합분석 평가
다양한 지역혁신사례의 발굴을 통해 우리지역 농촌관광 개발모형 정립과 실용화 방안을 모색해 본다.	영동의 “샤토마니” 등 Facts(19)	농촌지역 혁신전략
	언론에 비친 오피니언 Facts(3)	농촌마을 개발모형 조성
	주요 농민단체의 목소리 Facts(2)	테마마을 개발모형(능길 마을)

적용(Application)

3) 문제선정(Problem)과 개발

가) 농촌의 위기상황

우리 농촌의 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심지어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정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은 편이 되지 못하다. 농촌이 어렵다는 것의 핵심은 농촌의 주 경제기반인 농업의 전망이 어둡다는 것이고 그 핵심은 농업소득의 저하와 불안정성에 있다. 2004년 현재 우리나라 총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2%이며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농가인구의 비중은 7.1%이고, 전체 취업자 중 농림업 취업자 비중은 7.8%이다.

〈농업의 위치〉

구 분	1980년	1990년	2004년	일본(·03)
GDP중 농업비중	23.7	7.3	3.2	1.5
농가인구 비중	44.7	15.5	7.1	7.6
농림업 취업자 비중	49.5	17.1	7.8	4.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1년에는 1.8%씩 꾸준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어 농업소득의 정체 내지 하락현상은 구조적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농업소득의 하락을 보정, 반전시켜 왔던 농외소득은 농촌의 취업인력 소진과 임금소득 증대의 한계로 미루어 볼 때 획기적인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농가소득〉

구 분	1980년	2004년	증감률(04/03)
농가소득	26,878	29,001	7.9
경상소득	22,000	24,600	11.8
농업소득	10,572	12,050	14.0
농외소득	9,397	9,544	1.6
이전소득	2,031	3,006	48.0
비경상소득	4,878	4,001	-9.8

또 향후 WTO 체제 아래에서는 수출입 통제나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은 전통적인 농정수단의 이용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DDA농업협상, 동시다발적 FTA체결 등으로 우리 농업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농촌인구의 감소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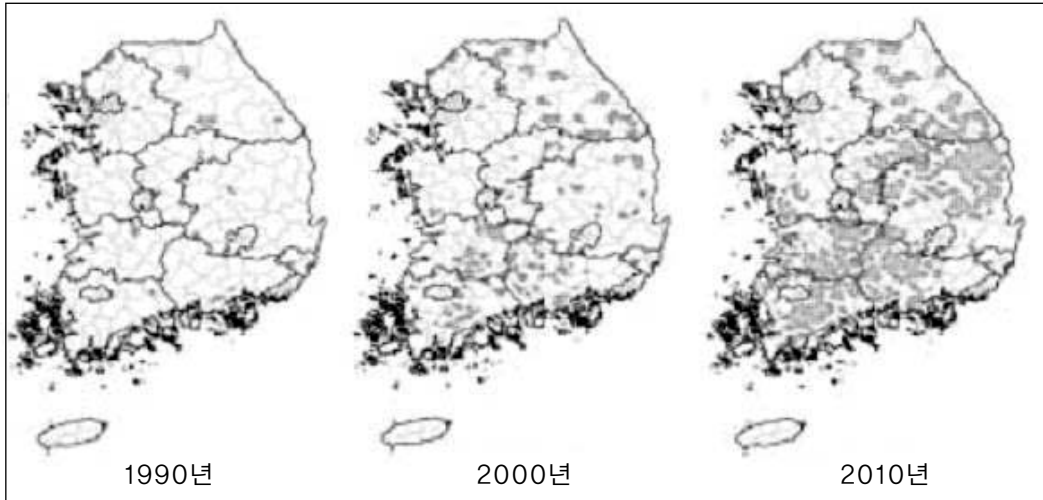
〈농가인구〉

(단위 :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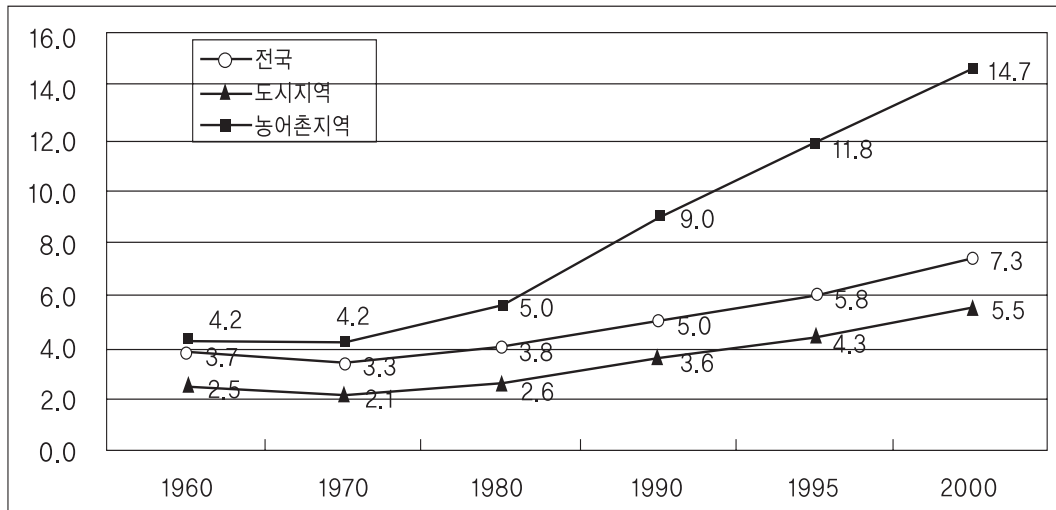
구 분	농가인구	40세 미만	50대	60세 이상
1990	6,661	3,576	1,111	1,187
2000	4,031	1,490	676	1,333
2004	3,415	1,027	566	1,375

2004년 말 현재 농가인구는 341만 5천명이며 92년 대비 38% 감소했다.

농촌 인구 중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57.7%로 인구의 노령화가 뚜렷하며 청장년층 인구는 대단히 빈약한 가운데 노령층 인구가 과대해진 기형적 인구구조 모습으로 자체적인 사회 재생산이 쉽지 않음을 짐작케 한다.



〈인구 2천명 미만 면적분포 추이〉



〈노인인구의 비중변화〉

이와 더불어 도시보다는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었던 농촌의 깨끗한 생태환경, 아름다운자연경관 역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음.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해 많은 손상을 입었으며 이것이 복원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총체적으로 우리농촌은 총체적으로 위기상태이다.

이제 우리 농촌은 새로운 전략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즉 우리 농촌이 당면하고 있는 산업으로서 농업부문의 어려움, 정주공간으로서 농촌의 낙후, 그리고 농촌의 장점이며 잠재적자원인 생태환경과 자연경관의 손상 등을 완화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돌파구가 필요하다.

이 하나의 가능성을 “여가”에서 찾고자 하다. 마침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식제고, 여가시간의 증대 및 수요 다양화 등이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 전략 필요성 증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04년 1월 “상생과 도약을 위한 신국토 구상”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실행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요청되는 바, 농촌의 혁신체계 구축이라는 관광농촌의 혁신체계 구축에 한정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PBL 연구는 “신국토 구상”의 기조에 맞추어 농촌의 지역혁신 전략과 추진방안 등을 가설-증명(Ideas-Facts-Learning Issues)의 방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농촌의 혁신이란 단일 주제 자체로서도 PBL보고서의 완결성을 갖추기 위하여 농촌관광의 여건과 평가, 선진외국의 농촌관광정책 및 제도, 농촌의 지역혁신 조성전략 등을 통해 지역적 공통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라북도 진안군에 있는 능길 마을의 농촌 관광자원 개발모형』 조성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다) 문제에 대한 학습자원 선정

〈학습자원 목록〉

분류	학습자원명	주요내용	출처
T-1	Treatise	여가시간 확대와 농촌관광의 새로운 가능성, 농어촌과 사회	강신겸, 2001.12.
T-2	Treatise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권오상, 서울대, 2001.11
T-3	Treatise	바람직한 농촌개발의 방향	농촌사회 제10집 2000
T-4	Treatise	국민소비행태 및 의식구조 조사	한국소비자보호원, 1999.
T-5	Treatise	주5일 근무제와 유통업 대응전략	대한상공회의소, 2002.5
T-6	Treatise	주5일 근무 실시의 전제조건	민승규, 삼성경제연구소
T-7	Treatise	그린 투어리즘에 의한 지역사회개발방안	이호철, 농촌사회 제10집
T-8	Treatise	농촌 쓰레기 관리의 현황과 개선방향	송미령 등, 1999.12
T-9	Treatise	농촌개발사업의 체계화 방안	송미령, 2004. 9
T-10	Treatise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오세익 등, 2004.12
T-11	Treatise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가치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12	Treatise	농산촌 수변공간의 관광자원 모형정립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농림부
T-13	Treatise	농촌마을 공동쉼터 표준설계 및 지침서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T-14	Treatise	농촌계획지원용 지역자원 평가시스템 구축	전남대학교
T-15	Treatise	농촌 자연생태 관리기법/ 휴양자원을 통한 소득증대 방안	서울대학교
T-16	Treatise	관광농촌마을조성에 관한 연구	농림부, 최종보고서
T-17	Treatise	농촌마을 생태관광지 조성 기본계획	서울시립대학교
T-18	Treatise	농산촌 주민의 소득 증진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연차보고서
T-19	Treatise	한국의 농업정책 틀을 바꾸자	삼성경제연구소, 2004.10
T-20	Treatise	SERI 전망 2005	삼성경제연구소, 2004.12
T-21	Treatise	KBS 일요스페셜 “미래농업 - 고객이 열쇠다.”	KBS, 2002.7.21
T-22	Treatise	SBS 스페셜 광복 60주년 “메이드 인 코리아” 2부	SBS, 2005.7.31
T-23	Book	Kinds(국내외 신문, 방송, 잡지)	한국언론재단
T-24	Book	세계의 지역혁신체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T-25	VHS	경기도 전략산업 Cluster 육성방안	경기개발연구원
T-26	DVD	핵심역량모델의 개발과 활용	PSI 컨설팅

〈문제에 대한 학습자원 선정 분포도〉

학습자원수	학습자원명	학습자원 활용도
22	논문	55.0%
3	인터넷, 미디어	7.5%
5	책	12.5%
7	멘토	17.5%
3	비전문 자문인	7.5%

4) 가설 & 해결안

가설/해결안 (Ideas 1)	한국 농촌관광의 여건을 평가함으로써 농촌지역어메니티 자원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	---

이미 알고 있는 사실 (Facts)

Facts : 이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관광 인프라는 미흡(숙박시설, 대중교통, 관광안내소, 판, 지도) 등) ● 교육, 훈련, 제도정비, 연성적인 프로그램, 농촌의 쾌적성 증진 노력은 미흡 ● 농촌관광의 업계 자율로 서비스를 개선하는 산업화 시스템이 취약함 ● 농촌관광은 농촌시범마을 조성 등과 같이 주로 공급자 중심 정책이었음 ● 농촌관광 시장은 국내관광시장의 8%~10% 정도임(한국관광공사) ● 전체적인 관광패턴이 유흥/오락위주에서 체험관광 위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주5일근무제 도입 시 “여행/관광”은 4.9%에서 25.6%로 증가(한국관광공사) ● 농촌관광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인적자원 육성이 시급 ● 환경보존의 가치를 포함하는 브랜드화된 지역 특산 농산품의 육성이 필요 ● 정부의 녹색체험시범마을, 아름마을 가꾸기, 생태우수마을, 전통테마마을 등이 있음 ● 사이버네트워크체제 구축(포털 사이트 구축을 통한 네트워킹 강화) 필요 ●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농촌관광, 도농교류, 장소관측 등이 있음 ● 세계자원기구는 관광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4%, 자연관광의 성장률은 10% 상회 ● 체험프로그램 참여를 선호함(48.1% 농림부 조사결과) ● 메밀밭 조성, 계단식 논 보전 등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적 기준 도입 확대 ●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관심은 그 농산물이 생산되는 현장방문 수요를 촉진할 것임 ● 한국관광연구원은 국민11.7%가 철새 도래지, 갯벌 등 생태관광자원 방문을 선호함 ● 그린(Green), 웰빙(well-being) 등 국민생활의 질적 수요 변화 ●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에 따른 시공간의 탄력적 활력 강화

Facts

〈언론에 비친 오피니언〉

언론사 - 일자	분야	제목 및 논조
매일경제 / 9. 10	농촌개발	농촌도 기회의 땅 / 안중운 농업기반공사 사장 - 농촌공간은 도시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만 노력한다면 더 나은 기회가 열려 있는 곳
파이낸셜 / 8. 9	농촌관광	농촌체험관광은 미래자원 / 김영성 농업기반공사 소장 - 농촌관광은 도시문제를 완화시켜주는 대안이 될 수 있고 또 농촌에는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줌
한겨레 / 8. 16	농업인력	농정을 새로 짜자 / 황대권 생태공동체운동센터 대표 -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농촌을 이끌어 갈 사람을 모으고 양성하는데 집중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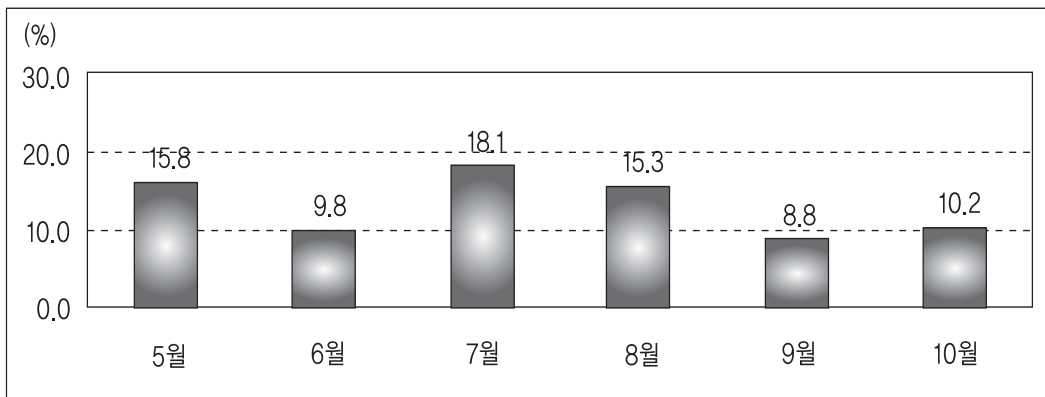
Facts

〈주요 농민단체의 목소리〉

언론사 - 일자	분야	제목 및 논조
전농 / 7. 23	농지법개정	경자유전의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투기만 부추기는 농지법개정안 규탄한다. -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의 헌법조항을 어기는 위헌행위이며 농민을 농토에서 쫓아내고 투기꾼이 농촌의 주인으로 만드는 “농지 투기법”에 다름 아니다.
한농연 / 7. 24	DDA협상	정부는 “오시마초안”에 대해 불수용입장을 명확히 하고 협상에서 국내농업여건과 농업의 비교역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라 - 초안에서 유보된 관세 상한설정을 반드시 철폐하고 TRQ증량과 대폭적인 관세감축 및 보조금 삭감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가) 우리나라 농촌관광의 여건

정부에서는 7대 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에 거주하는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도시민들이 농촌관광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은 크게 농촌관광경험에 관한 내용과 앞으로의 농촌관광 예정사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농촌관광의 경험과 관련하여, 지난 2년간('02~'03) 농촌관광을 다녀온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6%가 되었으며 농촌관광을 다녀온 시기는 여름철(7~8월)이 보다 높게 (33.4%)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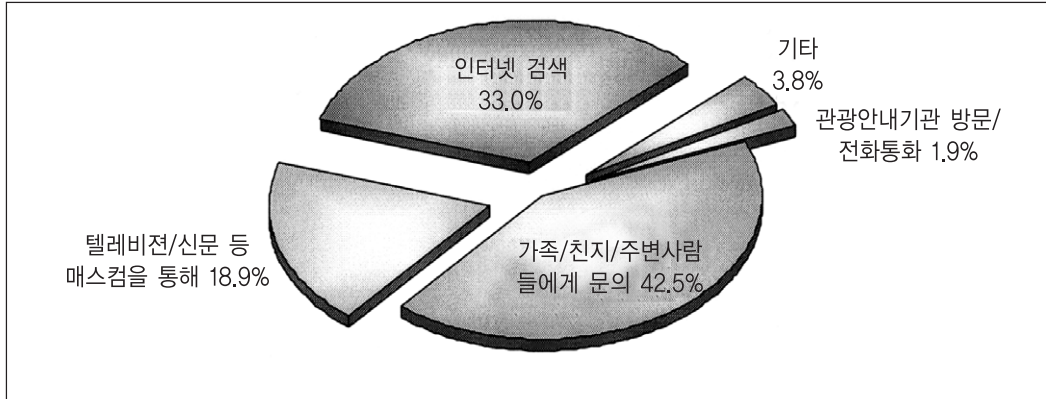


〈농촌관광을 다녀온 시기(상위 6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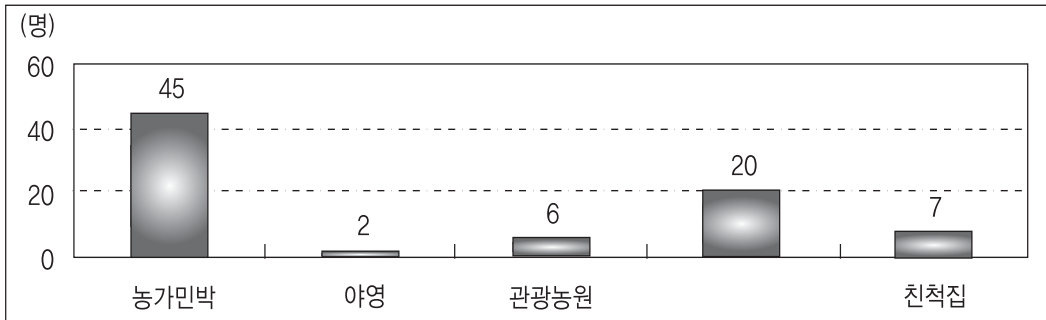
농촌관광의 주된 이유는 시골길, 강변산책 등 전원감상이 22.2%로 가장 많았고, 친목도모(21.2%), 야영, 하이킹 등 자연탐방(14.2%)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이나 친척과 함께 가는 비율(52.8%)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농촌관광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가족, 친지, 주변사람에게 문의하는 경우가 42.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인터넷(33.0%), 매스컴(18.9%)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관광의 기간은 1박2일이 34.9%로 가장 많았고, 2박3일(30.2%), 당일(24.5%) 순으로 나타났으며, 숙박시설은 농가민박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촌관광 중 농특산물 구입경험을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중 절반(50%)이 구입한 적이 있었으며, 신선농산물·친환경농산물(58.5%)이 지역의 특산가공품(41.5%)보다 다



〈농촌관광을 다녀온 시기(상위 6개월)〉



〈농촌관광 기간 중 이용숙박시설〉

소 선호도가 높았다. 농촌관광시 불편한 점이나 개선점으로는 화장실 불결·불편 (17.5%)이 가장 많았고, 샤워시설 부족(12.7%), 방의 청결상태·방출시설 불비 (12.3%), 교통·길찾기 불편(11.8%) 순으로 나타났으며, 불편사항의 절반이 주거공간에서 지목되고 있다. 향후 농촌관광 계획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중 17.3%가 앞으로 1년 내에 농촌관광을 갈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연환경이 보존이 잘된 곳 (44.3%), 거주지와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곳(24.1%)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농촌관광 시 현지시설 등의 이용의향과 관련해서는 농가숙박(80.2%), 식사(77.6%), 농산물 구매(68.8%), 농촌생활체험(60.3%)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현지에 있는 시설이나 음식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기 시설 등에 대한 최대 비

용지불금액은 농가숙박이 44,459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농산물구매(41,493원), 농촌생활체험(25,391원), 식사(9,108) 순으로 조사되었다.

〈농촌관광 시 이용의도 및 최대지불금액〉

구분	농가숙박 (4인1실1일)	식사 (1인1끼)	농산물 구매 (1회)	농촌생활체험 (1회)
3) 반드시 이용할 것이다	17.3	16.9	13.9	11.8
2) 아마 이용할 것이다	62.9	60.8	54.9	48.5
1)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19.8	22.4	31.2	39.7
3) + 2)	80.2	77.6	68.8	60.3
1)	19.8	22.4	31.2	39.7
합계	100.0	100.0	100.0	100.0
최대지불금액 평균	44,459원	9,108원	41,493원	25,391원

농촌관광 포털 사이트에서 가장 필요한 정보 3가지는 ① 숙박시설의 가격, 시설 등에 관한 정보 ② 농촌체험프로그램의 내용, 일정, 가격 정보 ③ 마을의 위치, 교통, 기상에 대한 정보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 결과, 농촌관광 경험자(10.6%) 보다 예정자(17.3)가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1년내 도시민 5명 중 1명꼴로 농촌관광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5일제 확대시행으로 관광 증가가 예상된다.

〈국정홍보처 농림부통계자료요약〉

<p>‘농촌관광에 대한 도시민 선호도 조사’ 개요</p> <p>1) 모 집 단 : 7대도시 20세 ~ 59세 남녀</p> <p>2) 표 본 수 : 1,000개(신뢰수준 95%, 최대 허용오차 ±3.1%)</p> <p>3) 표 본 추 출 : 지역/성/연령별 구성비에 비례한 표본수 할당 지역전화번호부에 의한 체계적인 무작위 추출</p> <p>4) 자료수집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에 의한 전화면접조사</p> <p>5) 조 사 기 간 : 2004년 6월 24일 ~ 7월 2일</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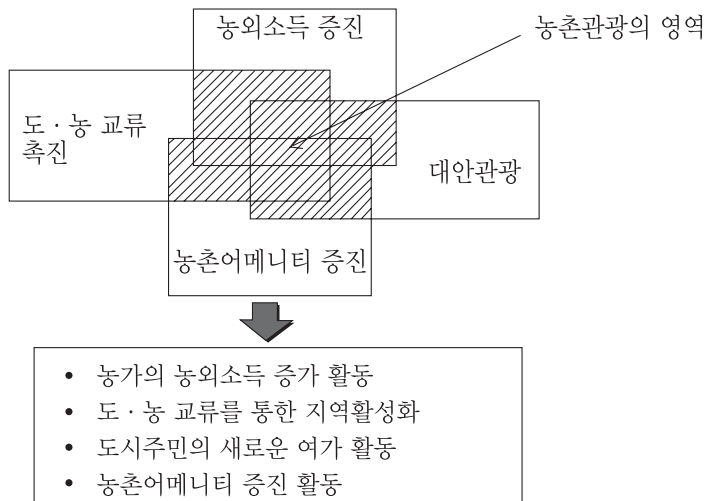
나) 농촌관광의 SWOT 분석 및 영역

(1) 농촌관광 SWOT 분석

〈농촌관광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관광 자원 보유 - 주민들의 강한 개발 의욕 -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증가 - 도시민의 전원 지향 의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관광 기반 시설 부족 - 전문 노우 하우를 갖춘 인력 부족 - 산업화 시스템 취약 - 농촌관광에 대한 도시민 인식 부족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정책 변화 - 여가시간 증대 및 여가 패턴 변화 - 고속 교통망 정비 - 인터넷, 택배 시스템의 발달 - 매스컴에서의 홍보 기회 증가 - 진짜·안전 농산물 소비 성향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 주체간의 경쟁 강화 -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훼손 - 농촌주민의 노령화 -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의욕 저하

(2) 농촌관광의 주요 영역



〈농촌관광의 주요 영역〉

(3) 농촌관광이 포함되어야 할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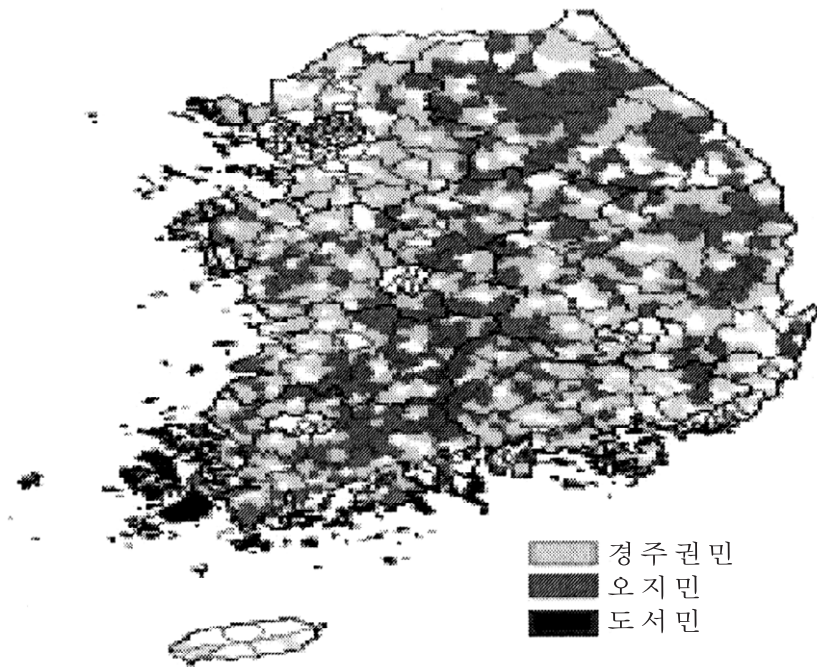
농촌관광은 현행 농가의 투자 여력과 인적 자원을 감안하여 가장 적은 자본과 고령 노동력으로도 농가 소득을 증대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농어촌 관광은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상품화함으로써 큰 자본을 들이지 않고도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수단이다. 지역외로부터 지역내로 수입이 발생하고, 그것이 지역내에서 순환하며, 관련산업에의 파급효과가 발생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 특히 특산물 가공, 농가식당 등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향토산업의 진흥을 촉진하여 틈새 농업이 활성화 된다.

도시민과의 교류 증대는 농촌주민의 의식수준을 높여주며, 도시주민의 농촌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며 더 나아가서는 도시주민의 농촌이주 계기를 제공한다. 농촌관광이 관광의 주요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위해 서비스의 표준화, 등급제의 도입, 시설물의 정비, 관련 조직의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다) 농촌지역개발의 체계화 개선방안

체계화 원칙과 방향에 있어서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를 통해 농촌지역개발은 지역의 자율적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며, 농촌지역의 정주공간체계에 부응하는 사업체계를 통해 국토의 효율적 정비가 되어야 한다. 오지면과 정주면의 구분해제하기 위해 정주면에만 적용되는 사업을 오지면까지 확대해야 하며, 마을단위 사업의 통합 추진을 통해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과 농촌전통테마 마을사업은 통합농촌 지역개발사업으로 체계화해야 한다.

	현행 체계	개선 체계
목표	1. 정주기반 확충(national minimum) 2. 낙후지역 기반정비 3. 도농교류 기반구축	1. 도농교류 활성화 2. 정주기반 질적 향상(quality of life) 3. 낙후지역 활력 증진
수단	1. 접경지역지원(행자부) 2. 도서종합개발(행자부) 3. 오지종합개발(행자부) 4. 소도읍육성(행자부) 5. 농촌마을종합개발(농림부) 6. 정주기반확충(농림부) 7. 전원마을조성(농림부) 8. 녹색농촌체험마을(농림부) 9. 산촌종합개발(산림청) 10. 어촌체험관광마을(해수부) 11. 어촌종합개발(해수부) 12. 농촌전통테마마을(농진청) 13. 개발촉진지구지원(건교부) 14. 신활력사업	1. 접경지역지원(행자부) 2. 도서종합개발(중단 고려) 3. 오지종합개발(중단) 4. 소도읍육성(행자부) 5. 농촌마을종합개발(농림부) 6. 정주기반확충(성격전환) 7. 전원마을조성(성격전환, 중단 고려) 8. 도농교류마을정비(통합 추진) - 녹색농촌체험마을(농림부) - 산촌종합개발(통합 추진) - 농촌전통마을테마마을(농진청) - 어촌체험관광마을(해수부) 9. 어촌종합개발(해수부) 10. 개발촉진지구지원(중단 고려) 11. 신활력사업(부처 공동추진)
특징	1. 중앙정부 부처 주도 2. 하드웨어 정비 위주	1. 중앙과 지방의 파트너십 2.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조화



가설/해결안 (Ideas II)	외국의 농촌관광 정책을 알면 농촌어메니티 자원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	---

이미 알고 있는 사실 (Facts)

Facts : 이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민박 및 농촌호텔 경연대회(독일) ● 캐나다는 국립공원과 역사유적지의 자금조달에 농촌관광의 배타성을 설정함. ● 일본은 다락논 임대사업을 함(소유자 시스템 : 농민 지방정부 도시민). ● 집단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호주 : 20년간 지역삼립협정) ● 어메니티 관련 상품시장의 활성화(프랑스 : 지역자연공원 라벨 상품) ● 그리스는 그레타섬의 도기산업 지원 ● 미국은 아이오와주의 3년간 “자원증진 및 보호프로그램” 추진 ● 벨기에 : 국토개발과 도시계획 및 유산에 관한 법률 ● 스위스 : 농업용도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엄격하게 이용 규제 ● 영국 : 돌담제거 시 지방정부의 승인 ● 호주는 퀸즈랜드 열대우림지역의 세계유산목록 등재 ● 일본은 유후인지역 전통농업 지원(벼단 공급을 통한 농촌경관 보존을 위한 정책) ● 영국도 웨일즈 돌담보존프로그램 ● 덴마크는 환경보호를 위한 농지 이용 유보 의무의 양도 ● 독일은 농촌휴가센터를 마련함(농가민박 종사자와 소비자를 중재 위한 온라인 서비스) ● 손님이 추천하는 우수 민박업소 선정 ● 농촌주택-유럽의 가장 아름다운 휴양주택(공동마케팅 브랜드) ● 농촌관광이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되어 민간조직 또는 단체 등의 활동이 활발함 ●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농촌관광에 참여하는 농가수는 전체농가의 2~4%수준

Facts

〈언론에 비친 오피니언〉

언론사 - 일자	분야	제목 및 논조
경향신문 / 5. 25	농촌개발	올라잇 닛폰 운동 - 일본에서 “올 라이트! 닛폰운동”의 열기가 뜨겁다.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촉진시켜 중국적으로 도시민들이
파인내설 / 4. 17	농촌관광	“피로회복 쌀” 일본서 개발 - 세포의 산화 및 노화를 방지해 주는 “피로회복 쌀”이 일본에서 개발됐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농업생물 자원연구소 유전자원연구그룹이 “코엔자임Q10”
세계일보 / 11. 30	농업인력	미국내 외국인 농부” 비참한 생활” -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젊은이들이 농촌을 등지고 있다. 미국농촌의 부족한 일손은 이제 외국인

Facts

〈주요 농민단체의 목소리〉

언론사 - 일자	분야	제목 및 논조
한농연 / 7. 31	DDA협상	오시마 의장 2차 초안을 거부하고 농민생존권 보호에 총력하라 - 2차 협상 초안은 미국 등 G5그룹의 밀실협상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됐고, 농업부문의 관세감축.
전농 / 7. 31	DDA협상	오시마 농업협상안을 거부하고, 식량주권 수호에 총력을 다하라 - 오시마 초안내용 개도국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철저히 외면하면서 미국 등 수출강대국들의 입장만 고스란히.

라) 외국의 농촌관광 정책

(1) 영국의 농촌관광 정책

(가) 영국 농촌관광 활성화 대책 및 규정개괄

영국은 농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정부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행한다. 그러나 EU와 영국의 정책적 규정은 각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의 범위나 방법들을 개괄적으로 언급할 뿐이며 구체적인 지원대상의 자격, 지원형태 또는 지원금의 액수 등은 각 지역의 농촌발전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하는 단체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영국의 경우 농촌관광업의 창업 및 경영에 관련된 특별한 법규는 없으며, 창업 및 상거래에 관한 일반적인 법규들이 적용된다. 가장 기본적인 법규는 세법에 관한 것으로 모든 사업자는 창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영국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는 일정한 벌금이 부과된다. 시설 설치 관련 사업의 경우는 “도시 및 농촌계획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개발허가를 받아야 하며, 식품안전이나 소방시설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해야 한다.

(나) 농촌관광 경영자의 자격조건에 관한 규정

영국은 농촌관광업을 창업, 경영하려는 자에 대해서 창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 이외에 특별히 사전적 자격조건이나 의무규정을 부과하지 않는다. 관광업을 추진하는 자가 관광시설에 대해서 개발허가를 취득하고 식품안전 및 소방시설에 관련된 사항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창업과 경영은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다.

(다) 관광업의 범위, 시설 및 행위에 관한 규정

영국의 농촌관광업은 숙식을 제공하는 사업과 레저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관광업 경영자에 대한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지만 숙소나 음식 제공 등 영업의 범위 및 시설과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준수 또는 인지해야 할 50여 가지의 세세한 규정이 있다. 가령 농민이 자신의 농지를 개조해서 소규모의 숙박업을 할 경

우에 객실, 식당 등에 관한 개별적인 규제조항은 없으며, 단1개의 침실을 한두 명의 여행객에게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이 경우에도 국세청에 신고를 하거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법규는 준수해야 한다.

(라) 영국의 농촌관광 정책의 발전 단계별 개요

영국 농촌관광 정책은 EU정책의 변화에 따라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① 제1단계(1988년 이전 공동농업 정책시기)

공동농업정책(CAP)이 담당하는 농업부문과 지역정책이 포괄하는 비농업적 지역발전의 두 가지 정책이 나누어져 있던 단계로서, 공공농업정책이 농업활동의 지원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농촌관광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대상이 농업인이건 비농업인이건 상관없이 지역정책을 통해서 이루어 졌다.

② 제2단계(1988년 이후 EU구조기금 개혁을 통한 정책 통합 단계)

이 단계에서는 구조기금의 개혁을 통해서 EU의 각 지역이 5개의 목표지역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EU의 세 가지 구조기금(ERDF, ESF and EAGGF Guidance Section)이 통합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여전히 EAGGF Guidance Section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CAP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기금 개혁을 통해서 각 회원국가가 농업정책을 통해서 농업인의 다면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갖추게 된다.

③ 제3단계(EU Agenda 개혁)

공동농업정책이 농촌발전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존에 시장 조치에 사용되던 EAGGF Guarantee Section을 농촌발전정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화된 시기이다. 이 Agenda2000개혁에 의해서 각 회원국들은 통합적인 농촌발전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하였고, 영국은 모든 농촌발전 관련 조치들을 통합해서 지역별로 수행하는 농촌발전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따라서 기존에 서로 분리되어 시행되었던 농촌관광에 대한 지원사업이 “농촌기업지원대책”으로 통합되었고, 농업인이 운영

하는 소규모 사업을 포함해서 모든 농촌지역의 중소규모의 사업이 이 정책을 통해서 지원된다.

영국 농촌관광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3가지 정부부처가 주로 관련되어 있다.

- 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 DCMS)
- 환경·식료·농촌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 : DEFRA)
- 통상산업부(Department for Trade and Industry : DTI)

영국의 농촌발전정책에 따르면 각 지역 발전전략의 수립 및 운영은 10개로 나누어진 각 지역의 지역발전청(RDA)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지역의 RDA는 전반적인 지역의 발전전략의 수립과 세부 프로그램의 형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지역단체들이 협력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들에 관해서 심사한 후 이들에 대한 예산지원을 정부에 신청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농촌발전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또 다른 공적 기관은 바로 지방정부이다. 영국은 행정구역상 총34개의 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중앙정부와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독자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의 지역발전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한다.

영국의 농촌발전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각 지역에 있는 농촌발전 관련 단체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본부와 각 지역별로 지방조직을 갖고 있는 형태이다. 이들은 단체 유지 및 사업을 위한 예산의 대부분을 정부예산으로부터 받는 정부관련 단체와 순수하게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단체, 그리고 은행을 포함하는 민간 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역단체 중심의 정책 시행체계가 농촌관광 정책을 포함하는 영국 농촌발전 정책의 특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다.

(2) 프랑스의 농촌관광 정책

(가) 농촌관광의 영역

① 지프 휘호와 뫼블레(독립농촌주택)

방문자가 농촌주택을 빌려 숙박하는 형태로서 지프 휘호와 뫼블레가 있다. 지프 휘호는 농촌에 위치한 독립주택으로 계절을 불문하고 주 단위, 또는 주말단위로 빌릴 수 있다. 뫼블레는 공공에 의해 인정된 휴가기간 동안 일, 또는 월 단위로 빌릴 수 있는 곳임. 단 숙박하는 사람의 주거주지나 별장이 아닌 곳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여행객으로서만 머물 수 있다.

② 샹브르 도뜨(주인집 방을 빌림)

샹브르 도뜨는 하룻밤 또는 며칠 밤 묵어가는 관광객들에게 집안에 있는 방 1~2개를 빌려주는 형태이다. 대개는 아침 식사가 제공되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다.

③ 캄핑 카라바닝(야영)

캠핑차, 방갈로, 이동주택 등을 이용한 영업으로 유럽의 여러 국가들중에서도 프랑스는 이 방면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법률적 제한이 매우 까다롭고 세부적인 규제가 많다. 운영하는 텐트, 카라반 등의 수가 일정개의 수를 넘어서면 반드시 등록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식당업(Restrauration)

식당업도 숙박업과 보충관계에 있는 사업으로 관광객들을 단골화하거나 관광 수익을 높이는 데 기여하므로 농촌관광의 중요한 부분이다.

⑤ 비지뜨 더 페흠(농장 방문 프로그램)

방문자가 직접 농업 경작지를 둘러보도록 함으로써 농업 세계를 발견하게 하는 프로그램임. 공급자의 자격요건은 간단해 신고만 하면 된다. 농가 간식 등의 다른 영업형태와 복합되어 운용되는 경우가 많다.

⑥ 오텔 휘호(농촌호텔)

프랑스에는 약 20,000개의 농촌호텔이 존재함. 전문적인 호텔업이라고 보는 것이 좋고 때때로 농촌 호텔에 대해서 갖는 이미지와는 달리 도시적인 그리고 현대적인 호텔일 경우가 있다.

⑦ 방뜨 더 프로뒤 페흐미에(농산물 직판)

프로뒤 더 페화는 토속 생산물, 역사와 토지에 연관될 수 있는 모든 제품을 일컫는 말임. 품질보증을 하는 몇 가지 기준이 공공에 의해 마련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원산지증명, 붉은 상표들이다.

(나) 법률, 행정, 상업, 연합체 관련 규칙들

① 보험

보험은 손님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필수적이며 관광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을 구제해 주는 역할을 함. 특히 프랑스의 경우 보험이 중요한 이유는 농촌관광에서 승마 등과 같은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영업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② 문화유산 보호

아름다운 경관, 건축물, 유적지, 정원, 민속놀이 등은 전부 문화유산이며 농촌관광의 중요한 자원이다. 따라서 유럽, 프랑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들이 있다.

③ 경관보호

프랑스는 1993년 1월 8일 경관의 보호와 운영이라는 개념의 법률을 도입했다. 이는 도시계획을 하거나 건축허가를 내는 데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④ 유적보호

프랑스의 역사 유적 목록에 유적으로서 기록되면 그 소유주들이 조세에 있어서 혜택을 얻거나 수리를 하는 데 국가 보조금을 받는 등 유리하게 된다. 이는 문화부 관리 소관이며 농촌관광의 중요한 자원보전이 된다.

⑤ 자연탐구프로그램

이 경우는 반드시 안전위원회의 검열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식당 시설과 교실, 놀이마당을 갖춰야 한다.

⑥ 농가(농업) 방문프로그램

주차장에 안전 한 곳에, 나이가 든 사람들이나 장애자들을 위해 방문하는 현장에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놀이공원, 수영장, 승마 등 돌아보는 코스 역시 안전하게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

⑦ 음식물과 관련된 위생 준수 원칙

생산자나 중간 과정에서 변형을 가하는 사람들이 위험을 감지하고,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수단들을 행해야 함을 책임사항으로 둔다.

⑧ 사업규칙

저작권, 상표, 숙박업소의 등급구분, 체류계약, 체류조건, 영수증 등이다. 영수증은 손님이나 주인 양자 모두에 의무사항이다.

(3) 인력교육

(가) 농업관광교육

농촌관광초보교육과정은 농업부 산하 400여개의 기관에서 행해진다. 직간접적으로 150여개 이상의 과정들이 농촌관광을 다루고 있다.

(나) 학위, brevet, 자격증명서

교육부, 문화부, 농업부, 노동부, 청소년 체육부, 내무부 등에서 여러 종류의 관련 학위를 발급하며, 이 이외에 연맹이나 단체들에서 나름의 자격증 또는 학위를 준다.

마) 외국사례의 종합 분석 평가

유럽에서는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30년 이상의 농촌관광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농촌관광을 진흥하는 것은 198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농업구조정책에서 소외된 소규모 농가의 농업경영의 다각화 방안으로 농촌관광이 정책화되었다.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농촌관광에 참여하는 농가 수는 전체 농가의

가설/해결안 (Ideas III)	다양한 지역혁신사례의 발굴을 통해 우리지역 농촌어메니티 개발모형 정립과 실용화 방안을 모색해본다.
-----------------------	--

이미 알고 있는 사실 (Facts)

<p style="text-align: center;">Facts : 이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동 간고등어의 경우 지역특산품을 바탕으로 지역의 브랜드마케팅에 성공함 ● 고창의 복분자 산업은 복분자의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한 대표적 사례 ● 영동의 포도주 "샤토마니"는 포도의 재배부터 와인의 양조까지 지역혁신을 꾀한 사례 ● 키워드 설정(자연,환경,보존,농심,동심,향수,가족,사랑,건강,생활,풍요,자원,체험,특화) ● 세시풍습 체험형 상품화 가능 프로그램, 향토음식 개발, 지역특산품 개발 ● 민속놀이 한마당, 봄맞이 축제, 오리농업 체험, 인삼농사 체험, 건강체험, 김장담그기 ● 농촌마을 공동쉼터 만들 ● 녹색농촌체험마을, 전원마을조성사업, 마을경관조성지원 등 ● "해수녹차탕"이라는 지역밀착형 지자체 운영사업의 성공모델 제시함. ● 나비축제를 이용한 지역이미지 및 지역브랜드 창출 ● 강원 화천군 상서면 신대리의 토고미 환경농업 작목반을 구성하여 무농약 오리살 재배 ● 소달구지 타기, 새끼 꼬기, 가마니 치기, 눈에 오리 넣기 등의; 체험프로그램 ● 최근에는 마을 내 폐교의 리모델링을 통한 농산물 판매장 겸 도시민 숙박시설 조성 ● 다락논 풍경, 태백 고랭지 김치, 인제 황태, 보은 황토, 부여 양송이버섯, 담양 대나무 ● 하동 녹차, 제주 감귤, 북제주 선인장, 군위 버섯, 풍기 인삼, 김천 포도 ● 함평 왕골, 완도 다시마, 남원 목공예, 한산 모시, 평창 느타리 버섯 ● 삼척 미역, 청양 구기자, 예산 옹기, 봉동 생강, 고성 밀, 상주 곳감, 안동 산약 ● 영광 모시, 봉화산 머루, 청송 꽃돌, 청도 감, 울진 송이버섯, 순창 장류, 통영 동백 ● 지리산 야생화, 양평 산더덕, 고성 명태, 정읍 자생차, 청원 국화, 영암 무화과
--

약 2~4% 수준으로 영국 약 1.4만호, 프랑스 2만호이다.

농촌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서는 농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체계적 홍보와 마케팅, 시설정비 지원(융자와 보조), 조직을 통한 평가와 엄격한 품질 관리 등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연수·교육, 컨설팅 업무, 조사 연구, 흥

Facts

〈언론에 비친 오피니언〉

언론사 - 일자	분야	제목 및 논조
서울경제 / 8. 26	농촌개발	다함께 잘사는 농촌개발 - 농촌정책은 곧 농업정책이라고 여겨왔지만 이제농촌은 활력 증진을 위한 보다 복합적인 기능으로의 전환
매일경제 / 9. 4	농촌지원	농업과 공생하려면 - 저명한 미국 경제학자도 농촌발전이 선진국 진입의 중요한 단서임을 강조한 것처럼 농업 발전 없는 선진국
세계일보 / 9. 2	농업관광	주말엔 농촌으로 떠나요 - 올 가을 주말엔 콘크리트 숲을 벗어나 따뜻한 인심과 첫 수확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농촌으로 떠나보는...

Facts

〈주요 농민단체의 목소리〉

언론사 - 일자	분야	제목 및 논조
한농연 / 8. 9	추곡수매	정부는 추곡수매가 국회동의제 폐지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악을 즉각 철회하라. - 추곡수매가 국회동의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고 식량자급 목표 설정...
농민연대 / 8. 5	수매제폐지	수매제 폐지와 농지법 개정안 농업포기정책으로 규정 - 농업현안문제 논의를 위한 농민단체장-정당대표 간담회 및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양당 간사와의 긴급 간담회를...

보, 제도 등을 주로 담당하고 농가에 대한 직접 투자지원은 지방자치단체(프랑스)나 중앙정부의 지방사무소(영국)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농촌관광이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되어 있으며 농촌관광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업계 종사자들의 경영 능력을 높이기 위한 민간조직 또는 단체 등의 활동이 활발한 편이다. 특히 농촌관광의 품질 관리, 홍보, 마케팅, 경영자의 교육 등은 민간 공급자 조직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농촌관광은 농업과 관광업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서 일반 관광업보다는 그 규제정도가 약하지만 농촌관광경영자가 준수해야할 각종 규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바) 농촌 지역혁신 전략

(1) 지역혁신전략 기본 방향

농촌은 국토 속의 일부이고, 그것이 도시와 다른 공간적 특성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이자 주로 농업생산이라는 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동시에 자연환경이 지배적인 공간이라는 것이다. 농촌은 생활공간, 생산공간, 자연공간이 누적적이고 중첩적인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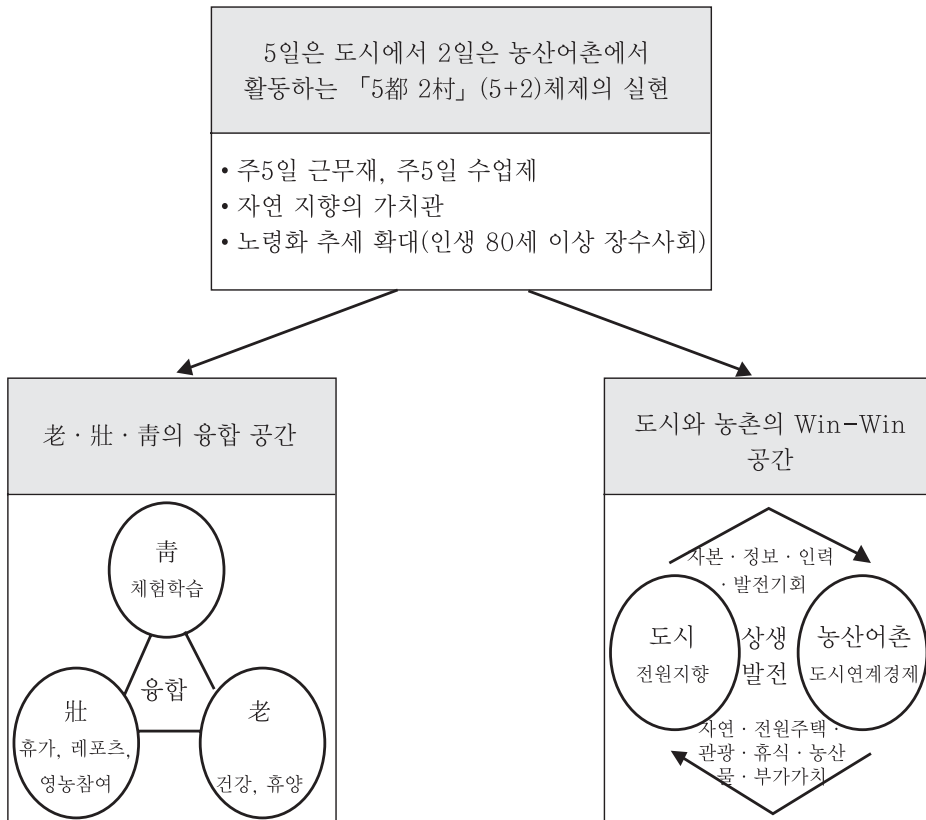
농촌의 지역혁신전략을 구상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공간적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며, 이는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농촌의 다원적 기능이란 첫째 농촌은 농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이 공존하는 복합산업공간으로 기능, 둘째 농촌주민뿐만 아니라 도시민에게도 개방된 양질의 주거공간으로 기능, 셋째 자연생태계의 순환질서가 유지 보전되는 자연생태공간으로 기능, 넷째 전 국민이 휴식을 통해 생활의 활력소를 얻을 수 있는 여가 휴양공간으로 기능, 마지막으로 우리고유의 문화를 간직하고 유지하는 전통문화 유산의 전승 보전공간으로 기능하는 것을 말한다.

농촌이 국민 모두에게 열린 주거 공간, 산업 공간, 여가 휴양 공간으로서 기능하도록 정비함으로써 농촌도 활력을 얻게 된다. 농촌의 기초 생활여건 정비,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향토 산업의 육성, 농촌의 정주기반, 산업기반, 여가휴양 기반의 기초는 농지와 경관의 체계적 유지와 관리 등이 필요하다.

(2) 농촌사랑운동의 활성화

주5일 근무제 정착, 소득향상, 시공간 가치관 변화 등에 따라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다면화되었다. 쾌적한 전원주거지, 농업 자연체험 공간, 여가휴양공간으로서의 수요가 증대되었다. 농촌사랑운동을 통하여 도농 상생 공간, 노·장·청의 융합공간으로서 농촌의 가치가 재발견된다.

농촌사랑운동을 통하여 도시의 자본, 정보, 인력들이 농촌에 유입되어 농촌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작용하며 농촌의 자연, 어메니티, 농특산물 등은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3) 향토산업의 육성과 지역별 집적

농촌의 집적의 바탕은 향토산업, 향토산업의 자원은 농촌의 어메니티이다. 농촌이 지니고 있는 내부역량 및 지역특성 등이 도시와 상이하므로 농촌에 적합한 군락형성해야 한다. 전통산업 이천 도자기 집적단지, 지역농업 보성 녹차 집적단지, 어메니티 함평 나비 집적단지 등 모범적인 농촌의 가능성은 이미 도처에 존재한다. 나비축제를 통해 지역의 친환경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나비관련 연관 산업 육성, 곤충연구소 설립, 고유브랜드”나르다”를 개발, 지역문화상품 및 농산물 판매와 연계하였다.

자생적 향토산업 육성 및 어메니티 집적단지 구축을 지원한다. 향토 지적재산 R&D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지역특화자연(친환경농업, 식품가공업, 농촌어메니티, 지역향토축제등)을 기초로 전후방 연계가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집적 유도 프로그램 등이 있다.

지역 파워브랜드 개발 및 품질관리를 연동한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식품 등 원산지 마케팅 주력, 지자체와 전문업체간 제휴를 통한 고유브랜드 개발, 지리적 표시제 활성화 및 권리보호 강화, 지역 전통 및 특산품 등과 관련된 향토문화축제 발굴 지원 등을 한다. 예로서는 뉴질랜드 키위 브랜드(제스프리), 미국 워싱턴주 사과 브랜드(워싱턴 애플), 캘리포니아 오렌지 브랜드(선키스트), 프랑스 포도주 브랜드(샤블리) 등이 있다.

5) 테마형 농촌 관광마을 개발모형사례(전북 진안 능길 마을 중심)

가) 마을의 일반적 특성

금강 상류의 용담댐 상류지역으로서 깨끗한 물과 아름다운 자연풍경이 수려함. 혼잡한 도심을 벗어나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덕유산 IC를 내려 풀내음 가득한 강촌을 끼고 달리면 능길 마을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마을에서 논농사를 농약대신 오리를 풀어 넣는 친환경농법으로 짓기 때문에 모내기철에는 논에 오리 넣기 체험을 할 수 있다. 물레방아 간에 마련된 박물관에는 잊혀져 가는 정겨운 세간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고 징검다리를 건너 참나무가 빼곡한 숲에서는 생명력이 가득 찬 호젓한 산책로가 있음. 꽃향기 가득한 구량천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달리며 자연을 느낄 수 있

다. 특히 왜가리들의 자연서식지인 탓에 마음껏 왜가리들을 관찰할 수 있으며 마을 주변에서 천문관측과 래프팅을 즐길 수 있음. 아울러 봄이면 야생화 관찰, 산나물 캐기, 여름이면 산골마을 체험, 가을이면 허수아비 축제, 겨울의 연날리기 등과 연중 내내 천연염색 체험과 마이산의 모습을 탄 황토 찜질방에서 황토 쑥찜질을 이용할 수 있다.

나) 마을 여건 및 SWOT분석

능길마을은 해발 400고지 이상의 준 고랭지의 산촌형 마을로 구성 되어 있어 병충해가 적으며 기온차와 지형을 활용한 친환경농업이 가능하고 자연환경이 우수하여 농촌 체험의 최적지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과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지역 활성화는 물론 도시소비자와의 친환경 농촌체험을 통한 신뢰와 믿음을 폭넓게 확보할 수 있고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우수한 농촌 체험마을을 다각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표본이 될 수 있는 마을이다.

농촌체험의 특수성을 감안한 무진장권역내의 네트워크화, 마케팅, 컨설팅과 함께 도시고객의 농촌유치를 위한 종합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단체와 협력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무엇보다 농촌경제 활성화는 도농교류를 통한 신뢰와 믿음이 최우선되기 때문이며 이는 한국농업발전의 핵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능길 마을은 아무도 찾지 않는 마을을 개발한 후 2000년부터 농촌체험과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시작하여 2004년에는 13,000명이 방문 및 체험을 하였고 제3회 농촌 마을가꾸기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농촌지역 활성화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주고 있다.

따라서 SWOT분석을 통해 능길 마을이 가진 강점과 기회요인을 살펴보고 약점과 위협요인을 파악해 위험인자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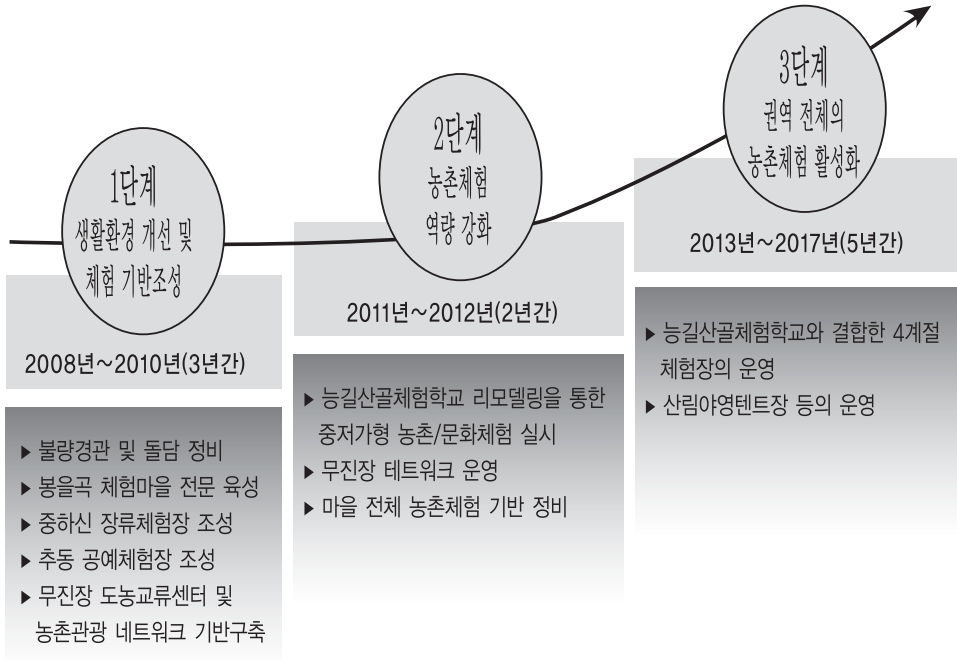
라) 농촌체험활성화사례3)

(1) 기본 방향

구분	내용
○ 체험의 가치 부여	농촌지역의 관광활동에서의 체험의 가치를 화폐화 시킴으로써 방문객이 자기가 소비하는 각각의 상품들, 즉 제품과 서비스와 체험에 매겨진 가격이 합당하다고 인식.
○ 권역농산물 판매와 연계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농산물 등 지역자원 소비 및 판매와 연결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함. 민박이나 체험비 징수로는 농가수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농산물 판매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함
○ 권역의 고유성	농촌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체험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농촌의 풍경·생활 등 지역의 고유성을 반영해 자연휴양림이나 등산과 같은 녹색(Green) 관광과의 차별성을 부여함. 이러한 고유성은 전체 프로그램의 테마와도 연결되는 것으로 고유성이 없는 프로그램은 생명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
○ 농촌관광의 재미성과 기념성	농촌은 심심하고 놀거리,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재미있고 유익하며 놀랄만한 요소를 가미하며, 관광객들에게 농사 일은 일종의 게임과 같으므로 도전감과 경쟁요소를 도입하여 몰입경험(flow experience)을 제공하고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해설의 기능 강화

3) 진안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서, 2006.

(2) 농촌체험 활성화 단계별 추진전략



〈단계별 농촌체험활성화〉

(3) 규모별/장소별 특성을 살린 농촌체험 활성화

〈규모별/장소별 특성을 살린 농촌체험 활성화〉

구 분	계획방향	주요프로그램
능길산골 체험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마 : 능길산골체험학교 ○ 주요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인 대상으로 하는 체험학교 (권역민 대상 방과후 학교는 권역센터) - 단순한 농사체험보다는 교육적인 기능을 도입 - 대규모, 중저가형으로 조성 - 농촌문화 전수 및 체험 장으로 활용 - 친수공간 등의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우수 한약재를 이용한 천연염색 - 흙 집짓기(황토벽돌 찍기) - 국악 이해하기(우리가락 배우기) - 200년 역사를 가진 능길마을 “깃고사”와 지역의 “깃절놀이” 축제

구 분	계획방향	주요프로그램
<p style="text-align: center;">봉을곡 체험마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테마 : 농사체험마을 ○ 주요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테마마을사업의 유지 - 참여농가(약 10농가) 중 1농가 1체험 운영 - 자립형 복지센터를 도농교류센터로 활용 - 주민복지와 결합한 농촌체험기반, 방갈로 등의 잘거리 보완 - 등산로산책로 정비. 오미자, 홍단풍, 차나무 중심의 경관조성 - 오미자 엑기스가공 - 자녀 출생 오동나무심기와 오동나무 목공예 교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농촌/문화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재운, 김수열, 심재덕 : 짚풀공예(짚신, 명석, 골목다리) - 서재남(풍물상쇠, 이야기꾼), 권영덕(해박한 역사지식) : 마을 문화해설사 - 허분순, 장봉순 : 전통주만들기 체험 - 이재철(탁구), 조수태(배드민턴), 박사라(사회복지사), 박후임(상담 및 심성프로그램 운영), 이수진(피아노) : 맞춤형 방학 건강학교 운영(비만, 아토피, 체질개선 등) - 회운 : 차ঢ�기 체험 ○ 마을 생태/경관자원 활용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월대 쉼터 낮잠자기, 야외 수영하기 - 등산로를 따라 숲체험하기 ○ 산림자원 이용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미자 엑기스가공 - 자녀 출생 오동나무심기와 오동나무 목공예 교실 운영
<p style="text-align: center;">중하신 장류가공 체험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장테마 : 할아버지 할머니 손끝에서 익어가는 “매실된장” ○ 주요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계절 체험이 가능한 장류가공사업장으로 조성 - 할아버지 할머니덕에 머무르기(실버농촌체험) - 산야초 효소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겨울철 중심 장류, 4계절중심 청국장가공 - 4계절 산야초효소만들기

구 분	계획방향	주요프로그램
추동공예 체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장테마 : 어머니 품속 같은 추동 마을 “짚공예체험” ○ 주요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돌담에 인동을 식재하여 인동덩굴공예품 생산 - 마을진입로, 주연부에 은행나무군락 조성 - 여름·가을에는 은행잎을 활용한 가공상품화 - 겨울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인동덩굴공예, 찻공예, 짚공예품 만들기 - 겨울 외에는 공동민박으로 대어, 식사제공은 부녀회에서 전담 - 어죽, 사찰음식(참, 가족 부침), 콩죽, 산고수겉저리, 산초장아찌 등 전통먹거리 개발 - 수목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미공예방(소쿠리 공예, 짚공예) - 은행잎카드 만들기, 은행나무 장수취미분재원 조성, 바퀴벌레 퇴치주머니 만들기, 오퍼차 마실거리 개발, 은행마늘꼬치 먹거리 개발, 은행천연화장품 만들기 - 기타 짚공예생산
지역 특산물 가공공장 (기술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마 : 지역자원순환형 구조를 통한 농업경영 ○ 주요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원순환형 구조의 합리화를 통해 농업경영 성공사례 선진지 견학 유도 - 지역자원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순환되는지,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 공장운용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을 소개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원순환형 구조의 소개 - 가공공장의 운영사례 등

마) 농촌체험활성화를 위한 마케팅방안

(1)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방안

(가) 기념품/특산품의 개발

- 인진쑥엑기스, 한방배즙, 호박배즙, 산야초 효소, 백화주 등 건강관련 약초 가공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 약초를 이용한 향주머니, 수리취뜸 등 품목을 개발
- 마을주민 전통공예 기술을 이용한 기념품을 개발
- 짚공예, 한과, 염색, 소쿠리공예 등

(나) 건강관련 프로그램 개발

- 마을에서 사육되고 재배되는 농산물을 이용하여 건강보양탕 등 건강관련 먹거리를 개발(흑염소 인삼 보양탕, 산초 추어탕, 산채비빔밥 등)
- 주변 자생 식물들의 특성을 이해하여 건강/보양을 위한 차별적인 먹거리를 만들
- 체질별 민박집을 선정하여 체질에 맞는 식사만을 제공(소양인 민박집, 소음인 민박집, 태양인 민박집, 태음인 민박집 : 각각 한집씩만 있어도 충분함)
- 다이어트, 체질개선 합숙프로그램을 개발
- 방학이나 휴가철을 이용한 다이어트 합숙 프로그램을 개발
- 일주일, 한달 코스를 개발
- 보양/요양 합숙프로그램을 개발
- 보건소와 마을에서 생산되는 건강관련 농산물을 이용한 장기합숙 프로그램을 운영
- 단기적으로는 민박이나 황토방에서 운영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건강타운을 조성하여, 농촌형실버타운/요양원 등을 유치
- 건강관련 세미나의 유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 의학관련 대학이나 민간단체의 건강관련 세미나를 유치하고, 노인의학, 대체의학, 요가 등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다) 농촌체험 및 자연학습 프로그램 개발

〈농촌체험 및 자연학습 프로그램〉

구 분	봄	여름	가을	겨울	공통
볼거리	매화→산수유→진달래꽃→조팝→살구꽃→배꽃으로 이어지는 개화, 물대고 썰레질한 논, 군락으로 피어있는 들꽃	잘 자란 농작물, 풀벌레소리 매미소리	추수 뒤의 날가래 등의 농촌경관, 단풍/갈대밭/산수유 열매/감 등의 자연경관	송림 오솔길/파, 마늘 등의 밭작물, 밥짓는 냄새	송림, 황토밭, 전통결혼식, 전통가옥돌러보기 마을 역사보기
먹을거리	진달래꽃 요리(화전, 화채, 두견주 등), 뽕잎차, 앵두, 버찌	뽕잎 비빔밥, 감자/고구마, 옥수수 수확 + 구워먹기	머루/개암열매 감, 밤	밭의 시금치, 배추, 개떡, 꽃감	жат술, 산채비빔밥, 한과, 두부
실거리	양지바른 무덤가에서 햇볕쬐기	맨발 삼림욕	송림, 정자목 아래의 낮잠	황토방 쑥찜질	산림욕
할거리	산채나물 채취, 산야초 효소담그기, 모내기, 오리입식, 달래/냉이캐기	약초채취, 손모심기, 다슬기잡기, 산골여름학교 운영, 모깃불용 쑥 뜯고 엮기, 봉숭아 물들이기	과일(한방배, 포도) 수확, 버섯채취, 가을산행, 허수아비 만들기, 밤줍기, 벼베기	꽃감 깎기, 연날리기, 팽이짜기	황토방 + 호박 범벅 생태 다이어트, 약쑥찜질, 대나무/짚공예배우기
놀거리	봄꽃축제	물고기 잡기, 계곡물놀이, 다슬기잡기	메뚜기 잡기 풀벌레소리 듣기	연 만들고 날리기, 눈썰매타기, 얼음썰매타기, 팽이놀이, 쥐불놀이	산책
알거리	꽃이름알기, 파충류 알 관찰	나무생태알기	낙엽이름 맞추기	줄기로 나무이름 맞추기	
살거리	벌꿀, 꽃모종	옥수수, 참외, 오이, 수박	쌀, 호박, 고구마, 고추 등 농산물	꽃감	기념품, 특산품(인진쑥엑기스, 한방배즙, 호박배즙, 산야초 효소)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오리입식 행사를 보완하여 숙박형 농사체험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갈. 그밖에 6가구가 참가중인(15ha) 농사체험 프로그램을 약초재배, 채소류, 잡곡류 생산 등으로 확대시킴
- 산림생태계, 농경지생태계, 하천생태계, 주연부생태계 학습관찰로를 조성하고 학습프로그램을 만들
- 마을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계절별/시간별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개발



〈능길 마을의 사계〉



〈능길 마을의 자생식물〉

(라) 향토음식 개발모형

상 품	내 용
민물매운탕, 민물회	용담댐, 구량천의 민물고기를 활용한 음식 개발
오리숯불갈비, 오리인삼백숙	산이 감싸고 있는 천혜의 환경에서 청둥오리와 인삼을 활용한 음식개발
과일차, 과일주,과일즙 등	대표적인 농산물인 천연의 과일을 활용한 음식개발
흑염소 요리, 시골밥상	자연의 인간의 만남, 산에서 길은 흑염소 요리, 산채 시골밥상 개발

(마) 권역 주변마을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 무진장 농촌체험 네트워크 이전단계에서 가까운 주변 마을과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개발
- 진안군차원의 그린투어계획 내용에 능길부락을 홍보함
-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루트를 개발한다(12인승 봉고차 이용).
 - 8시간 코스 : 능길마을 → 용담향교 → 어서각 → 왜가리서식지 → 용담댐 → 마이산 → 죽도 능길마을
 - 4시간 코스 : 능길마을 → 용담향교 → 어서각 → 왜가리서식지 → 용담댐 → 죽도 → 능길마을

(바) 축제 · 이벤트 개발

- 당해 농촌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출하되는 특정 시기, 마을 공동의 축제 또는 세시행사, 모내기 등의 체험농업이 가능한 시기 등에 시일을 맞추어 관광객들을 초대한다면 색다른 농촌문화 축제 또는 이벤트가 될 수 있음. 또한, 한여름밤 음악한마당 및 가족방문객들을 위한 영화상영을 통해 주중/주말 비수기를 타개할 수 있으며 체류시간 증대를 통한 객단가 상승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그 밖에 정기적인 권역별 효잔치를 통해 마을 이미지 제고 및 마을 단합을 모색 해 볼 수도 있겠음
 - 한여름밤 음악한마당 및 가족영화상영(7회째) 및 기획 및 운영 : 현재 6회째 실시. 경비, 홍보비 등
 - 권역 효잔치 : 현재 1회 실시. 경비, 홍보비 등(1회당 700만원, 자부담 일부)

(2) 홍보 및 체험 유치 전략

(가) 홍보방법

- 일선학교 프로그램 리플렛 홍보 및 직접홍보
- 유치원 프로그램 리플렛 홍보 및 직접홍보
-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사 홍보
- YMCA 직거래 장터 및 도농교류센터 운영

- 회원가입 유도 및 회원들에게 책자 무료 발송 및 상품권 판매
- 인터넷 활용을 통한 홍보방안(우측자료 : 인터넷 홍보활동을 하는 부래미마을과 토고미마을)

(나) 농촌체험 유치 전략

- 초등학교 및 일선학교의 수련활동 및 체험활동(현장학습), 타도시의 수학여행 프로그램 개발 운영
- 도시민과 가족 및 일반인을 위한 가족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전국 YMCA의 네트워크에 의한 국제 교류 및 타도시와의 교류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 미래 농촌을 위한 환경교육 및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농촌의 판로망을 위한 꾸준한 회원관리의 체계화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일선학교 학부모회 APT 부녀회 및 주민 홍보를 통한 농촌체험단 육성

(다) 도 농교류형 상품화 프로그램A

구분	관광상품	내 용
도 농 교 류 형	어린이농촌체험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당일 1박2일의 상품개발 함
	학생농촌체험교실	도시의 중고등학교 학생대상으로 2박3일, 4박5일의 다양한 상품개발 함
	사랑방문화교실	전라북도의 예술인과 연계하여 관광객들에게 우리전통의 예술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특히 국악인들이 관광객들에게 국악, 한시, 서화를 연계해 가르쳐주는 프로그램 운영 함

(라) 세시풍습 체험형 상품화 프로그램

시 기	내 용
정월대보름 (음력 1월 15일)	정월대보름 음식인 팔죽, 오곡밥, 약밥, 묵은 나물 등을 만들고 달집태우기, 액연 태우기, 다리 밟기, 쥐불놀이 등의 놀이를 즐김
한식 (음력 4월 5일, 6일)	쫄면, 쫄단자, 쫄탕 등 쫄으로 만든 음식을 활용하고 전통예절을 배움
단오 (음력 5월 5일)	창포 머리감기, 창포비녀 꽂기, 그네타기

(마) 지역특산물 개발

구 분	내 용
특산물	고추, 오리쌀, 산채류, 잡곡류, 약초, 인삼, 무공해 채소 등
가공식품	약초가공품(인진쑥, 한방 배즙, 오가피)
기념품	마을풍경그림, 농기구 모형, 민속놀이 기구, 생활용품 등

(바) 홍보 판촉전략

홍보전략은 기존 능길 마을의 이미지와 모습을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나아가 능길 마을에 대한 집중적 홍보 및 판촉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의 소득화에 기여하고 관광객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홍보 및 안내자료를 개발 정비하여 능길 마을 방문을 유도한다.

① 대상 설정

홍보 판촉전략은 그 대상을 명확히 설정해야 비용의 낭비를 막고 목표고객에게 정확히 전달되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즉 목표고객별 적절한 홍보 판촉전략을 전개함으로써 능길 마을의 인지도 및 이미지를 향상시켜 방문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표적시장에 따른 홍보전략〉

표적시장	대상	홍보 판촉활동
1차 표적시장	가족단위 관광객	중앙지 및 수도권일간지에 광고 안내 신문잡지 등에 PR기사 게재 표적고객 선별하여 무료시범방문 실시 등
2차 표적시장	청소년 관광객	신문잡지 등에 PR기사 게재 각종 관광 및 교육관련 사이트에 마을 홈페이지 연결 표적고객 선별하여 무료시범방문 실시 등
3차 표적시장	실버층 관광객	중앙지 및 지방신문에 광고 안내 여행사와 연계하여 효도상품으로 개발

② 홍보전략

대중매체의 활용은 최근 발전하고 있는 SKYLIFE의 관광전문채널을 활용하여 능길 마을을 소개하고 전라북도지역과 진안군이 협조하여 신문방송을 통해 능길 마을에 대한 장점을 소개한다.

〈홍보 판촉전략〉

구 분	내 용
ARS 전화	관광자원의 관광지 개요, 숙박시설 안내, 교통안내
지역정보센터 활용	지역정보센터의 활용에서는 진안군 관광안내소, 마을안내소,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 제공
방문객을 통한 구전효과 활용	만족한 고객으로부터의 긍정적인 구전효과
홍보 스폰서십	지역내 이벤트 개최자 및 방송PD, 구성작가 등에게 무료경품권 제공하여 대형이벤트 및 방송 프로그램 유도
1촌1사 교류체결 이용	기업체 등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방문객을 확보할 수 있음
추억거리 이용	특정 관광지를 찾은 방문객들은 여행의 추억을 위해서 남은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줄 기념품을 무료로 제공함.

(사) 유통전략

① 관광상품 유통

능길 마을의 모든 프로그램을 민박 및 식사 등의 준비관계로 반드시 예약이 필요하고 개별관광객은 마을 자체 관광농원을 중심으로 예약을 받아 운영하고 패키지관광객은 여행사를 통해 예약을 받아 운영한다.

〈능길 마을의 관광유통전략〉

개별관광객	패키지관광객
관광농원(사전예약)	여행사(사전예약)
능길 마을 프로그램 참여	

② 특산물 유통

농촌관광객을 상대로 한 일반적인 농산물 판매방법은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현지판매 방식이나 판매시기가 여름철 성수기에 한정되는 단점이 있으므로 봄, 가을에 수확되는 농산물의 판매방식으로는 적합지 않음. 따라서 관광 비수기에 출하되는 농산물은 능길 마을현지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관광객을 상대로 우편이나 전화로 농산물 출하소식을 전하고 주문을 받았다.

〈능길 마을의 특산물 유통전략〉

구 분	현지판매	택배판매
수요자	능길 마을 방문객	민박객
판매시기	여름철 성수기	봄, 가을 농산물 출하기
판매방법	현장판매	통신판매
유통경로	농산물 판매소	택배시스템

(아) 안내 및 해설관리

안내 및 해설관리는 능길 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요구하는 정보를 필요한 곳에서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광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 관광지 표지판은 동일한 형식으로 주요도로에 배치함으로써 개별 관광객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며 관광안내 해설 판의 배치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안내 및 해설관리〉

구 분		개발방향
관광안내 표지판	관광지표지판	주요도로에 설치하여 능길 마을의 소재지 방향안내
	안내 해설판	능길 마을 내의 해설판 재료 및 디자인을 통일시키고 관광자원에 대한 이용 및 해설을 자세히 설명



〈능길 마을 전경〉

능길 마을의 관광정보를 관광객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복잡하고 중복되는 정보를 단순화시키고 필요한 정보를 구체화시키는 관광 안내책자를 제작하였다.

〈관광안내책자의 제작〉

구 분		개발방향
안내 홍보 책자	능길 마을 안내책자	기존 다른 테마 농원마을과 연계하여 안내책자를 공동으로 제작하여 제작비용의 절감 및 홍보효과의 강화가 가능한 안내책자 제작
	관광사업체 화보	능길 마을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한 관광사업체의 지역 관광상품 소개 및 사업체 홍보용 화보 제작
	해설서	다양한 방법으로 능길 마을 관광자원의 해설서 제작
지도	관광안내 지도	소요시간, 전화번호 등의 정확한 정보를 기재한 관광안내지도 제작

다. 마을진단프로그램에 의한 농촌마을 조직 활성화 방안

1) 기존 농촌어메니티 개발 검토

가) 농촌정비사업 제도부문⁴⁾

정부의 농촌어메니티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지침, 법률, 조례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먼저 사업지침에 있어서의 최근 농촌정비사업은 종래의 농촌의 생산기반 및 생활환경의 개선에 치중해온 사업과는 달리 농촌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자연경관, 전통문화, 친환경농업을 이용하여 농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도시민 유치 및 도농교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농촌의 특성은 마을마다 보유하고 있는 향토자원의 차이 때문에 해당 마을의 어메니

4) 윤원근, 농촌의 계획적 개발 및 활력증진을 위한 제도 모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새국토연구협의회 발표자료(2003. 10)를 필자 입장에서 재정리한 것임.

티 계획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농촌관련 정부지원 사업은 도로, 하수로 등의 기반 시설 정비, 주택개량, 마을공동시설 지원 등 부문별 사업에서 문화마을 조성, 산촌종합 개발 등의 종합적인 사업까지 다양하다. 즉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시범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아름마을 가꾸기 시범사업, 산촌 종합개발사업, 어촌체험마을사업, 자연생태우수마을 및 생태복원사업, 새농어촌 건설운동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어메니티 관련사업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사업내용은 농촌의 어메니티 자원을 살릴 수 있는 테마개발과, 도·농간의 교류를 통해서 농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둘째, 사업방식은 정부는 사업지침의 결정 및 예산을 지원하고, 주민은 실제의 사업내용의 결정 및 사업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민관합동형태의 사업추진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마을주민의 협정서 또는 계획서가 첨부되고 있다. 셋째는 공모와 경쟁 또는 추천을 통하여 사업구역이 선정되고, 사업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추진 부서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법률 항목의 경우, 국토공간의 계획과 관련된 법률은 국토계획에 관한 상위법인 국토기본법과 시·군 단위의 농촌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농촌단위의 계획 및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2003년 1월 이후 정부는 종래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폐지하고, 이를 보완하고 발전시킨 국토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동 법에서는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시 또는 군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군 종합계획은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수립되는 도시계획이다. 시·군 종합계획은 하위 법률인 국토계획법에 위임되어 있으며, 동 법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 관리계획을 의미한다.

도시기본계획은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은 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계획으로서 용도지역 및 지구,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 도시개발 및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을 담는 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이 농촌지역인 시·군 단위의 최상위 계획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

농촌마을에 대한 계획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농촌에 있어서 취락단위에 대한 용도지

구로서 취락지구가 만들어졌다. 국토계획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로서 취락지구를 규정하고 있으며, 전술한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농어촌정비법에서는 관리지역내의 취락지구를 동 법의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32조).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서도 농촌마을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의 취락지구에 대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획관리 지역에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세분,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의 용도제한·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건축선에 관한 계획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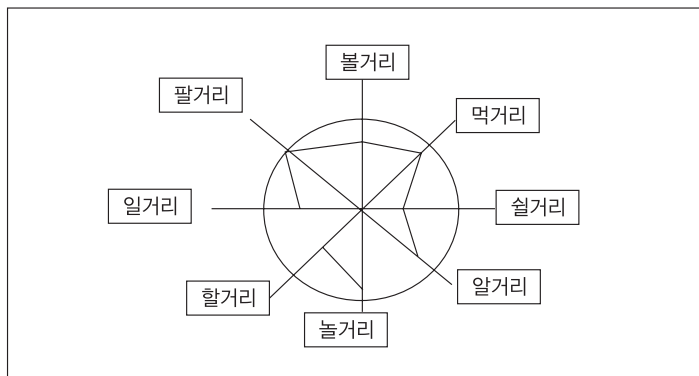
셋째, 조례 항목의 경우, 헌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반드시 법령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령유보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법령유보의 원칙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어떠한 행정행위도 허용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록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령의 적극적인 수권을 요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조례를 위임입법의 하나로 보는 관점이다. 조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치입법권이 아니라 법률 선점론을 전제로 한 행정의 내부규칙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승인아래 조례를 제정하였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정책과 저촉될 우려가 있는 조례는 거의 제정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농촌정비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법령과 위배되는 조례의 제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어메니티 정책의 원리가 지방이 보유하고 있는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임에 따라 지방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더욱 높다.

나) 8거리개발 부문⁵⁾

마을 단위의 그린투어를 실천하기 위한 8거리 개발은 마을가꾸기의 핵심이다. 즉 ① 볼 거리: 경관, 집락, 사람, 농촌 등 ② 먹 거리: 토속, 향토음식 ③ 쉴 거리: 향토성, 서정성, 전원성, 편락성, 쾌적성 ④ 알 거리: 지역, 개인사, 전설, 민요, 약효, 술, 그리고 외지인이 모르는 이야기 등으로 스토리 브랜드 만들기 ⑤ 할 거리: 타지불가(他地不可)의 독특한 취미나 창작, 전통놀이(만들어야 지역특화 가능) ⑥ 일거리: 농산어촌에서 노동을 수반하는 체험(농촌의 가치인식, 노동의 신성함) ⑦ 놀 거리: 재미와 감동+정보와 교양을 주는 놀이 ⑧ 팔 거리: 7거리를 통해 지역자산의 가치 증진과 농산물을 부가가치를 만들어 판매하자 등이다.

이 같은 8거리 개발은 마을가꾸기 6원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① 농촌역사와 경관, 지역을 즐길 수 있는 개발 ② 환경보전이나 휴양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 ③ 지역분위기에 조화될 수 있는 디자인 ④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 ⑤ 농촌관광에서 이익을 얻은 자의 책임의식 ⑥ 마케팅과 계몽활동의 필요성 등이다. 하지만, 작금의 농촌은 대규모 자본을 유치해서 자연환경 파괴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관광시설 중심의 하드웨어적 개발에만 치중한 나머지, 지역 고유의 특성이나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8



〈그림 Ⅲ-21〉 8거리 개발 평가시스템⁶⁾

5) 2000년도 유상오 박사가 제안한 마을디자인으로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8가지 자원을 말한다.

6) 8거리는 기본 3요소(볼거리, 먹거리, 쉴거리)와 지역창조요소(알거리, 할거리, 일거리, 놀거리, 팔거리)로 구성 됨.

거리 개발에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로서는 경향신문 유상오 전문위원이 제안한 <그림 Ⅲ-21> 8거리 평가시스템만이 존재할 뿐이다. 앞으로 8거리와 오감의 복합화를 통한 농산촌 테마개발을 어떻게 진전시키느냐에 따라 앞서가는 마을과 뒤처지는 마을로 구분될 것이다.

2) 농촌어메니티 개발 방안

가) 농촌정비사업 제도부문⁷⁾

지역혁신을 위한 농촌어메니티정책의 적극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농촌정비사업과 관련된 사업지침, 법률, 조례의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농촌어메니티 정책의 수행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사업지침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즉 농촌정비에 관련된 사업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변화가 수반되기 때문에 부처별로 사업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한 것이다. 하지만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방식으로 농촌정비사업을 해나가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그리고 지침의 특성상 농촌취락의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적인 규정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강제력이 결여되어 있다.

법률의 경우, 국토계획법을 제정하여 농촌지역에 대한 계획제도의 도입과, 취락지구의 지정을 통한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해나가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농촌마을에 대하여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농촌마을에 대한 취락지구의 지정이 가능하다는 규정만 있을 뿐 이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전국의 취락 중에서 어떤 취락을 대상으로 취락지구를 지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취락지구의 토지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주변의 농경지와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조례는 현실적으로는 법률의 수권에 의해서만이 주민에 대한 토지이용상의 강제적인

7) 윤원근, 농촌의 계획적 개발 및 활력증진을 위한 제도 모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새국토연구협의회 발표자료(2003. 10) 참고.

규정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법률에 의한 규제와는 다른 농촌취락의 토지이용에 대한 규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농촌어메니티 정책의 수행 및 계획적인 토지이용은 현재의 지침행정에서 법률 및 지방정부의 조례에 근거한 사업으로 변화되고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인 장치로서 중앙정부의 사업지침 및 지방정부의 사업요강이 요구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종전의 지침행정에서 법률 및 조례에 의한 행정으로의 개선, 농촌정비사업 관련 계획수립에 대한 준비 및 제도적인 보완, 조례를 통한 지방정부의 독자적이고 다양한 농촌정비제도의 모색, 지방정부의 개발지도요강의 적용 등 농촌정비 사업에 관련된 제도수정이 요구된다.

나) 8거리개발 부문

그동안 농외 소득증대 차원에서 추진해온 우리 관광농업은 경영능력 부족과 과도한 시설투자로 운영이 부실하고, 개별사업자 중심의 지원으로 지역과 연계되지 못하였다. 무엇보다 주요 고객층인 도시민의 요구가 반영된 농촌관광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이 미흡하다는 것이 큰 문제다. 이제 농촌의 다양한 자연경관과 생태, 문화자원 등에서 차별화된 가치와 가능성을 발굴하여 도시와 농촌이 교류함으로써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새로운 농촌관광 전략이 요구된다. 즉 개별농가 중심, 숙박중심의 관광에서 탈피하여 ‘자연환경+농특산물+전통문화’를 토대로 먹거리+볼거리+설거리+알거리+할거리+놀거리+일거리+팔거리 등 8거리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도시와 교류하는 농촌 활성화 전략이다. 이로서 오늘날 당면한 도시민의 여가욕구 충족, 농외소득 증대, 국토의 균형개발, 환경보전 등 다면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8거리개발을 위한 마을가꾸기 사전진단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진단방법으로

- ① 마을가꾸기의 힘을 결정하는 4가지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
- ② 마을 가꾸기의 힘을 결정하는 4가지 요인별로 점수를 합제한 후 평균점을 계산한다.
- ③ 평균점에 의하여 문제의 정도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표 III-57〉 마을가꾸기의 힘을 결정하는 4가지 요인

설문번호	4 가지 요인	내 용
I(11 10번)	목표적 요인	마을구성원은 마을가꾸기의 목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의욕은 어떠한가.
II(11 25번)	구조적 요인	마을구성원이나 마을풍토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마을구조, 규칙, 제도, 사업의 흐름 등).
III(26 35번)	인간적 요인	마을구성원의 특질은 어떠한가(능력, 의욕, 행동경향 등).
IV(36 50번)	풍토적 요인	마을특유의 분위기, 관행, 규범, 사고방식 등은 어떠한가.

4 가지 요인별 평균	문제의 정도
4.1 5.0점	아주 양호
3.1 4.0	양 호
2.1 3.0	조금 문제
2 점 이하	크게 문제

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은 〈표 III-58〉로 나타낼 수 있다. 즉 (A)마을 구성원을 대상으로 마을가꾸기의 힘을 결정하는 4가지 요인(목표적 요인, 구조적 요인, 인간적 요인, 풍토적 요인)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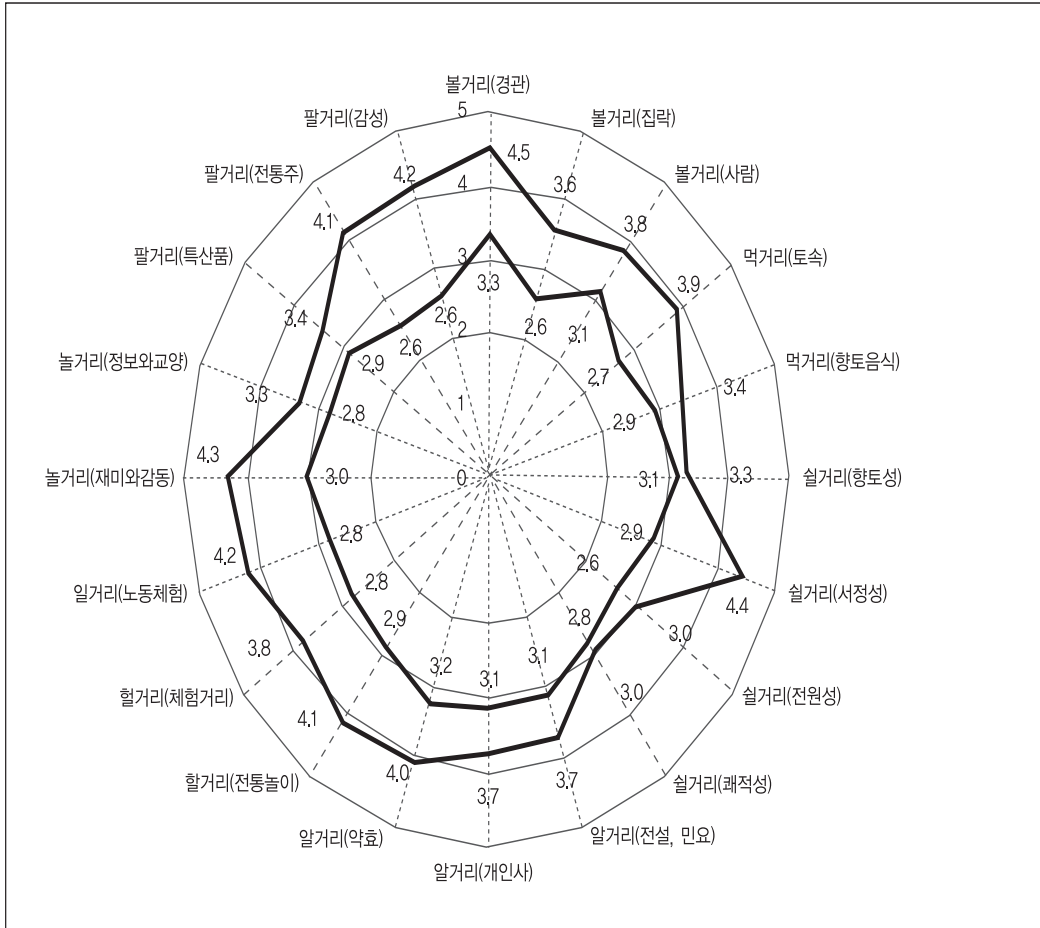
〈표 III-58〉 (A)마을의 요인별 분석

〈진단치 수준 : 1 ~ 5점〉

설문번호		목표적 요 인	구조적 요 인	인간적 요 인	풍토적 요 인	계	
성 별	남자	(A)마을	3.6	3.4	3.4	3.4	3.5
		전국평균	3.6	3.1	3.3	3.2	3.3
	여자	(A)마을	4.0	3.7	3.7	3.7	3.6
		전국평균	3.8	3.6	3.3	4.0	3.7
유 형 별	일반농가	(A)마을	3.5	3.6	3.6	3.7	3.6
		전국평균	3.5	3.2	3.6	3.2	3.4
	신규농가 (귀농인)	(A)마을	3.7	3.7	3.4	3.6	3.6
		전국평균	3.9	3.6	3.0	4.0	3.6
월 소 득	100만원 미만	(A)마을	3.9	3.7	3.7	3.6	3.7
		전국평균	3.4	3.3	3.2	3.5	3.4
	100만원 ~300만원	(A)마을	3.7	3.5	3.5	3.5	3.6
		전국평균	3.6	3.6	3.5	3.6	3.6
	300만원 이상	(A)마을	3.8	3.6	3.6	3.8	3.7
		전국평균	4.0	3.3	3.1	3.7	3.5
계	(A)마을	3.7	3.6	3.5	3.6	3.6	
	전국평균	3.7	3.4	3.3	3.6	3.5	

주) 전국평균은, 2003~2005년 전문경영인과정에 참여한 지역농협 상임이사 및 전무가 속한 188개 지역농협(본소 50개, 지소 138개)관내 농업인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표본평균결과 이다.

다음으로 8거리 개발 평가시스템을 통한 (A)마을의 현재 보유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Ⅲ-22〉 8거리 내용 조사결과 현재 보유수준⁸⁾

8) 바깥쪽 선은 요구수준을 나타내고, 안쪽 선은 해당 마을의 현재 보유수준을 나타낸 것임.

5. 산학협력형 어메니티 향상모형

가.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과 농촌어메니티

1)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과 당면과제

가) 현행 농업·농촌정책의 한계성

농업 구조상의 문제로 소득의 한계성, 농업인의 가치관, WTO문제 등이 있으며 농업인이 농업단체구조조정, 생존권문제 등에 있어 정치세력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사회환경변화 응용, 선택과 책임 등에 있어 농업적으로는 해결에 한계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능력, 정치지도자의 능력과 관심이 중요한 문제이다.

나) 당면과제

앞으로 인구의 U·I·J턴, 고령화, 비농가, 유희지, 토지의 다용도 이용 및 경제작물 위주 재배가 증가하고 있다. 농촌생활환경은 기반시설의 부족, 직업선택 폭의 한정,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농가경제는 도시경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빈곤한 상황이다.

2) 관광농업 개발동향 및 주의사항

관광 사업을 도입하여 새로운 관광마을을 조성할 때는 몇 가지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지역사람들은 항상 생활의 일과로써 지내오던 일과 주위환경이 관광객의 입장에서 그 지역의 매력과 유인력이 되어서 그러한 것을 재발견하고 창조해 내서 그것을 관광자원화로 활용할 수 있을 것

둘째, 관광객이 찾아옴으로써 생기는 활력을 지역에서 순환, 축적, 활용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을 새롭게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

셋째, 관광사업을 그 지역의 자원만을 가지고 활용할 것이 아니라 인재, 기술, 정보를

총동원한 광범위한 지역진흥을 유발할 수 있는 계획의 검토가 필요하다.

3) 환경보전형 관광농업

환경보전형 관광레크리에이션은 지역 자연자원을 이용한 개발방법과 지역 문화자원을 겸용하여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방법은 대규모개발이 아닌 소규모개발, 하드한 방법이 아닌 소프트한 방법이 사용되어야 하겠다.

또 관광농원, 시민농원, 민속공예공방, 향촌기술 소개소, 미니왕국, 촌민대학, 향토 축제, 향촌박물관, 도기제작소 등이 지역 문화자원을 이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광레크리에이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①수요와 공급의 산정, ②지역기관과 주민간의 협조, ③고급서비스와 기획력, ④지역장점적 요소의 지역소유 등이 필요하다.⁹⁾

4) 농촌어메니티 교류의 추진방안

가) 농촌·농업부문

첫째, 도시환경과 차별화된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해야 한다.

- ① 농촌의 맑은 공기·물을 보전하고 자연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도록 가꾸기
- ② 그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살린 특색 있는 농가와 마을 가꾸기

둘째,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여 도시주민의 건강에 이바지해야 한다.

- ① 우리농업의 특성을 살려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농산물생산
- ② 향토 농산물의 재발견과 계승
- ③ 제철의 맛있고 영양 높은 농산물 생산

셋째, 농촌·도시주민을 위해 쉬고 즐기고 먹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9) 유상오, “일본의 지역환경친화형 농촌개발 방안의 기초적 연구”, 한국관광농업학회지, 2001년 춘계학술발표대회.

- ① 농촌주민이 농촌에서의 생활을 풍요롭게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 전통문화 체험시설, 농사체험시설, 농촌생활 체험시설 만들기
- ② 도시주민들이 농촌이 인심과 정취를 만끽하며 즐길 수 있는 놀이 시설, 전통문화 체험시설, 농사체험시설, 농촌생활 체험시설 만들기

나) 도시부문

첫째, 주5일제 근무의 실시와 여가 증대에 따른 휴가를 농촌에서 보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둘째, 녹색교류를 통해 우리고유의 진짜 안전한 먹거리를 농촌에서 구입하는 것이 자신의 건강과 농촌 지키기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직거래 확대에 적극 참여한다.

셋째, 농촌주민과의 따뜻한 인정과 소박한 인심을 바탕으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녹색교류를 통해 상대방의 역할을 인정하고 농촌주민의 자긍심을 배양시킨다.

넷째, 생명과 건강을 추구하는 농촌·농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류의 증대와 더불어 농촌방문자에서 교류자 그리고 농촌지원자가 될 수 있도록 실천적인 녹색교류를 확대한다.¹⁰⁾

5) 생태관광지역 가꾸기 전략

가) 기본전략

- (1) 핵심편익이 있어야 한다.
- (2) 농외소득을 극대화한다.
- (3) 잠재 관광자원을 현시화 한다.

10) 강춘성, “녹색교류를 통한 농촌활성화 방안”, 한국관광농업학회지, 2001년 춘계학술발표대회.

(4) 환경오염을 극소화 한다.

(5) 이미지를 연출한다.

나) 관광 상품화 전략

(1) 마을 고유의 색깔을 가지게 한다.

(2) 체험하게 한다.

(3) 지역산업과 연계시킨다.

(4) 신용을 쌓아야 한다.

다) 지역소득화 전략

(1) 숙박제공

(2) 식음제공

(3) 사 가지고 가게 한다.

(4) 부쳐준다.

(5) 이벤트 개최를 통하여 소득원을 발굴한다.

라) 조직측면 전략

(1) 지역협의체를 구성한다.

(2) 당해 지방행정 조직의 적극성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3) 조직화를 통하여 지역주민 개개인이 호의적인 관광객 수용태도를 갖게 한다.¹¹⁾

6) 농촌어메니티 활성화를 위한 경영정보화 방안

농촌어메니티 활성화를 위한 경영정보화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 수 있다.

첫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촌어메니티 관련 농산물이 단편적이고 부분적으로 홍보되어 판매되고 있어 농가소득내지 지역의 새로운 소득기반을 구축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런 농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홍보할 수 있는 정보화가 필요하

11) 박석희, “자연마을을 이용한 생태관광지역 가꾸기 방안”, 한국관광농업학회지, 2001년 춘계학술발표대회.

고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농촌어메니티 활성화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다.

둘째,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관광농업을 경영하는 농가에 대해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차원에서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유통비용을 줄여 안정된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생산 농가, 생산자협회, 농림관련기관, 한국관광공사 등 관광농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기관들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통합 웹사이트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농업관련 홈페이지의 대부분이 판매에 초점을 맞추어 개설되어 있어 통합적 정보를 획득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생산자나 소비자가 필요한 작목을 선택하면 해당 작목에 대한 지역·년도별 생산실태, 시장·지역별 도매 및 소매가격동향, 시비 및 병충해 예방법, 관련 해외 생산정보, 기타 정보 순으로 종합적이면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이 가능하도록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관광농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웹사이트의 관리이다. 따라서 지역별로 '가칭 관광농업협회'를 결성하게 하고 이들이 통합웹사이트를 구축하는데 정부가 지원하고 개설 후에는 협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화 계획이 수립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농촌어메니티 관련 정보화가 진척되면서 관광농산물 판매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관광농산물의 경우 농산물이 갖고 있는 생산 및 가격의 불안정성, 거래주체의 조직체계 미흡, 표준규격화 미정착, 품질관리기술의 저수준, 물류비용의 과다 등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관광농산물에서 전자상거래가 정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생산 농가는 물론 자치단체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농촌어메니티 관련 정보화의 목적은 생산자, 상인, 소비자, 정부 등 각 경제주체들에게 객관성 있고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따라서 표준화된 사양을 제시하고 그 범주 내에서 홈페이지 개설이나 인터넷 통신망 구축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¹²⁾

12) 김중섭, "관광농업활성화를 위한 경영정보화 방안", 한국관광농업학회지, 2001년 춘계학술발표대회.

7) 농촌어메니티 관련 사업계획 수립 시 검토사항

농촌어메니티 관련 사업계획 수립시 검토사항으로는 다음 사항을 들 수 있다.

첫째, 농산어촌의 세부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일이다. 이것은 그 지역의 이미지 확립과 향상의 방향성을 정하고 또는 검토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둘째, 조직구조상의 전략이다. 지역진흥을 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행정, 관련단체 주변의 주민이 관련을 맺게 되고 또 찾아오는 관광객은 도시주민이기 때문에 도시의 관련기업과 손을 잡게 되므로 이러한 조직들은 관광객의 증가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게 마련이다.

셋째, 지방행정부와의 조정협약이다. 사업추진, 기구에 있어서 민관공동의 협의조직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비교적 원활하게 모든 일이 잘 추진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법적 규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용이하지가 않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면 지방행정부의 협조로 농·산·어촌의 정비계획을 재검토하게 되고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서 작성과 관계 협의 및 새로운 개발을 위한 사업의 승인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됨으로써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개발기본계획의 수립이다. 즉, 그 지역의 자원과 이곳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들의 이용방침(개발 및 보존의 범위설정)을 명확하게 하여 도입시설들의 종류·규모·배치계획을 진행시켜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섯째, 계획시설들에 관한 사업비 산출을 한 다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여 나아갈 것인가를 정하는 일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시설의 도입과 정비 등이 착수하게 되는 것이다.¹³⁾

8) 농촌어메니티 사업추진 관련 인재개발

농촌어메니티 사업 추진에 관련한 지도자에게 필요한 자질은,

첫째, 자기마을에 대한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어떤 것이 장점이고 어떤 것이 단점인지를 감지해서 마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3) 류선무, 관광농업연구, 서울 : 백산출판사, 1997년.

둘째, 자기마을의 장래에 대한 비전의 제시와 모험심을 가지고 자기가 설정한 과제와 목표에 대하여 피할 수 없는 비통함과 위태로움을 헤쳐 나갈 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적이고 개척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셋째, 사람들이 이해관계 속에서 자기의 잣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국적으로 대처하고 의사결정에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다.

넷째,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저마다 타고난 재주가 달라서 적재적소의 인재배치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조직력이 필요하며 자기가 하는 일에 공감하고 협력해주는 사람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를 낼 사람을 침묵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섯째, 남의 이야기를 듣고 5~10분 이야기하기는 쉽지만 정말 관광농촌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식을 쌓으려면 외로운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연구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실패사례도 살펴보고 계획하고 설계해보고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을 발견하는 능력은 많은 정보의 수집과 냉철한 판단 그리고 그 사람이 쌓은 경험과 노하우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달라진다.¹⁴⁾

9) 농촌어메니티 관련 프로그램 작성방법 사례(자연체험활동)

자연체험 활동영역에서 청소년들이 자연의 소중함과 자연의 일부로써 인간의 위치를 알고 자연과의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자연과 인간’이라는 제목의 상품을 개발해 본다.

가) 개요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면 건전한 자연관을 형성해야 한다. 자연농장활동은 오랜 세월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왔던 농업을 청소년들에게 수련거리로 체험하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14) 류선무, 관광농촌개발론, 서울 : 백산출판사, 1999년.

나) 목표

강의와 토론을 통해서 건전한 자연관을 바탕으로 하는 인생관을 형성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다) 과정

(1) 강의

자연관의 역사적인 변천과 동서양의 자연관의 차이에 관해서 강의를 듣고 자연관의 차이에 따른 삶의 방식의 차이에 관해 설명을 듣는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인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농업에 관해서 설명을 듣는다.

(2) 분임토론

분임토론을 위해 조를 나누고 조별로 모여 서양의 자연관과 동양의 자연관에 대해 논의한다. 동서양의 자연관의 차이를 비교해 본다. 각자의 자연관을 발표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토론한다.

(3) 종합토론

조별토론이 끝나면 전체가 모여서 조별 대표가 토론한 내용을 발표하고 자연농장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자연관을 정립하는 데에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각자 돌아가면서 이야기한다. 강사나 지도자가 논의된 내용들을 종합해서 정리하고 종합토론을 마무리한다.

(4) 평가

- 주제에 적합한 강사를 선정하였는가?
- 참가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유인물이나 게시물을 준비하였는가?
- 강의와 토론에 적합한 시간과 장소를 선정하였는가?
- 강의를 끝난 후에 질의와 응답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했는가?
- 논의된 내용들을 종합하여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는가?¹⁵⁾

15) 류선무 외 2인, 한국관광농업학회지, 2001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나. 산학협력형 농촌어메니티 관련 프로그램 모델기획

1) 어메니티 프로그램의 필요성

가) 참가자의 경향

학교 어메니티 관련 참가자는 일반적으로 그 대상학교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평일 참여자의 경우에는 아침운동으로 조깅 또는 산보를 하는 사람들과, 낮 시간에 여가시간을 보내려는 노인들과, 아이들 손을 잡고 나온 주부들이 주 대상이 될 것이다. 주말의 경우에는 승용차 등을 이용한 친목도모를 위한 가족단위 또는 동호회단위의 방문이 많고 녹지공간에 자리 등을 펼치고 자연을 음미하는 참여자가 많게 된다.

따라서 평일 참가자를 위해서는 아침저녁 시간에 체계화된 스케줄을 계획하고 낮 시간 동안에는 주로 유아들과 어머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유도가 효과적이다. 주말 참여자의 경우에는 학교 내 연수원 등을 이용하여 1박 2일 코스로 가족단위 또는 지역 동호회 단위의 프로그램(야간캠핑, 캠프파이어, 야간 극기훈련 등)을 제작한다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능할 것이다.

나) 종래의 교류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과제와 유의점

종래의 학교 모습을 보면 학생들에게만 개방하고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대학의 봉사개념이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등록금을 부담하는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명분은 있지만,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융화를 가로막고 장기적으로 학교의 발전에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일부에서 평생교육의 기치아래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지역주민 등이 원하고 있는 관심사(여가선용, 건강증진, 취미활동, 자녀의 정서함양 교육 등)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상업성을 배격하고 공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프로그램이 재미가 없고 지역주민들을 끌어들이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역을 떠난 학교는 존재할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학교가 발전하기 위하여는 지역민과의 적극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지출이 아닌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시설적인 면에서의 투자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의 내용을 내실화 하여 맞춤형교육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즉, 참여자를 모아 놓고 강의성 진행보다는 직접 체험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서로간의 친목을 다지는 실천적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2) 어메니티 관련 프로그램의 전개방법

가) 참가자의 속성에 따른 전개

〈표 III-59〉 참가자의 속성에 따른 전개

참가자층	참가자의 요구도	프로그램의 목표
노인층	혼자 있는 외로움을 달래고 건강증진	서로간의 사귄 수 있는 사교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지도함
유아와 어머니	집안공간에서 벗어나 유아와의 산보하면서 자연감상 및 체험교육	시청각기자재를 준비하고 야외에서 학습이 가능하도록 안내문을 적절히 부착하며 유아의 안전에 유의
직장인들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운동을 함으로써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증진	헬스장비 등 기본적인 기구를 준비하고 여러 명이 함께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
가족단위 방문객	가족 간의 소원하였던 관계에서 벗어나 화목을 도모하고 좋은 추억거리로 남기기	레크리에이션 강사 등을 투입하여 즐거움을 더하고 게임식 진행으로 가족간의 협동심과 친목을 도모함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	획일화된 예식장에서 진행되는 결혼식 문화에서 벗어나 야외결혼식, 전통혼례식 등 특색있는 결혼문화	전통혼례식장의 재현, 야외결혼식장의 개발, 신혼사진첩을 제작할 수 있는 촬영장소 제공

〈표 III-60〉 세대별(연령별) 추구편익¹⁶⁾

세 대 별	추 구 편 익
할머니, 할아버지	휴에 대한 그리움, 건강증진
아버지, 어머니	고향에 대한 향수, 건강증진
어머니	젊어지고자 하는 욕망(미용)
직장인(남·여)	스트레스 해소, 기분전환, 데이트
직장인 미혼여성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욕망(미용)
대 학생	공동체적 체험, 모험심 함양
중·고등학생	농촌체험활동, 교육적 효과
초등학생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고취, 교육적 효과
유치원, 어린이	아름다운 동심(동심)을 심어줌, 교육적 효과

나) 가족대응의 유의점

가족단위 참가자의 경우에는 건강, 학습 등보다는 주중에 소홀하였던 가족 간의 화목도모가 가장 큰 목적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성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교육적인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개인별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한다면 많은 참여자를 확보하기 힘들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과정에서 가정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고, 가족들 간에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명찰제작(OO네 가족 등 표시) 등도 고려해 볼만하며, 프로그램 참여 중 가족이 함께 만든 생산물을 집으로 가져가서 추억거리로 만들 수 있도록 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3) 어메니티 관련 프로그램의 유형화

가) 기본(Basic) Program

나) 계절별(Seasonal) Program

16) 장면주 외 1인, “충청북도 그린투어리즘의 효율적인 개발방안”, 한국관광농업학회지.

4) 어메니티 관련 프로그램의 실시계획

가) 도입기(기간 : 1년간, 집객규모 : 20~40명 2~4회/년간)

나) 정착기(기간 : 1~3년간, 집객규모 : 30~40명 10~20회/년)

다) 본격기(기간 : 4년 이후, 집객규모 : 1,000명/년~)

5) 어메니티 관련 프로그램 기획

가) 유아교육 Program

나) 건강증진 Program

다) 생활원예 Program

라) 교양·정보화 교육 Program

마) 자연·농촌체험 Program

바) 청소년수련원 Program

사) 노인실버(silver) 대학 Program

아) 야외결혼식장 Program

6) 어메니티의 Package화(관광상품화)

가) 방안

산학협력형 어메니티 프로그램의 관광상품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1) 교육적인 측면과 오락적 측면을 적절히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 (2) 지역주민의 다수가 흥미를 가지고 있고, 경쟁력 있는 분야로 특성화를 시킨다.
- (3) 학교 측에 시설투자 등에 있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
- (4) 참가자와 주최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 (5) 도시 속에서 전원, 농촌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유인 효과가 있어야 한다.

(6) 학교와 산업체, 참여자 등의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고 지속적인 자원 확보가 가능한 주제를 설정하여야 한다.

나) 상품화 사례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하는 자연학습, 꽃밭산책과 사진 찍기, 유치원경영, 어린이집, 어머니교실, 스포츠 마사지, 요가, 노인체조, 에어로빅, 헬스클럽 운영, 허브재배, 실내 인테리어, 꽃꽂이 사범 육성, 의학상식교실, 인터넷교육, 홈페이지제작 학습, 꽃/나무/풀/곤충 관찰 및 이름 알아 맞추기, 식물조경방법 배우기, 농산가공품생산, 주말농장운영, 김치담그기, 곡주담그기체험, 극기훈련, 캠프파이어, 전통혼례식장, 야외결혼식장, 야외사진촬영장 등이 있다.

7) 인재계획

가) 필요한 지식을 갖춘 인재

나) 인원구성과 역할

다) 인재의 육성

라) 가이드 포인트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가이드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꽃을 하나 구경하더라도 꽃의 이름과 생육 특성, 꽃과 관련된 전설 등을 옆에서 안내해주고 사진 찍는 것도 도와준다면 참여자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훨씬 클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을 일방적인 안내 식으로 진행하기보다는 때때로 참여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들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면 더욱더 효과적일 것이다.

8) 어메니티 프로그램의 운영

가) 준비수단의 유의점

(1) 투어 프로그램의 결정

(2) 투어 규모의 설정

- (3) 숙박시설의 결정
- (4) 교통수단의 확보
- (5) 인원배치와 역할분담
- (6) 참가자에 대한 고지, 모집, 안내
- (7) 대상지역에 대한 예비검사, 사전검사
- (8) 초안의 작성
- (9) 모니터링의 실시

나) 실시단계의 유의점

- (1) 교통기관과 응대하는 체계
- (2) 프로그램 실시의 포인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참가자의 욕구를 잘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참가자별로 원하는 것을 정확히 진단하여 이를 프로그램에 반영함으로써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기본 프로그램과 선택 프로그램을 잘 선정하여 일반교육만을 원하는 계층과 전문화된 특별교육을 원하는 계층을 개별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 모두를 만족시키는 프로그램 제작이 필요 하겠다.

- (3) 안전관리
- (4) 우천대응

다) 실시 후의 유의점

- (1) 참가자의 사후 프로그램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참가자 본인의 이름, 아이의 사진 등이 첨가한 제작물을 만들게 하고 종료 후 참가자가 가져가게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전시하여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인공 조형물 등에 본인의 이름이나 어록을 적을 수 있도록 하고 차후 방문시 관람토록 한다면 만족도가 증가할 것이다.

- (2) 모니터링 총괄

모니터링을 단지 형식적으로만 실시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결과를 수치화 하여 외부에

공고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가자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 설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설문조사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3) 지역예의 피드백

현재의 학교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라는 기능이 중요한 사명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프로그램 진행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학교와 지역간의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는 것도 좋겠다.

9) 농촌어메니티 프로그램의 경제성

가) 프로그램 실시예 있어서의 초기비용

(1) 인재육성

인재육성 및 수준 높은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외부 전문가 초빙에 따른 강사료지급, 프로그램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기관 위탁교육비, 본 업무 이외의 과외 업무 수행에 따른 수당 등 인건비 지급이 있다.

(2) 비품, 소모품

시청각기자재, 컴퓨터, 대형 멀티비전, 공작도구, 캠핑장비, 캠핑 화이어 도구, 벤치, 돋보기, 필기도구, 연수원내의 취사시설, 침구류, 극기훈련장, 노인용·유아용 응급구급용품, 전통혼례식, 야외결혼식 등의 행사진행용 소모품 등이 있다.

나) 프로그램에 대한 요금설정

학교에서의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상업성을 띠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시설 유지와 수준 높은 외부강사 초빙, 실습활동 등을 위해서는 시설 및 장소 이용료, 특강수강료, 재료비 등을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운동·교육과 함께 음식제공을 원하는 참가자 등을 위하여 음료와 다과, 식사 등을 제공하되 외부 여행업체 등의 요금체제를 조사하여 비싸지 않도록 적정선에서 요금을 설정하여야 하겠다.

다. 산학협력형 어메니티향상 모형구축

1) 농업인 및 지도자 교육

농업인 및 지도자 교육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가) 농촌어메니티 보전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

농민과 농촌지도자들이 어메니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농민 스스로 농촌어메니티를 보전하고 진흥하는 계기가 된다.

나) 공동사업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농촌지도자들에게 공동체, 공동사업의 방법, 경영마인드 등을 교육하여 사업 경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다) 소득을 창출하고 마을단위 사업을 지역으로 파급할 수 있는 방법

농민과 농촌지도자들이 농촌관광을 통해 어떻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와 어떻게 농촌관광을 지역으로 확대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를 교육하여 사업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라) 농촌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방법

단기적으로 농민과 지도자를 교육하여 농촌의 일꾼으로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젊은 농촌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다.

농민, 농민지도자에 대한 교육사례로 전문대학 수준의 교육을 하고 있는 풀무농업고 등기술학교 전공부, 연암축산원예대학, 한국농업전문학교, 외국사례인 호주의 SEED 프로그램, 전문농업인교육 프로그램인 농업벤처대학, 농촌관광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 전국농업기술자협회,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농업연수부를 조사하였다.

2) 어메니티 향상을 위한 산학협력형 사례

가) 충남 홍성의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전공부

(1) 특징

1958년 주옥로, 이찬갑 선생은 농촌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 더불어 사는 평민을 만든다는 목표 아래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를 개교하였다. 농촌과 함께 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일반 고등학교가 아닌 농업학교를 설립하였고, 작은 학교를 지향하기 위해 고등기술학교 학제를 선택하였다.

설립 초기에 학생 수가 적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1970년대 유기농업을 도입하여 증산 위주의 정부 정책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탄압도 받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농촌지도자와 농촌지역 일꾼을 양성하였다.

많은 풀무학교 졸업생들이 지역에 남아 농촌의 인적자원, 지역 잠재력이 되어서 홍성군의 흥동면은 다른 지역에서 보기 드물게 신흥, 생협, 주민주도형 어린이집, 여성농업인 센터 등 다양한 풀뿌리식 농촌 자치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주형로라는 탁월한 농촌지도자를 배출하여 마을가꾸기 사업의 모범적인 사례인 동곡마을을 만들어 내었다.

2001년에는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전공부(전문대학과정)를 신설하고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교육생을 선발하여 2년제 전문적 농업교육을 시작하였으며 교과과정에 농장설계, 마을가꾸기, 지역공동체만들기, 협동조합 등 농촌개발과 관련한 다수의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 시사점

농촌의 중요성을 농민 스스로 깨닫고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민이 노력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농촌현장과 밀착된 교육을 통해 젊은 농촌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나) 천안연암대학

(1) 특징

LG그룹의 창업자인 연암 구인회 회장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문화 공익사업과 인재육성의 교육사업에 투자하는 연암문화재단을 설립하였고, 공업화에 밀

려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을 근대화시키고자 1974년에 설립한 학교이다.

영농기술의 개발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공분야별 최고전문가(MASTER)를 양성하여 환경친화적 생명산업인 농업을 통해 국토를 보존하고 생산·창조·봉사의 자리를 바르게 맡는 전문직업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 학교의 목적이다.

철저한 실험실습 위주의 실기교육을 통해 핵심기술의 개발 및 습득과 농업경영 능력을 갖춘 전공분야별 최고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 내부에 첨단농업교육센터를 설치하여 년 10회 이상 농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의 첨단시설을 교육장으로 개방하여 농업고등학교·영농후계자·농업관련 단체들이 년 1만 명 이상 견학하고 있고, 산학협동 연구·기술자문·졸업생 추후 지도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시사점

기업가도 농촌에 젊은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시하고 이를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한 사례이며, 농업기술에 대한 교육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촌관광·농촌개발에 대한 교과과정은 없다.

다) 한국농업전문학교

(1) 특징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모 확대와 기계화·자동화 등 첨단 기술을 수용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농촌 후계인력의 체계적 육성이 필요함에 따라, 1994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촌발전위원회의 건의로 1997년에 설립되었다.

입학금·수업료·기숙사비·교재비·실험실습비 등 교육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단기 해외연수를, 우수 학생들에게는 1년간의 장기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졸업생에 대해서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고 병역특례를 위한 산업기능요원 추천과 졸업 후 영농정착에 필요한 각종 농업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실기·실습 위주의 교육, 교수·학생 및 졸업생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 개인별 정밀 지도, 특정분야 전문가 양성 교육(독일의 마이스타 도제교육방식)을 통해 농업 전문가를 양성한다. 2003년 2월까지 4회 졸업생 1,000여 명을 배출하였고 대부분 졸업생들은 후계농업인으로 창업하거나 농업관련단체에서 일하고 있다.

(2) 시사점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한 젊은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가 적지 않은 투자를 통해 장기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키워 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례이나, 개별적인 농업기술에 대한 교육 위주여서 개인적인 창업에는 도움이 되지만 농촌관광·농촌개발에 대한 교과과정이 없어 농촌개발 인력 양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

라) 호주 SEED(Sustainability Education & Ecological Design) 교육프로그램

(1) 특징

SEED는 호주의 생태마을 크리스탈 워터즈 내에 있는 민간단체로, 유기농업·마을가꾸기·지역개발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호주의 크리스탈 워터즈 생태마을은 유기농업에 기반한 생태적인 농장과 마을로 설계하고 마을을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1996년 유엔 환경계획으로부터 가장 모범적인 주거형태라고 하는 World Habitate Award를 받았다.

SEED의 교육프로그램은 이러한 생태마을 내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서로 토론하며 실습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SEED의 프로그램 중에서 퍼머컬처 디자인 코스는 가장 잘 짜여진 교육프로그램으로 한국에도 2001년부터 3년간 운영된 바 있다. 퍼머컬처 디자인 코스의 전체 프로그램은 강의 25%, 토론 25%, 간단한 실습 및 견학 25%, 교육 참가자가 스스로 농장과 마을을 설계하고 발표하는 과정 25%로 균형있게 배분되어 있다. 한국 퍼머컬처 디자인 코스 운영시에 참가자들의 평가는 매우 좋았으며 참가자들 중에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농업과 농촌분야로 전공을 바꾸고 일반인의 경우 귀농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2) 시사점

전문가·선진 영농인들이 다양한 주제로 몇 가지 주제를 나누어 나열식으로 강의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실천적·체험적 교육이 농촌현장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지식을 전달해 주고 교육 후에 바로 실천적인 대안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마) 한국벤처농업대학

(1) 특징

농업분야에 고객만족이라는 개념을 인식시키고 디지털 경제에 걸맞는 경영과 마케팅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2000년 조직된 한국벤처농업포럼을 모태로 2001년 5월에 설립되었다. 창의력과 벤처정신을 조화시켜 개성 있는 농업비즈니스 창출하고 개개인의 창의력이 중요시되는 농업으로 발전시키며, 한국 농업의 새로운 토대를 정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1년 과정으로 운영되는데 월 1회 정기적인 강좌가 매월 넷째 주 토요일과 일요일, 1박 2일에 걸쳐 이루어진다. 1기생 27명, 2기생 28명을 배출하였고 현재 3기생 90여 명이 학습하고 있다.

(2) 시사점

농민들에게 시대 변화의 흐름에 적응하는 경영마인드를 갖출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이다.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질이 좋으면 농민들이 자비를 들여서라도 교육을 받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바) 전국농업기술자협회

(1) 특징

1963년 창립한 사단법인 전국농업기술자 협회는 현재 9개 시도연합회와 156개 시군지회가 있으며 7만2천 명의 농민회원이 활동하는 단체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중앙농민대학 및 지방 농민대학을 중심으로 한 농민 교육사업을 위주로 활동하고 있다.

부문별 기술교육·친환경농업 기술·벤처 농업 등의 기술·경영교육 외에 2002년부터 도농교류 최고 지도자 과정과 농림부의 위탁을 받은 농촌관광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며, 도시인을 위한 도농교류 희망자 교육·농촌 정착 희망자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2) 시사점

생산자 단체에서 도농교류·농촌관광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었고, 성공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이다.

사)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농업연수부

(1) 특징

농업의 지식산업·정보화를 선도하는 창조적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농업분야 공무원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99년 1월, 정부산하기관 교육기관이 통합되면서 설립되었다. WTO·FTA 등 농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배양, 농업의 경영능력 향상과 지식산업화 지원, 비농업분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도 제고 확대, 수요자 기대에 부응하는 교육여건 조성 및 교육기관 간 교류증진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농촌관광과 관련해서는 농민을 대상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지도자반”을 운영하여 농촌관광교육을 하고 있으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농정시책반”과 “벤처농업반”에서는 농촌관광을 교과과목으로 편성하였다.

(2) 시사점

국가기관에서 농촌관광과 농촌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무원과 농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한 사례이지만 아직 농촌관광과 농촌개발에 대한 비중이 크지는 않다.

아) 전남 장성군 학사농장

(1) 특징

1992년 전남대 농대 출신이 시작한 농장에 95년 같은 대학 선후배가 참여하면서 협업농장으로 시작한 것이 학사농장이다. 전 작물을 독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재배하여, 생산물은 지정매장을 통해 직접 소비자에게 유통시키고, 전남대·서남대 등 대학 연구기관과 연계한 첨단영농기술도 실현하고 있다.

현재 20대, 30대 젊은 농부 10명이 전남 장성군에 농장을 운영하면서 전국 10여 개 유기농업작목반 1만여 명을 회원으로 구성하고 있고, 모든 농산물을 농약과 화학비료 없이 생산·공급하고 있다. 또한 모든 농장은 청소년 체험시설·농촌체험활동 공간으로 연중 개방하여 소비자들에게 환경농업에 대해 교육하고,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있으며, 환경농업에 기반을 둔 레저농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농장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 2001년부터 매년 6월 2일 62day(유기농의 날)을 선정하여 농장에서 축제를

하고 있고, 김장축제를 비롯하여 지속적인 도농교류·농촌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시사점

환경농산물을 매개로 의식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 도농교류를 통해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자본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IV. 농촌어메니티 향상을 위한 생태마을 조성모형

1. 생태마을 조성의 필요성

농산물 수입개방정책으로 전통적인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자국의 시장유통으로 유지되어 오던 농가가 위기를 맞고 있다. 부실한 농산물 유통구조로 농업소득이 공정하게 농가에 분배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며, 농촌지역의 심각한 고령화로 인해 농촌이 활기를 잃어갈 뿐만 아니라 독특한 농촌전통문화의 소멸을 초래하고 있다.

농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촌이건 도시건 자기 고유의 특성을 찾아내어 자립의 토대를 놓아야 한다. 즉, 농촌은 농촌 고유의 특성에 맞도록 농업, 자연경관, 문화자원 등을 발굴하여 도시에 안전한 먹거리와 농촌문화 등을 제공하고, 도시는 이러한 것을 향유하고 함께 지켜나감으로써 농촌과 도시가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 정립이 필요하다.

농촌어메니티 향상을 위해 생태마을을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농촌어메니티를 생태적 지속가능성이라는 틀 속에서 재구성하거나 개발하여 도농간 경제적, 문화적 유대(상생) 관계를 정립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농촌이 가지고 다양한 부문의 어메니티 자원들을 통합하고 조화, 경제적으로는 환경생태농업이나 생태관광 등을 통해 자립, 생태적으로는 지역이 누리고 있는 생태적 환경을 보존하여 자원화, 문화적으로는 지역고유의 농촌문화를 보존하여 체험관광 등을 유치할 수 있다. 따라서, 농촌 마을이 지속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생태마을을 조성을 통하여 농촌어메니티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2. 농촌마을의 현실태 및 문제점

농촌문제의 원인은 단편적인 것이 아닌 농촌인구의 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한 농촌경제의 붕괴로 인한 총체적인 위기, 환경오염으로 인한 자연자원의 파괴 등 총체적인 농촌어메니티 상실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표 IV-1〉 농가 호수 및 농가인구 변화

(단위 : 천호, 천명,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농가호수	1,413	1,382	1,383	1,354	1,280	1,264	1,240
-감소율	-1.9	-2.2	0.1	-2.2	-5.4	-1.3	-1.9
농가인구	4,400	4,210	4,031	3,933	3,591	3,530	3,415
-감소율	-1.5	-4.3	-4.2	-2.4	-8.7	-1.7	-3.3
총인구대비(%)	9.9	9.4	8.8	8.6	7.8	7.7	7.4

3. 생태마을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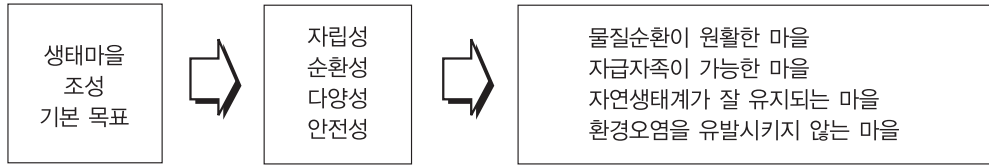
가. 개념 및 특징

생태마을에 대해서 길먼(Gilman)은 “인류의 건전한 발전을 돕고 먼 장래에도 지속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연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고 인간 활동을 그것과 조화시키는 인간적 규모(human scale)의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정착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양병이는 “마을의 공간구조와 생태계, 그리고 마을의 건물과 시설이 친환경적으로 되어 있으며 주민들의 생산방식이나 생활양식까지도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을”이라 정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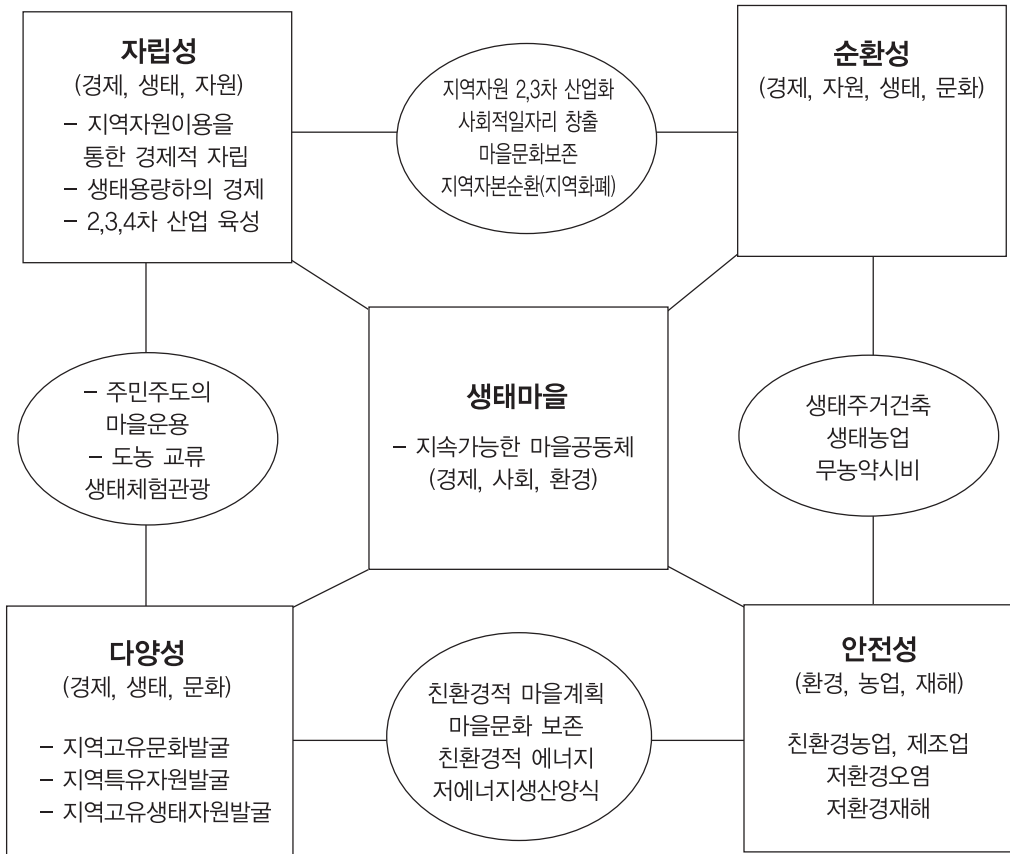
생태마을은 마을의 공간환경과 사회환경을 농촌의 자연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하여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며 농촌마을을 주대상으로 하여 농촌의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농업생산활동과 생활양식까지도 친환경적이 되는 마을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나. 생태마을조성의 구성요소 및 기본목표

생태마을 조성의 구성요소는 자연환경, 주민, 생활공간, 생산공간, 마을조직, 마을공동체 등이며, 생태마을 조성목표는 자립성, 순환성, 다양성, 안전성을 바탕으로 하는 물질순환이 원활하고 자급자족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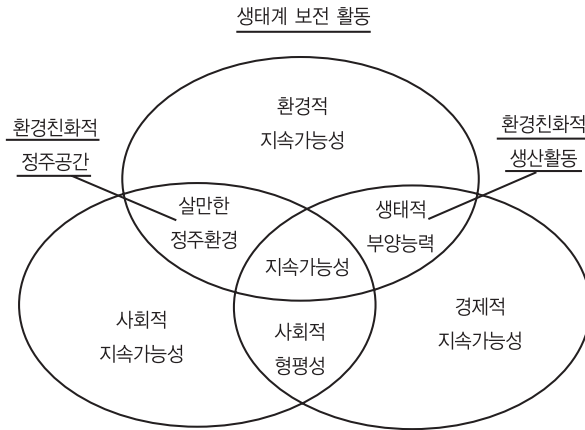
〈그림 IV-1〉 생태마을 조성의 기본 목표



〈그림 IV-2〉 생태마을 조성 모형

4. 생태마을 조성 정책동향

생태마을 관련 정책은 〈그림 IV-3〉와 같이 세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IV-3〉 생태마을 관련 정책의 세 영역

가. 친환경적 정주공간 조성 · 정비 정책

〈표 IV-2〉 친환경 정주공간 조성 및 정비

구 분	개념 정의	관련 정책
환경친화형 주거단지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하에 모든 개발행위와 경제활동에서 환경을 중요하게 배려하여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시키자는 개념으로 계획된 주거단지(주서령, 2003)	그린빌딩인증제도 (환경부 · 건교부)
환경친화형 농촌	- 일반적으로 농, 어업 활동이 주로 이뤄지는 생산공간으로서, 혹은 농,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 다수가 거주하는 생활공간 - 국토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농촌은 식량 생산 공간 혹은 농, 어민의 거주공간 이자 농촌고유의 자연환경, 경관, 전통문화, 공동체 등 어메니티 자원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농촌주민은 물론 도시민들에게도 매력적인 다원적 공간(이재준, 이상문, 2003)	농어촌정주권정비사업 (농림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행자부) 소도읍육성사업 (행자부)
태산촌	산림산업 및 환경농림업의 생산기지이자 자연환경, 산림생태, 국토 보전 기능을 담당하며 국민휴양, 환경학습, 전통문화가 이루어지는 장소, 또한 쾌적한 정주공간 이자 농교류의 공간으로서 산촌(생태산촌만들기모임, 2002)	산촌종합개발사업 (산림청) 오지개발사업 (행자부)

나. 친환경 생산 마을 육성 정책

〈표 IV-3〉 친환경 생산 마을 육성 정책 현황

구 분	개념 정의	관련 마을지원 정책
생태 관광	자연그대로의 모습을 관광대상으로 하여 가급적 자연적 생태에 영향을 주지 않고 관찰과 감상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	자연환경보전법제46조에 관련 법령이 있으나 마을 지원 사업은 없음
녹색 관광	농산촌의 풍성하고 깨끗한 자연경관과 지역의 전통문화·생활 과 산업을 매개로 하는 도시민과 농산촌 주민간의 체류형 교류 활동(농림부, 2001)	아름마을가꾸기시범사업 (행정자치부)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농진청) 산촌종합개발사업(산림청) 녹색관광체험마을사업 (농림부) 어촌체험관광마을사업 (해양수산부)
환경 농업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의 생산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농업 형태로서, 농업생산의 경제성 확보,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전 성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환경농업육성법) ※ 유기농업: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농약, 성장조절제, 제초 제), 가축사료첨가제 등 일체의 합성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 고 유기물과 자연광석 미생물 등 자연적인 자재만을 사용하 는 농법	환경농업시범마을사업 /환경농업지구구성사업 (농림부)

다. 마을단위 생태계 보전 장려 정책

〈표 IV-4〉 환경부 자연생태우수마을 및 복원우수사례 개념 및 선정지침

유 형	개 념	선정기준	
자연 생태 우수 마을	-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면서 자연 과 주민이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 는 마을	보전이 잘된 자 연생태 우수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자연환경 및 경관 취락구조의 자연성 지역문화 및 주민활동
	- 지역주민의 노력을 통해 자연친 화적 생활양식(건축, 토지이용, 환경보전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마을	조성이 잘된 자 연생태 우수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지형 활용 환경친화적 건설과정 자연순환형 생활양식 녹지확보·지역주민 활동

유형	개념	선정기준
자연 생태 복원 우수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 호수 등 오염된 지역을 자연친화적 공법 등을 통하여 이용하여 생태계를 복원한 사례 - 본래의 자연환경으로 복원하기 위해 지자체 및 지역주민이 노력하고 있는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원효과 복원의 질적 측면, 식생 및 생태계 복원 효과 • 활용효과 방문객이용객수, 복원지역 이용 프로그램 유무, 주민참여

5. 생태마을 조성계획 수립 및 추진전략

가. 마을 유형분류 및 GIS DB화

1) 마을 유형분류

행정구역, 생활구역 등을 토대로 한 정확한 마을정의에 의한 마을단위의 구분이 필요하다. 농촌어메니티 정책, 생태마을 조성 정책, 도농상생 정책 등 관련프로그램의 검토가 필요하며 생태적 농촌어메니티 요소별 특성 파악을 해야한다. 마을 유형은 조성 특성, 지리적 특성, 초기조성주체별 특성, 생태적 농촌어메니티 분류 기준별 특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분류해야 하며 기준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다.

- 조성특성 : 기존마을, 계획마을
- 지리적 특성 : 농촌형, 산촌형, 어촌형, 복합형
- 초기조성주체별 특성 : 주민주도형, 마을외부 주도형, 파트너십형
- 생태적 농촌어메니티 분류 기준별 : 자연자원 우수형, 문화자원 우수형, 인문자원 우수형, 사회자원 우수형, 2개 기준 복합형, 3개 기준 복합형, 복합형 유형화 대안 1은 마을의 자원에 의한 분류로 지리적 특성, 생태적 농촌어메니티 분류기준을 적 요하여 마을 특성을 유형화한다.

〈표 IV-5〉 마을 유형분류

	자연자원 우수형	문화자원 우수형	인문자원 우수형	사회자원 우수형	복합형
농촌	농촌 자연자원 특성화 유형	농촌 문화자원 특성화 유형	농촌 인문자원 특성화 유형	농촌 사회자원 특성화 유형	농촌 특성화
산촌	산촌 자연자원 특성화 유형	산촌 문화자원 특성화 유형	산촌 인문자원 특성화 유형	산촌 사회자원 특성화 유형	산촌 특성화
어촌	어촌 자연자원 특성화 유형	어촌 문화자원 특성화 유형	어촌 인문자원 특성화 유형	어촌 사회자원 특성화 유형	어촌 특성화
복합	자연자원 특성화 유형	문화자원 특성화 유형	인문자원 특성화 유형	사회자원 특성화 유형	복합형

유형화 대안 2는 추진 조건, 조성특성 및 초기조성주체별 의지에 의한 유형화로 추진 여건에 의한 분류이다.

〈표 IV-6〉 추진여건에 의한 분류

	주민주도	마을외부주도	파트너십
기존	추진 유형 2	추진 유형 3	추진 유형 2
계획	추진 유형 1	추진 유형 3	추진 유형 1

주 : 유형의 숫자가 커질수록 추진여건이 열악함을 의미한다.

2) GIS DB화(지리정보시스템 자료화)

특성화 유형 구분 및 조사와 GIS DB화와 특성화 유형별 조사 및 DB화가 필요하다. 특성화된 자원의 위치, 분포면적, 특성화지수 및 영향도 등을 조사하여 도면 및 DB화 하고 대상지에 특성화의 유형, 규모, 위치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구축을 해야 한다. 도면화 및 DB화하여 생태마을 조성계획에 활용하다. 이때 중요 조사항목은 자연, 사회, 인문, 문화 등 지역여건, 모자이크 패턴과 식생 패취, 농경지 등 토지이용/피복이다.

유형별로 조사된 결과의 분석, 조사 및 분석결과를 반영한 마을 유형의 분류, 특성화된 유형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잠재력 분석, 추진여건 분석에 따른 추진 잠재력 분석을 통해 마을의 분석 및 평가를 한다.

나. 유형별/시스템별 생태마을 조성 계획

1) 생태마을 원칙 및 목적 설정

생태적 농촌어메니티 모형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다.



〈그림 IV-4〉 생태적 농촌어메니티 모형 기본방향 제시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내용은 생태적 농촌어메니티 구축방안을 기본으로 하여 생태마을 가이드라인의 기본항목으로 보완한다.

〈표 IV-7〉 어메니티의 분류

분류 기준		종류
자연 자원	환경자원	-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소음이 없는 환경
	생태자원	- 비옥한 토양, 미기후(계절의 변화 등), 특이지형 - 동물(천연기념물, 보호 및 희귀동물 등) - 수자원(하천, 저수지, 지하수 등) - 식생(보호수, 노거수, 마을숲, 보호수림 등)
문화 자원	역사자원	- 전통건조물(문화재, 정자, 사당, 제각 등) - 전통주택 및 마을의 전통적인 요소 - 신앙 공간, 마을 상징물, 유명인물 - 풍수지리나 전설(마을유래, 설화 등)
	경관자원	- 농업경관(다락논, 마을평야, 밭, 과수원 등) - 하천경관(갈대, 하천의 흐름, 하천변 수림 등) - 산림경관(산세, 배후 구릉지 등) - 주거지경관(건축미, 주거지 스카이라인 등)
사회 자원	시설자원	- 공동생활시설, 기반시설, 공공편의시설 등 - 농업시설(공동창고, 공동작업장, 집하장, 관정농로 등)
	경제활동자원	- 도농교류활동(관광농원, 휴양단지, 민박 등) - 특산물(유기농산물, 특산가공품 등)
	공동체활동자원	- 공동체활동, 씨족행사, 마을문화활동, 명절놀이 - 마을관리 및 홍보활동

※ 자료출처 :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2004), 「주민참여계획 모형에 의한 농촌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설계기술 현장 적용 연구」 농림부 최종보고서, p 63

〈표 IV-8〉 농촌어메니티 자원 분류기준별 추가 자원

분류 기준		종류
인문 · 사회 자원	인문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인구구조, 가구구성 - 복지, 생활양식, 주택(공가수, 개조주택, 생태주택 등) - 토지이용(건폐율, 용적율, 용도지역 및 지구, 토지소유현황, 건축면적 등) - 주민 만족도, 주민 참여도, 주민 욕구 - 건축(부엌, 화장실, 담장, 단열재, 지붕, 건축연도, 생태정도 등) - 동선(외부의 접근, 내부 이동 등) - 방문객 활동(방문시설, 숙박 및 취사, 놀이 등)
	시설자원 (공공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편의시설, 문화(커뮤니티) 시설 - 교육시설(일반, 생태, 관광 등) - 보건(상하수도, 의료시설, 쓰레기 처리시설 등) - 도로포장(생태 포장), 접근교통
	경제활동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관광, 주수입원과 보조수입원의 존재 - 생산유통 시설 및 프로그램 - 축산, 임업, 농업, 작목, 농업 비율(재정, 인구, 농지이용 등) - 환경농업 현황
	공동체활동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조직
에너지 및 폐기물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방, 취사, 농업, 가전제품, 조명 등 - 에너지 공급 및 관리 시스템
	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쓰레기, 축사, 관거, 하수처리 등 - 재활용 시설 및 프로그램 - 폐기물 처리 시스템

생태마을 시스템의 올바른 수립은 농촌마을의 생태적 농촌어메니티를 향상시킴에 크게 기여한다.

〈표 IV-9〉 생태마을 시스템과 어메니티 요소별 상관관계

구 분	자원 순환	생태 경제	생태 에너지	생태 공간	생태 공동체	생태 건축
환경 어메니티	◎	○	◎	◎		
생태 어메니티	◎	○	◎	◎		
역사 어메니티					○	◎
경관 어메니티		○		◎		◎
인문 어메니티		○			◎	◎
시설 어메니티		○	○		○	◎
경제활동 어메니티	○	◎	○		○	
공동체활동 어메니티		○		○	◎	○

※ ◎ : 시스템이 어메니티 향상에 크게 기여함

○ : 시스템이 어메니티 향상에 기여함

지표개발, 개발방침 설정 등 전략설정단계에서는 생태마을 지표를 통한 생태마을 지수 측정, 생태마을 시스템별 현황 파악, 지수 측정을 통한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 및 설계 방향 설정단계에서는 지방환경(Local Environment)의 조사·평가, 예비작업, 생태마을 관련 선행 연구 및 기법 고찰, 시스템별 적용가능 연구결과 및 기술의 적용가능성 평가, 계획 및 설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마을의 특성화 유형, 추진 여건 유형별 생태마을 조성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는 마을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전략, 특성 극대화의 우선순위 및 목표치 설정, 생태적 농촌어메니티 향상을 위한 생태마을 대상지역의 환경에 적합한 기법 설계, 자원순환시스템, 생태경제시스템, 생태에너지 시스템, 생태공간 시스템, 생태공동체 시스템, 생태건축 시스템을 설정해야 한다.

추진여건에 따른 생태마을 시범사업 실시단계에서는 추진여건이 양호한 생태마을 시스템 시범사업 실시 및 관리를 하고 생태마을 조성에 따른 영향 분석을 해야한다.

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생태마을 계획 및 설계내용을 실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법·제도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재정보조 방안을 설정해야 한다.

다. 단계별 사업 추진 구상

1) 단계별 사업추진

다음과 같이 4단계 사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 1단계 : — 마을 특성 구분 및 조사와 GIS DB화
— 관련 연구 동향 검토, 마을 유형화, 시스템 유형화
- 2단계 : — 생태마을 계획(자원순환 시스템, 생태경제 시스템)
— 생태마을 시범사업(자원순환 시스템, 생태경제 시스템)
- 3단계 : — 생태마을 계획(생태공간 시스템, 생태공동체 시스템)
— 생태마을 시범사업(생태공간 시스템, 생태공동체 시스템))
- 4단계 : — 생태마을 계획(생태에너지 시스템, 생태주거 시스템)
— 생태마을 시범사업(생태에너지 시스템, 생태건축 시스템)

라. 추진과제

1) 생태마을 시스템별 세부추진과제

생태적 농촌어메니티를 기준으로 생태적 농촌어메니티 구축방안과 생태마을 가이드라인 기본항목을 분류하였다. 기본항목은 국내외 생태마을 사례조사 및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것이다.

생태마을 시스템은 요소별 어메니티 향상에 복합적으로 기여한다. 다음 그림과 같이 어메니티 요소별로 분류된 기본항목 및 구축방안은 기준을 바탕으로 생태마을 시스템의 세부추진과제로 제시될 수 있다.

〈표 IV-10〉 생태마을 시스템별 세부추진과제

자원순환	— 수자원 순환, 폐기물 순환, 효율적 토지이용, 재생자원 이용, 자원 수요 저감
생태경제	— 생태적 생산, 유통 시스템, 생태적 지력향상시스템, 생태적 농업폐기물 처리, 교류 및 네트워크
생태에너지	— 소비절약 및 효율성 제고, 재생에너지
생태공간	— 생태적 공간배치, 생물서식지 제공,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그린네트워크
생태공동체	— 주민 교육, 주민 공동체 활동, 생활양식, 행동양식
생태주거	— 요소별 생태건축(집터, 집짓기, 마을공동시설 등)

어메니티	추진과제(기본항목 및 구축방안)	시스템
환경 어메니티	산림녹지 보전, 개선, 창출	생태 공간
	자연하천 보전 및 복원	생태 공간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오염원 제거	자원 순환
	자연지형 변형 최소 및 최대 활용,	생태 공간
	녹지, 표토 훼손의 최소화	생태 공간
	마을 조성 시 훼손된 녹지, 표토에 대체 복원	생태 공간
	마을 소음 최소화 및 방음대책 마련	생태 공간
	상수 사용량 최소화, 우수·중수 이용	자원 순환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퇴비화	자원 순환
	생활하수 수질관리를 위해 생활오염물질 배출 규제	자원 순환
	생활하수 수질관리를 위해 자연정화	자원 순환
	물사용 최소화 및 분뇨퇴비화 화장실 이용	자원 순환
생태 어메니티	야생동물 서식처 보전 및 서식환경 복원	생태 공간
	마을 내 소생물권 조성	생태 공간
	자생식물종 보전	생태 공간
역사 어메니티	전통주택 및 마을의 전통적인 요소의 복원	생태 건축
	신양공간, 마을 상징물의 복원	생태 건축
	유명인물의 관리	생태 공동체
	풍수지리나 전설의 복원	생태 공간

어메니티	추진과제(기본항목 및 구축방안)	시스템
경관 어메니티	마을 내 경관 및 주변자연과의 경관적 조화	생태 공간
	마을 특성을 반영하는 경관의 관리	생태 공간
	경관요소별 경관관리(농업, 하천, 산림, 주거지 등)	생태 공간
	경관관리계획 수립	생태 공간
	경관 농업 육성	생태 경제
인문 어메니티	귀농인 유치	생태 공동체
	환경친화적 생활양식	생태 공동체
	향, 일조권, 조망 등을 고려한 택지 조성	생태 공간
	자연 및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소재 사용	생태 건축
	전기에너지 절약하기, 재생에너지 이용	생태 에너지
	에너지 효율, 경제성을 고려한 난방시설 단열재 사용	생태 건축
시설 어메니티	마을 공동체성을 고려하여 공동시설 배치	생태 공동체
	자연환경, 주변환경을 고려한 마을 입지 선정	생태 공간
	기반시설의 확충 및 치안 강화	생태 공동체
	접근시설의 다양화(대중교통)	생태 공동체
경제활동 어메니티	환경농업 및 유기축산	생태 경제
	환경산업(환경친화적인 농가공업 실천)	생태 경제
	생태관광 및 농촌체험	생태 경제
	도시~농촌 교류 프로그램 진행	생태 경제
	안정적 마을경제를 위한 역량 강화(먹을거리의 자체생산)	생태 경제
	유통방식의 개선(직거래, 장터 등)	생태 경제
공동체활동 어메니티	마을자체 주민회의 운영	생태 공동체
	마을행사 자체 진행	생태 공동체
	마을자체 내구 공유·실천	생태 공동체
	다양한 주민교육 진행	생태 공동체
	지역사회와 교류	생태 공동체
	농촌, 기업, 지자체, 정부 네트워크 강화, 정부의 지원	생태 공동체
	홍보 및 네트워크(서포터즈) 구축	생태 공동체
	사회적 일자리 제공	생태 공동체
	다양한 참여프로그램 개발	생태 공동체
	농촌조직의 리더십 강화	생태 공동체

2) 핵심추진과제(유형에 따른 모형 개발)

〈표 IV-11〉 핵심추진과제(유형에 따른 모형 개발)

	사업 목표	사업내용
1 단 계	농촌마을 유형분류 및 GIS DB화	농촌위기 극복과 농촌어메니티의 관계 설정 국내외 생태마을 사례 조사분석(농촌어메니티 향상을 중심으로) 생태마을의 정의 및 단위 구분 생태마을 조성에 있어 적정 크기 산정 관련프로그램 및 정책 검토 마을 특성 파악 특성별 마을 유형분류 마을 특성 구분 및 조사와 GIS DB화 마을의 분석 및 평가 생태적 농촌어메니티 향상을 위한 생태마을 조성방향 제시
2 단 계	자원순환 시스템, 생태경제 시스템	자원순환, 생태경제 시스템 사례연구 및 유형화 대상지 자원순환, 생태경제 시스템 분석 및 유형화 자원순환, 생태경제 시스템 모형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순환 시스템 구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여과된 세척 폐수를 토양에 투입하여 온실 내 식물이 영양분 과 수분을 모두 흡수하게 만드는 시스템 - 인공습지 조성을 통한 폐수정화 시스템 - 빗물의 효율적 관리 시스템 - 자연적 순환과정 완성 모형 - 재난대비(홍수처리 등)를 위한 생태마을 설계(홍수와 습지) - 자원의 평등하고 효율적인 이용 모형 ■ 생태경제 시스템 구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유형별 Permaculture와 유기농업 모형 - 지속가능한 주택 및 Permaculture 입지선정 :공기와 생수 및 토양 품질 유지개선 모형 - 유기농업 모형 개발 : 정부지원 형태, 농민주도형태 - 농산물의 생태적 유통모형 개발
3 단 계	생태공간 시스템 생태공동체 시스템	생태공간 시스템 사례연구 및 유형화 대상지 생태공간 시스템 분석 및 유형화 생태공간 시스템 모형 개발 수순환, 바람길, 환경용량 등의 환경계획 지침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복원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역의 여건 분석

	사업 목표	사업내용
3 단 계	생태공간 시스템 생태공동체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지역과 대상지역에 관한 기존계획의 파악 - 대상지역의 자연, 문화적 특성은 광역적 자연성 맥락의 연계성 파악 - 대복원을 위한 필요 정책 요건의 도출 • 부지현황조사, 평가 및 유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생태계 구조와 기능의 파악 : 주변지역 생태계 유형, 인접지역의 서식처, 대상지 물리적 조건, 서식처 형태·특성·조건 - 대인간의 접근 영향 - 대생태계의 중요성 평가 : 생태적 연령, 자생종, 서식처의 크기, 연속성, 빈도, 다양성 등 - 대부지현황조사 및 평가를 통한 유형화 • 유형별 복원목적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일반적 고려사항 - 대현재 조건의 시사성 - 대복원여건과 장점의 수립 - 대현실성 있는 복원목적의 수립 • 세부복원계획의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복원지역의 물리적 배치 - 대중요 서식처 보호 - 대훼손된 서식처의 복원을 위한 세부 복원계획의 작성 • 시행, 관리, 모니터링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복원계획의 수행 : 시공 - 대관리계획수립 : 단기, 장기 - 대모니터링 <p>생태공동체 시스템 사례연구 및 유형화 대상지 생태공동체 시스템 분석 및 유형화 생태공동체 시스템 모형 개발 유형별 주민참여 방안 제시</p>
4 단 계	생태에너지 시스템 생태주거 시스템	<p>생태건축, 에너지 시스템 사례연구 및 유형화 대상지 생태건축, 에너지 시스템 분석 및 유형화 생태건축, 에너지 시스템 모형 개발 유형별 생태건축 가이드라인 제시 및 적용성 검토 마을 유형별 적용가능한 대체에너지 계획</p>

마. 생태마을 조성 기대효과

농촌의 새로운 생활환경으로서 환경오염과 자연환경파괴를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도시나 농촌의 일반적인 주거양식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생활양식을 제시한다.

지역사회와 지역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역할을 마비시키는 외부자본에 의한 대규모 개발이 아닌 지역자본과 소규모개발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의 생태계보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개발을 도모한다. 전 세계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식량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이다. 대량생산, 대량소비로 이루어져 있는 현대 생활시스템을 소량생산, 저소비형 생활양식, 생산양식, 사회시스템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에너지·폐기물·자원의 순환체계를 가지고 생태적인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생활규모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 내고 농촌 환경의 건강성을 지키고 생활의 질을 높여 농촌을 다시 살리는 대안이 될 수 있다.

6. 시스템별 핵심 적용기술 개발방안

가. 자원순환 시스템 : 생수자원과 폐수처리기술

1) 빗물수집 및 정수 시스템

빗물수집은 삼각지붕을 이용한 빗물수집, 경사지붕을 이용한 빗물수집, 받고랑식 빗물수집, 이지스트리트사의 우수 수집처리 시스템 등이 있다.

빗물은 지붕, 철망, 배수도랑, 수로, 첫 세척빗물, 여과장치로 이동되며 탈이온화 공정, 저온증발, 고온증발, 역삼투 단계를 거치며 정수된다.

2) 태양광에너지에 의한 폐수 담수화 기술

엘파소 태양에너지 협회의 태양열 증발장치, 쏘라돔사의 태양열 증류장치 등이 있다.

3) 가정폐수 분리와 폐수 정화 시스템

가정폐수의 분리와 세척 폐수의 처리 시스템은 스크린에 의한 고체나 입자의 제거, 미생물 소화, 고차처리, 살균처리 등의 단계를 거친다. 가정세척 폐수처리와 현장토양 흡수처리 시스템은 부폐조에 수집하여 침전 분리된 상등액을 토양과 식물을 갖추고 있는 농경지 방법을 활용하여 처리한다.

4) 새로운 가정폐수처리 시스템

모래마운드, 등고선 토양흡수시스템, 가압 지하 토양 흡수시스템, 모래여과 시스템, 공기처리 시스템. 인공습지 시스템, 강제 순환 모래여과 시스템, 관적 살포 시스템 등이 있다.

5) 수세식 변기문제와 분뇨분리 처리시스템

가정폐수의 종합 처리시스템은 알라스칸(Alascan) 시스템, 진공변기(Vacuum toilet) 등이 있다. 퇴비화 변기 시스템은 클리버스(Clivis) 형, 선마(Sun-Mar) 형, 바이오 썬 형(Bio-Sun), 카로셀 형(Carousel), 피닉스 형(Phoenix) 등이 있다. 오줌과 대변의 분리 변기와 처리시스템은 아쿠아트론(Aquatron) 변기, 노비쿠아티스(Novaquatis) 변기, 나트룸(Naturum) 변기 등이 있다.

6) 가정폐수 분리수거와 모형 도시 시스템

스웨덴 요한슨에 따르면 스톡홀름 교외에 새로 건설된 주택단지와 농장을 연결하여 5년간 실험하여 구체적인 실천방법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일본 북해도 대학 후나미주 등의 건식 변기 개발하였다. 독일의 피터프렐리히 등은 진공 변기를 채용한 오줌, 대변 및 세척수 분리 처리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였다.

7) 비점오염원의 수질향상기법

수질정화습지는 강과 하천의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각종 오염원을 제어하기 위한 것으로 수질정화력이 높은 습지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다. 생물다양성의 증진수질정화, 지하수 충전, 탄소의 저장 등의 효과가 있다.

수변 완충 녹지대 조성은 비점오염원이 많은 지역에서 빗물이 하천이나 강으로 유입되기 전에 완충녹지대를 통과하게 함으로써 비점오염원을 제거하는 원리이다. 완충식생대의 식생, 토양, 경사, 기후, 기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발생원 관리는 침식방지 공법, 침투향상공법, 지표면 저류 공법 등이 있다. 수집시스템의 관리방안은 침전트랩설치와 침투 도랑 및 연못 설치, 우수지의 활용 등이 있다. 직접적인 처리방법은 물리·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가 있다.

〈표 IV-12〉 국외 사례

비점오염원의 유형	적용대상지	장점	단점	기대효과
시가화건조지역	주택 Barn Elms Southwest London	강유출수의 수질과 수량을 조절하는 가장 저렴한 수단 지하수 재충전	대규모의 토지소요로 토지가 고가인 지역은 적용 곤란 고농도의 오염물질이나 침전물을 처리하는데는 부적절함	강우유출범람 조절과 수질개선 COD(10~90%) SS(50~90%) T-N(10~90%) T-P(20~90%)
	도로 Blackwater Valley Road	도로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 제거 도로변 경관 형성 짜투리땅을 이용한 녹지면적의 확보	도로면적에 비해 협소하여 부지확보가 어려움 고농도의 침전물 처리에는 지속적인 효과를 보이기 어려움	Buffer 1.5~4m : T-N 8~62% 제거효과 기대
	주차장 Wokingham Berkshire U.K.	지하수 보충에 따른 지반침하 방지 유기물이 토양에 의해 한번 걸러질 수 있음	대규모의 면적에 대해 시공할 경우 비용의 소요가 커 적용 곤란	지속가능한 배수체계의 도입에 따른 도시지역의 쾌적성과 생물다양성 증진

비점오염원의 유형		적용대상지	장점	단점	기대효과
경작지	시가화건조지역	일본의 오사카성	지하수의 부족에 의한 지반침하를 방지 무기질의 재료 사용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답압에 의한 효과 감소 염류의 토양 침투로 토 양 내 미생물의 기능 감 소	강우시 유기물 유출량 감소 지하수 보충에 따른 수 원확보 및 지반침하 방 지
	논	U.K.	Buffer Strip의 구성에 따른 농약과 영양물질의 제거 및 생물다양성의 증진	—	농지 비점오염원 제어 N-P 각각 20~70% 단절된 하천부지의 농지 를 녹지로 복원
	밭	U.K.	영양물질의 흡착으로 인 한 오염의 저감	—	농지, 유기질비료, 종자, 농기구등을 지원하여 환 경농업 실시 T-N(40~75%) T-P(65~95%)
	나지	Southwest and southeast England	토양안정화에 따른 유출 억제 녹지대 구성에 따른 생 물다양성 증진	—	나지에 녹지대와 수로를 도입하여 비점오염원 관 리 및 다양한 서식공간 조성 T-P(66~95%)
축사 (비허가 소형 축사)	U.K.	유기물 유출억제 녹지대 구성으로 생물다 양성 증진	—	용존 및 흡착 영양물의 제어 바이러스등의 기타 미생 물의 유입저감	

나. 생태경제 시스템 : 유기농업 시스템

1) 유기농업의 정의

장재적인 환경적, 사회적 충격을 고려하여 인공적으로 합성된 합성비료와 합성농약,

동물약품, 유전조작 종자와 묘목, 방부제와 첨가제, 방사선과 같은 인공적 투입자재 사용을 제거하기 시작하는 시스템이다. 소비자 또는 시장 시동 유기농업, 서비스 시동 유기농업, 농민시동 유기농업이다.

2) 유기농업 시스템 및 환경적 이점

농업생태계에 대한 중장기적인 농업적 간섭효과 고려, 토양비옥도 보존, 병충해 예방이 장기간에 걸친 지속가능성. 윤작, 간작, 공생관계, 피복작물, 유기질 비료, 최소경작과 같은 기술이 토양동식물을 활성화시키고, 토양 형성과 구조를 개선해주며, 보다 안전한 토양시스템을 창조한다. 퇴비, 가축분뇨, 녹비 등 유기질 비료 사용, 종다양성의 확대하여 영양분 보존능력을 향상시킨 유기농업시스템은 지하수오염 위험을 크게 감소시키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토양복원 조치로 유기농업이 추천된다. 최소경작, 농산폐기물의 토양 재투입, 피복작물이용과 윤작, 질소고정 콩과 식물 확장하여 탄소저장을 유리하게 만든다.

식물과 동물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영양분과 에너지 순환을 최적화하여 준다. 유기농장 주변과 내부에 자연적 지역 보존, 화학적 자재투입을 없애서 야생동물에 적합한 서식지 제공한다. 유기농산물 식품의 생산, 가공, 취급에서 GMO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토양형성과 조절, 토양 안정화, 폐기물 리사이클링, 탄소 저장, 영양분 순환, 포식, 수분, 서식지 등을 통해 생태계내에서 농업적 생산과 자연보존 모두에게 활력을 제공하는 상호작용을 촉진시킨다.

〈표 IV-13〉 친환경 농사법의 종류와 특징

	기존농사법	경운 감축 농사법	무경운 농사법	유기농사법
경운	예	약간	아니요	예
농약사용	다양함	다양함	예	아니오
단점	오랜 전통	토양보조이 약함	토양보존이 큼	무농약 식품

○ 태평농법, 자연농법, 오리농법, 왕우렁이 농법, 윤작체계 및 돌려짓기, 쉬어짓기(혼작), 휴경

3) 유기축산

자연양계, 자연양돈 등이 있다.

4) 두둑 경작법

윤작이나 간작과 함께 두둑경작법이 흔히 실시된다. 식재시기에 토양지대를 폭 15~20cm와 깊이 5~10cm로 경운하여 필요한 크기의 파종상을 만들면, 토양이 노출된 경운열사이의 지대에는 잡초의 잔유농작물이 뒤덮이게 된다.

다. 생태에너지 시스템 : 대체에너지 자원과 이용기술

재생가능 에너지자원의 경제사회적 특성비교내역과 영국 EEC₀가 제시한 재생가능 에너지자원별 소규모발전기의 장단점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V-14〉 재생 가능에너지자원의 경제 사회적 특성 비교

	태양열	태양 전지	수력	풍력	해양온도차	조력 발전	지열	Biomass
자본비	대규모	대규모	상당량	중정도	상당량	상당량	소규모	소규모
운영비	중간 정도	중간 정도	미미함	소규모	미지	미미함	소규모	중간 정도
변환 효율(%)	15	5~10	80	42	7+	25	100	25
재생성	예	예	예	변덕	예	예	아니요	아마
저장	불필요	불명확	실내 건설	필수	불필요	불명확	불필요	불필요
환경 오염	실제 없음	폐열	없음	시각적	없음	없음	분출 스팀	분진, CO
환경 영향	중간 정도	대규모	상당함	소규모	미지	과도함	소규모	중간 정도
대규모	너무 비쌌	상당히 비쌌	이미 증명	매우 가능함	해결 필요	지역적임	지역적임	순익 의문
소규모	NO	곤란	수두문제	확실함	NO	NO	NO	절대적
단위 용량	1000 MW	면적에 좌우	2000~6000MW	매우 다양	대규모 필요	250MW	1000MW	50~100MW
고용창출	거의없음	거의없음	거의없음	거의없음	건설지	약간	거의없음	많음

〈표 IV-15〉 영국 EECog가 제시한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별 소규모 발전기의 장단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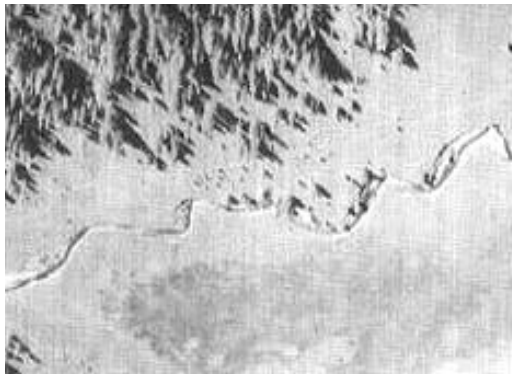
적용		에너지 용량	KW 출력당 단위크기	송배전/ 저장여부	용 도	
					장점	단점
태양광에너지	태양광발전지	10W~10kW	13m ² at STC (1kW/m ² Irradiance)	배전판, 축전조절기, 배터리 저장기, DC/AC 인버터 등	- 전기생산 - 연료불필요 - 수명장기(20년) - 고성능보장 - 유지비 극히 적음 - 손찰 불필요 - 조작비 저렴	- 높은 투자자본 - 24시간용 저장기 필요 - 훈련필요 - 성능이 기후에 좌우됨 - 넓은 면적 필요
	태양열발전(가열)	1kW~10kW	2m ² flat collector at STC/ 효율 50%/ 온도20℃~60℃	- 수집판 지지대 - Pipe 작업 - 펌프 필요 - 절연저장기 - 온도조절기	- 용수가열 - 목재/목물건조 - 요리, 증류/탈염 - 추가 E 투입없음 - 낮은 유지비 - 저비용	- 저장기 필요 - 기후조건에 좌우 - 유지방법 훈련필요 - 빙결가능 - 열싸이폰공기 - Back 싸이폰 필요
풍력발전	풍력발전	50W~100kW	7m-dia. blades at av. 5m/sec wind	- 기초필요 - 배전판 - 송배전선 - 저장기 - 인버터	- 기술보증 - 자동조작 - 추가연료 불필요 - 오염없음 - 장기수명(10년) - 부분제작	- 풍속에 좌우 - 설치장소제한 - 높은 투자자본 - 건설제한 - 미관상 나쁨 - 저장기 필요 - Backup 필요 - 고도기술필요
	풍력펌프	10W~100kW	10m-dia. blade at 5m/sec wind가 물 37m ³ /hr를 10 높이 양수	- 기초필요 - 굴착공 - 펌프 - 파이프 - 저장통 - 여과판 - 분배파이프	- 기술보증 - 자동조작 - 추가연료 불필요 - 오염없음 - 장기수명(15년) - 부분제작	- 풍속에 좌우 - 설치장소제한 - 높은 투자자본 - 건설제한 - 미관상 나쁨 - 저장기 필요 - Backup 필요 - 고도기술필요
수력에너지	수력발전	1kW~100kW	유량:0.02m ³ /sec (20kg/sec) for 10m head	- 물막이, 저수지, 파이프 필 - 발전기, 폐수파이프, 송배전선/조절기	- 매우 일정한 전기생산/기술용이 - 추가연료불필요 - 낮은 유지비 - 장기수명(20년) - 대규모저수댐불필요 - 오염없음	- 장소적합성 - 자원근접성 - 수량에 좌우되는 출력 - 건기에 취약 - 중정도기술필요 - 투자비가 높을 수 있음
지열에너지	열병합발전	100W~100kW	지표열속(60mW/m ²)=16,000m ² /kW 온천열속(300mW/m ²)=3,33m ² /kW 굴착공길이=1,000m 온도=30℃~200℃	- 지질조사 - 굴착/전열파이프 - 여과 - 배출수폐기 - 소비자이용기필요	- 물고기 부화장 - 토양가열/공간가열 및 냉방 - 건조 - 흡수냉장 - 동력생산(대규모 경우)	- 고비용 굴착 - 붕괴위험 - 일정량 재생불가능 - 대기오염 및 오염물질 방출 - 저수용토지사용
바이오메스	열병합발전	5kW~300kW	1.25kg 분해가스가 1kW전기+ 1.75kW 열생산	- 토목공사 - Biomass야적장 - 가스화장치 - 분리기 - 응축수수집기 - 여과기 - 개량엔진 - 배전조절판 - 송배전선 - 파이프필요	- 재생가능 - 고체/액체/기체 - 규모다양 - 토착연료 및 기술 - 대기오염추가분없음 - 일자리 창출 - 폐기물이용과 재정적 이익	- 토지사용 - 저에너지밀도 - 용수와 비료 필요 - 복합적인 경영시스템 - 대량운송 - 질방과 기후에 취약함 - 기술과 자원이 다양함 - 폐기물 취급

라. 생태공간 시스템 : 생태복원(비오톱 조성과 그린네트워크)

1) 서식처 유형별 복원기법

야생화 초지는 유형별로 자연지역에서의 초지, 주거지내 초지, 학교내 초지, 도로변 식재 초지, 보행길 주변의 초지가 있으며 설계요소는 색깔, 질감, 식물의 형태, 식물의 질감, 층이 있다. 설계 및 시공시 고려사항은 재료의 선정, 물리적 요소(토양, 광, 천이), 식재시 정지와 토양개량이며 식생 패턴 형성 방법은 단식, 혼식, 자유형 식재, 식재 방법은 파종, 식재, 뗏장심기이다. 야생화 초지 관리는 잡초, 모니터링이 있다.

야생화 초지 복원 사례 : 울산광역시 무룡산 억새밭 복원



〈그림 IV-5〉 Big Flat Meadow/Cottonwood Creek

2) 생물타리 조성 기법

생물타리 조성은 야생동식물 서식처 효과, 야생동물 이동통로의 효과, 토양침식 억제 효과, 방풍효과, 방음효과, 그린네트워크 형성 등의 기능 및 효과과 있으며, 생물타리의 종류는 경계울타리, 바깥울타리, 높은 울타리, 꽃울타리, 섞은 울타리, 덩굴 울타리, 겹울타리가 있다.

3) 동물의 서식처 복원 기법

복원 기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한다.

- 서식처 연속성 : 야생동물 서식처 회랑, 코리더의 개념에 패취, 매트릭스 개념
- 이동로 : 선, 대상과 수자원을 따라 형성된 하천 등
- 은신처 : 겨울은신처, 피난은신처, 휴식은신처, 수면은신처, 번식은신처, 체온유지 은신처
- 완충지 :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시설이 개발되는 지역과 인접한 하천주변, 야생동물서식처 주변, 자연식생군락의 주변 등

4) 곤충류 유인 및 서식처 복원 기법

식재기법은 정수식물, 부엽지구물, 부수식물, 침수식물의 생태연못 식재와 야생화초지 식재, 관·교목 식재가 있다. 다공질 공간 제공 기법은 돌무더기 놓기, 통나무 쌓기, 고목 배치, 나뭇가지 더미 놓기, 낙엽층 및 부엽토 쌓기 등이 있다. 그 외에도 호안처리, 잠자리 생태연못 조성, 반딧불이 서식처 조성이 있다.

5) 어류 서식처 조성 기법

어류의 서식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수질관리가 가능한 형태로, 휴식 및 은신처로서 웅덩이나 연안의 가장자리 부근에 수초나 돌 틈을 조성한다. 여름철의 수온상승과 겨울철의 동결심도를 고려하여 1m 내외의 깊은 수심을 일부 조성해 준다. 모래, 자갈, 진흙 등의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저서환경과 어종과 산란지와와의 관계를 파악해서 필요로 하는 공간을 제공한다.

6) 양서류 서식처 조성 기법

양서류 서식처 조성시 고려사항은 대상지와 연못의 크기, 연못의 모양과 수심, 공급 수원, 호안 처리, 식재계획, 주변환경 등이 있다. 양서류 서식처로서 저습지 조성은 소생물권 조성, 식생도입이 있다.

7) 조류의 유인 및 서식처 조성 기법

수심, 가장자리 처리, 식재는 수변부에 몸을 숨길 수 있는 갈대와 습지 수목의 숲 조성하는 것으로 물새들이 먹을 수 있는 각종 수생동물과 곤충류의 서식밀도를 높이도록 연못 수변부를 다양하게 해야 한다. 식이식물의 식재는 멧새류, 물새류, 오리류, 물떼새·도요류·할미새류, 박새·멧새·참새류에 따른 식이식물 식재 등이 있다. 조류의 휴식처 조성 기법은 식물섬, 고목, 햇대(통나무 박기)가 있다. 식재 및 휴식처 조성 후 조류관찰을 위한 관찰시설 설치와 이용자 통제가 필요하다.

8) 생태계 보전 기법

생태계 보전 지역의 지정을 통한 현지내 보전, 현지의 보전기법, 보전지역 내 관리 구역의 설정,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 보전지역 등 중요 서식처에 대한 경계 울타리 설치 등이 있다.

9) 대체습지 조성기법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혹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기존 습지를 대신할 습지를 새롭게 조성하는 대상지 내(On-site)/대상지외(Off-site) 방법에 의한 대체습지 조성, 향후 개발로 습지를 훼손시킬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습지를 조성해 놓고 보상케 하는 습지은행(Mitigation Banking)에 의한 대체습지 조성, 손실된 습지와 똑같은 기능과 가치를 대체할 수 있는 습지를 조성하거나 복구함으로써 습지의 손실을 저감하는 In-Kind 방법, 손실된 습지와 다른 기능과 가치를 가진 습지로 대체함으로써 습지의 손실을 저감하는 Out-Kind 방법 등이 있다.

10) 벽면 생물서식공간화의 주요 기법

녹화식물의 선정조건은 녹화목적의 부합성, 관리성, 시장성 및 경제성, 경관성, 환경내성, 생육성이다. 녹화식물의 종류는 흡착형 식물, 감기형 식물, 기타 상록/낙엽, 자생/외래, 생물다양성 등이 있다. 등반유형별 식재방법은 등반부착형, 등반감기형, 하수형, 면적형, 에스펠리어 등이 있으며 식재에 필요한 요소는 식재기반, 등반보조재의 설치, 관수 및 배수 설비가 있다. 벽면녹화의 유지 및 관리는 전정 및 제초, 시비, 관수 등이 있다.

11) 옥상 생물서식공간 조성 기법

유형분류로 저관리·경량형, 혼합형, 관리·중량형이 있으며, 효과 및 이점은 생활환경개선, 생태학적 이점, 기술적 이점, 경제적 이점, 경관개선 이점, 공간의 입체적 사용이 있다. 시스템의 구성요소는 건물 또는 구조물의 외피, 식재기반, 식생층을 이용한 옥상녹화 시스템과 방수·방근층, 배수층, 토양여과층, 토양층 식재기반이 있다. 옥상 생물서식공간 조성 기법은 건물의 안전성 확보, 배수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바람의 저항 저감 방안이 있으며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성 기법은 물의 도입, 식물의 도입, 동물의 서식처 조성이 있다.

마. 생태공동체 시스템

1) 홍성군 문당환경농업마을

〈표 IV-16〉 문당환경농업 마을현황

소재지	충남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마을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현황 : 1993년 오리농법을 도입하여 현재 전체 81가구 중 40농가가 약 10만평인 농지에 오리농법을 이용하여 경작하고 있다. • 생산·유통 관련 조직의 연계 (풀무생활협동조합, 홍동 농협, 정농회,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홍성농업기술센터) • 환경농업교육관 • 에너지 : 태양열 난방 실시, 풍력발전기 설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여 학교 건물에 전력으로 사용, 정미소에서 나온 왕겨를 황토찜질방의 보일러 주 연료로 사용, 농사찌꺼기와 남은 음식물을 이용하여 바이오 가스를 생산 • 특산품 : 오리농법쌀 • 체험행사 : 오리관찰하기, 오리넣기, 떡만들기, 두부만들기, 황토염색, 농촌생활유물관답사 등 	
공동체 활동	오리농법쌀 작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 26개작목반 (2003년) • 재배면적 : 118만평 - 136만평 (2003년) • 생산량 : 6만여 가마 (2003년)
	영농조합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수 : 49명 • 사업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환경농업 및 축산업에 관련된 공동생산 시설의 설치 및 이용 ② 환경농산물 가공 및 판매 ③ 환경농업 연구 및 기술보급 ④ 소비자 단체 직거래 및 지역 환경 농산물 센터개설 ⑤ 지역간의 농민교류(환경농업 지역교류) 해외 농민교류 ⑥ 마을의 백년계획서에 의한 사업 전개 ⑦ 후진양성을 위한 어린이 환경교육 및 교육장 설치 운영 ⑧ 지역 환경 연구 및 환경단체 교류 ⑨ 올바른 먹을거리 보급을 위한 식당 운영 ⑩ 녹색 농촌 체험 및 도시민과의 교류
	풀무 신용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 : 2,500여명 • 내용 : 모아진 자산으로 농민들에게 필요한 돈을 대출해주고 마을공동체에 필요한 많은 일을 공동으로 벌여나감. 풀무신협의 협동을 통해 편익을 실감하고 민주적 운영으로 공동체의 참맛을 경험한 홍동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각종 일과 사업을 함께 해오고 있음.

2) 서천군, 생태 공동체 전원마을 - 산너울 마을

〈표 IV-17〉 산너울 마을현황

소재지	충남 서천군 판교면 등고리 일원
마을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만9479mm²(8999평), 35가구 • 단지조성 : 29749m²에 36호 규모의 맞춤형 생태 주거단지 조성 • 기반시설 : 진입도로, 오폐수처리 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 부대시설 : 주차장, 놀이터, 공원, 텃밭, 복합문화관, 게스트하우스 등 •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시설(지열, 태양열, 태양광, 풍력) 도입 예정 • 2007년 12월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
공동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이용시설공간 활성화를 위한 배치 • 계획 초부터 조직화된 입주민 참여 • 정기적 모임을 통한 교류활동 • 50~60대의 도시 은퇴자, 은퇴예정자가 주를 이룬 유입 거주민과 기존 마을 주민이 조화 • 코하우징(Co-Housing) 개념을 도입한 토지이용계획 • 귀촌민의 일자리 확보 및 소득의 안정화, 지역민과 화합 동화를 위한 생태마을 대안 제시

3) 안솔기 생태마을

〈표 IV-18〉 안솔기 생태마을현황

소재지	경남 산천군 신안면 외송리
마을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전임지와 준농림지 약 136,125m² • 주택 : 가구당 배정된 200평 부지에 60평 이하, 높이는 처마가 7m이하로 제한. 친환경재료를 사용하며 태양열 집열판 설치. 자연에너지를 충분히 사용하도록 디자인 • 간디학교 • 하수처리 : 집집마다 정화식물을 이용한 정화시스템 이용. 음식쓰레기는 퇴비로 활용 • 2개의 공동주차장

소재지	경남 산천군 신안면 외송리
공동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공간 : 마을녹지 및 산책로, 연못 등의 공유지는 마을 총가구 공동명의로 등기 • 마을 공동 사업 : 경옥고를 생산. 수익금은 마을 단합대회, 하수정화수생식물을 공동 구입하거나 마을 비상약품 구급함 등을 구입하는 등의 공공활동에 사용 • 지역화폐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빵과 유정란 : 간디학교 아이들이 직접 만드는 빵에는 간디 유정란 농장에서 생산되는 무공해 유정란이 들어가는데 그 값을 빵으로 지불 - 트럭과 유정란 : 닭 사료 조달을 위해 15일에 한번 트럭이 필요한데 이웃 주민의 트럭을 빌리고 유정란 두 꾸러미로 사례 - 피아노와 유정란 : 피아노를 잘치는 간디학교 학생에게서 일주일에 이틀 피아노 교습을 받고, 그 학생 부모에게 한 꾸러미의 유정란으로 답례 - 유기농산물과 닭똥 : 닭장에 남은 질 좋은 계분 퇴비는 주변 귀농자들의 논밭의 비료로 사용되고 유기농산물로 그 값을 대신 • 마을의 모든 결정사항은 한달에 한번씩 열리는 마을주민회의를 통해 결정됨

4) 호주, Crystal Waters

〈표 IV-19〉 Crystal Waters 마을현황

소재지	호주 퀸즐랜드주 멜러니시 근교
마을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259ha, 인구 약 200명 • 부지의 14%는 개인소유, 6%는 방문자를 위한 마을, 80%는 공유지 • 토지 이용은 농경지, 도로, 공익사업부지, 빌리지센터, 직업과 Entrepreneurial 활용용도 •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건축재료는 목재, 다진 흙, 진흙벽돌, 가압벽돌 등 - 태양열 집열관 및 온수설비, 분뇨를 퇴비화할 수 있는 화장실 설비 • 생태디자인 전문가 그룹에 의해 계획 • 방문객을 위한 텐트촌, 상업시설, 조류탐조 등 여행 프로그램 개설 • 도로, 호수, 토지 등 공공재산의 유지와 보존에 마을민이 동등하게 기여
공동체 활동	<p>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ystal Waters의 생태공동체 Sustainable Futures에서는 전세계를 돌며 Permaculture Design Course라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 인간에게 식량, 에너지, 거주지 등 물질적·비물질적 요구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공급하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통합을 목표로 함 • 이 주거지의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는 법인제도와 같은 법규를 준수해야만 거주가 가능

소재지		호주 퀸즐랜드주 멜버니시 근교
공동체 활동	The Body Corporate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적으로 Body Corporate에 속해 있다. 지난 88년 공동주거지의 설치운영에 따른 관련법규가 마련됐고, 생태공동체는 이 법에 근거해 자체 내규(By Laws)를 만들어 공동의 재산을 관리하는 등 공동체를 운영한다. 법규에 따라 공동체 주민들은 매년 대표들을 뽑고 대표들이 중심이 돼 Body Corporate를 운영한다. Body Corporate는 공동체에서 주요한 의사결정을 한다.
	Cooperative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commodation and Caf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자를 위한 캠핑장소(야영)와 숙소제공 및 오락시설 - 합숙소, 오두막, 홈스테이(homestay) - 다량의 음식 제공 • For Hire :식당(Kitchen)과 오락을 위한 서비스, 교육이 가능한 장소 • Time Out : 마사지와 수플 위의 산책, 수영, 이곳 친구들(사람과 동식물)과의 만남 제공 • Groups : 특별한 단체를 위한 교육과 방문

5) 독일, Kiel-Hassee

〈표 IV-20〉 Kiel-Hassee 마을현황

소재지	독일 북부 슬레스비히 홀스타인 주에 위치하고 있는 킬의 남부 도심으로부터 3km 떨어진 곳
마을계획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조건의 통합 : 햇볕을 이용한 에너지절약 배치계획 • 자연과의 통합 : 투수성 포장재료의 사용과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 우수처리 : 비오톱 공간을 확보함 • 용수에 대한 개념 : 갈대를 이용한 하수정화 • 건축재료 : 진흙이나 목재를 주로 사용함으로 사용 후 자연의 순환에 적용
공동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위원회 : 매우 민주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단지의 생태학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요구사항들을 최대로 만족시킴 • 연립주택단지 : 공동체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주거단지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일단의 사람들에 의해 조성

바. 생태건축 시스템 : 생태마을 구성과 건축

1) 집터 찾기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산을 뒤에 두고 집앞으로는 개울이 흐르는 양지바르고 동·남향으로 집을 지을 수 있고 길을 낼 수 있으며 높은 산을 등질 필요는 없으며 작은 언덕 일지라도 지대가 약간 높아 배수가 잘 되는 곳이면 좋다.

2) 집짓기 : 자연소재, 지역소재를 최대한 활용

심벽구조집, 흙벽돌집, 귀틀집, 토담집, 초가지붕, 억새·갈대 지붕, 너와 지붕 등 자연소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소재의 울타리, 목재를 활용한 대문, 다양한 품종의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마당, 처마와 일조 등의 요소가 필요하다. 출입문을 크게하여 맞바람을 통하여 냉방효과를 높일수 있으며 부채고래, 맞선고래, 구분고래, 줄고래모양의 구들과 자연발효식 변소 또한 필요하다.

3) 영국 레이스터 Eco-House에 도입된 시설물

〈표 IV-21〉 Eco-House 도입시설물

영역	내용
태양열 에너지 (Solar energy)	태양열 주택, 태양열 가열 시스템
에너지 효율 (Energy efficiency)	에너지 효율 상담 센터 주방에서의 식기세척기는 퍼지시스템으로 온도와 물조절을 하며 타이머조절로 전기사용량이 적은 때를 맞추어 사용가능 틈새바람 막는 문 세차 시 호스 대신 양동이 사용 고효율의 집중식 가스 보일러 에너지 방출을 막는 커튼 설치 집전체 내부의 공기흐름이 자유로운 통풍구조 풍력발전기

영역	내용
낮은 에너지 설비 (Low energy appliances)	물을 끓일 때 전기 주전자 사용 절수형 샤워시설 절수형 화장실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고효율 압축전구
쓰레기 재활용 (Waste recycling)	주차장 옆에 재활용품을 모으는 창고 연타과 같은 연로로 재형성 주방에서의 재활용과 콤포스트화 건축시 재활용 자재 사용 건축시 절토로 생기는 표토는 정원에 다시 사용
청정제품과 가구들 (Green products and furnishings)	인산염을 포함한 세제 제품은 사용하지 않으며, 천연 세제 제품을 사용함 자연재료를 사용한 가구
생태적 정원 (Ecology gardening)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구성 자생 식물 정원 여우를 포함한 6종의 포유류가 있음 유기적 작물재배, 테라스 정원 곤충원, 나비정원 콤포스트, 습지 및 연못 퍼머컬처 적용 : 채소 등의 작물 재배 과일 재배 지역 부엌에서의 오수를 연못의 갈대군락으로 정화
전시장 (Displays)	에너지 절감, 환경 고려, 건강서 유지, 비용절감을 위한 제품을 방문객들이 보기 쉽고 그 체계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구성(각 방에는 터치스크린이 있음)
Energy playground	태양열, 풍력을 이용한 에너지 활용 놀이공간
Eco-shop	재활용품, 중고용품 판매 수 천개의 환경친화적 제품 판매
Refreshments	카페에서 제공

사. 핵심추진과제(적용 가능 모듈 실험 및 적용 과제)

1) 생태습지 조성 및 우수저류 시스템을 통한 수순환체계 구축 연구

습지 조성 및 안정화(3년), 습지의 비점오염 관리 실험(오염원별 실험), 우수저류 시스템 Pilot 적용 모듈 개발을 연구한다.

2) 공공용지를 활용한 생태에너지 확보 시험연구

공공건물 및 공공용지를 활용한 태양에너지 보급, 지력발전 및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가정 및 농업 난방 시스템을 연구한다.

3) 생태건축과 전통건축의 통합 시험연구

4) GIS를 활용한 그린네트워크 조성 연구

광역권, 중소권역 그린네트워크 구축을 연구한다.

5) 지질에 따른 유기농업 적용성 연구

6) 유기축산 시스템 구축

생태적인 축산 시스템, 폐기물 처리 연구를 한다.

7) 생태기반환경의 계획 및 설계

자연 지형의 복원과 토양 활용, 식재층 조성 등 지형의 계획 및 설계, 바람길을 확보하기 위한 기후의 계획 및 설계, 토양환경 및 방수조성 기법을 연구하기 위한 토양의 계획 및 설계, 수리·수문의 계획 및 설계를 한다.

8) 생물타리 조성 시험 연구

생물타리 조성 계획 및 설계, 관목덤불림 및 교목림의 계획 및 설계를 연구한다.

9) 벽면 생물서식공간화 실험 조성 연구

등반유형별 실험지 조성, 식재기반, 등반보조재, 관수 및 배수설비의 적합성 실험 및 개발을 연구한다.

10) 옥상녹화 시스템 실험 연구

옥상녹화시스템 개선 및 개발, 건물의 안전성 확보, 배수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바람의 저항 저감 방안,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성 기법을 연구한다.

V. 결론

이상에서와 같이 농촌어메니티 개발에 관한 연구를 함에 있어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도·농교류에 대한 유형별 사례의 분석·연구를 통하여 무엇보다 먼저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사례의 선정이 중요하다는 점, 다시말해 농촌어메니티 향상을 위한 새로운 수요창출과 농촌어메니티 환경조성을 이룩하여 농촌과 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회제공이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다시 농촌에 재투자가 가능한 선순환적 농촌발전조건을 조성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농촌어메니티 연구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보다 현실적인 학습대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특히 기존 연구들이 개념정립이나 이론적 측면 또는 사례중심으로 농촌관광체계를 논의하는데 반해 본 연구는 농촌을 기반으로 한 농촌관광모형 개발에 있어서, PBL기법과 문제해결프로세스를 활용하였다. 예컨대 농촌어메니티 사업과 관련하여 PBL학습기법을 적용, 농촌관광 모형의 단초를 찾고, 그 지역 어메니티 환경이 어떠한지를 3개의 가설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3개의 가설 중에서 더 알아야 할 사실에 중점을 두고 여기에 ‘문제해결 프로세스’ 기법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 농교류를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가 촉진되었다. 즉 지역 외부로부터의 관광수입이 발생하고 그것이 지역내에서 순환하며 관련산업에의 파급효과가 발생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 도시민과의 교류증대는 농촌주민의 의식수준을 높여주며, 도시주민의 농촌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며 더 나아가서는 도시주민의 농촌이주계기를 제공하였다.

둘째, 외국사례를 종합하면 농촌관광산업의 민간조직 활동이 활발하였다. 즉 농촌관광이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되어 있으며, 농촌관광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업계 종사자들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한 민간조직이 활발하였다. 특히 농촌관광의 품질관리, 홍보, 마케팅, 경영자의 교육 등은 민간공급자 조직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셋째,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사업의 육성으로 농촌이 활력을 얻게 되었

다. 즉 농촌이 국민 모두에게 열린 주거공간, 산업공간, 여가휴양공간으로서 기능하도록 정비함으로써 농촌도 활력을 얻게 되었다.

전북 진안군 능길 마을의 경우, 테마형 농촌관광마을 개발모형 정립을 통해 도 농상생의 공간, 노 장 청의 융합공간으로서 농촌의 가치를 재발견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생태적 농촌어메니티 모형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함에 있어 우선 생태마을의 구성요소를 인식하고 이에따라 자립성, 순환성, 다양성, 안전성을 생태마을 조성의 기본목표로 설정하여 물질순환이 원활한 마을, 자급자족이 가능한 마을, 자연생태계가 잘 유지되는 마을, 환경오염을 유발시키지 않는 친환경적인 마을을 조성하여 농촌과 도시가 함께하는 생태적 농촌어메니티의 가치실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1. 바람직한 농촌어메니티개발 향상방안

농촌경관을 보호하면서 농촌마을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농촌경관의 중요성인식을 바탕으로 전제로 하되, 마을경관 원칙을 설정하여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기본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우선 농촌내 산재하는 자연경관자원과 문화경관자원의 가치와 특성에 따른 차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농촌경관을 보전함에 있어서 건축행위를 비롯한 각종 개발행위를 허용한 후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규모 및 외관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보다 근원적으로 개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의 형질변경, 입지의 선정 등과 같이 사전적 차원에서의 규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바람직한 농촌어메니티 개발향상방안으로 첫째, PBL기법에 의한 마을조직 집단프로그램과 농촌조직을 활성화하고 둘째, 농촌어메니티의 가치창출을 위한 산학협력형 모형개발추진 셋째, 마을의 자연환경, 주민, 생활 및 생산공간, 마을조직과 공동체 등의 마을구성요소와 더불어 생태적인 농촌어메니티 모형개발 조성추진 등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가. PBL기법에 의한 마을조직진단 프로그램 및 농촌 조직 활성화 방안

PBL모형 및 마을조직진단 프로그램에 의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농촌정비사업과 관련된 사업지침, 법률, 조례의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마을주민 참여에 의한 지역자치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마을주민에 대한 의식교육(사전 진단이 필요)은 물론 도시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 알거리, 놀거리, 할거리, 일거리, 팔거리 등 8거리개발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어메니티자원 발굴을 통해 도·농 교류활동의 거점 정비, 농산어촌 환경·자원 등의 활용 및 경관정비,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계기마련과 동기부여, 마을주민이 중심되는 어메니티 경관 영농조합법인 설립 등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PBL모형은 지역 활성화를 추구하는 농촌지역은 지니고 있는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모형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 지역별 당면 현안에 따라서 주민의식과 가치관도 다양하게 반영 할 수 있다. 따라서 활성화의 추진방향 검토 및 결정은 농촌지역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자주성과 창의·노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모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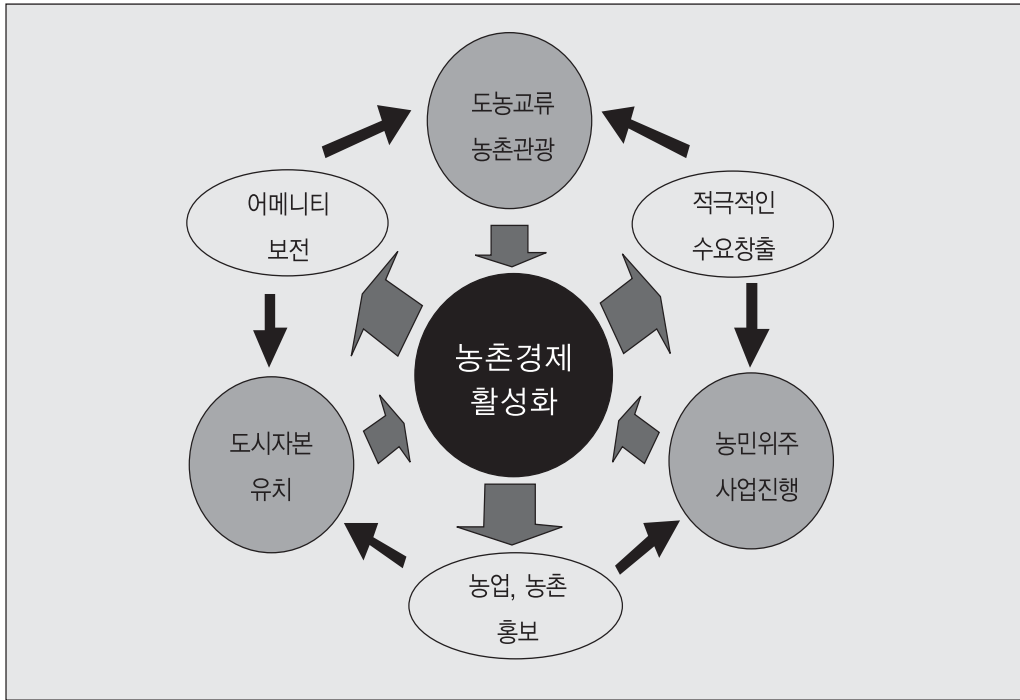
오랜 시간을 통하여 형성된 농촌마을의 자연경관과 역사환경의 이미지와 마을주민의 의식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모형이다.

PBL모형의 효과적 운영과 활발한 전개를 모색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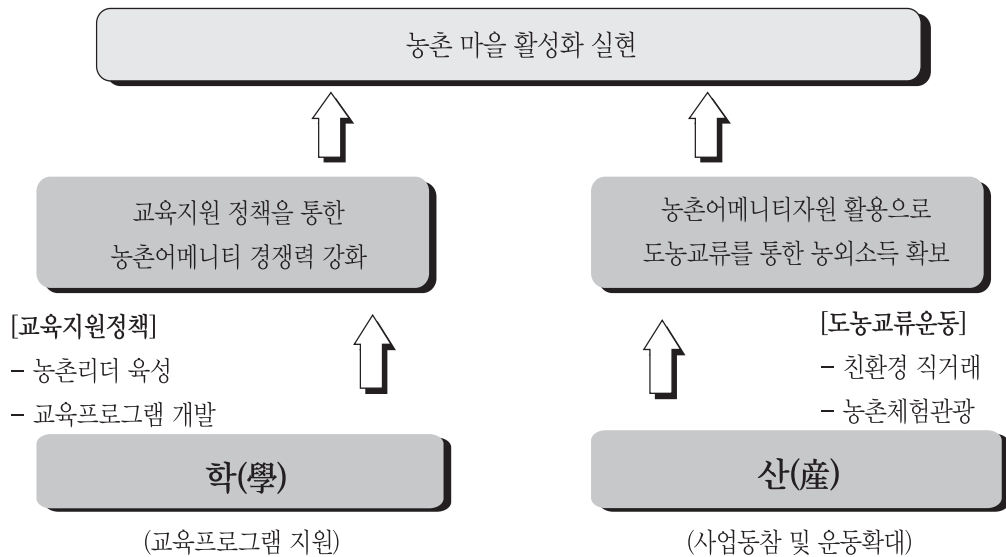
첫째, 지역단위 종합계획 및 마을단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적이고 구체적이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지역적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농촌어메니티 향상을 위한 8거리 개발과 실천프로그램의 접목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계획적이며 효과적인 실천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 수요창출과 여건조성을 통해 농촌개발 사업이 활성화되고 농민 사업 역량을 향상하는 기회 제공
- 이를 통해 농촌경제가 활성화되고 다시 농촌에 재투자가 가능해지는 선순환적 농촌발전 조건 조성



이 모형은 농촌활성화를 위해 경관보전, 농촌수요창출, 홍보가 삼위일체가 되어 도시자본을 유치하고 그린투어를 실시하고 농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모형이다. 이 방법론으로 경관자원인 8거리를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나. 산학협력형 어메니티 향상모형개발

산학협력형 어메니티 향상모형사례를 통하여 농촌의 중요성을 농업인 스스로가 깨닫고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수단이 될 뿐 아니라, 젊은 농촌인력양성과 향후 소득원으로서의 농촌관광, 농촌개발에 대한 교과과정의 전문화, 실천적 체험적 교육현장으로 도약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촌어메니티와 삶의 질 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것이다.

PBL모형의 수준향상이 사업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를 위해 경관기획, 경관프로그램의 작성, 경관전개방법, 경관유형화, 경관실시계획, 어메니티상품화, 경관관리인재육성계획, 조례 및 운영, 경제성 등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농촌경관의 가치와 특성은 각각 형성되는 장소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 경관의 보전가치와 관련해서는 주관적인 판단이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농촌경관요소 및 자연생태계의 양호성에 따라 등급화하고, 보전할 경관대상인 주요 경관자원에 따라 관리의 방향이 차별화 되어야 마을경관을 차별화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와 더불어 산학협력이 필요하다. 마을이 잘살고 경관어메니티가 보전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정책분야에서 농촌리더 육성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 친환경직거래와 농촌체험관광과 같은 도농교류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특히 교육지원분야는 매우 중요한데 다양한 교육활동과 현장체험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인성의 발달을 도모하고 창의성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해야 한다.

운영 방침으로는

재량활동 운영: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과 학생의 요구에 따른 창의적인 교육 활동과 재량활동의 지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재량활동의 시간운영: 재량활동의

성격과 학교의 여건, 장소 및 시설 고려와 교과 활동 시간에서 경험할 수 없는 직접적인 체험활동 및 학습의 개별화,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적 활동도 고려되어야 한다.

다. 생태적 농촌어메니티 향상을 위한 지역생태마을 조성모형개발

농촌경관의 양호성에 따라서는 국가적 농촌경관보전지역과 지역적 농촌경관보전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요 경관자원과 관련해서는 산악경관, 수변경관, 해안경관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우리나라의 농촌경관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를 도모함에 있어서 각각의 유형별로 적절한 관리 및 운용지침이 수립되어야 한다.

주요 경관자원이 형성되어 자원 그 자체를 보전하여야 하는 보전지역과 더불어 해당 경관자원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점이나 조망축(조망회랑포함)을 보전할 목적으로의 관리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도 위에서 언급한 차별적인 접근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 될 것이다.

생태모형은 다양성과 생태성 그리고 미래성을 기반으로 도농이 상생하고 더불어 영위해나가는 모형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자립, 순환, 안전, 형평을 추구하는 것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농촌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발행위를 규제하고 허용된 개발행위에 따라 건축되어지는 각종 건축물 및 구조물에 대해서 건폐율, 용적율 등의 건축물의 규모와 층고, 외벽의 색채 등 건축물의 외형적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또 농촌경관이 현세대와 다음세대를 함께 배려하면서 이용하여야 할 공공재의 일부인 환경재(環境財)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어메니티자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토지의 소유자이거나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손실 내지는 상대적 박탈감을 보상해주어야 경관보전과 생태모델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경제적 지원을 배제한다면 결국 각종 지구 지정시 나타나는 현상으로 개발계획에 따른 님비프로세스와 마찬가지로 계획을 추진하기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생태마을을 조성 운영함에 있어서도 자연경관보전지역내의 주민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규제일변도의 관리보다는 공공시설의 설치지원 및 주



민의 소득증대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농촌경관보전지역내의 취약지에 대해서는 농촌경관마을로 지정함과 동시에 마을경관정비계획 및 소득증대계획을 수립 해야한다.

2. 기대효과

농촌의 활성화라는 것은 농촌이 지니고 있는 생산기능, 거주기능, 환경보전기능, 레크레이션 기능 등의 다면적·공익적 기능을 발전·강화시키는 방안이고 이것을 현상 상황에서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어메니티의 지역에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소득증대라는 경제적 부가가치, 일상생활의 만족도 향상이라는 사회적 부가가치, 농촌의 역사·문화 및 자연 환경의 질적 향상과 보전·활용이라는 환경적 부가가치, 주민의식고양을 통한 도농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로 경관을 중심으로 새로운 모형을 만들 수 있다.

본 고에서는 PBI모형을 통해 마을을 가꾸는 다양한 시스템의 역할정립과 산학모형을

만들어 기업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농산어촌활성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지역발전의 올바른 방향을 수립하고 아름다운 농촌지역의 경관을 형성/유지하면서 지역의 잠재적 어메니티 자원을 발굴하여 가능한 많은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농업·농촌의 문제해결은 농촌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시와의 공존의 문제이며, 국가적인 문제라는 점을 모든 도농이 공동인식하고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많은 관심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야 어메니티와 마을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결국 어메니티는 오랜 시간을 통하여 형성된 농촌지역의 자연경관과 관광환경의 이미지로 하루아침에 쉽게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 경제적인 논리만을 앞세워서 인위적이고 무조건적인 개발만으로 확립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농촌어메니티사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활발한 전개를 모색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마인드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농촌어메니티사업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실시할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촌어메니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적이고 구체적이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농촌어메니티사업의 도시민 측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지역적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장기적 안목으로 추진돼야 하겠다.

“최고의 지역”을 만들겠다는 것보다는 “유일한 지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농·산촌다움이 없다면 성공할 수 없으며 지역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농촌어메니티사업의 정책적 추진을 위한 실천프로그램의 개발과 접목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계획적이며 효과적인 실천성과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실천해 나가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 ① 농촌어메니티사업 주체의 농촌체험시장에 대한 기본 수요조사를 해야 한다. 농촌어메니티사업을 통한 농촌 방문에 대한 관심과 얻고자 하는 도시민들의 소비욕구, 농업체험, 자연체험, 전통체험 등의 실태와 사업추진 의향, 농촌 지역에서의 숙박경험과 체재휴양 의향, 도시민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농촌의 모습과 관광형태를 파악해야 한다.
- ② 어메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환경 정비 및 개선사업계획 수립과 실천을 해야 한다.

다. 환경친화적 정비사업을 전개하고 마을 골격에서 생태적 요소 강화 및 지역의 농업생산과 연계하여 생태적 가치를 도입을 통해 전통적인 농경마을의 환경친화적 요소 유지와 보존하고 농촌경관 정비 및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지역경관의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점검 및 조사, 새로운 경관자원의 발굴평가 및 활용 가능성과 타당성 검토, 농·산촌지역의 고유한 생활상이나 특성화된 지역상을 역사와 풍토를 고려하여 구축한다.

- ③ 도시민 만족을 위한 농촌어메니티시설의 체계적인 도입과 확충해야 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관광시설 도입과 확충을 전제로 기본적인 관광시설인 농가민박, 레스토랑, 농산물 판매소 등을 건설한다. 농촌어메니티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개발 잠재력을 가진 지역자원시설을 효과적인 개발하며 리모델링화하여 자연적인 분위기를 연출해야 한다.
- ④ 시장선호도가 높은 상품개발과 홍보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유·무형의 다양한 농촌문화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 관광농원에서의 활동 : 과일따기, 감자캐기, 민속놀이 등
- 체험농원에서의 활동 : 동식물 채집, 버베기, 식물 및 곤충 관찰채집 등
- 농산가공 활동 : 김치 담그기, 떡 만들기, 과실통조림 만들기 등
- 도시교류 활동 : 농업생산행사 참여, 유적지 시찰, 예절 배우기 등
- 판매 활동 : 무공해 농산물판매, 향토음식판매 현장체험 및 학습의 장으로 개발
- 도시주부형, 청소년형, 비농업 성인형 등 대상계층을 세분화
- 각 체험자들의 특성에 따라 유형을 달리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 축제와 견학·여행 등의 활동과 자연스럽게 연계

- ⑤ 공격적인 홍보체계의 구축 강화가 필요하다. 다양한 홍보물의 제작과 배포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디자인, 내용구성, 인쇄수준을 개선하고, 서울이나 인근 도시 등에 배포한다. 인터넷을 통하여 마을에 대한 소개 및 최신정보를 실시간 혹은 주기적으로 제공하며, 지역이벤트와 연계하여 홍보전개하고 마을 자체 소규모 이벤트 개발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 ⑥ 지도자 양성과 교육 훈련을 한다. 농촌지역관광의 지도자 양성 및 차원의 녹색농촌체험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 교육을 통해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사심이 없이 녹색농촌체험을 추진할 수 있는 농촌지도자의 육성이 필요하다.
- ⑦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및 업무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선진지 체험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근거 법의 마련과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구성을 통해 지역의 농촌어메니티사업의 효과적이고 추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와 관련한 제도적 법률적 기반의 마련과 관련 업무를 전담기구 등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전략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농촌어메니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본 요코데시의 경우 산업과에 도농복합 협력사업체가 설치되어 조직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농촌어메니티개발모형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첫째, 도시소비자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의 증진이다. 도시소비자들로 하여금 농촌현장, 특히 친환경농업에 대한 견학과 교육, 농사체험, 일손돕기 등을 통해 농업(임업), 농촌(산촌)의 다면적 기능과 농사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친환경농업과 우리 농산물의 중요성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둘째, 농사 체험수확과 농장직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다. 도시소비자들이 체험농장에서 수확구매(Pick-your-own) 또는 단순 구매하거나 소비지 직거래장터를 통해 농산물을 직거래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또 다른 유형의 농가소득 증대 기여부분은 파종기, 수확기 등 농번기에 도시소비자 및 청소년들이 일손돕기를 함으로써 농가 입장에서 인건비가 절약될 뿐만 아니라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셋째, 도시민들의 농촌 지역 방문과 민박, 식사를 통해 농촌지역이 활성화된다. 도시의 소비자와 청소년들이 농촌현장에 방문하여 농가 또는 농장 수련원 등에서 민박 또는 식사를 하고 농촌지역의 농산물뿐만 아니라 지역특산물을 구매함으로써 농촌지역경제

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넷째, 도시민과 농촌주민들의 만남을 통해 농업인과 소비자의 연대의식이 제고되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농업인들과 소비자들의 만남을 통해 자매결연을 하거나 지속적인 상호교류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농업인과 소비자간의 연대의식과 신뢰성이 제고되고 정서적, 심리적 장벽이 해소되어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

다섯째, 농업인과 농촌주민들의 시야가 확대되고 농사와 향토자산, 농촌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재인식하게 된다. 농업인과 농촌주민들은 도시 소비자와의 상호교류를 통해 시야를 확대하고 직업으로서의 농사와 지역의 향토자산, 문화자산, 농촌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된다.

여섯째, 우리 농산물의 홍보 확대와 환경·농지 보존운동의 확산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우리 농산물, 특히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홍보 프로그램의 추진, 환경과 농지의 보존운동을 통해 환경과 농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효과를 기초로 실제 농촌어메니티 협력사업 추진으로 나타난 직접적이고 계수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효과와 참가자들 및 사업 추진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구분하여 효과를 정리하였다.

농촌어메니티사업은 어려운 농업·농촌·농민의 문제를 도시민과 행정의 파트너십을 통한 총체적차원에서 해결하는 메커니즘이다. 또 매년 수많은 시민의 참여로 다양한 구성원의 이해와 실천중심 활동에서 그 의의를 크게 찾을 수 있다. 농촌어메니티 사업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시민단체와 농민, 행정이 삼위일체된 사업으로서 매년 전개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점점 열악해 가는 농업·농촌농민 문제를 우리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해결하려는 구조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0년대 이후 1990년대부터 두드러진 지방화, 민주화의 시대적 흐름과 어려운 농업현실이 농촌어메니티사업을 만든 배경이 된다. 도시와 농촌은 밀접한 사회적 지역적 친화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촌어메니티사업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거버넌스 형태로서 중요한 실험의 장이 되고 있다.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역량형성(Capacity Building)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많다. 무엇보다도 각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농촌어메니티사업이 그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가장 잘 살리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21세기 환경비전’ 이자 ‘환경친화적 생활의 실천지침’으로 자리잡게 하는 것이다.

이제 농촌어메니티사업의 현주소를 냉철히 파악하고, 길게는 아직 농촌어메니티사업 추진의 여건과 역량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기초자치단체들(특히 군지역)의 경우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추어 실현가능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그 성과를 하나씩 축적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부록〉 외국의 농촌어메니티 성공사례

1. 일본의 농·산촌 그린투어

가. 아키타현 요코테

일본 요코테(横手)는 동해와 접하는 아키타(秋田)현 내륙에 있다. 도쿄에서 신칸센으로 약 4시간이 걸린다. 쌀과 사과, 미인이 아키타현의 3대 명물. 이 명물을 빼고 요코테를 이야기할 수 없다. 자연스레 요코테는 쌀과 사과를 주제로 한 축제가 일찍이 생겨났고 이 축제가 그린투어로 이어지고 있다.

인구 3만9천명의 요코테에는 중심부에 도시가, 외곽에는 농촌 마을이 형성돼 있다. 이 때문에 유럽이나 우리나라에서 본 그린투어 형태와 차이가 있다. 다른 곳에서는 찾



벼단과 가옥이 잘 어우러진 요코테 전경(위 사진). 훈제 무절임을 만드는 과정(왼쪽 아래)과 어린이들이 벼베기 체험을 하는 게 이곳 그린투어의 하나다.

〈요코테 전경, 훈제 무절임 만들기, 벼베기체험〉

아보기 힘든 독특한 형태의 ‘도시형 그린투어’ 모델이 되고 있는 곳이 바로 요코데다.

1) ‘도시형 그린투어’의 모델

요코데에서는 도시민들 중 농지가 없어 농업을 체험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3평에 1,000엔(1만2백20원)을 받고 1년 동안 농지를 임대해 주는 시민농원이 있다. 도시민들은 시민농원에서 농업을 체험하고 스스로 익히며 농업의 소중함과 생산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요코데의 시민농원은 독일의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시민농원)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독일의 경우는 아름다운 소정원에 치중하고 있지만 요코데시는 농업 체험과 식량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민농원에서 만난 다카하시는 “이 농원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야채를 생산해 식품비를 약 30% 정도 절감한다”고 말했다.

요코데의 그린투어리즘은 농업과 도시민 사이에 전통문화를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실례로 기자가 요코데를 방문했을 때 이곳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벼베기 체험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벼베기와 벧단썰기를 통해 지역에서 하는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벼농사를 체험한다.

요코데에서는 벼와 함께 유명한 사과를 그린투어의 적극적인 소재로 활용한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사과나무 오너제. 산나이무라(山内村)에 있는 농장의 경우 전체 2ha(5,000주)의 사과나무 가운데 50그루를 도시민들에게 한그루당 1만5천엔에 분양했다.

2) 농지임대 시민농원 운영

농장주인은 이 사과나무를 정성껏 길러주고 도시민들은 10월 말 농장에 와 사과를 따는 체험을 한다. 그 나무에 사과가 많이 열리면 많이 열리는 만큼 모두 분양받은 사과주인에게 주는 것이다.

큰 사과가 나지않는 한 분양가의 2배 값어치되는 사과가 열린다고 한다. 사과 수확을 할 때 사과 식초 만드는 체험도 한다. 사과 식초통에 이름을 적고 떨어진 사과를 통에 씻어 넣으면 농장에서 관리해 다음해 5월쯤 천연 사과식초를 선물로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도시민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해진다.

3) 사과나무 오너제도 실시

요코데 그린투어연구회에서 활동중인 요코데 시민시장 마츠이 사장은 “그린투어 연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시민들이 참여해 요코데의 그린투어 활성화와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코데에서는 이밖에도 전통 축제를 활용한 그린투어, 훈제 절임 무 생산, 산에서 생산되는 약초원 운영, 온천과 스키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린투어 프로그램도 있다.

시라이 히고에(白井彦衛) 지바(千葉)대학 명예교수는 “일본은 그린투어리즘을 통해 전통적인 농정을 개혁하려 한다”면서 “다양성과 지역 특성, 주민 참여에 의한 그린투어 정신은 농촌사회 발전에 하나의 전환점이 된다”고 말했다.

나. 니가타(新潟)현 야스즈카마치(安塚町)

야스즈카마치(安塚町)는 도쿄에서 약 3시간 30분 걸리는 니가타(新潟)현 남서부와 나가노(長野)현의 경계 지역에 위치한 산촌이다. 바다와도 가까워 주변 산에 오르면 동해 바다가 한 눈에 들어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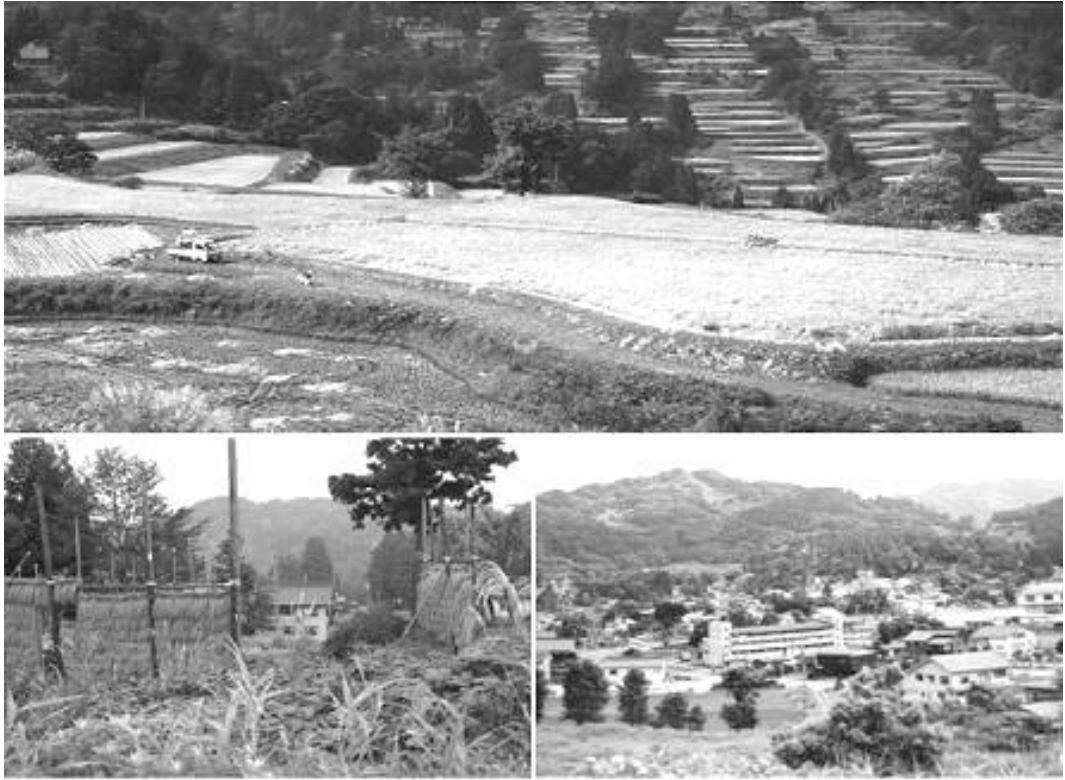
인구는 약 3,700명, 면적은 약 70km²로 서울의 9분의 1 크기다. 너도밤나무가 유난히 많은 이곳 청정 농촌에서도 그린투어가 한창이다.

이곳 그린투어의 테마는 눈사람(유키다루마)이다.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눈사람을 주제로 한 그린투어가 일찌감치 자리잡았다.

1987년 트럭 450대로 야스즈카의 눈을 공수해 도쿄돔에서 스노 페스티벌을 한 것은 상상력과 창조력 면에서 대단한 발상이었다. 흥행에서도 대성공을 거뒀다. 약 15만 명이 한겨울에도 눈을 보기 힘든 도쿄 한가운데서 신비로운 설국을 만끽했다. 이 행사로 야스즈카는 일본 이벤트 대상을 수상하고 일약 주목받는 그린투어 중심으로 떠올랐다.

1) 대도시 어린이들에 인기

1990년대 들어서는 눈을 이용한 이벤트 내용을 바꾸었다. 눈으로 뒤덮인 농촌 경관을 도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린투어를 겨울에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



자연 경관이 뛰어나 일본 다랭이는 100선에 선정된 야스즈카 다랭이는(사진 위), 독특한 방식으로 벼를 말리는 모습(왼쪽 아래)과 야스즈카 마을 전경. /유상오전문위원

〈야스즈카 다랭이논, 벼 말리는 모습, 마을전경〉

이다. 눈으로 다양한 형상을 만드는 체험이나 가마쿠라(이글루와 같은 눈 집)를 만들기도 한다. 눈 집에 들어가 고구마나 쌀떡도 구워먹을 수 있어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 어린이들에게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야스즈카에는 큐피트밸리라는 스키장이 있다. 지난 시즌 일본 야후가 선정한 3대 스키장으로 선정됐다. 눈의 질이 좋은데다 다양한 체험 행사를 즐길 수 있고 민박도 가능하기 때문에 도쿄에서도 관광객이 많이 찾는다. 이 스키장은 야스즈카 지자체가 출자해 만든 스키장이다. 우리나라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스키장이나 골프장이 없지만 일본은 지자체가 수익사업도 한다. 현재 20여명의 직원을 고용해 운영하는 큐피트밸리 스키장에는 연간 30만명의 고객이 방문, 흑자를 보고 있다.

2) 눈 담아뒀다 여름철 냉방

또 눈을 활용하는 기발한 발상으로 체육관, 학교 같은 공공기관의 냉방도 해결하고 있다. 다키자와 과장은 “학교 같은 공공건물의 냉방에 눈을 활용하는 것은 세계 최초”라고 자랑했다. 눈을 지하 냉동 창고에 담아두고 7월과 8월에 여기서 나오는 냉기를 순환시켜 천연 냉방을 하는 방식이다. 냉방비 절약은 물론 주민의 반응도 꽤 좋다.

야스즈카에서는 봄부터 가을까지 다랭이논에서의 농사 체험에서부터 계곡 낚시, 새몰이 전통놀이, 산악자전거타기, 오리엔탈링, 등산, 포도체험, 허브체험 등 다양한 종류의 그린투어를 체험할 수 있다.

3) 다랭이논 농사체험

이 중에서 다랭이논에서 하는 농사체험이 백미다. 야스즈카의 다랭이논은 일본 다랭이논 100선에 뽑힐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야스즈카 다랭이논의 특징은 전형적인 일본 중산간 지역의 계단식논 형태를 띠고 있다.

다랭이논 면적은 약 29ha로 최근에는 농사가 어렵게 되자 그린투어를 활용해 도시민이나 어린이들의 농사체험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랭이논에서 만난 마을주민 이리에는 “다랭이논을 활용한 그린투어는 수려한 농촌 경관을 지키면서 쌀생산, 물관리 등 다양한 농촌체험을 할 수 있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 군마(群馬)현 가타시나(片品)

군마(群馬)현 가타시나(片品) 마을은 습지 자연환경을 활용해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작은 산골이다. 도쿄에서 자동차로 약 3시간 걸린다. 총면적 392km²의 90%가 임야이며 인구가 6,000명도 안된다. 그나마 주민들은 줄고 있다.

가타시나 마을은 시라네산(白根山·2,578m)을 최고봉으로 하는 산악의 화산분화와 폭발로 인해 5개의 봉우리가 형성되고 그 사이에 습지가 만들어지면서 형성됐다.



등산객들이 나무로 만든 생태통로를 걸으며 오제 고원의 습지를 관찰하고 있다. /유상오 전문위원

〈오제 고원의 습지 생태통로〉

1) 오제습지엔 희귀식물 군락

일본 최대 규모의 오제(尾瀨)습지는 이렇게 탄생했다. 해발 1,400~1,700m의 평탄한 고원에 천연의 맑은 물을 담고 있는 작은 연못이나 습원이 매력적이다.

가타시나 마을의 그린투어는 철저한 자연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구불구불 흘러가는 하천과 폭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2,000m 산 등 모든 것이 천연 그대로의 자연이다.

오제습지의 유일한 인공구조물은 습원 보호를 위해서 가설한 목도(木道)와 관찰용 데크밖에 없다. 한마디로 자연에서 서식하는 동식물과 도시 사람이 오제라는 공간에서 공생을 하고 있다.

오제습지는 고원습지로서의 볼거리는 최고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가타시나 마을 사람들은 판단했다. 따라서 고원습지의 자연과 생태를 좀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그린투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가타시나 마을의 구와하라(桑原 和一) 경제과장은 “약 400개의 얇은 연못이나 늪에

서 자라는 희귀한 습지식물인 미즈바쇼(물파초), 닛코키스게(백합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를 비롯한 습지 식물의 군락과 주변 산지에서 자라는 눈잣나무와 너도밤나무의 원생림이 하나의 바이오톱(소생태계)을 만든다”면서 “어린이들에게 지역 전체가 하나의 생명공동체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 버섯재배등 20여가지 체험

가타시나 마을을 찾는 도시민 중에는 오제습지의 아름다운 경관과 자연환경에 감동해 자연보호주의자로 변해 도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1년에 약 60만명이 방문하며 이 중에 6만명 정도가 그린투어를 하고 있다. 주요 그린투어코스는 호타카지역의 목장체험, 마루누마지역의 호수 체험, 그리고 마을에서의 농사 체험이 중심이 된다.

농사 체험은 초·중학생들의 체험학습이 중심이 된다. 어린이들은 고랭지 무수확, 산채체험, 버섯재배, 짚신만들기 등 20여가지를 체험할 수 있다.

또 이 지역은 소바와 곤약이 유명하며 가타시나 특산의 수제비가 일품이다. 기자가 머문 도미모토라는 민박집에서 먹은 수제비의 맛은 한국에서는 맛볼 수 없는 섬세함이 있다.

수제비는 밀가루와 메밀 반죽을 섞어 만들고 국물맛은 돼지고기와 야채를 넣어 얼큰하게 만들었다. 민박집 주인인 호마루는 “이런 종류의 수제비가 이 지역 특산으로 내년 부터는 수제비 축제를 개최한다”면서 “한국에서도 그린투어 관광객들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3) 연소득 가구당 4억원 넘어

가타시나의 그린투어는 철저히 지역 자연환경을 활용하면서 농업 가치를 부가적으로 덧붙이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1차 산업에 종사하는 600여명의 마을 주민들이 약 18억3천만엔(1백86억원)을 생산하며 가구당 4억원이 넘는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연환경이나 생태환경이 뛰어난 지역에서 이런 형태의 그린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해 봄직하다. 또 농업과 환경을 적극적으로 연계하려는 가타시나 마을의 자세도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야 할 것들이다.

2. 유럽의 그린투어

가. 독일의 라인스왈러와 뷔센

우리나라 도시민들은 농촌을 식량 공급의 기지로 생각한다. 정부도 산업과 시장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해 농업·농촌이 갖는 비시장적, 비교역적 가치를 간과해왔다. 친환경 농업이나 그린투어리즘도 생산성 증대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시장 원리에 따른 경제논리만을 강조할 뿐 농촌·농업의 공익적 기능에는 둔감하다.

그러나 독일은 우리가 생산성 향상과 규모화를 외치는 동안 농업의 다면적 기능과 공익적 대안을 그린투어를 통해 모색해왔다.

독일에서 농촌은 농민들의 일과 생활공간이자 도시인들에게는 휴식과 여가공간이다. 지역향토자원과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데 정부와 국민이 함께 나서고 있다. 독일에서 진행되는 그린투어는 ‘농가에서 휴가를(Urlaub auf dem Bauernhof)’이라는 표어로 1960년대 이후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독일 민박이 우리와 다른 점을 몇 가지 살펴보자.

무엇보다 철저하게 개별 농가사업으로 전개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정부가 나서서 마을단위 협동체제로 마을가꾸기 사업을 진행하는 우리 사정과 크게 다르다. 독일은 개별 농가 단위로 체험과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농가 민박에서 가장 중요한 숙박시설을 예로 들어보자. 독일에선 민박집의 침대가 15개 이상이면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때문에 대부분의 농가 민박집은 10~14개의 침상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레스토랑, 캠프장, 농산물가공판매장 등을 별도로 갖추고 있다. 민박집 한곳에서 도시민의 체험이 모두 이뤄지는 형태여서 일정한 규모가 불가피하다. 우리 정부가 난립하는 펜션을 규제한다는 명분으로 8침상 이상의 민박집은 의무적으로 숙박업소로 등록토록 하는 규제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 독일의 경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독일 농가 민박에서 식사는 ‘B&B(Bed and Breakfast)타입’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방문객의 독자적 취사가 가능한 부엌이 딸린 것을 선호하는 추세다. 특히 어린이를 배려해 동물과 어린이놀이터가 늘어가고 있다.

독일 사람들은 대개 한곳에 1주일 이상 머무른다. 우리처럼 돌아다니지 않는 편이다.

체류하는 마을의 고유음식을 너나없이 즐긴다.

1) 독일의 배경 및 발전과정

독일의 녹색관광은 1960년대 후반 남부의 산악지대로 농업조건이 불리했던 바 이에는 주에서 시작하였다. 바이에른 주는 오스트리아에 인접한 알프스의 산악지역으로서 농업환경의 불리한 인구 과소지역이었다. 때문에 다른 주와는 달리 생산비용의 절감을 위한 대규모의 농업정책에서 벗어나 소규모 가족농업 중심으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편다.

그 결과 산비탈의 낙농·축산과 관광을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독일의 그리투어리즘이 탄생하였고 인접한 바덴 주, 뷔르템베르크 주의 농가가 참여하게 됨으로서 “농가에서 휴가를”이라는 농촌관광 형태로 보편화 되면서 최근의 농촌관광으로 정착됐다.

프랑스나 영국과는 달리 독일에서는 주로 녹색관광이라는 용어 대신 농촌관광(rural tourism) 또는 농업관광(agritourism)이라는 명칭을 사용

가) 관련조직 및 단체

관련조직으로 독일농업협회(DLG)와 소비자 보호·영양·농업부의 정보서비스 협회(AID), 독일농업협회, 독일농민연맹, 농업신용은행 등이 활동하고 있다.

(1) 독일 농업협회(DLG)

1885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농가에서 휴가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체, 농가의 숙박 시설운영이나 품질기준 지도한다. 1965년부터 농가의 민박사업에 관심을 갖고 민박상품의 규격과 품질을 통일시켜 현재의 DLG인증 민박을 육성하고 있다.

(2) 독일 농업협회의 품질 인증제도

농가민박의 질에 따라 등급을 두는 품질인증제도를 1972년부터 독일 농업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농업상담소, 농업종사자, 금융기관, 호텔 음식점 협회, 소비자 단체의 대표로 구성된 최대 9명의 위원들이 심사하며 매 3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는 객실, 라운지 등의 숙박시설, 급식시설, 화장실, 안전성, 전체적 이산, 휴양시설, 일반 관광객용 시설, 주위 환경의 쾌적성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3) 농업부 정보서비스 협회(AID)

농업보급 사업을 주 업무로서 농가민박 경영자들을 위한 농가민박 개설에 대한 지도, 민박에 대한 경영지도를 한다. 또 연수 프로그램의 운영과 보조사업등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제공으로 민박농가지원 한다.

(4) 독일농업연맹 산하에 농가민박 및 농촌관광연방협의회

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농촌관광 관련기관 및 단체를 포괄한다. 농가민박 촉진 홍보, 농촌관광 경영자 이해 대변, 주 정부 차원의 관련단체의 마케팅 활동 지원을 한다.

(5) 농업신용은행

민박경영에 대한 소요되는 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

(6) 농촌휴가센터

소비자와 공급자를 이어주는 온라인 서비스 및 잡지 발행, 자체 등급화, 손님이 추천하는 최고 민박선정, 공급자간 공동 마케팅 브랜드 조직



〈라인스와러〉



〈프랑스 리크위르〉

나) 정부의 지원정책

○ 보조금

- 개별농가 투자촉진 보조정책(EIP)
- 농업용자 정책(AKP) : 농가민박의 경우 침대수가 8개를 넘지 않는 경우
- 농업입차은행이 특별용자 프로그램

○ 저리용자 : 농업신용은행의 특별용자 프로그램

○ 기타 지원정책 : EC의 장려조치, 유럽

프랑스 부흥프로그램 특별 대부, 사업창조 프로그램, 입지장려 프로그램 연방의 장려책, 주의 장려책, 기타 사업상담 등

다) 녹색관광상품의 특징

독일의 녹색관광은 프랑스에 비해 소박하며, 농가에서 조용하게 휴가를 보내려는 이용객을 위주로 숙박과 레저형이 발달해 있다.



〈오스트리아 알마우〉

〈독일 농가민박 현황〉

구분	농업 종사자 (a)	농가민박 제공하는 농업종사자(b)	농가민박 종사비율 (b/a)	침대수	농가당 침대수
바덴뉘템베르그주	75,850	2,510	3.31	17,239	6.9
바이에른주	154,189	7,131	4.62	53,194	7.5
브란덴부르크주	7,008	206	2.94	1,836	8.9
헤센주	29,669	200	0.67	933	4.7
멕클레인부르크-포아폼메른주	5,176	178	3.44	1,360	7.6
니더작센주	65,650	1,071	1.63	6,450	6.0
노드라인웨스트팔렌주	56,366	287	0.51	1,382	4.8
라인란드-팔츠주	35,475	1,410	3.97	7,922	5.6
자르란드주	2,066	24	1.16	266	11.1
작센주	7,968	220	2.76	1,507	6.9
작센-안할트주	5,100	45	0.88	331	7.4
슐레스비히홀스타인주	20,706	1,343	6.49	12,716	9.5
튀링겐주	5,150	114	2.23	673	5.9
베를린 등 3개시	1,617	7	0.43	34	4.9
계	471,960	14,746	3.12	105,843	7.2

○ 농가숙박시설

농가민박의 중심은 침실과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B&B형태(Uralub mit fillstock)의 농가민박이 주류를 이룬다. 다른 유럽국가와는 달리 농가민박은 영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대출액에 관계없이 침대 15개 이하의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 두끼의 식사를 제공하는 Teil-pension, 세끼를 다 제공하는 Vol-pension 또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주방이 딸린 방을 빌리는 임대하는 주택형(Ferien-wohnung)이 있다.

○ 레저시설

- 공공시설 : 다목적 온천시설(Chre house)과 향토 박물관, 음악당
- 사유시설 : 농가의 사유시설로서 자동차 야영장(Camping car)

라) 최근의 동향

휴가 때 농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가족적인 유대관계와 시골의 조용하다. 어린이 놀이터, 스포츠 장소, 인적교류 등에 부응하는 개선방안의 모색해야한다. 향토음식 판매사업의 활성화와 농산물 직판과의 연계구상해야 한다.

2)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주 라인스왈러(Leinsweiler)

가) 끝없이 펼쳐진 포도밭 장관

독일 중서부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주 남쪽의 조그만 마을 라인스왈러



라인강변에 아담하게 형성된 라인스왈러 마을 (위), 스투빙어씨의 c 자형 민박집 (아래 왼쪽) 뒤로 포도밭이 끝없이 펼쳐져있다. 라인스왈러/유상호 전문위원

〈라인스왈러 마을 전경, 민박집, 포도밭〉

(Leinsweiler)는 포도를 상품으로 그린투어를 꽃피우는 곳이다. 독일 사법부가 위치한 칼스루에(Karlsruhe)에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1200년 된 마을이다. 자동차로 두 시간 거리에 프랑크푸르트, 하이델베르크 같은 유명도시가 있다.

지난달 말 기자가 이곳을 찾았을 때 마을 주변에는 끝없는 포도밭이 펼쳐져 있었다. 그 유명한 독일 라인강변의 포도밭 중심지에 들어선 것이다. 라인강과 모젤강변에서 생산되는 포도가 독일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라인스왈러 마을에서 포도농사와 포도주를 생산하는 집은 18농가. 이중 10여 농가가 민박 등 그린투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가장 유명한 것은 매년 5월28일에서 6월1일까지 나흘간 갖는 포도주 축제. 이 때를 포함해 연중 5만여명의 도시민이 라인스왈러 마을에서 하룻밤 이상을 머물다 간다. 생산되는 포도주의 25%가 이렇게 찾아오는 그린투어 관광객들에게 판매된다.

나) 중·노년 중심 年5만명 방문

이 마을에서 농가민박을 하고 있는 베테라 스투빙어(Better Stubinger)씨는 포도 재배와 포도주 제조에서 국가 공인자격을 가지고 있는 마이스터다. 포도 3만6천평과 사과 3,000평을 재배하면서 1988년부터 민박을 추가했다.

스투빙어씨는 “양질의 포도주를 마음 놓고 먹고 싶어하는 중·장년층이 주로 찾는다”며 “보통 1~2주 길게는 3주까지 머물다 간다”고 말했다. ‘강변의 아름다운 경관속에서 느긋하게 포도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이게 라인스왈러의 그린투어 컨셉트인 것이다.

상지대 김성훈 총장은 “독일에서 과수 와인농가에 그린투어를 하러 오는 비율은 5%도 안되지만 대부분 특화된 계층”이라며 “우리도 이처럼 차별화된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투빙어씨 집은 15년전 2층의 침실 2개와 거실 1개를 리모델링해 민박을 시작했다. 지금은 방이 4개에 침대가 10개다. 규모가 크진 않지만 독일농업협회(DLG)가 인정하는 시설기준에 합격했으며 별 4개의 품격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스투빙어씨 어머니가 농가민박을 위해 ‘농가정 경영직업학교’를 졸업, 전문적 식견을 갖췄다.

다) 마이스터 직접 포도주담가

집은 ㄷ자형 구조로 1층은 식당과 포도주 제조시설, 판매장이다. 방은 25평부터 9평형까지 4가지 형태가 있으며 베란다에 나가면 마을의 수려한 경관이 한눈에 들어온다.

방마다 조리가 가능하며 거실과 침실이 분리돼 있다. 물론 TV와 냉장고, 가구, 식기 등이 비치돼 있다. 사용료는 4인용 방이 하루 49유로(약 6만8천원). 대개 1주일 이상 머물기 때문에 3일 이하 사용하는 손님에게는 하루 60유로(8만3천원)를 받고 있다. 스투빙어씨 농장에서 생산되는 포도주 품종은 모두 26종. 이 중 독일전체에서 0.03%(9만평)만 생산되는 시저레베(Siegerrebe)라는 품종이 단연 인기다.

이 품종은 모두 무농약으로 재배되며 10월 하순쯤 손으로 직접 수확한 뒤 불순물을 제거한다. 스투빙어씨가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포도주를 담근다.

포도 하나로 5만명의 도시민을 부르는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3) 뤼센

가) 창문 열면 山내음 물씬

독일 남부 뤼센 남쪽에 인구 1만4천명의 뤼센(Fussen)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다. 뤼센이란 지명에는 생소해도 노이슈반슈타인 성(Schloss Neuschwanstein) 즉, ‘백조의 성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관광객들은 ‘아하’ 하고 고개를 끄덕인다. 백조의 성은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랜드의 성을 지을 때 모델로 삼았을 만큼 유명하다. 오페라 ‘로엔그린’ 중 백조의 전설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한다.

이 성에서 남서쪽으로 국도를 따라 붉은 지붕의 농가들이 펼쳐진 산길을 15km쯤 가면 운터조흐(Unterjoch) 마을이 나온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국경 인근의 알게우 알프스산맥 끝 지점. 산악 그린투어리즘을 실현하는 곳으로 독일내에서도 꽤 유명한 파이퍼뮐레(pfeiffermuehle) 농가는 여기에 있다.

무농약 유기농산물 직판-파이퍼의 농가에서 창문을 열어젖히면 알프스 산이 손에 잡힐 듯 들어온다. 겨울철이면 유럽 각국에서 스키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휴양지다. 이곳에서 파이퍼는 민박과 과수, 농산물 직판을 동시에 하고 있다. 총 과수면적이 15ha로



독일과 오스트리아 국경 근처에 있는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 뤼센마을 전경(사진 위), 알프스 산간지역에서 과수농사와 함께 민박 집을 운영하는 파이퍼와 그의 민박집.

〈바이에른주 뤼센마을 전경, 민박집〉

사과(11ha), 체리(2ha), 배와 살구 등이다.

파이퍼는 1988년부터 농가민박을 시작했는데 정부보조금을 받아 축사 두 동을 콘도형 펜션(Freiwning)으로 고쳤다. 그는 “민박 수입이 그후 계속 늘어 1996년 농장 옆에 있는 창고를 생태형 농가주택으로 개조해 어린이를 위한 농가민박을 따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이퍼 농가에는 가족단위 도시민들이 주로 찾는다.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한 조그만 동산에 야생화를 심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갖추는 등 어린이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한 때문이다.

민박 방은 22평에서 12평형까지 다양하다. 하룻밤 자는 데 1인당 13유로(1만8천2백 50원)로 한 방에 3~6인이 사용할 수 있다. 방마다 샤워부스, 베란다, 거실, 부엌, 조리

기구, 냉장고, TV, 옷장 등이 있어 오랫동안 머무르는 데 불편함이 없다. 자고 일어나 베란다에 나가면 알프스 산내음이 물씬 풍겨 여행객의 발길을 잡는다. 부대시설로는 수영장, 사우나, 마사지실, 탁구대와 당구대가 있고, 실외에는 여러 가지 운동이 가능한 미니 그라운드도 있다. 식사는 아침이 7.5유로, 저녁이 10유로이며 B&B(Bed and Breakfast) 타입은 20유로다. 파이퍼의 농가 주변에는 해발 2,000m 안팎의 스키장이 여러 곳 있다. 정상부에서 하단면까지 표고차가 1,100m에서 200m까지 다양한 형태의 슬로프를 가지고 있다.

나) 겨울엔 스키관광객 몰려

이 농가에서는 2000년부터 무농약 유기농산물을 직판하고 있다. 주로 주인인 파이퍼가 생산한 과일이나 가공한 잼, 요구르트, 빵, 케이크 등이다.

매년 여름 이 농가를 방문한다는 데닝거 부부는 “아침 식사때 직접 만들어 나오는 체리 요구르트가 인상적”이라며 “알프스 체리의 상큼한 맛과 요구르트의 신맛이 절묘하게 조화돼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전한다. 이 농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농산물은 생산과정을 볼 수도 있으며 주인과 대화하면서 맛도 볼 수 있어서 좋다고 고객들은 말한다.

중앙대 산업경제과 윤석원 교수는 “고원지대를 활용해 여름과 겨울의 고객유형을 특화한 그린투어로 강원도와 같은 중산간 지역에서 참고할 만하다”며 “농가민박의 비중이 농업소득이나 보조금 비율보다 높은 예”라고 말했다.

나. 프랑스의 알사스

1) 농촌관광 : Tourism en espace rural

관광산업이 프랑스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7% 수준으로 농업 부문의 GDP 비중보다 두 배 이상 높다.

프랑스 농촌관광 시장규모는 전체 관광매출액의 약 20%에 달하며, 이는 프랑스 GDP 생산의 1.4%에 달하는 규모다.

프랑스 전체 관광객 수는 1996년에 6억명, 2010년에는 10억명으로 예상되며, 2020

년에는 16억 명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프랑스인들은 전체인구의 75%정도가 하루이상의 숙박일정을 갖는 여행을 즐기며 2/3는 4일 이상의 숙박일정으로 바캉스를 떠나는 것이 특징이다.

숙박일정의 90%를 프랑스내에서 보내며, 바다연안(청색관광) 30.3%, 농촌관광(녹색관광) 27%, 지방도시 관광 24.5%, 산악지역관광(백색관광, 스키) 14.2%순으로 조사된다(프랑스 전문 조사기관 SOFRES).

프랑스에서 농촌관광은 농촌공간(2천명 미만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관광과 관련된 모든 활동 의미다.

프랑스 농촌관광은 숙박일수 기준으로 프랑스 전체관광 숙박 일수의 약 29%에 달하는 시장점유율을 가질 정도로 활성화 되어 있다.

2000년도 농촌관광 지출의 총액이 130.72 억 유로로 추산되는데 이는 전체 프랑스 관광규모의 19.4% 차지한다. 관광숙박 시설중 총 침상수의 50%가 농촌지역에 분포(약 800만개)하며, 20%가 관광시설 등급을 적용 받고 있다.

프랑스의 농촌관광부문은 3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브랜드화와 품질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촌관광 상품의 진정성을 바탕으로 여타 관광부문을 상대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농업회의소 등 관련조직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프랑스 농촌관광 발전전략의 특징은 농촌관광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목표로 범 부처간 (국토정비청 DATAR, 관광부, 환경부, 농림부)에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다.

브랜드화된 주요 농촌관광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농촌관광 상품을 유형화하고, 각각에 대한 품질현장을 제정해



〈프랑스 리크위르〉

네트워크의 코어에 해당하는 조직을 통해 농촌관광 상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관리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농촌관광 상품을 행정단위가 아닌 지리적, 역사문화적 동질단위(pays)를 통해 효과적인 마케팅 단위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가) 프랑스의 농업관광 : Tourism agricole

1990년대 이후 EU 공동농업정책 개혁, WTO 체제 출범으로 인한 새로운 농업환경 속에서 농업경영 다각화를 통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 있으나, 경쟁력 강화가 요구하는 경영규모의 확대 및 전업화 경향으로 인해 오히려 농업경영활동 다각화가 둔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농촌관광을 위한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의 급격한 증가를 통한 농촌관광에 대한 사회적 수요중 많은 부분을 담당하려 했으나 오히려 비농업 부문에 흡수되고 있다.

2000년 농업 총조사 결과 프랑스 농업의 경영활동 다각화 노력은 농촌관광이나 농산물 직판사업 부분에서 지난 10년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2000년 현재 66만 농가 중 10만이 농산물 직판사업에 관여해 포도주, 염소, 양, 과수재배 등에 종사하고 있다.

농촌관광사업에는 1만 8천 농가가 음식업 또는 숙박업을 통한 농촌관광업을 겸업한다.

Gite, d'hote의 경우 1만 3천개에 달하는 것으로 식당과 숙박을 동시에 겸하는 추



〈프랑스 리크위르〉

세로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프랑스 농업경영 다각화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이 농업 활동 규모의 거대화를 들 수 있다.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지면적 확장, 경영규모 개선 등으로 유입되는자본에 의해 농촌관광과 같은 추가 경제활동에 대한 여유가 없다(실제 경지면적은 농가당 평균 2000년 42ha로 20년 사이 두배 증가).

프랑스 농촌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은 가족농이 발달한 남부지방이며, 이는 관광자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 남부 지방의 경우 전체농가의 5~9%가 농촌관광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직판 및 식당, 숙박업, 농산물 가공판매업을 겸하고 있다.

나) 프랑스 농촌관광의 브랜드 차별화 전략

－ 하나의 브랜드로 잘 짜인 농촌관광 공급자 네트워크

프랑스 농촌지트협회와 농업과 관광, 농민적 접대 등 3대 조직을 중심으로 농촌관광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화 및 공동마케팅, 공동 품질관리를 위한 프로토콜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사무소 운영까지 할 정도로 체계적으로 구성된다.

Bienvenue a la ferme (농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의 경우 숙박, 직판장등 9개의 브랜드가 프로토콜을 통해 지정되어 있으며, 프로토콜에는 각각의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 요건과 승인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각각의 브랜드를 사용할 경우 그에 대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다) 프랑스 농업회의소

1988년 농업회의소 중앙회(APCA)에 설치된 '농업과 관광' 사무국의 주요 임무는 INPI에 등록되고 농업회의소 중앙회 소속으로 된 Bienvenue a la ferme 마크와 농촌관광의 발전을 목표로 농업회의소 전문가와 농민단체가 참여한다.

농촌관광 상품의 개발, 9개 관광상품에 대한 품질관리 감독, 농촌관광에 대한 서비스 향상 연구를 담당

〈프랑스의 그린투어리즘 관련 조직현황〉

조 직 명	주 요 사 업 내 용
농업회의소 “농업 관광협회”	농업회의소에서 의뢰받은 농업시찰 단체여행을 기획하는 조직으로 1952년에 설립되었으며, 1981년부터는 ‘농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Bienvenue a la Ferme)’라는 공동 상표 네트워크를 구성, 가입 농가를 중심으로 민박사업 추진
“지트 드 프랑스” 전국협회	농촌의 주택을 보수·유지하고, 농촌인구의 유출을 방지하며, 저렴한 요금으로 양질의 숙박시설을 제공하고자 1955년에 설립된 프랑스의 전국 민박조직으로서 현재 까지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음.
“가족 휴가촌협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농촌의 숙박시설을 제공하고자 1959년에 설립
“롯데” 전국연맹	전쟁으로 황폐해진 농촌의 소규모 호텔을 부흥하기 위해 1949년에 발족
“농촌관광진흥 센터(TER)”	농촌관광의 진흥을 위해 지트 드 프랑스 전국연맹과 롯데 전국연맹, 가족 휴가촌 협회, 농업 관광협회, 각 주의 관광위원회 전국연맹이 1971년에 창설. 현재 협회에는 관련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은행, 관광 레저 관련기관 등 30여개 조직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관광부, 농업부, EU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조사와 연구 및 정책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Gite de France “의 민박 유형 구분〉

민박 유형	서비스 내용
독채 대여형 (Gite rural)	가족이나 소규모 단체가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농가를 독채로 대여
객실 대여형 (Chambre d’Hotes)	주로 아침 식사와 객실을 제공, 외국인 이용객 비중이 높음
아동용 민박 (Gite d’Enfants)	농가에서 4세 이상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방학중에 운영(연령별로 유형이 세분)
농가 캠핑장 (Camping la Ferme)	농가의 부지 또는 삼림 등에 캠핑장을 마련(매우 저렴한 가격임)
간이·단체민박 (Gite d’Etappe·de Groupe)	윗 층은 객실, 아래층에는 공동 편의시설을 둔 저가형 민박

네트워크화된 농촌관광 시설에 대한 브랜드화 사례

2) 알사스 포도주마을

프랑스 알사스지방의 포도주마을 리크위르(Riquewihr). 수백년 고성 안에 있는 마을은 온통 포도밭이다. 리크위르 마을 뒤에는 보주산맥이 병풍처럼 펼쳐져있고 동쪽으로는 라인강이 흐른다. 일조량이 풍부하고 연강우량이 500~600mm 안팎이다. 마을 앞 포도밭은 광활하다.

마을은 관광지로도 손색이 없다. 마을엔 500년 이상 된 고가가 많다. 전통가옥들은 대부분 문화재로 지정돼있다. 마을 사람들은 포도농사를 지어 백포도주를 만들고 있다.

리크위르는 관광과 농업이 잘 조화돼 있다. 마을에서 생산된 리슬링(Riesling) 포도주는 역사도 깊다. 리슬링은 알사스 지방에서는 1400년대 이전부터 재배돼 왔다. 이 마을에서 생산된 포도주는 프랑스 내에서도 명성이 높다. 토질은 점판암이 섞여있는데 이곳에서 재배된 포도는 미네랄향과 특유의 부싯돌향이 난다. 10년 이상을 저장해도 그 맛과 향은 변함이 없다고 한다. 상쾌한 사과향과 복숭아향이 은은하게 배어있는 포도주 맛을 보기 위해 마을을 찾는 관광객도 많다. 리크위르 주변에는 페이장이나 포름, 지트 같은 농가민박이 있어 숙박시설도 잘 갖춰진 편이다.

리크위르 주변 풍광도 아름답다. 리크위르는 콜마에서 스트라스부르로 가는 도중에 있다. 이 길은 광활한 포도밭을 따라 가는 포도주 가도(La Route des Vins)라고 이름이 붙었다. 프랑스에서도 아름답기로 소문난 곳이다.

리크위르는 인구 2,000여명의 작은 마을이지만 관광과 포도주판매 농가민박 등으로 호당 1억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아름다운 고성, 명성이 있는 포도주와 쿠키, 관광객이 편히 쉴 수 있는 농가휴식공간... 리크위르 마을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다.

다. 오스트리아의 티롤 엘마우

1) 오스트리아의 농촌그린투어 현황

오스트리아의 관광업은 오랜 역사를 지니며 이전부터 농촌의 개인경영 등의 농가민박은 오스트리아에서 관광서비스 분야는 인기가 높다. 그런데 1970년대부터 80년까지 관광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급속하게 변화되었다. 관광객이 단순한 기분전환의 레크리

에이션을 위하여 오스트리아를 방문하지 않았고, 현재 관광객은 보다 지적인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관광객들은 오스트리아에서의 체재가 자기 개인을 위해 어느 정도 이점이 있는가를 잘 생각해서 여행을 하는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 같은 관광객들은 스스로 왜 이 리조트나 특정의 호텔에 머물지 않으면 안 되는가? 혹은 왜 농가가 경영하는 농가민박에 머물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이 결과 아무리 숙박요금이 저렴해도 명확한 마케팅 컨셉을 가지고 있지 않고, 타성으로 경영을 계속하는 농가민박은 큰 경영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 후 관광객에 대해서 객실을 제공하는 일부의 농가는 보다 전문적인 마케팅을 실시하기 위해 숙박업 단체를 조직하게 되었다. 이 같은 조직구성은 처음 지역단위에서 발생되어 그 다음은 주단위로 파급되었다. 그 후 국가수준의 이 같은 농가 숙박업 단체로 오스트리아 농촌휴가협회(Bundesverband fuer "Urlaub am Bauernhof" in Oesterreich)가 결성되었다.

지금은 이 농촌휴가협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숙박서비스 등과 함께 생존전략으로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컨셉이 실행되고 있다.

더욱이 이 협회는 새로운 계획이 계속 준비되고 있다. 협회는 엄격히 차별화시킨 서비스를 무기로 농가에서 휴가의 브랜드화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운동은 농가의 소득을 보전시키고 관광객들에게 오스트리아 농가에서 의미있는 귀중한 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공헌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약 2만 천개의 B&B형 농가민박 또는 아파트 형태의 농가민박이 있다. 이 농가민박이 경영하는 침대수는 20만개에 이다. 이것은 오스트리아 전체 농가 중에 약 7.5%가 이와 같은 숙박업을 경영하고 있고, 그들이 제공하는 침대수는 오스트리아 전 숙박시설이 제공하는 침대수의 약 18%를 차지한다.

오스트리아 농촌휴가협회에는 약 3700의 회원농가가 있고, 가맹농가가 제공하는 침대수는 약 4만 5천개이다. 이 수는 오스트리아 수도인 빈 전체의 숙박시설이 제공하는 총 침대수와 대략 비슷하다. 이 가맹농가는 비 가맹농가에 비하여 관광업에 크게 큰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고, 농작물 및 숙박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있다.

가맹농가 전체의 숙박시설 중 80%가 샤워와 화장실 등의 객실 또는 아파트 형태이다. 낮은 수준의 객실은 낮은 가격일지라도 결국 경영이 곤란해진다. 20%는 아직 이러한 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 농가가 경영하는 농가민박에서는 숙박과 아침식사가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할프보드(Halfboard: 원칙적으로 조식과 석식 제공)에서의 숙박서비스의 제공할 경우에는 농가자신이 생산한 농산품을 이용하는 등 그 지역의 향토요리를 제공해야 만 한다.

특히 극단적인 과소지에서 근처에 음식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식사 제공이 필수가 된다. 최근에는 아파트의 인기가 급증하고 있음. 아파트에서는 식사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경영부담이 적다. 반면에 조식촌 또는 할프보드 대여의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숙박객의 60% 재방문자이고, 가맹농가의 상당수가 이러한 경향이 증가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는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숙박이외에 특색 있는 관광서비스의 개발이 시급하다.

낚시, 승마, 크로스컨츄리, 스키, 건강지향의 패키지 등이 보완되고 있고, 지역 주별의 카탈로그를 별도로 (승마가 즐거울 수 있는 농가민박편)이나 신체장애자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펜션 등 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펜션 차츰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카탈로그는 전국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에 덧붙여 숙박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낙농제품과 야채 등의 농산품과 지역의 민예품의 직접 판매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펜션도 증가하고 있다.

경영면에서 현저한 특징으로서 숙박시설의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경영전략에 있어서 우위에 서 있다고 하는 경향을 지적할 수 있다. 이것은 이와 같은 경영규모가 큰 농가가 재정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옛날부터 관광서비스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왔기 때문이다. 각 통계자료에 의하면 가맹농가의 경영 상태는 비가맹농가의 경영 상태에 비해서 꽤 우수한 편이다.

가맹농가가 경영하는 펜션의 최근의 가동상황이지만 계산상 1년 내에 손님에 찬 날짜는 평균 90일이다. 이 숫자는 오스트리아 전 국토의 호텔을 포함하여 이른바 숙박시설의 평균보다 약 10% 적지만, 오스트리아 전 국토의 농가가 경영하는 전체 펜션의 평균

치보다 대략 50% 높은 수치이다.

숙박객이 가맹농가의 펜션 체재 기간 중 하루에 소비하는 평균적인 비용은 2004년의 여름에 6만 5천 원 정도이다. 2004년부터 2005년에 걸쳐 겨울의 10만원 정도다. 가맹농가의 평균적인 연간매상은 약 2천2백만원이다. 식사제공에 있어서 농가에 생산되는 식재료가 그대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고, 스태프가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의 대부분이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오스트리아 산악농가의 평균 연 수입은 약 3천만원 정도다. 더욱이 이 금액 중 약 2백만원 정도가 정부 보조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즈니스에 의해 얻어지는 금액은 약 1천1백만원이다. 이런 것으로부터 가맹농가의 농가민박 경영효율이 얼마나 우월한 위치에 있는가를 알 수 있다.

2004년의 조사에서는 가맹농가의 약 60%가 숙박설비의 정비를 위해서 적극적인 설비투자를 하고 싶다고 희망했고, 이 분야의 비즈니스가 역동적으로 계속 성장해 갈 것으로 판단된다.

2) 티롤 엘마우 농촌민박

엘마우는 오스트리아 티롤 중심에 위치한 마을로 엘마우 스포츠 호텔 주변에 마을이 입지해 있다.

엘마우는 지역적 특징이 2가지임 하나는 겨울철 스포츠의 메카로 스키장이 여러 개 있으며 한해 1백만명 이상의 스키객이 유럽에서 오고 있음 스키리프트도 여러 개가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민박을 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서늘한 고원기후와 천연 들꽃들이 아름다운 초지와 집락경관이 조화로운 어메니티를 연출해 찾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티롤 엘마우 마을 전경〉

민박을 한 곳은 엘마우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과거의 소외양간을 집으로 리모델링 해서 만든 농가민박이다. 집은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층은 주인의 관리실과 식당이 위치해 있으며 2층과 3층은 객실이다. 객실은 2인실이 6개소가 있으며 가족실과 단체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2인실의 경우는 화장실, 샤워실, 침대 2개, 베란다가 있으며 정갈하고 상큼한 느낌을 주고 있다.

주인 내외는 이제는 민박만 영위하고 목축과 임업은 아들들이 하는 가족농형태를 영위하고 있으며 수입은 밝히지는 않지만 매우 높다는 인상을 받았다.

농가민박의 자세에 대해 도시민의 입장에서 편안하고 지역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와 안내를 잘하는 것이라면서 아침은 내집같이 해주고 지역음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박 운영 현황은 겨울철 스키여행이나 여름휴가철 산책, 자전거여행 등 농가에 1주일 정도 체류하며 휴양과 휴식을 즐기는 가족단위(자녀와 함께) 방문객 대상 민박은 연 100일정도의 관광객이 방문한다. 2인실 숙박료(33 Eur), 4인실 숙박료(40 ~ 45 Eur)정도로 인터넷을 통해 예약을 받지만 수십년 전통에 아는 사람들의 전화예약으로 접수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독일어를 사용하고 있다.

엘마우지역은 농가소득에 40%정도가 민박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며 민박신축 시 Eu단위 보조금과 매년 보조금을 책정 지급받다.

라. 스위스의 애쉬

1) 스위스의 그린투어 현황

스위스는 현재 농가인구가 3~4%다. 베른주는 산지이기 때문에 농가인구가 다른 주보다 많아 7~8%를 차지하고 있다. 스위스의 농업정책은 이전에 농업생산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는데, 현재는 자연 및 문화경관 보전 국민의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 지속가능한 통합적 농촌개발을 한다.

산지농민은 도시노동자와 소득격차가 크다. 그러나 산지농민은 주변에 자연, 문화경관이 높기 때문에 삶의 질이 높다. 현재 스위스 농업정책은 농민들로 하여금 부수입을 늘이는 것과 직접 보조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도시노동자와 소득을 비슷하게 하는

것이 정책의 기조다. 부수입원을 늘리는 방법은 농업과 목수, 산림, 건축, 서비스(민박, 호텔) 등의 겸업을 하도록 한다.

스위스는 연방제 국가이지만, 농업정책만은 연방국가가 조정하고 있다.

연방정부에 의해 직접보조는 소규모 농민이 경영을 확대하기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스위스 국민들의 50% 이상은 농업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농업에 대하여 스위스 국민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자연경관과 문화경관 등 좋은 농촌자원을 지키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다.

스위스 정부가 농가에게 주는 직접보조는 매우 많은 편이다. 10ha 정도를 가진 낙농농가는 3만 프랑(약 3천만원) 정도를 받고, 낙농을 하지 않는 농가는 경영이 더 어렵기 때문에 4만 프랑(약 4천만원)을 받았다. 그리고 약 50ha를 가진 농가는 약 5만 프랑(약 5천만원)을 지원 받고 있다. 농촌지도의 방향은 경영구조를 개선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농가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그 역할을 농업직업학교가 담당하고 있다.

이 학교는 기초농민직업교육, 농촌지도사업, 일부행정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알프스 고산지 농업 및 일과 관련된 이론, 실무 기술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베른 주에는 과거에는 이러한 학교가 7개 있었지만, 현재 3개이고, 앞으로 하나를 더 줄여 2개로 할 계획이다. 그리하여 하나는 고산지에 속한 축산학교와 평야지의 주작물인 경종학교를 둘 계획이다.

2) 애쉬

동화 속에 나오는 에메랄드빛 호수가 눈앞에 그림같이 펼쳐진 곳, 고개 돌려 산을 보면 3,000m가 넘는 알프스 만년설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있는 곳, 찬란한 어메니티가 있는 곳, 그곳이 스위스 애시(Aeschi)다.

애시는 융프라우로 가는 길에 있는 호반도시 인터라켄(Interlaken)에서 동쪽으로 12km 떨어져 있다. 2006년 12월 현재 마을주민이 정확히 1,978명. 이중 50여 가구가 농사와 함께 그린투어를 하며 이곳에 연간 7만여명의 도시민들이 농촌체험을 하러 온다.

스위스에는 전국 1,200여개의 치즈 생산지에서 연간 13만t의 치즈가 생산되며 애시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멘탈 치즈 중에서도 특상품만을 생산한다. 애시의 치즈가 그린투어 관광객들이나 도시민들에게 인기있는 것은 무공해 천연치즈라는 점 때문이

다. 천연 목초지에서 풀을 먹은 소들에서 나온 우유를 사용하는 데다 치즈 가공 역시 전통적인 방식에 따르기 때문이다.

일반치즈는 지하저장고에 보관되지만, 애시 치즈는 습기 찬 바람이 부는 고원저장고에서 발효시키며 이것이 맛의 비밀이다. 애시 치즈 맛은 스위스 치즈 중에서도 가장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나며 체리향도 남 포도주와 곁들여 상큼한 융프라우 알프스 바람과 함께 치즈를 먹는 기분 그것이 스위스어메니티라고 말 할 수 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왔다는 한스 페이터(46)는 “사람들은 이 기분을 느끼러 이곳에서 그린투어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치즈가격은 100g에 1만원선으로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치즈가격보다 10배나 비싸지만 제네바나 취리히에서 오는 도시민들과 전세계에서 융프라우를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대개 몇kg씩 사가지고 간다. 애시의 농가 13곳에서 6~9월까지 넉달간 3,200kg을 생산하는 데 이중 절반 정도가 직판된다.

이러한 치즈의 생산이 왜 어메니티와 상관이 있는지 의문스럽지만 결국 스위스의 경관이나 어메니티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안전한 먹거리생산과 안심할 수 있다는 신뢰가 결국 세계최고가의 치즈를 생산하고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은 교훈이다.

애시에서는 산악지방의 전통인 씨름 슈빙겐(Schwigen)이 유명하다.

스위스 씨름은 ‘로잔 성당’에서 발견된 13세기 문헌에 처음 기록이 나올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애시를 비롯한 베른지역의 여러 산악지방에서는 슈빙겐이 중요한 축제행사로 전해내려 왔고 지금도 성행하고 있다. 올 9월 3일 애시에서는 ‘스위스판 아마추어 민속씨름대회’가 열렸고 스위스 전역에서 약 80여명의 농부선수들이 몰려와 대성황을 이뤘다 민속놀이를 테마로 하는 그린투어가 성공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준 것으로 이는 주변 어메니티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스위스국립농업연구소의 로버트 바우어 박사는 “애시와 같이 씨름이나 요들송 부르기를 마을축제로 승화시켜 이것을 어메니티와 그린투어로 활용하는 마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애시에서는 여름 그린투어로 낙농과 치즈체험, 산악자전거타기, 산악승마타기, 패러글라이딩, 산책과 등산, 라마 트레킹(Lama trekking)이 가능하다. 겨울에는 주로 스키를 탈 수 있다. 알파인스키코스과 경관이 수려한 노르딕코스가 있다.

참고문헌

- 강형기, 2002, 향부문: 문화로 일구는 지방경영, 비봉출판사.
- 김선희 등, 2004, 국토개발사업의 환경가치 평가기준 및 적용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 김선희, 2006, 어메니티 복원과 창출을 통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기획위원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와 지방의 미래정책토론회.
- 김성훈, 2006, 녹색어메니티의 창출과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국토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4, 주민참여계획모델에 의한 농촌어메니티 자원발굴 및 설계기술 현장적용.
- 박양호, 2006, 살기좋은 지역으로의 질적 발전과 세계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 박진도, 2006, 농업·농촌자원의 가치증진과 활용확대방안.
- 엄대호, 2007, 농산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어메니티 접목방안.
- 이상영, 2007, 제주 돌담 문화자원의 가치평가 및 보전 방안,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촌자원과 생활 109호, pp.37~49.
- 이재준, 2006, 국내외 어메니티 정책 및 계획사례, 국토연구원, 국토사사키 마사유키, 정원창 옮김, 창조하는 도시; 사람·문화·산업의 미래, 한림신서 일본학총서 75, 소화.
- 성경룡, 2006, 살기좋은 만들기 정책의 비전과 과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 문동신, 2005, 농산어촌 어메니티의 자원화 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상수, 2006, 관광서비스관리론, 백산출판사.
- 박덕병, 2005,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외국의 농촌개발정책,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박석희, 2002,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촌어메니티자원 활용기술,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한국농촌계획학회, 농촌어메니티 보전 및 관광자원화 방안 심포지엄자료집, pp.57~81.
- 모치다 노리하루, 농산어촌의 어메니티 확립과 지역진흥방책 및 선진사례.
- 사카이 겐이치 지음, 김승환 감수, 김해창 옮김, 1998, 환경을 넘어서는 실천사상 어메니티, 도서출판 따님.

- 조순재, 2006, 농촌어메니티와 관광활성화, (사)농산어촌어메니티 연구회 정기총회.
- 西村幸夫(니시무라 유끼오), 어메니티와 지역디자인, 지속가능한 사회의 디자인 생존과 어메니티의 공공공간, 새로운 자치체의 설계3, 有斐閣.
- OECD, 1999, *Cultivating Rural Amenities: An Economic Development Perspective*, Paris: OECD.
- 이종규, 1997, 서울 관광마케팅 지원전략연구, 시정연 97-R-30,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이정록외, 1997, “이벤트관광 관광객의 행태적 특성분석: 전남 낙안의 남도음식축제를 사례로,” 지리학연구, 제29집, pp.59~84.
- 이정록, 1988, “광주·전남지역 관광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지역개발연구, 제30권 제1호,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pp.161~190.
- 이정록, 1988, “광주전남지역 관광자원 및 관광환경의 특성분석,” 지리학연구, 제32집 4호, pp. 67~86.
- 이정록, 2000, 『지방화시대의 지역문제와 지역정책』 도서출판 푸른길.
- 이정록, 2000, “21세기 중남부권의 지역발전 촉진방안,” 『전남중남부권의 21세기 발전전략 심포지움 자료집』 한국지역학회, pp.47~78.
- 함평군, 2003, 「2003 함평 나비축제 성과 보고서」
- 모성은 외, 2004, 「함평 나비축제의 지역경제 연계방안」
- 함평천지, <http://www.inabi.or.kr>
- 김병률 외 2인, 2000,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병률 외 2인, 20001,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소정 협력사업 2차년도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성준, 강영훈, 1997, 지역산업진흥정책을 위한 분석의 틀에 관한 연구: 일본의 사례연구와 Nutt와 Backoff의 제3섹터에 관한 관리전략을 중심으로. 법과 정책 제3호. 제주대학교 법과 정책연구소.
- 김순귀 외, 2004, SPSS를 활용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이해와 응용. SPSS 아카데미.
- 농림부, 2002,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개발모형 정립과 실용화 방안.
- 농어촌연구원, 2002, 농촌 소득기반과 연계되는 생태·문화자원의 활용방안 연구. 농업기반공사.
- 농어촌연구원, 2003, 그린투어와 연계된 생산·생활기반시설의 정비 및 활용방안연구. 농업기반공사.
- 농정연구센터, 2004, 농촌개발의 종합적 전략에 관한 연구. 농림부.
- 농협조사연구서, 2005, 농촌사랑운동의 사업모델 연구. 농협중앙회.

- 도농교류활성화 및 도시자본투자유치 종합 대책반, 2003, 「현지확인결과보고서」. 농림부
- 도농교류활성화 및 도시자본투자유치 종합 대책반, 2004, 「도시민과 함께 하는 농촌 가꾸기 종합대책」. 농림부 도시·농업공생공간연구회
- 박윤호 외, 2003, 농촌관광 시설 및 서비스의 표준화와 등급화 방안.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 (사)21세기 무라즈쿠리, 2000, 프랑스에 있어서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행정지원에 관한 조사 보고서.
- 송미령, 2003, 도농교류촉진을 위한 농촌어메니티 형성방안. 「2003년 새국토연구협의회 공동개최세미나: 그린투어리즘과 생활환경정비」. 농업기반공사·새국토연구협의회.
- 송미령, 2003, 농촌마을 관광모델과 주민참여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심완섭, 1995, 도농교류형 소규모 단지개발을 통한 조건불리지역의 경제활성화 방안. 토지연구 6(1)
- 아다치 스미오, 2002, 농림어업체험 민박을 통한 도시·농촌간 교류: 21세기의 이상향 다자 연거주지역. 월간 자치개발 8(4). 한국자치개발연구원.
- 윤재만 외1인, 2002, 「주5일 근무제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 농협조사부.
- 이상배, 1995, 도시와 농촌의 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나남출판사.
- 이주희, 1992,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도시와 관광촌·농촌간의 교류방안. 지방행정연수 30.
- 이창수, 1995, 도·농 지역사회단위 교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충남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상봉 외, 2002, . 농촌 소득기반과 연계되는 생태·문화자원의 활용방안 연구.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 임상봉 외, 2004, 농촌개발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연구. 한국농촌계획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 장경근, 1988, 농촌지역사회개발을 위한 도·농간의 자매결연.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국농업기술자협회, 2004, 2004년도 제 1차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지도자 과정.
- 전영미 외5인, 2003, 도시민의 선호를 바탕으로 한 농촌마을의 관광자원 실태와 정비방향. 『농촌계획』 9권(1호). 한국농촌계획학회.
- 전영미, 2003, 농촌관광을 고려한 마을정비방향. 『2003년 새국토연구협의회 공동개최세미나: 그린투어리즘과 생활환경정비』. 농업기반공사·새국토연구협의회.
- 전영미 외 1인, 2003,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마을의 조성방향. 『농어촌과 환경』 통권 제80호.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 조재환·김태균, 2002, 일본 소비자의 신선딸기 원산지별 선호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제 29권 제4호 pp.577~590.

- 조상필, 2004,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한 농촌 활성화 방안. 광주전남발전연구원
- 최동주, 2003, 일본의 그린투어리즘. 계간 농정연구 통권8호. 사단법인 농정연구센터.
- 최원국, 2000, 도·농교류 체험학습에 관한 학교구성원들의 의식과 문제점 분석.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관광공사, 1996, 농어촌관광개발 활성화 방안연구
- 한국관광연구원, 2001, 제2차관광개발기본계획.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우리나라 농촌관광 발전 방향 및 방안』. 농림부.
- 농촌사랑법국민운동본부, 2006, 1사1촌 자매결연 우수사례집.
- 송미령, 2005, 토고미 마을, 지역경영전략연구시리즈 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시현 외, 2003, 우리나라 농촌관광의 발전방향 및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진도 외, 2005, 농촌개발정책의 재구성, 한울 아카데미.
- 전국농업기술자협회, 2001, 도농 녹색교류 토론회 자료집.
- 전찬익 외, 2005, 농촌사랑운동의 사업모델, 농협조사연구소.
- 지역재단, 2006, 도농상생: 비전과 전략, 지역재단 창립2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
- 김경량·강종원, 2003, 강원도 새농어촌건설운동의 평가와 발전방향, 농정연구원 발표자료.
- 김성훈, 2003, 쿠바의 유기농업: 그 생성과정과 교훈 Cuban Organic Agriculture : Its
Motives, Success and Implications”, 한국유기농업학회 기조강연.
- 문동신, 2005, 농산어촌 어메니티의 자원화 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 반영운, 2006, 생태마을을 조성을 통한 농촌어메니티 향상 방안, 농산어촌어메니티연구회 정기
총회 발표자료.
- 윤원근, 2003, 농촌의 계획적 개발 및 활력증진을 위한 제도 모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새
국토연구협의회 발표자료.
- 유상오, 2005, 그린어메니티, 경향신문.
- 전성균, 2006, 국정브리핑, 알러뷰 농촌.
- OECD, 1999, Cultivating Rural Amenities: A Economic Development
Perspective.
- 박재길, 2002, “새국토법과 농촌지역 토지이용체계 방향”, 한국농업정책학회, 2002 하계 심
포지엄 「신농지정책과 농촌지역 활성화 방안」 자료집.
- 송미령, 2002, “국토계획체계의 개편과 농촌계획의 과제”, 농촌경제 제25권 제1호.
- 전성균, 2004, “경기북부지역 농업클러스터 형성전략”, 농협대학·경기도 포럼.
- 최막중, 2000, “국토이용 계획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국토연구원·대한국토도시계획학
회, 「국토이용 계획체계 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 최상철, 200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의 의의와 과제”, 도시정보 통권 241호.
- 최혁재, 2002, “용도지역·지구제의 개편 및 관리방안”, 『국토』 통권 245호.
- 하현경, 2005,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농촌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연구”, 농협중앙교육원 연구보고서.
- 유상오외 공저, 2003, “그린투어리즘의 이론과 실제, 백산출판사.
- 정재창외 공저, 1998, “핵심역량모델의 개발과 활용”, PSI건설팅.
- 테루야 하나코외 공저, 2001, “로지컬 씽킹”, 일빛.
- 사이토 요시노리, 2003, “맥킨지식 사고와 기술”, 거름.
- 김귀곤, 1994, 생태도시계획론.
- 김영민, 2001, 퍼머컬처 원리를 적용한 농촌마을의 환경계획,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김용수, 2001, 성공적인 생태마을 육성을 위한 비교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4, 주민참여계획 모델에 의한 농촌어메니티 자원발굴 및 설계기술 현장적용.
- 문동신, 2005, 농산어촌 어메니티의 자원화 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 사카이 겐이치(酒井憲一) 지음/김해창 옮김, 1998, 어메니티, 도서출판 따님.
- 송영배, 2002, 농촌어메니티 보전 및 관광자원화 방안.
- 오현석·김정섭, 어메니티와 지역개발, 새물결, 2002.
- 유상오, 2005, 그린어메니티, 경향신문.
- 이선호, 2000, 환경친화 건축의 설계 특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산업대학원.
- 조순재, 2003,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한 마을 개발 모형 -전통문화 어메니티 보전형 마을계획을 중심으로-, DDA 대응 농촌경제활성화와 어메니티 자원 개발 심포지움.
- OECD, 1999, Cultivating Rural Amenities: A Economic Development Perspective.
<http://www.kckc.or.kr>
<http://ebook.maf.go.kr>
<http://www.maf.go.kr>
<http://www.terrami.org>

(사)농촌어메니티연구회

◆ 책임연구원

유상오 (그린투어컨설팅 대표)

◆ 연구원

김선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반영운 (충북대학교 교수)

전성균 (농협대학 교수)

농촌어메니티 개발에 관한 연구

- 유형별 모형 및 사례 중심으로

초판인쇄 / 2007년 12월 30일 인쇄

초판발행 / 2007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 정태기

발행처 / 대산농촌문화재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2

교보재단빌딩 9층 대산농촌문화재단

전화 (02)922-1600 팩스 (02)922-2100

제 작 / 이만근 편집인쇄회사

전화 (02)2274-0332 팩스 (02)2274-0336
